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좇기’와 ‘찾기’ 사이:
대학생활의 교육적 가능성에 대한 질적 연구

201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전공
명 수 민

‘좇기’와 ‘찾기’ 사이:
대학생활의 교육적 가능성에 대한 질적 연구

지도교수 조 용 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전공

명 수 민

명수민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초 록

이 연구는 소위 '신자유주의' 혹은 '경제침체'의 시대로 인식되는 오늘날, 흔히 '곤경'과 '위기'에 처해 있다고 언급되는 20대 대학생들의 삶과 문화와 교육을 질적 연구와 현상학적 존재론의 관점을 통해 다시 이해해 보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나는 아홉 명의 연구 참여자들을 만나 이들의 대학생활 이야기에 주목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현상학적 존재론의 관점에서 이들의 '존재'와 '존재가능'에 주목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곧 대학생들의 '있음(being)'과 '되기(becoming)'의 존재론적인 역동과 생성을 교육학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는 뜻이다. 연구의 초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좇기'와 '찾기'라고 하는 이중적인 삶의 지향성을 현상학적 존재론의 관점에서 이론화했고, 이를 연구 내러티브의 분석과 해석 과정에서 주요한 키워드로 삼았다.

이 논문에서 내가 제기한 연구 문제, 즉 이끎-길은 다음 세 가지였다. 첫째, 대학생들은 어떤 '좇기'와 '찾기' 과정을 거치며 대학생활을 해왔는가? 둘째, '좇기'와 '찾기'는 어떠한 대학생활의 이야기 주제를 통해 표현되는가? 셋째, '좇기'와 '찾기'의 교육적 의미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본 대학생활의 교육적 가능성은 무엇인가? 나는 이러한 세 가지 질문이 이루고 있는 이끎-틀을 통해서 연구 참여자들의 대학생활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더 나아가 오늘날 대학교육에 던질 수 있는 함의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첫째, Ⅱ장에서 나는 첫 번째 연구 문제에 답하여 한지민, 정다인, 이한결, 민윤진, 유민정 다섯 연구 참여자의 대학생활 이야기를 소개하였다. 나머지 네 연구 참여자, 즉 송현진, 서주희, 박태훈, 김우진의 이야기에 비해서 '좇기'와 '찾기'로 의미화 될 수 있는 삶의 과정이 대학생활 이야기 속에 비교적 잘 드러났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은 각기 다른 리듬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왔다. 저마다 꾸면서 좇아온 꿈이나 목표도 달랐고, 저마다 중요시한 가치도 달랐으며, 찾아나섰던 대상이나 삶의 지향도 모두 달랐다. 나는 이들의 생애사적 과정에서 중요했던 전환점을 중심으로 대학생활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Ⅲ장에서 나는 두 번째 연구 문제에 답하여 대학생활의 이야기의 다양한 측면들을 '주제화'한 다음, '좇기'와 '찾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주제들을 연

접시켜 연구 참여자들의 복잡한 되기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먼저 좇기와 관련해서는 총 다섯 가지 주제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주제는 “그냥 대학생”으로서, 연구 참여자들이 마주하게 된 대학생 문화의 ‘범상성’이 얼마나 대학생들에게 특정한 모습을 좇기를 강요하는지에 대해 드러내었다. 두 번째 주제는 “학점관리”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활동을 하는 탓에 시간적 압력에 시달리고 강의실의 권력 관계에서 소외되면서, ‘효율성’의 관점에서 “학점관리”라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이는 “공부”와 “학점관리”를 동일시하는 경향 뿐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수업의 평가기준을 적극적으로 좇게 하는 기제였다. 세 번째 주제는 “나이가 많아지니까”로서, 연구 참여자들이 지각하고 체험하는 ‘나이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점점 다른 가능성을 찾기보다는 ‘안정적’이라고 지각되는 목표와 꿈을 좇는 경향이 있었으며, 때로 이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이중적 기준이기도 했다. 네 번째 주제는 “성인”의 시간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우울함 속에서도 사회생활이 얼마나 엄격한 위계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깨달아 갔으며, 점차 자신의 존재가능을 찾기보다는 주어진 사회적 조건과 압력을 좇아 스스로를 변양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다섯 번째 주제는 “부채감”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고비용의 대학교육 탓에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 졸업이 다가오고 ‘홀로서기’를 시도함에 따라, 이들은 부모에 대한 “부채감”을 강하게 느끼며 사회경제적 보상이 많은 특정 진로를 좇아가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찾기와 관련해서도 다섯 가지 주제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따로 또 같이’라는 주제로서, 연구 참여자들이 대학생활의 범상성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다가 자신에게 의미 있는 관계들을 찾아 나서는 과정의 역동을 드러내었다. 두 번째는 “청춘”의 시간이었다. 대학생 문화에서 “청춘”은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실험하는 시기로 인식되며, 연구 참여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한 길”만 가는 것을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여기기도 하였다. 세 번째는 “더 많은 경험”이라는 주제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청춘”의 시간에 발맞추어 주어진 시간 하에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사회생활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학부 시절에 최대한 “더 많은 경험”을 찾아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네 번째는 “나는 누구, 여긴 어디”라는 주제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생활을 하는 내내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찾고 있었다. 이는 물리적이고 관찰 가능한 공간을 뜻하기도 했지만, 자기가 소중하게 생

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나 모임을 뜻하기도 했고, 더 추상적으로는 “사회”와 “세계”가 자신과 맺고 있는 관계성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들에게 자리는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각자의 ‘존재이해’와 깊숙이 연관되어 있었다. 다섯 번째는 “세계”와 만나기라는 주제다. 연구 참여자들은 결코 한 대학 캠퍼스에만 머물지 않으며, 특히 고학년이 되어서는 “범학교 활동”이라고 분류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세계”는 여러 여건이 허락하는 한 삶의 다양한 가능성의 원천으로 인식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등 다양한 “해외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도 하였다.

셋째, Ⅳ장에서 나는 앞에서 다룬 대학생활 이야기와 여러 이야기의 주제들이 내포하는 교육적 의미와 가능성을 교육인류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해보고자 하였다. 교육인류학이란 삶의 형식으로서 문화와 교육을 중심으로, 특히 메타적인 삶의 형식으로서 교육의 관점에 주목하여 더 나은 삶과 문화와 교육을 모색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먼저 좇기와 찾기라는 이중적 지향성이 교육인류학적으로 어떠한 교육적 의미와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좇기 압력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일종의 ‘경계적 존재’로서 다양한 문화 사이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대학생활이 처해 있는 오늘날 한국의 거시적인 상황에 대한 해석을 통해, 오늘날 대학생들이 “불안” 속에서 ‘좇기’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학도 마찬가지로 ‘닦달(Gestell)’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나는 이러한 해석에서 더 나아가, 오늘날 대학교육이 어떠한 지향을 가지면 바람직할지 살펴보았다. 나의 잠정적 결론은 오늘날 대학은 더욱 ‘존재론적 대학교육’의 가능성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었다. ‘세계-내-존재’이자 ‘세계-로의-존재’로서 대학생들의 삶과 실존, 목소리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뿐 아니라, 대학 스스로도 더욱 존재론적인 관점 속에서 재구성 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대학생과 대학의 존재와 존재가능이 교육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의 대학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를 위해 새로운 ‘대학교육의 가능성’의 지평을 드러낼 수 있는 교육학적 상상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였다.

주제어: 대학생활, 대학교육, 현상학적 존재론, 존재론적 교육학, 교육적 가능성
학 번: 2010-23542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9
3. ‘좇기’와 ‘찾기’의 이론적 배경 11
4. 연구 과정 18

II. 대학생의 삶과 이야기 28

1. 한지민의 이야기 29
2. 정다인의 이야기 37
3. 이한결의 이야기 45
4. 민윤진의 이야기 52
5. 유민정의 이야기 60
6. 소결: 대학생활 이야기의 비교 67

III. ‘좇기’와 ‘찾기’: 대학생활의 이중적 지향성 71

1. 좇기 73
   (1) “그냥 대학생”: 대학생 문화의 ‘범상성’을 따르기 73
   (2) “학점관리”: 대학 수업을 경영하기 77
   (3) “나이가 많아지니까”: ‘나이주의’에 대한 순응 83
   (4) “성인”의 시간: 사회생활에로의 조율 87
   (5) “부채감”: ‘홀로서기’를 향한 고투 93

2. 찾기 ····· 99
(1) ‘따로 또 같이’: 관계 네트워크의 해체와 구성 ····· 99
(2) “청춘”의 시간: 가능성을 발견하기 ····· 104
(3) “더 많은 경험”: 다양한 경험의 계속적 확장 ····· 109
(4)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자리의 탐색 ····· 114
(5) “세계”와 만나기: 캠퍼스 경계를 넘어서기 ····· 120
3. 소결: ‘좇기’와 ‘찾기’의 융합과 전개 ····· 125

Ⅳ. 대학생활의 교육적 가능성: 해석 및 논의 ····· 130
1. ‘좇기’와 ‘찾기’: 교육인류학적 해석 ····· 132
2. ‘좇기’와 ‘찾기’ 사이에서: 존재론적 대학교육의 지향 ····· 146

Ⅴ. 요약 및 결론 ····· 156
1. 요약 ····· 156
2. 시작에서 끝으로, 끝에서 시작으로 ····· 160

참고문헌 ····· 167

Abstract ····· 177

표 차례

<표 1> ‘좇기’와 ‘찾기’ 지향성의 존재론적 얼개 ····· 14
<표 2>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 ····· 22
<표 3> 대학생들의 삶을 분석하는 다양한 방식 ····· 26
<표 4> 대학생활 이야기의 유형화 ····· 68
<표 5> 대학생활과 대학교육의 만남 유형 ····· 151

그림 차례

<그림 1> ‘좇기’와 ‘찾기’ 주제들의 교차와 융합 ····· 126
<그림 2> 좇기’와 ‘찾기’의 시간적 전개 ····· 128

Ⅰ. 서 론

"꿈을 좇아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꿈을 찾아 들어온 사람도 있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 K대학에 붙었던 한 연서자보의 글귀 중에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를 구상할 즈음인 2011년 초, 나는 K대학의 몇몇 대학생들이 연이어 자살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애니메이션 <사람이 되어라>(박재동 감독, 2006)가 보여주듯, 입시경쟁을 조장하는 살풍경과 "대학가서 사람 되자"는 구호를 견뎌내며 생존한 동시대 대학생들이 '선택한' 죽음이었다. 그래서 이 죽음들은 각각의 개별성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예사로 보이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그러했듯, 나도 이 소식을 접하며 복잡한 감정을 지우기 어려웠다. 그 이후로도 대학생들의 자살 소식을 틈틈이 접할 수 있었다. 나는 이렇듯 계속되는 자살의 이유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싶지 않았다. 그랬기에 나는 '도대체 오늘날 대학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이처럼 거친 의문이 이끄는 거대한 작업은 연구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한 시대의 대학 풍경을 논문 한 편에 집약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 대학의 역사는 1886년 경 서구 학교태를 본뜬 근대 학교의 맹아가 나타난 이래, 근현대사의 역동적인 흐름과 함께 전개되어 왔다(馬越徹, 1997). 정권의 정책에 따라, 경제체제의 장기적인 변화에 따라, 또한 사회적인 열망에 따라 대학은 천의 얼굴을 하고 변화해 왔다(김기석, 2012; 김안나, 2005; 2011). 물론 지금도 대학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을 것이다. 변화의 역사가 유구했던 만큼 대학에 문제가 있다면 그만큼 뿌리도 깊고 복잡할 것이다. 문제의 뿌리가 깊고 복잡한 만큼 "대학생"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와 교육을 이해하는 일도 당연히 어려운 작업이지 않을까?

사정이 이러하니 나는 의문을 손에 잡고도 정체를 확연히 알 수 없는 결핍감을 극복하기 어려웠다. 어디서부터 문제의 실타래를 찾아야 할지 막연한 상태가

계속되었다. 나는 '대학생들의 삶과 교육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연구의 화두를 들고, 서울 및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몇몇 연구 참여자들을 만나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러나 화두부터 막연했던 만큼 희뿌연 무진(霧津) 속에서 오랜 시간 헤맬 수밖에 없었다. 언뜻 보면 명백해 보이는 이야기들도, 조금만 다르게 보면 수수께끼 같은 기호들을 방출하는 것처럼 읽히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뭔가 풀릴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이내 엉켜버리는 상태가 반복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K대학에 관련한 자료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4명의 대학생이 연달아 죽음을 선택한 직후였던 2011년 봄, K대학 캠퍼스의 풍경 사진과 사람들의 대화를 담은 자료였다. 그 중 한 사진 자료는 "총장님께"라는 제목의 연서 자보를 담고 있었다. 그 자보에는 K대학 총장에게 전하는 사람들의 메시지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교육철학이 무엇인가?" "학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총장님께 학생이란?", "세계 최고의 대학을 만들기 전에 학생들에게 최고의 대학을", "총장님, 저희는 '꿈꾸는' 대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등의 메시지로 가득했다. 이들은 대학교육이 '대학의 발전과 명성'을 위해 있는지, 아니면 '학생들의 삶과 교육'을 위해 있는지 묻고 있었다. 이들은 대학교육이 과연 '특정한 길만을 좇는 규율과 재현의 과정'인지 아니면 '다양한 길을 찾는 자율과 생성의 과정'인지를 묻는 듯하였다.

그 많은 메시지 중에서도 서두에 인용한 글귀는 특히 나의 주목을 끌었다. 이 글귀를 읽자마자 나는 질적 연구자들이 종종 체험한다고 알려진 깨달음의 순간을 맛보았다. '꿈을 좇다'와 '꿈을 찾다.' 여기서 '꿈'은 좇다와 찾다라는 동사와 연결되면서 각각 다른 의미를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꿈을 찾는 대학생은 왜 자신의 존재를 "기억해주세요"라고 요청할까? 그들은 공식적으로 '배제'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품고 나는 자료를 다시 보았다. 곧 나는 '좇기'와 '찾기'라는 두 측면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조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생'이라 불리는 이들의 삶과 문화와 교육에 대해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좇기와 찾기는 K대학의 자보에 글귀를 남긴 한 학생의 삶을 반영할 뿐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의 대학생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비록 최상의 방법은 아닐 수 있겠지만, 나름의 의미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특히, 나는 이 접근을 통해 지금까지 많이 논의되어온 사회적, 학술적 담론

사이에서 한 가지 대안적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도 이르렀다. 마침 '대학교육의 불가능(오늘의 교육, 2011년 5·6월)'에 대한 논의가 줄을 잇고 있던 시점이었기에, 나는 자료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다. 실로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관점과 주제로 대학생들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나윤경·권인숙, 2010; 백소영·엄기호 외, 2011; 송호근 외, 2010; 엄기호, 2010; 2011; 우석훈·박권일, 2007; 조한혜정, 2011a; 2011b; Abelmann, Park & Kim, 2009 등). 몇몇 20대 대학생들도 목소리를 내면서 자신들의 경험과 문제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다(김예슬, 2010; 단편선·전아름·박연, 2010; 문수현 외, 2010 등).

그런데 나는 이러한 관심들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학생들의 삶을 부정적으로, 즉 일종의 '문제'로 삼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려웠다. 이러한 논의들에 따르면 오늘날 대학생들은 정치적 이슈에 관심이 없고 전공학업에 열중하지도 않는다. 또한 대체로 '개인화'되어 공동체 의식이 약하고, 의약계나 법조계, 경영계, 공무원 등 유망한 소수의 진로만 '좇기'에 바쁘다는 낙인이 찍히기도 한다(송호근 외, 2010). 오늘날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삶의 전망과 공동체의 새로운 비전을 '찾기'보다는, 많은 이들이 따르는 기성의 안전한 길을 각자 홀몸으로 '좇기'에 급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일부 대학생들은 대체로 "20대 자기서사"를 통해 이러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에 '대항'하면서 다른 담론을 생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대학생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분석과 진단은 지배적인 사회적 우려와 더 박자를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대졸 취업준비생들은 낮은 고용률에 시달린다고 언급된다.[1] 취업을 하더라도 선망되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은 고사하고, 불안정하고 조야한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렇기에 대학생을 포함해 오늘날 20대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 등 전통적인 생애과업과 관련한 세 문제를 '포기'하여 "삼포세대"라 불리고도 있었다(경향신문, 2011. 5. 11; 김효진, 2011; 2012). 주위를 둘러봐도 이러한 분석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현상이 한국만의 고유한 문제일까? 나는 해외의 사례도 틈틈이 찾아보았다. 잠정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듯했다. 미국(Blum, 2009), 중국(조문영, 2012; Zhen, 2000), 일본(Kaneko, 2006), 인도(Jeffrey, 2010), 마다가스카르(Cole, 2005), 세네갈(Ralph, 2008), 에티오피아(Mains, 2007) 등에서 최근에 이루

1) 한국고용정보원의 2013년 3월 통계에 따르면 20대의 '고용률'은 55.8%이다.

어진 20대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도, 한국 대학생들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들과 유사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들 연구는 20대 청년 또는 대학생들이 오늘날의 "현실"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다른 삶의 가능성이나 새로운 길을 '찾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몇 가지 협소한 가치와 진로 등을 '좇기'에 바쁜지를 문제화하여 보여주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의 배경에는 시장중심주의적인 대학 패러다임도 상당한 몫을 하고 있다(서보명, 2011; Giroux, 2013).

내가 만났던 연구 참여자들도 때론 불안과 우울, 무력감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웃픔"이라는 유행어가 있듯이, 얼굴로는 '웃고' 있지만 실제로는 '슬픔'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다. 지금-여기에서 '해야 하는 일'을 좇다 보니 정작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일'은 놓쳐버린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적잖이 들을 수 있었다. 원치 않고 기대치도 않던 것을 좇아야 하는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다른 가능성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였다. 나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건대 대학생활의 어떤 상황에서 좇기가 중심이 되고 다른 상황에서 찾기가 중심이 되며, 또 대학생활 중 좇기와 찾기와 관련한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핀다면 오늘날 대학생활에서 중요한 삶의 양상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 연구는 부분적으로 앞에서 살핀 오늘날의 담론 경향에 대한 교육인류학적인 '비판적 응답'이 되고자 한다. 여기서 '비판'이란, 가능성에서 불가능성을 드러낼 뿐 아니라, 불가능성에서 가능성을 길어내는 작업을 의미한다. 많은 사회적, 학술적 담론들은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경험의 섬세한 '결'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편이었다. 그렇기에 취업이나 학점경쟁 같은 몇몇 문제에 관한 담론 외에, 다른 주제와 방식으로 대학생활에 대해 말하는 언어는 드문 편이었다. 교육적인 관점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대학생들을 존재의 성장과 가능성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개념들의 언어 게임과 구조 속에 대학생들의 존재를 가두기 일쑤였다.

더군다나 이러한 담론들은 내가 겪었던 대학생활 경험과도 가깝지 않았다. 나는 무언가 불충분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웠다. 물론 여기에서 나의 대학생활 경험이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이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2] 또한 대학생활의

2) 사실 내가 학부를 졸업했기 때문에, 내가 겪은 대학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회상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대학생활에 대한 기억이 긍정적인 '노스탤지어'로 채색되어 있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학생들의 취업과 진로, 일상 문제를 다루는 지나칠 정도로 '풍성한' 담론은, 분명 오늘날 대학생들의 삶이 우리 시대의 '문화(文禍)' 속에서 난관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한다. 다만, 나는 무언가 중요한 것이 우리 담론의 지평에서 침묵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교육학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학 및 고등교육 관련 주제를 개괄해보면, 대학 구조조정이나 대학 교육과정, 대학 행정 및 장학, 대학에서의 교수 방법, 대학교육 '질' 관리 등의 '대학제도' 차원에 대한 논의에 한정된 편이었다(변기용 외, 2010). 하지만 반갑게도 어떤 연구자들은 대학생들의 삶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신정철 외, 2008). 물론 대학생들의 교육적 체험과 성장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는 연구자들의 문헌들도 적잖이 보였다. 하지만 체계적인 학문 분과를 형성하고 있기 보다는 일부 교수자들의 교육신념과 실천을 때로는 감동적이지만 개별적으로 드러내는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남았다(송호근 외, 2010).

그런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학의 어느 부분은 우리의 언어보다 빠르게 변하지만, 어떤 부분은 서서히 변하거나 변하지 않기도 한다(Horowitz, 1987). 내가 나의 대학생활 경험과 비교하면서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대학에서 많은 것이 크게 변하지 않고 (때론 변형된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여전히 대학에서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고, 때론 기쁘게 때론 고통스럽게 '성장'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지배적인 길을 좇기도 하지만, "나만의" 길이 무엇인지 찾기도 하는 고투 속에 살아가고 있다. 사회에서 생존하는 방법도 터득하지만, 실존적인 의미도 찾아 간다. 또한 사람들을 만나 함께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나가기도 한다.

대학생들은 단순히 '졸업 이후'의 삶으로 이행(transition)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총체적 전환(transformation)을 꿈꾸며 살기도 한다. 대학생활은 단순히 특정 목적이나 꿈의 실현을 위해 일시적으로 머물고 떠나는(transient) 삶의 양식일수도 있으나, 12년 학교 교육의 터널을 벗어나 "자유"를 처음 맛봤다고 말하는 대학생들

다는 점은, 대학생 문화를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도 종종 언급되고 있다(Moffatt, 2010; Seaman, 2005). 대학원 이상 재학한 연구자들은 대체로 학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 문화는 연구자의 삶을 반영하며 채색되곤 한다. 물론 이 연구도 그러한 경향과 한계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에게 대학생활은 단순한 “관문”이나 “수단”이 아닐 수 있다. 대학생활은 삶의 형성과 생성, 성장의 ‘과정’일 수 있다. 이러한 삶의 약동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대학생”이라고 하는 특정한 개념을 통해서만 이해하려 들면, 우리는 이들의 실존에 대해서는 ‘무심(차이 없음, in-difference)’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배움과 성장의 과정이 남긴 흔적과 의미는 무언가를 인지적으로 습득한 순간에 발생하거나 정량화된 평가 등을 통해 확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늘 “존재는 ‘있는 것’(being)이 아니라 ‘되는 것’(becoming)이다(조용환, 2001a, p.2).” 그렇기에 우리는 삶의 전 여정을 걸쳐 우연한 계기를 통해 성장의 흔적을 새롭게 확인하기도 하고, 과거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배움의 의미를 갑자기 발견하면서 성장하기도 한다(Deleuze, 1964). 강대중(Kang, 2007)이 지적했듯, 우리의 배움은 결코 ‘학교태’에 갇히지 않으며 삶에 새겨진 흔적들과 다양한 계열과의 연접 속에서 평생에 걸쳐 이루어진다. 이때 대학생활은 생애 전 과정의 일부로서 거쳐 가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배움과 성장의 중요한 터일 수 있다. 요컨대, 이 연구의 관심은 대학생들의 삶과 배움, 성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기초로, 우리는 다음의 질문들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대학에서 무언가가 정말 달라졌다면, 무엇이 달라지지 않고 비슷하게 남아 있을까? 오늘날 흔히 언급되고 있는 ‘대학의 총체적인 위기’는 전무후무한 위기일까? 혹시 사회 전체가 지금까지 겪어 왔고 겪고 있는 어려움을 대학생들에게 투사하거나 전가하고 있지는 않을까? 무엇보다 오늘날 대학생들의 삶을 ‘위기’라고 선언함으로써, 대학생들의 교육적 역량과 배움, 성장의 의미를 박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3] 그렇다면, 오늘날처럼 대학생들의 삶에 대한 설명과 비평, 진단이 넘쳐날 때, ‘이해’를 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교육인류학과 질적 연구의 전통적 미덕 중 하나는, 연구 참여자나 연구 주제에 대해 ‘이해’하는 연구자의 체험적 노력을 강조한다는 점이다(조용환, 1999;

---

3) 이 질문을 갖게 된 계기는 지인과의 사적인 대화 속에서였다. <88만원 세대>(우석훈·박권일, 2007)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스스로 “88만원 세대”인 것 같다고 말한 지인은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얘기인 줄은 알겠는데 자꾸만 내 삶이 더 가난해지는 것 같아”라는 말을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비평적이고 분석적인 언어가 가질 수 있는 한계를 절감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언어들은 오히려 행위자들을 대상화하고 역량을 박탈할 위험이 있는 일종의 ‘상징폭력(symbolic violence)’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Bourdieu, 1995).

Varrenn, 2008). 물론 나는 이 연구의 제1목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싶다. ‘교육인류학도’로서 나는 대학생의 문화와 교육에 대한 진단과 처방, 해법의 제시보다는, ‘이해’를 우선의 과업으로 삼고 싶다. 이는 네이선(Nathan, 2005/2006)이 지적한 것처럼, “학생들의 문제는 그것이 학생 문화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좀 더 충실한 이해의 맥락에서 분석되어야 한다(p.235)”는 뜻이다. 또한 이는 우리는 이러한 문화적 이해과 분석에서 더 나아가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서 대학생들의 ‘존재’로(조한혜정, 2000), 다시 말해 연구 관심과 태도를 ‘존재론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4)]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에 대해 말할 때 대체로 전공 교과목에서 다룬 ‘지식-내용’을 꼽지 않는 것과도 연관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사람들”에 대해 배울 수 있었으며, 다양한 “경험” 과정에서 삶의 관점이 크게 변화했다고 언급하곤 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대학생들의 생활세계에 가까이 다가섰던 인류학자들의 작업에서도 드물지 않게 등장하는 내용이다(조용환, 1995; Blum, 2009; Moffatt, 2010; Nathan, 2005). 지식 습득이나 직업의 획득뿐 아니라, 자신의 삶과 배움, 성장이 ‘있었고’ 이것 역시 소중하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엄연히 우리의 세계에 실제로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대학생들의 실존적인 목소리에 ‘책임감 있게 반응할 수 있는(respons-ible)’ 언어들을 더 찾아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오늘날 대학생들이 어떤 존재자인지를 묻는 것(being)보다는, 대학생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지(becoming)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문질빈빈(文質彬彬)’의 과정 속에서 해체되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할 것이다(조용환, 2011a; 2012b). 누군가의 ‘있음’은 한 시점에 완전히 구속되거나 완성되지 않으며(Barnett, 2011; Semetsky, 2006), 영향사적 관계 속에서 언제나 새로움에 열린 변증법적 경험을 통해 ‘생성’되어 가기 때문이다(Gadamer,

---

4) 이러한 관심의 이동이 대학생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는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대학생들의 ‘있음(being)’과 ‘되기(becoming)’에 대한 존재론적인 탐구 위에서 고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학생 ‘문제’에 대한 탐구라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대학생들의 삶-존재에서 출발해 다시 삶-존재로 돌아와야 하며, 결코 선험적이거나 추상적인 명제에 의해서 도출된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다는 점을 함의한다.

1960). 다시 말해, 우리는 이들이 '대학생활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존재론적 관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조용환, 1995; Batchelor, 2006; Clark/Keefe, 2012; Dall'Alba & Barnacle, 2007). 더 나아가, "존재는 교육의 과제이고 교육은 존재의 과제(조용환, 2001a, p.2)"라는 존재론적 교육학의 의미를 대학교육에서도 반드시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싶다.

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풀어내는 한 매개로서, 앞에서 언급한 '좇기'와 '찾기'라는 표현을 선택하였다. 두 표현은 연구 참여자들이 겪은 '이중적 지향성(dual intentionality)'을 가리키되, 이를 서술적이면서 직관적으로 드러낸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두 표현은 대학생들의 이야기에서 서로를 '보완'하지만 '대조'되기도 하면서 복합적으로 삶에 '주름(Deleuze, 1988)'[5] 잡혀 있는 이중적 지향성을 드러낼 수 있다. 즉, 이는 생활세계에 명시적 형태로 실재하는 구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존재론적 의미형식으로서 대학생활 이야기의 바탕에 있는 삶의 특정한 양상에 주목하여 표현하려는 노력의 잠정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좇기와 찾기로 표현된 이중적 지향성을 중심으로 이 연구 내러티브를 이끌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나는 대학생들의 삶과 문화와 교육, 더 구체적으로는 이들의 배움과 성장의 과정에 대해 살피고, 그리고 그 교육적 가능성과 교육학적 의미에 대한 연구 내러티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이러한 구성은 한정된 지면과 연구의 맥락 위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한 한 가지 방식일 뿐이며, 대학생들의 삶과 문화와 교육이라는 교육인류학적 연구 주제는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도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4절, 연구 과정 참조). 다음 절에서는 이 논문의 연구 문제에 대해 정리함으로써,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질문이 본문을 이끌게 될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

5) '주름(le pli)' 개념을 요약하기 쉽지는 않지만, 존재론적 관점에서 존재자의 복잡하고 복합적인 운동을 이해할 때 매우 유용한 개념이다(Deleuze, 1968; 1988). 주름은 접히고 펼쳐지고 다른 주름을 만나는 운동 과정을 반복하면서, 존재자의 새로운 주름을 생성한다. 예컨대 주름은 안으로 접히면서 만나기도 하고(*im*-plication, 안-주름운동, 함축), 밖으로 펼쳐지면서 전개되기도 하며(*ex*-plication, 밖-주름운동, 해명), 운동의 밑바탕에서 다양한 주름들이 복잡하게 얽히기도 하고(*com*-plication, 온-주름운동, 복합), 다른 주름의 계열들과 만나서 새로운 주름을 생성하기도 한다(*ap*-plication, 접-주름운동, 적용). 이 외에도 우리는 여러 주름의 운동들을 상상할 수 있다.

2. 연구 문제

앞에서 이야기 했듯, 이 연구는 '존재론적 교육학' 또는 '교육적 존재론'을 바탕으로 오늘날 대학생들의 삶과 문화와 교육의 문제를 이해하려는 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나는 '좇기'와 '찾기'라는 이중적 지향성의 관점을 통해 대학생 연구 참여자들의 삶과 배움, 성장, 그리고 교육적 가능성을 교육인류학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다룰 연구 문제들은 연구의 목적을 연구 내러티브로 구현하기 위한 '이끎-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연구 문제는 이끎-길이면서 동시에 '이끎-틀'이다. 즉,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연구 문제와 연구 내러티브가 범주화와 도식화를 통해서 현상을 '제한규정'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즉, 연구 참여자들의 무변광대한 존재가능을 일정한 구성-틀에 가두는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해석학적 존재론의 지혜는 우리의 존재와 실존이 이러한 인위적 구성-틀을 언제나 넘어선다는 점을 일러준다(Heidegger, 1932; Ricoeur, 1969).

첫째, 대학생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대학생활을 해왔는가?

대학생 연구 참여자들은 각자의 상황과 리듬, 지향에 따라 서로 다르게 살아왔다. 나는 연구 참여자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이나 변곡점을 중심으로, 때로는 반구조화된 질문에 따라 대학생활의 다양한 측면과 양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기서 '기술(記述)'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연구 참여자들이 입학부터 졸업에 이르는 일종의 '생애사적 과정'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다. 이를 통해 좇기와 찾기라는 대학생활의 이중적 지향성을 이해하기 위한 바탕을 깔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좇기와 찾기의 내용과 주제도 대학생활 내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차차 변화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연구 참여자들이 처해 있는 맥락 및 상황에 대한 간략한 기술도 포함하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대학생활은 물론 일반적이지도 보편적이지도 않으며, 이들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처럼 전공이나 학벌(소속 학교), 과/반의 문화, 거주 지역, 경제력, 우연한 만남이나 선택과 결단, 삶의 지향 등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기술을 통해 우리는 연구 참여자들의 삶을 섣부르게 보편화시키기보다는 '맥락화'하는 가운데 더 깊이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좇기’와 ‘찾기’는 어떠한 대학생활 이야기 주제를 통해서 표현되는가?

대학생활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대학생들의 좇기와 찾기라는 삶의 지향성도 이렇듯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또 그러한 관계를 고려하면서 표현된다. 이러한 관계성은 특히 대학생활 이야기에서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 때론 명시적으로 때론 암묵적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여기에서 나는 좇기와 찾기 지향성과 의미 연관을 이루고 있는 대학생활 이야기들을 ‘주제화’(Heidegger, 1932)함으로써, 좇기와 찾기와 관련해 있는 대학생활 이야기의 다양한 주제와 지향성들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좇기와 찾기라는 삶의 지향성을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와 구체적으로 접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좇기와 찾기는 대학생활에서 ‘복합적으로 주름 잡혀 있는(com-plicated)’ 것이지(Deleuze, 1968; 1988), 결코 구분되고 단절된 과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두 지향성이 주름 잡히는 방식은 천편일률적이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생활에서 두 지향성은 어떻게 주름 잡히고 있으며 또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

셋째, ‘좇기’와 ‘찾기’의 교육적 의미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본 대학생활의 교육적 가능성은 무엇인가?

교육인류학은 우리들 삶의 질적 바탕에 대한 문화적 관점과 교육적 관점이 교차되어 있는 학술적 이해를 표방하되, 특히 메타적인 삶의 형식으로서 교육을 강조하는 학문이다(조용환, 2012b). 이러한 교육인류학적 관점에서 나는 대학생활의 교육적 의미와 교육적 가능성을 해석하고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우리는 오늘날의 대학생들이 과연 대학생활에서 좇기와 찾기 사이에서 교육적 과정을 체험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반면 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왜 그러한지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대학생활의 교육학적 가능성을 살필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더 나은 대학생들의 삶과 문화, 대학교육을 위한 성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3. ‘좇기’와 ‘찾기’의 이론적 배경

논문을 이끌고 있는 두 가지 표현, ‘좇기’와 ‘찾기’는 물론 우리말 일상어다. 그런데 이를 논문 전면에 부각시키는 것은 일상어에 대해 과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견강부회하는 것은 아닐까? 학술적 가치를 요구하는 학위논문에 우리말 일상어가 전면적으로 쓰이기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지만 나는 이 두 일상어가 ‘있음(being)’이나 ‘되기(becoming)’ 같은 일상어처럼 존재론적 양상의 한 측면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모든 일상어도 얼마든지 존재론적 관점에서 학술적, 이론적으로도 의미화하고 논의할 수 있으며 또 서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기상, 2003; 구연상, 2011).

이제부터 나는 ‘좇기’와 ‘찾기’라는 일상어에도 얼마든지 존재론적 색채와 위상이 내재해 있다는 관점을 일관되게 견지하고자 한다. 그리고 좇기와 찾기가 연구 참여자들의 대학생활 이야기를 존재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태도를 고수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먼저 좇기와 찾기의 사전적 정의에서부터 출발하여 실마리를 풀어 보자. 이는 주름 잡힌(im-plicated) 좇기와 찾기의 주름을 펴는(ex-plicate) 작업이 될 것이다. <국립국어원>[6]이 제공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서 주요 의미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좇기

(1) 특정한 목표, 이상, 행복 따위를 추구하다. (예, 명예와 성공을 좇다)
(2) 타인의 말이나 뜻, 이론 등을 따르다. (예, 부모님의 의견을 좇다)
(3) 규칙이나 관습 따위를 지켜서 그대로 하다. (예, 관례와 절차를 좇다)

찾기

(1) 현재 주변에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여기저기 뒤지고 살피다. (예, 일거리를 찾다.)
(2) 모르는 것을 알아내고 밝혀내려고 애쓰다. (예, 삶의 의미를 찾다.)
(3)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기관, 모임 등을 방문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다. (예, 의원을 찾다.)

---

6)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먼저 ‘좇기’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는 좇기가 ‘있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없는 것’을 좇을 수는 없는 법이며, 적어도 ‘있는 것’의 존재 자체가 의심을 받아서는 좇기 어렵다. 예컨대, 좇기의 1번 정의에 따라 우리가 개인적인 목표나 이상, 행복을 좇을 때에도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현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좇을 수 없다. 명문대에 입학하겠다든지, 고위관료가 되겠다든지, 경제적 ‘성공’을 하고 싶다든지 하는 현실적 목표를 좇아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좇기의 한 축을 이룬다. 좇기의 2번과 3번 정의에서는 우리의 사회문화적 존재로서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이를테면, 우리는 각종 관습과 전통, 규칙, 이데올로기로 이루어진 ‘언어’ 속으로 태어나며, 이를 통해 소통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타인들과의 영향관계 속에 있으며, 때로는 그러한 영향에서 오는 강제력과 동의의 구축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우리는 이를 알고 있으면서 좇을 수도 있고 무심결에 좇을 수도 있다. 내가 원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라도 때로는 타인들의 가치를 무심코 내면화한 결과일 수 있다. 요컨대, 우리는 세계의 자명성에 의문을 품기 보다는, 그 자명성을 따르고 그것에 맞게 자신의 양태를 변양시켜 나가는 존재의 양식을 일컬어 ‘좇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찾기’에 대해서 살펴보자. 좇기가 ‘현존’ 가까이에 있는 것과는 달리, 찾기는 ‘부재’ 가까이에 있다. 즉, 좇기가 무엇인가 있음을 느끼고 있다면, 찾기란 무엇인가 없음에 대해 느끼고 있다. 우리는 무엇인가가 ‘지금-여기’에 없기 때문에 비로소 찾기를 하게 된다. 우리는 자신이 살아가는 생활세계가 완벽하지 않으며, 곳곳에 구멍이 있음을 발견하고 의문을 던질 수 있다. 그런데 좇기가 있는 것의 자명성을 의심치 않는 것과는 달리, 찾기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그 무엇을 찾아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찾기의 과정에서 부재와 현존의 구별은 모호하며, 언제나 있음과 없음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찾기의 1번 정의처럼 없는 것을 있게 하기 위해, 2번 정의처럼 막연함을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더 나아가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을 일컬어 찾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찾기는 3번 정의처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찾고 도움을 청하는 ‘관계성’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는 세계의 자명성이 해체된 자리에서 아직 없는 것을 향해 스스로의 양태를 변양하고 생성하며, 또한 타인과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의 양식을 일컬어 '찾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되기(becoming)'의 맥락에서 재서술하자면, 좇기란 '특정한 무엇인가가 되고자하는 지향성'이고, 찾기란 '다른 무엇인가가 되고자 하는 지향성'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좇기와 찾기는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양상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기에 좇기와 찾기는 인식론, 즉 대상의 포착과 지식의 구조, 기원, 형성, 범위 등을 다루는 학문에 가깝다기보다는 존재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존재론은 '존재자(Seinede)'를 존재자이게 하고 존재자답게 하는 '존재(Sein)'를 드러내고, 이러한 존재의 얼개와 짜개를 해명하는 과제를 가진 학문을 뜻한다(Heidegger, 1932). 우리가 좇기와 찾기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이론화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존재론적 작업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좇기와 찾기가 '정적인 상태'를 뜻하기 보다는, 지금-여기에서 부단히 움직이고 나아가는 '동적인 과정'을 뜻한다는 점을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명사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동사적이라는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좇기와 찾기란 의식의 작용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몸이 행위하고 바뀌어 나가는 신체의 작용일 수도 있다. 즉, 좇기와 찾기는 적극적으로 변화해 가는 우리 존재의 한 양상을 표현한다. 또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점은, 좇기와 찾기가 늘 '대상을 향해 있다'는 점이다. 특정한 대상이나 목적 없이 좇거나 찾는 행위는 형식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좇기와 찾기가 현상학적 의미에서 일종의 '지향성(intentionality)'이라고 여길 수 있다.

현상학에서 지향성은 훗설에서 하이데거, 메를로-퐁티에 이르기까지 많은 현상학자들의 계보 속에서 복잡하지만 흥미롭게 다루어진 주제다. 먼저 흔히 언급되듯, 지향성은 훗설의 현상학에서 "모든 의식은 무엇에 대한 의식"이라는 공식으로 요약된다. 인식주체(Noesis)와 인식대상(Noema)은 늘 상관작용을 하고 있으며, 현상학적 지향성은 바로 이러한 부단한 상관작용을 가리킨다. 하지만 훗설은 점차 지향성을 인식의 문제로만 다루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며, 특히 '시간'에 대한 존재론적 문제로 다루기도 한다(이남인, 2004; 2008; Thevenaz, 1966).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지향성의 존재론적 측면이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훗설의 지향성 개념을 전유하면서, 인간 현존재가 늘 시간적 존재이며 따라서 곧 지향적 존재라고 이론화 한다(Heidegger, 1932). 하이데거에게 있어 '지향(*in*-tention)'이란 훗설의 개념화처럼 '돌아봄(*re*-tention, 파지)'과

‘내다봄(*pro*-tention, 예지)’이 현재의 시간지평에 융합되어 있는 것을 일컫는다. 여기서 현존재는 추상적 실체가 아니라 역사적 존재가 된다. 하이데거는 지향성에 시간의 의미를 부여하되 이를 실존론적으로 전유함으로써, ‘세계-내-존재’로서 현존재는 세계로 그저 던져져 있는 것(피투성)을 넘어서서 미래의 존재가능으로 자신의 현재를 던질 수 있다(기투성)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메를로-퐁티(Merleau-Ponty, 1945/2002)는 선학들의 지향성 개념을 받아들이되, 지향성은 인식이나 의식에 그치지 않으며 무엇보다 신체적인 운동성임을 지적한다. 메를로-퐁티의 지적에 따르면, 몸의 지향성은 “우리의 주위에서 우리의 과거, 미래, 인간적 환경, 물리적 상황, 이데올로기적 상황, 도덕적 상황을 기투하며, 아니,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모든 관계 속에 위치 지어지도록 한다(p.218).” 그가 보기에 우리의 몸은 세계-내에 있지만 동시에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듯 메를로-퐁티의 지향성 개념은 그의 주요 개념인 ‘세계-로의-존재’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좇기와 찾기에 가장 근접해 있다.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우리는 좇기와 찾기가 현상학적 존재론의 맥락에 뿌리를 둘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좇기와 찾기가 일종의 ‘지향성’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훗설과 하이데거, 메를로-퐁티를 경유하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을 두고, 이제부터 나는 좇기와 찾기가 더 풍부한 존재론적 지평을 함축하고 있음을 간략하게 그려 보이려고 한다. 이를 나누고 비교하는 기준은 ‘주체의 형상’, ‘주체의 형성’, ‘삶의 양태’, ‘삶의 방식’, ‘삶의 공간’의 다섯 가지다. 먼저 큰 그림부터 제시하자면 다음의 도표와 같다.

<표 1> ‘좇기’와 ‘찾기’ 지향성의 존재론적 얼개

	좇 기	찾 기
주체의 형상	독아론적, 정주적 주체	대화적, 유목적 주체
주체의 형성	수동적 종합	능동적 종합
삶의 양태	세인(das Man)의 평균성, 현실성	현존재(Dasein)의 존재물음, 가능성/잠재력
삶의 방식	재현, 재생산, 동일성, 소유, 존재망각, 문제풀기	표현, 생성, 차이, 존재, 존재이해, 문제찾기/제기
삶의 공간	홈패인 공간	미끈한 공간

먼저 '주체의 형상'부터 검토해보자. 우선 좇기 지향의 주체(이하 좇기의 주체)는 독아론적이고 정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1986)에게 '독아론적 주체'란, 자신에게 옳은 것이 타인에게도 옳은 것으로 간주하는 주체를 뜻한다. 이미 있는 것(既成)을 좇는 주체는 좇는 대상 외에 다른 가능성이나 법칙에는 관심이 없으며, 이는 타인에게도 마찬가지다. 또한 기성의 세계가 구축한 자리에서 살아가려 한다는 점에서 좇기의 주체는 '정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찾기 지향의 주체(이하 찾기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대화적 주체'일 수밖에 없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타자와 미지의 세계 내에서 발견하고 소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찾기의 주체는 또한 '유목적'이다. 유목적 주체는 주어진 영토와 경계 속에서 머물기보다는, 끊임없이 세계 내의 새로운 자리로 탈주하며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이다(Braidotti, 1994; Deleuze, 1980).

그렇다면 이러한 주체의 형상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주체란 기본적으로 경험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Gadamer, 1960). 주체는 영향사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경험과 그 의미를 나름대로 종합하면서 비로소 형성될 수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일정한 형상을 띨 수 있다. 좇기의 주체와 찾기의 주체는 이 지점에서 비교될 수 있다. 좇기의 주체는 자신이 속해 있는 세계 내에서 움직인다. 사회적 관습과 타인의 언어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충실히 애쓰며 응할 때 우리는 그 주체가 좇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에 좇기의 주체는 자신의 경험을 '수동적'으로 종합하게 된다. 반대로 찾기의 주체는 자신이 속해 있는 세계 밖의 가능성을 꿈꾼다. 미지의 것을 받아들이고, 애매모호한 잠재성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주어진 것을 넘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타자와 만나야 한다. 그런 점에서 찾기의 주체는 자신의 경험을 '능동적'으로 종합하게 된다.

우리는 지배적인 '삶의 양태'를 기준으로 좇기와 찾기를 비교할 수도 있다. 좇기의 주체가 세계의 자명성에 의문을 던지지 않는 한, 그에게 세계는 전형성들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Schutz, 1989). 이때 좇기의 주체에게 세계의 지도는 '현실성'을 담고 있다. 좇기의 주체에겐 세계의 지도가 그린 우선-대개라는 평면 외의 가능성은 관심 밖이다. 이러한 세계에서 우리는 '평균적인 존재이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때 좇기의 주체와 함께 살아가는 타인들은 곧 '세인(世人, das Man)'이며, 이들과 문화적으로 더불어 있음(퇴락) 속에서 좇기의 주체는 결국 타인의 평균적인 얼굴로 존재한다. '나'도 타인들에게는 결국 타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찾기의 주체에게 세계는 결코 자명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자신

의 형상도 자명하지 못하다. 자신의 삶과 세계의 양태는 현실성의 체계적 구조로서가 아니라, '가능성'과 '잠재력'이 공존하는 세계가능으로 여겨진다. 지도의 좌표는 흔들리기 마련이며, 찾기의 주체는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지도를 작성할 필요를 느낀다. 즉, 찾기의 주체는 자신의 실존을 꿈꾸며 모든 존재자에게 '존재물음'을 던진다는 점에서 '현존재'라고 할 수 있다(Heidegger, 1932).

삶의 양태 위에서 '삶의 방식'이 드러난다. 우리는 좇기 주체가 수동적 종합으로 형성되기는 하지만, 이도 부단한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정한 꿈이나 이상, 또는 사회문화적 규칙이나 관습을 자신에게 '재현'하는 일이다. 좇기의 주체는 자신과 세계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재생산'한다. 좇기의 주체는 사회가 분할해 놓은 자리나 사물을 '소유'하려고 한다(Fromm, 1976). 그렇기에 존재이해를 새롭게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존재망각'을 한다. 사회와 전통이 제시한 문제들을 따르며 '문제풀기'하면서 살아가고자 한다. 반면 찾기의 주체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면서 타인, 그리고 세계와 관계를 맺는다. 또한 찾기의 주체는 가능성에 대한 기투를 통해 '생성'되어 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동일성이 아니라 '차이'를 짓는다. 찾기의 주체는 사회 내에서 특정한 대상이나 자리를 소유하는 것보다는, 먼저 그것들의 '존재(있음)'와 의미에 대해 의문을 던지며 '존재이해'를 확장하는 과정에 있다. 이때 찾기의 주체는 사회와 문화의 총체성에 '문제제기'하며, 또 그 안에서 '문제찾기'를 감행하며 실존한다.

마지막으로 비교할 것은 '삶의 공간'이다. 이는 좇기의 주체와 찾기의 주체가 세계의 공간을 어떻게 체험하느냐의 문제와 관련을 맺는다. 이와 관련해 유용한 구분으로, 들뢰즈의 '홈패인 공간(espace strié)'과 '미끈한 공간(espace lisse)' 개념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Deleuze, 1980). 홈패인 공간이란 씨줄과 날줄의 교차 속에서 유한한 구조와 질서가 자리 잡힌 공간을 뜻한다. 부단히 변화하는 사막이나 바다에 덧씌운 세계지도의 문화적인 질서와도 같다. 좇기의 주체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홈패인 공간이다. 그는 여기에 동화되고자 하는 정주민이다. 반면 미끈한 공간이란 구조와 질서가 자리 잡히기 이전의 질적인 공간을 뜻한다. 유목적 주체로서 찾기의 주체는, 국경과 관문이 있는 세계가 아니라 열려 있는 가능성의 세계를 더욱 꿈꾸기 마련이다. 찾기의 주체는 울퉁불퉁하게 규정된 세계지평을 벗어나 미끈한 존재지평과 질적 지평을 상상하는 개척자이다. 그에게 미끈한 공간은 유연하며 미리 계획되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 있다.

이렇듯, 좇기와 찾기라는 두 지향성은 서로 비교될 수 있는 존재론적 구조를 함축하고 있다. 존재의 양상과 변화, 의미에 대해 좇기와 찾기는 각각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따로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의미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 이분법적으로 강하게 구분한 경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앞에서 참조한 하이데거와 메를로-퐁티, 들뢰즈는 이론적인 짝패(dyad)들을 대조하면서도 이들의 관계성을 신중하게 성찰하곤 했다. 이를테면, 현존재의 실존적인 존재물음은 평균적인 존재이해에 기반하지 않고서는 던질 수 없다(Heidegger, 1932). 강력한 하나의 이상을 좇되, 구체적인 실현 과정에서는 다양한 현실적 가능성을 찾을 수도 있다. 즉, 좇기와 찾기는 실로 한 사람의 삶에 복잡하게 '주름' 잡혀 있다. 좇기와 찾기는 '있음'과 '되기'에 이미-항상 포개어져 있다는 점에서 늘 '이중적'이다. 상황에 따라 어떤 삶의 지향성이 우세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지향성이 없어질 수는 없다. 온전히 좇기만 하는 현존재도 비현실적이며, 찾기만 하는 현존재도 비현실적인 것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인 논의는 연구 내러티브를 이끌어가는 이끎-길은 될 수 있을지언정, 결코 연구 참여자들의 삶 '전체'를 포착할 수 있는 관점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좇기와 찾기가 존재의 실체를 다루고 있기보다는, 존재의 지향성과 운동을 다룬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도 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좇기와 찾기가 지향성이라는 점에서, 특정한 내용을 결정하지 않는 '이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7] 앞으로 우리는 연구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대학생활 이야기를 듣고(Ⅱ장), 좇기와 찾기를 표현하는 다양한 이야기 주제와 지향들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Ⅲ장). 우리는 이를 통해 좇기와 찾기가 연구 참여자들의 대학생활 이야기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얽혀 있는지 살필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좇기와 찾기에 어떠한 교육적 가능성이 있으며 교육인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하려는 이 논문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다. 이는 논문의 후반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볼 것이다(Ⅳ장).

---

7) 이 논문에서 '좇기'와 '찾기' 두 지향성은 언어와 대상의 행복한 일치를 겨냥하는 '개념'보다는 '이념'을 의미한다. 들뢰즈(Deleuze, 1968)는 '개념'과 '이념'을 구분하는데, 그에게 개념은 특정한 언표에 의해 규정된 의미와 가치의 체계로서, 기재의 사물과 세계를 특정한 방식으로 분별하고 계열화하며 배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대로 이념이란 지향과 잠재력, 가능세계를 나타내며, 새로운 계열화에 열린 프레임을 의미한다.

4. 연구 과정

이 연구는 연구 과정 내내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진행되지 않았다. 연구의 시작에서 최종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특히 연구의 주제 상으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거쳤다. 이는 부분적으로 연구 시작에 내가 품고 있던 질문이 지나치게 막연했기 때문일 수 있으며, 질적 연구의 초심자로서 연구 방법론적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대학원이라는 '학습공동체' 속에서 다양한 이론적, 방법론적, 실천적 관점들을 학습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연구가 장기화되면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모두가 시간의 흐름 속에 변화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제부터 소개할 내용은 이 연구 내러티브를 낳은 연구 과정에 대한 이야기면서 동시에 연구자가 체험한 해석학적 순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나는 몇몇 대학생들의 연속된 죽음을 보면서 대학생활과 대학교육에 대한 '상심(傷心)'을 더욱 강하게 품게 되었다. 물론 죽음을 '선택'한 이유가 대학교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겠지만, 대학생들의 삶과 배움, 성장에 대한 관심이 강해진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내가 학부를 다니면서 체험했던 대학교육에 대한 '회의감'과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감'이라는 분열된 경험의 정체를 언젠가는 교육학적으로 해명해 보고 싶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2011년 1학기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연구 방법론 실습수업인 <현지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캠퍼스 문화에 대한 연구를 예비연구 삼아 수행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교육인류학과 질적 연구를 결합하여 나름대로 연구를 수행해보기로 한 것이다(조용환, 1999; 2011b; 2012b).

나는 약간의 면식이 있었던 한울대학교[8]의 한 동아리에서 운영회의를 통해 현장 연구를 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을 수 있었다. 이곳에서 나는 몇 차례에 걸쳐 인류학적 연구에서 흔히 쓰이는 방법인 '3Es', 즉 참여관찰(Experiencing)과 인터뷰(Enquiring), 현지문헌 리뷰(Examining)를 할 수 있었다. 물론 동아리 사람들 개개인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동아리 문화는 나에게 친숙한 편이었으므로 주로 연구자에게 낯선 문화에 대한 현지 연구를 강조했던 인류학적 이념에서 보자면(조용환, 2012b; Varrenn, 2008) 적절한 선택지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방법론적으로 미숙한 상황에서, 친숙한 이곳에서 출발하여 차차 발을 넓혀

8) 이하 모든 대학의 이름과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이 동아리를 연구 현장으로 선택했다.

예비조사 과정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눈 사람은 한지민이었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서도 흔히 “인문사회계”라 구분되는 대학생들만 만나왔던 나는, “이공계” 대학생과 태어나서 처음 대화를 해보았다. “이공계” 대학생들의 삶과 문화는 “인문사회계” 대학생들과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 이를테면 수업 문화, 일상 문화 등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한지민의 이야기는 나에게는 마치 달의 뒷면과도 같았다. 즉,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 같이 살고 있었으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보고 관심 가진 적 없는 삶에 대한 이야기였다. 또한 박태훈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인문사회계” 안에도 얼마나 다양한 문화들이 있으며, 나를 포함한 연구 참여자들이 각자 얼마나 ‘한정된 의미의 세계(Schutz, 1989)’에서 살아가는지를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었다. 그러면서 캠퍼스 문화를 문화기술적으로 다루겠다는 애초의 막연한 계획이 얼마나 황당할 정도로 ‘거대한’ 것이었는지 점점 명확해져 갔다.

더군다나 연구 참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문화기술’을 중심에 두는 것이 다소 ‘피상적’인 접근은 아닌가 하는 회의감을 지울 수 없었다. 연구 참여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이 각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과연 대학생 문화일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연구 참여자 개개인의 이야기를 경청하였지만 궁극적인 나의 관심은 연구 참여자들이 지각한 대학생 문화였고, 만남이 계속되면서 나는 무엇인가가 어긋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특정한 정보를 캐내는 것 아닌가 하는 반성적인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물론 애초의 연구 구상에 따라 대학생들의 차이를 아우르는 종합을 통해 포괄적으로 ‘문화를 쓸 수도’ 있었겠지만(Clifford, 1986; Moffatt, 2010; Nathan, 2005), 그러한 기획은 점차 나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예비조사를 마무리 하면서 시간을 조금 더 갖고, 내가 연구 과정에서 느꼈던 이질감에 대해서 돌아볼 기회를 가졌다. 그러면서 나는 ‘대학생 문화’라는 선험적 추상체로부터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연구 참여자 개개인의 삶에 더 관심을 가져보기로 했다. 개개인의 생애 이야기에서 출발한다면 이들의 대학생활의 과정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다양한 문화적 과정과 양상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또한 대학생활과 대학교육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이해에 대해서 경청하고 때론 토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서 나는 송현

진에게 인터뷰를 제안했고, 그와 이야기를 하면서 향후에도 이어질 인터뷰의 얼개를 조율해 나갈 수 있었다. 이전에 했던 것처럼 '대학생 문화'로부터의 접근보다는, 연구 참여자들의 '생애 이야기(Atkinson, 2006)'에서 출발해서 대학생활의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는 접근법이 더 흥미롭다고 느꼈다.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나는 더 많은 연구 참여자들을 만날 필요가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특히 다양한 전공과 학교 차이를 고려해 보기로 하였다. 이에 나는 먼저 한울대 사회과학계열에 다니는 정다인을 만났으며, 새롬대의 인문어학계열에 다니는 서주희를 지인을 통한 섭외로 만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한지민의 소개를 통해 가람대의 자연계열에 다니는 이한결을 만났다. 나는 이들 연구 참여자를 섭외하면서 '대학생활 이야기 속에 들어 있는 오늘날 대학교육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는 식으로 나의 연구 목적에 대해 말하곤 했다.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대학교육에서 나름대로 불만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또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적지 않은 시간을 나누어 주었다.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부채감만 갖지 않았더라면 인터뷰는 무한정 계속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지도교수 및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연구에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첫째, 이 연구가 연구 참여자들과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생활을 같이하는 전통적인 인류학적 현지연구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질적 연구자 사이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인터뷰 중심의 연구'로 변화하기 시작했던 것이다(Atkinson & Silverman, 2006). 둘째, 연구 기간이 다소 길어지면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모두가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점차 졸업을 앞두게 되었고, 연구자도 (꼭 배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기술적인 작업보다는 현상학적 존재론과 질적 연구의 관계에 대해 흥미를 더 느끼게 되었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의 편중 문제였다. 내가 만난 연구 참여자들은 서주희를 제외하고는 여러 종류의 대학생 언론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었다. 즉, 대학의 문제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다양한 문제에도 비판적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때론 정치 집회에도 참여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흥미로운 통찰에 대해 들을 기회가 많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다수의 대학생들이 이들처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는 했지만, 나는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의 중심을 대학생활의 공시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아닌 통시적인 생애사 과정 이야기

에 대한 것으로 수정하면서 대응하기로 했다. 또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이 졸업이 가까워지면서 느끼게 되었던 “대4병(大四病)” 스트레스는, 오히려 자신의 지난 대학생활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성찰과 반성의 기회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계획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론적 관점에서도, 나는 보다 적극적으로 현상학적 존재론의 문제의식과 의미지평에 들어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는 연구 참여자들을 추가로 섭외함으로써 대응해 보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특히 세 번째 문제에 대면하면서 나는 ‘연구자로서 나’에 대해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해석’과 ‘글쓰기’가 중심이 되는 질적 연구 영역에서, 최근 들어 연구자들에게 요구되는 ‘성찰성’이라는 윤리적 문제가 나의 연구에도 깊숙이 자리 잡혀 있다는 점을 깨단하는 계기가 되었다(조용환, 2011b; Cannella & Lincoln, 2011; Denzin, 2001; Rossman & Rallis, 2010). 이는 연구자 뿐 아니라 연구 문제, 연구 참여자의 선정, 자료 수집과 분석, 연구물 작성에 이르는 모든 연구 과정에 대한 메타적 성찰을 포함한다. 대학에 재학하던 시절, 나는 여성주의를 포함한 비판적인 인문·사회과학 담론에 관심이 많았다. 전공학업을 하는 것보다는, 나와 내 주변 사람들, 또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법을 깨닫는 일이 즐거웠다. 또한 한 대학생 언론에서 활동하면서 그러한 깨달음과 배움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해방감을 느끼곤 했다. 나는 이러한 경험과 성향이 나의 학업 뿐 아니라 연구 과정 전반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점진적으로, 그러나 다소 뒤늦게 깨달을 수 있었다. 내가 연구 참여자들을 섭외했던 기준도 매우 편협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나의 해석하는 눈을 점검할 필요를 느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가진 연구 참여자들을 졸업반 대학생을 중심으로 만날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특히 졸업반 학생들은 졸업을 앞두고 자신의 대학생활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연구자와는 다른) 자신만의 성찰적인 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새롬대학교 인문계열의 민윤진과 김우진을 추가로 만날 수 있었고, 인터넷 게시판에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내어 몇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다. 이 중에서 만남이 성사된 한울대학교 사회과학계열 유민정을 만나서 추가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래에서 더 살펴보겠지만, 민윤진과 김우진은 각각 대학이나 전공의 특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특이한 대학생활 과정을 거쳤으며, 유민정도 특이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 마

찬가지였다. 지금까지 언급한 연구 참여자들의 대략적인 특성을 요약 제시하자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9)]

이 름	대 학	학번	전 공	경제적 여유[10)]	현재 상황 (2013년 6월 기준)
박태훈	한울대	05	인문계열(문학)	중	대학원생
송현진	한울대	09	인문계열(문학)	중	교환학생(동아시아)
유민정	한울대	08	사회과학계열	중	취업 준비
정다인	한울대	08	사회과학계열	중	취업 준비
한지민	한울대	08	자연계열(응용)	중	대학원 입학 예정
김우진	새롬대	09	인문계열(어학)	중상	졸업 후 군 복무
민윤진	새롬대	08	인문계열(어학)	중	취업 준비
서주희	새롬대	09	인문계열(어학)	중	취업 준비
이한결	가람대	09	자연계열(기초)	상	교환학생(서유럽)

먼저 박태훈은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는 달리 유일한 05학번이었다. 박태훈은 “운동권” 성향이 강한 학생회에서 학생운동을 하면서 대학생활의 초반을 보냈다. 하지만 뒤에는 차이 없이 반복되는 학생회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면서 한울대학교 학생언론에서 활동하였다. 국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한때는 외부에서 사람들을 만나 모임을 꾸리기도 하였다. 현재는 국문학에 대한 관심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졸업 후 동일학과 대학원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중이다.

송현진은 서울의 외국어고 출신으로 인문어학계열 전공에 들어갔지만 고등학교와 큰 차이를 못 느꼈다고 한다. 송현진은 한지민과 마찬가지로 한울대학교 학생언론에서 활동하였으며, 소위 “운동권” 성향이 강한 학생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한때 진로 탐색을 위해 고시를 잠시 준비하기도 했고, 공공기관과 사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 진로를

9) 이름(가나다 순)과 대학(연구 참여자 중 다수 순)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0) 연구 참여자들은 경제적 사정이 크게 어려운 경우는 없었고 대체로 ‘중간계급’의 생활양식을 갖고 있었다. 또한 경제적 사정이 대학생활 중 변화한 경우도 있었다. 여기서 말한 ‘경제적 여유’는 연구 참여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배열한 결과이다.

생각하게 되었다. 현재는 동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교환학생을 하는 중이다.

유민정은 경기권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제변호사가 되기 위해 한울대학교 사회과학계열에 진학했다. 하지만 대학의 현실 속에서 다소 방황하다가 원치 않은 전공에 배정되었고, 방황 중에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어학연수를 다녀와서는 한 경영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비로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그 뒤에 사기업에서 인턴을 하기도 했고, 계속해서 그나마 관심이 있는 분야에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정다인은 서울의 평준화 고교 출신으로, '실천하는 지성인' 같은 대학생활을 위해 초반에 많이 노력했다. 과/반의 학회에서 활동을 오래 하였으며, 이의 연장선에서 한울대학교 학생언론에서 활동하였다. 하지만 한 때 침체기와 오랜 휴학을 경험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 야학에서 강학을 하기도 하였다. 그 뒤에 1학기 동안 서유럽의 한 국가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으며, 현재는 계속해서 취업과 진로를 탐색하고 있다.

한지민은 지방의 일반계 고교 때부터 화학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화학도 공부할 수 있는 한울대의 응용계열 전공에 입학했다. 한울대학교 학생언론에 들어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많은 취재경험을 했으며, 시간이 지나서는 한 기성언론사가 발행하는 잡지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이공계 사람들의 삶에 대해 관심이 많아 여러 모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었다. 과학 기자 등을 꿈꾸기도 했으며, 현재는 다른 전공으로 대학원 입학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한결은 지방의 한 '입시 명문' 자율형 사립고를 졸업하고 생물학에 대한 애정을 품고 가람대 생물학과에 진학했다. 생물학과의 현실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했고, 이한결은 대신 주로 <가람대신문>에서 우여곡절을 거치며 활동했다. 생물학자가 되기 위해 두 차례 실험실 생활을 하기도 하였으나 좌절스러운 경험이었다. 신문사를 그만둔 뒤에도 언론사에서 기자로 활동하였고, 앞으로도 기자로 살아가고 싶어 한다. 현재는 서유럽의 한 국가로 교환학생을 가 있다.

김우진은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민윤진과 서주희와 새롬대의 같은 인문어학계열에 진학하였다. 고등학교 때부터 춤을 추던 김우진은 대학생이 되어서도 계속 춤을 추었다. 김우진은 학과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였지만, 다른 대학에 다니는 춤꾼들과 더 많이 만나며 춤꾼으로의 실력과 명성을 쌓아갔다. 취업을 앞두고 불안해하기도 했지만, 일을 하면서도 춤꾼으로 계속 살기 위해 생애계획을 다시 짜게 되었다. 현재는 군복무를 하면서 미래를 구상 중이다.

민윤진은 경기의 한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심이 있던 일본어를 공부하기 위해 새롬대 인문어학계열에 진학했다. 하지만 민윤진의 가장 큰 꿈은 성우였으며, 대학에 간 이유는 다만 “청춘”과 “대학생활”을 즐기기 위해서였다. 교환학생을 다녀오기도 하였고, 휴학을 하면서 성우를 준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민윤진은 여러 가지 이유로 꿈을 바꾸게 되었고, 요가 강사를 꿈꾸다가 포기하고 방황의 시간을 거쳐 현재는 항공사 승무원 취업을 준비하는 중이다.

서주희도 경기의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어를 공부하기 위해 민윤진과 같은 계열에 진학했다. 서주희는 입학 직후부터 학생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관련 활동을 열심히 하였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기도 하였지만, 주로 학교에서 하는 활동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던 중 졸업을 앞두고 한 취업박람회에서 충격을 받고 돌아오게 되었고, 일상을 취업에 맞게 조이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취업 준비를 하는 중이지만, 워킹 홀리데이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나는 경우에 따라, 또는 연구 참여자들이 동의해준 정도에 따라 적게는 두 번에서 많게는 다섯 번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 뿐 아니라, 익명성 보장, 연구 참여의 자발성과 자유 보장, 녹음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연구 윤리 절차를 거쳤다. 인터뷰 자료는 모두 전사되어 연구 참여자들의 확인을 거쳤고, 연구 참여자들이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은 따로 표시해 두었다. 물론 인터뷰 외에도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도 있었다. 인터뷰가 끝나면 인터뷰에 대한 인상을 연구 노트에 기록하였다. 녹취록과 연구 노트는 주요 연구 자료가 되었다. 나는 몇몇 연구 참여자들이 쓴 글을 읽고 이에 대한 인상을 연구 노트에 기록하기도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만나면서 글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비록 인터뷰 외의 자료는 이 연구 내러티브에 직접 인용하지는 않지만 분석과 해석 과정에서 부분적인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었다.

연구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나는 일반적인 질적 연구자들이 하듯 먼저 자주 반복되거나 인상적이고 강한 의미를 가진 주제를 포착하고 이를 범주화하였다(Saldanã, 2009). 한편 이론적 관심에 따라서 범주를 먼저 설정하고 다양한 주제들을 배열해보기도 했다. 즉, 반복하여 에틱과 에믹의 상호 교차를 해보았다(조용환, 2011b). 하지만 연구 문제나 주제를 명확히 잡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노력은 초점을 잡지 못할 때가 많았고, 연구자 중심으로 연구 텍스트가 구조화 된 인상을 준다는 동료들의 지적을 들을 수 있었다. 이 논문의 구성은 계속 반복해온 에틱-에믹의 상호교차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분석 및 구조

화의 계속된 순환 과정에서 메를로-퐁티의 지적은 적잖은 참조가 되었다.

> 대화의 경험에서 언어는 타인과 나 사이에 공통 지반을 구성하고, 나의 사고와 그의 사고는 하나의 직물을 만들며, 나의 말과 대화자의 말은 논의 상태에 의해 불려나오고, 이것들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것의 창조자가 아닌 공통 작용에로 끌려간다. ...(중략)... 우리는 완전한 상호성의 협력자이고, 우리들의 조망들은 서로에게 스며들며, 우리는 동일한 세계를 통하여 공존한다. (Merleau-Ponty, 1945/2002, p.530)

나는 나와 연구 참여자들이 대화 속에서 형성한 '상호주관성'에 대한 이해가 연구 자료의 핵심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이 연구가 일종의 '이중 해석'의 과정이라는 점을 뜻한다. 연구 참여자들과 나눈 인터뷰는 이미 하나의 '문적(文的) 구성물'로서, 대화의 과정을 통해 드러난 일차적 해석(inter-pretation)의 결과물이다(Denzin, 2001; Ochs & Capps, 1996; Schostak, 2006). 인터뷰가 두 사람이 상호 공존하는 유일한 사건인 한 동일한 대화는 반복될 수 없다. 즉, 인터뷰 하나하나는 객관화될 수 없는 독특성(singularity)을 간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자료들을 연구 내러티브라는 새로운 문적 구성물을 위해 이차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연구 참여자의 삶이 이야기로 말해지고 다시 이것이 연구 내러티브로 기술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감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글쓰기 과정에 이르러서도 연구자의 해석적 개입이 어느 정도 관여한다는 것을 뜻한다(van Manen, 2006).

자료 수집과 분석, 해석을 반복하는 연구 과정에서 나는 일종의 '브리콜뢰르(bricoleur)'가 되고자 했다(Denzin & Lincoln, 2011). 즉, 질적 연구와 다양한 이론의 전통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마치 브리콜라주를 만드는 과정처럼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학문적, 이론적 전통과 다양한 자료들을 나의 연구 상황에 맞추어서 '수공예'를 하듯 나름대로 전유하고자 했다. 그리고 점차 연구 내러티브의 작성을 본격화하게 되면서, 나는 이 연구에 적합한 본문의 구성과 분석 방법을 더욱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글쓰기를 하면서도 몇 차례에 걸쳐 수정이 이루어졌다. 나는 연구 과정 내내 대학생들의 삶에 대해 다룬 선행 연구들을 찾을 수 있었고, 이 선행 연구들을 참조하되 다른 질적 연구물도 참조하면서 연구 내러티브의 구성을 고민하였다. 이는 일종의 선행연구 검토 작업과도 같았다. 아래의 표는 이 고민의 산물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표 3> 대학생들의 삶을 분석하는 다양한 방식

연구 관심 및 분석 방법	주요 연구 방법	주요 선행연구
대학생 '문화화' 과정의 구조와 양상 분석	문화기술지/ 이론적 탐색	김영철, 1986; 박종흡, 1999; 이규일, 2010; Manning, 2000
특정 대학 캠퍼스의 대학생활과 문화의 양상 분석	문화기술지/ 장기간 참여관찰	Blum, 2009; Moffatt, 2010; Nathan, 2005
대학생 문화의 유형화 분석	아카이브 연구	Horowitz, 1987
대학생활 중 특정한 활동의 양상과 구조, 맥락 분석 (예, 수업, 구직활동, 해외연수, 공부경험, 연애, 자기계발 등)	참여관찰/ 인터뷰	김은아, 2009; 남미자, 2013; 박소진, 2010; 서덕희·민혜리, 2009; 이규호, 2006; 이민경, 2008; 천혜정, 2005; Abelmann, Park & Kim, 2009
특정 대학생 집단의 대학생활 양상에 대한 분석 (예, 운동권 학생, 저소득층 명문대, 만학도, 사범대, 이주민, 예술가, 여학생)	참여관찰/ 인터뷰	김원, 2011; 김효진, 2010; 이정희·안영진, 2007; 이새암, 2010; 조문영, 2012; Abelmann, 2009; Clark/Keefe, 2012; Holland & Eisenhart, 1990
대학생활의 현상학적 체험과 본질 (예, 전문대생)	현상학적 체험 연구	신현정, 2012

하지만 선행연구에는 나름의 한계가 있었다. 이를테면 대학생 문화화 과정에 대한 연구는 대학생들을 문화의 '수인(囚人)'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정 대학 캠퍼스의 대학생활과 문화에 대한 연구 및 대학생 문화의 유형화 연구는, 비록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대학생 개개인의 삶의 역동이 아닌 문화의 역동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대학생활 중 특정 활동에 대한 연구는, 대학생들이 늘 하나의 활동이 아니라 여러 활동 영역에 걸쳐 있으며, 무엇보다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한다는 삶의 총체성과 과정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편이었다. 특정 대학생 집단의 대학생활에 대한 연구는 흥미롭고 연구 참여자의 외연이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과연 이들의 대학생활이 다른 집단의 대학생활과 그렇게 본질적으로 다를까 하는 의문이 들게도 했다. 때로는 특정 집단의 표층적 차이를 지나치게 부각시켜 범주화 한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활의 현상학적 체험의 본질에 대한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통시적 변화와 생성의 과정, 교육적 의미에 대해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결국 나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목록 중에서 어느 것도 딱 맞는 옷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연구 주제의 유사성을 가진 연구도 발견하기 어려웠거니와, 특히 현상학적 존재론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연구는 발견하기 더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나는 현상학적 존재론을 선택하고 있을까? 무엇보다 위에서 살펴본 분석 방법들에 비해 대학생활의 존재론적, 실존론적 양상을 잘 파악할 수 있다고 기대했기 때문이다(조용환, 1995; Batchelor, 2006; Dall'Alba & Barnacle, 2007). 더 나아가, 나는 이러한 존재론적 탐구에 기반을 두고 더 나은 삶과 문화와 교육을 구상하는 존재론적 교육학의 가능성을 대학교육의 맥락에서 탐색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조용환, 2001a; 2011a).

결과적으로 나는 연구 내러티브에서 하이데거가 주창한 '주제화'라는 방법을 분석과 해석의 도구로 택하기로 하였다(Heidegger, 1932). 나는 먼저 연구 참여자들의 '되기'라는 삶의 과정과 이야기에 주목하고(Ⅱ장 참조), 더 나아가 좇기와 찾기의 이중적 지향성이 특히 어떠한 대학생활 이야기의 주제를 통해서 표현되는지에 주목하기로 하였다(Ⅲ장 참조). 내가 분석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대학생활 이야기 주제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특정한 지향성을 함축하고 있고, 이러한 지향성들은 각 연구 참여자들의 삶에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나는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 논문의 마지막에서 교육인류학의 메타적인 관점으로 대학생활의 교육적 가능성 및 교육학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밑바탕을 깔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Ⅳ장 참조).

이제 다음 장에서는 내가 만난 연구 참여자들의 대학생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대학생활 이야기는 나와 연구 참여자들이 나눈 대화의 흔적과 흐름을 편집하고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연구 참여자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한 사람의 '대학생' 뿐 아니라 그 어떤 실존적 존재자로 되어 가는지(becoming)에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대학생의 삶과 이야기

주인공은 어떤 잘못된 생각, 헛된 기대 속에 있다.
그러나 마침내 그것에서 벗어나게 된다.
여기에서 실망과 깨달음의 운동이 생겨나며,
이는 <찾기> 전체에 리듬을 불어넣어 준다
— 들뢰즈(Deleuze, 1964/1997, pp.22-23)

우리는 이제부터 흔히 "대학생"이라 불리는 연구 참여자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대학생활'의 생애사적 과정[11]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의 대학생활은 좁은 의미에서는 대학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및 기타 과외 활동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대학생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비단 캠퍼스라는 공간적 한계에 제한되지 않고 하는 모든 경험과 활동을 가리킨다. 물론 두 번 말할 필요 없이, 이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활동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관심사나 삶의 지향도 다양했으며, 겪어온 삶의 여정도, 바라는 미래의 모습이 모두 달랐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동일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유사성이며, 객관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독특성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문화적 존재이기도 했지만, 서로 다른 문화들 사이를 유목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우리는 이렇듯 '차이의 존재'인 각 연구 참여자들이 어떤 맥락에서 살아왔는지, 또 어떠한 변곡점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꿈꾸고 있는지를 살필 것이다.

우리는 연구 참여자들이 대학생활을 거치며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becoming)를 살피되, 특히 '좇기'와 '찾기' 두 지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

11) 여기서 유의할 것은, 들뢰즈(Deleuze, 1980/2001)의 표현을 빌자면 연구 참여자들은 주어진바 물리적 시간의 동일한 '박자(mesure)'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 달리, 다른 모든 사람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각자의 실존적인 삶의 '리듬'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 들뢰즈에 따르면, '박자'란 등질적으로 "코드화된 형식"이며, '리듬'은 "항상 코드 변환 상태에 놓인" 것으로써 "차이"의 근간이 된다(Deleuze, 1980/2001, pp.595-596). 박자가 "헐벗은 반복"으로서 '같음의 반복'을 가리킨다면, 리듬은 "옷 입은 반복"으로서 '차이의 반복'이다(ibid.). 들뢰즈가 제안한 박자와 리듬의 구별은 연구 참여자들의 서로 다른 삶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좇기와 찾기는 특정한 시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동시간대 일상의 모든 경험과 활동에서 달리 지향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수업에서는 쏟아지는 지식과 평가기준을 좇지만, 동아리 활동의 가능성은 적극적으로 찾는 대학생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부모의 바람을 좇아 의사의 길을 가지만, 의료봉사를 하며 사는 삶을 찾는 모습도 상상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다양한 양상을 목록화 하기보다는, 연구 참여자들이 대학생활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 중요하다고 꼽았던 "전환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려고 한다. 좇기와 찾기는 주로 대학생활의 변곡점에서 첨예하게 문제화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연구를 하면서 만났던 아홉 연구 참여자들의 아홉 이야기 모두가 소중하지만, Ⅱ장에서 소개할 대학생활 이야기는 한지민과 정다인, 이한결, 민윤진, 유민정, 총 다섯 명이 들려준 이야기에 한정하기로 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엄밀한 방식으로 유형화 하여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들 다섯 명은 어느 정도 비교될 수 있는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리듬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섯 이야기를 먼저 모두 소개한 뒤에, 소결 부분에 정리하여 제시할 것이다. 다섯 명 외에 다른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아쉬운 대로 논문의 다른 지면에서 부분적으로 소개할 것이다.

1. 한지민의 이야기

한지민은 지방의 한 대도시 나산시(가명)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현재 한지민의 부모는 나산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생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중이다. 한지민의 동생은 한지민과는 달리 "대학 갈 생각"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동생은 종종 부모의 일을 도우며 용돈 벌이도 하고,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어 한다고 한다. 이러한 동생과 마찬가지로, 한지민도 부모로부터 최대한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지향을 갖고 성장했다. 한지민의 독립적인 삶의 지향은 대학생활 내내 지속되는 듯하였다.

한지민은 나산시에서 "들어도, 말해도 아무도 모르는" "소위 말하는 지잡고[12]"를 졸업했다고 한다. 이곳에서 한지민은 더 나은 대학 입학이라는 목표를

12) 대학입시 성적 기준으로 중하위권에 위치한, 특히 지방 소재 대학을 가리켜 흔히 "지잡대"라고 일컫는다. 한지민이 말한 "지잡고"라는 단어는, "지잡대"라는 말처럼 지방

좇아 달려가는 고등학생들과 크게 다르게 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공부”하는 일에서 즐거움도 느끼고 성취감도 맛보면서 앞으로 자신이 “뭐라도 되겠다, 이런 확신”을 느끼기도 했다고 한다.

> 고등학교 때요? 그냥 잘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건 제 자랑인데, 제가 공부가 늦었거든요. 고2 올라가서 열심히 했지, 그전에는 거의 그게 없었는데…. 저희 학교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에서 ‘아 쟤는 1급 반’ 이런 칭호를 듣는 애들이 많았어요. 조기교육도 받는 애들이 많았고. 교내 화학경시대회를 했었는데, 걔네들을 제치고 제가 1등을 했어요. 저는 고2 공부하면서 처음 공부하는데, 조기교육반 제치고서 제가 1등하니까, 아 내가 감이 있나? 내가 잘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때는.

한지민은 “그때는”이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고등학교 시절의 공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회상하고 있었다. 한지민은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화학에 대한 흥미를 찾았기에 “공부 자체가 재밌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한지민은 화학과목에서는 “화부심(화학에 대한 자부심)”[13]을 느끼기도 했고, 한지민은 “그때는 제가 노벨상 받는 엄청난 화학자가 될 줄 알았”다며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지민이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애증 속에 유지했던 “화학”에 대한 관심은 고등학교 공부에서 비롯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 한지민은 여느 고등학생이 그렇듯이 “커트라인”을 중심으로 지원학과를 결정하게 된다. 지원학과 결정에는 많은 고려 요소가 들어가기 마련이지만, 합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커트라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능 성적이 잘 나온 편이었지만, “공포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던 “수능, 내신, 논술·구술”이라는 다중 전형을 고려해야 했다. 입시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좇지 않고서는 원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한지민은 “좋아하는 화학이랑 가까운 과중에 가장 낮은 과”였던 실용학풍이 강한 한 자연계열 전공에 지원하

에 위치한 ‘일반’ 고등학교를 자조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지잡고”라는 단어는 상대항으로 외고나 과학고, 일부 사립고 같은 입시 “명문고”가 있다는 점을 함축한다.

13) 다양한 축약어나 은어는 연구 참여자들과 대화하는 중에 빈번하게 등장했다. 하지만 나도 연구 참여자들과 연령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인터넷 은어나 신조어 사용에도 익숙한 편이었으므로 그리 이해가 어렵지 않았다. 종종 이해에 어려움을 느낄 때는 나중에 따로 질문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하여 의미 확인을 거쳤다.

게 되었고, 복잡한 입시 관문을 뚫고 한울대학생이 되었으며, 대학에서의 첫 학기를 보내게 된다.

> 1학년 때[14]는, 일단은 고3 근성이 남아 있었어요. 그니까 한울대 와서도 뭐 좀 공부를 잘해서 상위권에 들고 싶다, 그런 생각에 공부 좀 열심히 했고요. 연애도 열심히 했었고. 연애를 많이 했어요. 원거리여가지고, 주말에 거의 개한테 다 가고. 그냥 서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서울 구경하고. 술 먹는 거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술 많이 먹고. (웃음) 술 많이 먹었어요. 어떻게 그래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한지민은 대학생이 된 후에도 "고3 근성"이 남아서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그렇다고 "공부"만 한 것은 아니었다. 한지민은 "원거리" 연애도 했고, 대학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과 고등학교 때는 쉽게 느끼지 못했던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곤 했다. 물론 "자유로운" 시간에 하는 일은 음주와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 한지민이 들어간 과/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여느 대학생 문화처럼 음주 문화가 지배적이었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지역을 초월해"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느낌"을 받았던 한지민은, 활발하게 과/반 모임과 술자리에 참여하려고 하였다. 물론 모임 참석 여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지만, 대학생활 내내 외톨이가 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다. "술 먹는 것 별거 없네, 몸만 피곤한 일이구나"라는 점을 느끼게 되고, "선배들도 나보다 한 살 많은 사람들일 뿐이구나"를 깨닫게 되었다. 한지민은 오래지 않아 대학생활이 "기대하던 바"와 다르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화학"에 대한 애정이 강했던 한지민이었지만, 수업도 "기대"보다 만족스럽지 않았다. "학점관리" 목적 외에 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수업이 다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지민은 과/반 생활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과/반 문화의 시끌벅적한 '거품'이 꺼지고 평범한 "현실"이 찾아왔다. 동아리 등 몇 군데 소속할 곳을 찾아 전전하기도 했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다. 그렇게 1학년을 마무리 할 때쯤, 한지민은 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

---

14)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생활을 회고하면서 "200X년"보다는 "X학년 Y학기 때"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편한 듯하였다. 이하에서도 대체로 이러한 표기를 따를 것이다.

사실 어느 정도 대학 이상이 아닌 학생들은 나랑 똑같은 나이인데 불구하고, 나는 수능 몇 개 더 맞았다고 "선생님, 선생님" 소리 들으면서 고액의 돈을 받고, 딴 애들은 진짜 '알바(아르바이트)'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예요. 겨울방학 때 잠깐 했지만 호프집에서 알바도 해보고. 그때는 그냥 재밌었는데, 딴 애들은 진짜 힘들겠다. 진짜 돈도 얼마 안돼요. 시급이 4천원이었는데, 하루에 4시간씩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나갔는데 과외랑 똑같아요, 월급이. 아 진짜 그래서 대학생들, 진짜 사립대 애들은 우리보다 등록금 훨씬 비싼데, 어떻게 모으나. 그냥 그런 생각도 들고. 과외 말고 알바 하면서 사람들 만나는 게 진짜 재미도 있었고.

많은 한울대 학생들은 중, 고등학교 때의 "공부" 경험을 살려서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곤 한다. 한울대 학생들은 과외가 보수도 좋고 시간활용도 자유로운 편이기에, 때로는 과외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면서도 대체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러한 경향으로부터 한지민도 완전한 예외이긴 어렵다. 주변 대다수가 과외를 하는 분위기에서는 과외를 하는 것이 대세를 좇는 일일 수도 있다. 다만 1학년 때의 한지민은 과외 학생들로부터 "선생님 소리"를 듣는 것이 부담이기도 했고, "진짜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는 다른 대학의 학생들도 생각하면서 과외가 아닌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기로 결심했다. 한지민은 여러 대안들을 찾던 중, 호프집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경험이 한 계기가 되어 한지민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폭넓게 갖게 되었다고 한다.

한지민: 2학년부터는 제가 신문이나 이런 거를 읽으려고 했어요. 책도 좀 읽고. 근데 기초가 안 되어 있고, 제가 신문은 생판 처음 읽는 거니까. 그러면요, 신문을 딱 펼치면 아는 단어가 일단 없어요. 수지가 뭐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경제면은 아직도 못 읽어요, 아직도. 정치를 봐도 정치인 이름도 하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것을 따라가려고 막 이것저것 많이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읽으려고 노력하고. 정말 노력이죠. 안 읽히는 것 막 읽고.

연구자: [어떻게]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한지민: 알바해본 게 크지 않았을까 싶네요. 뭐랄까, 한울대 생이 아닌 일반 대학생들의 사는 게, 진짜 이게 사회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등록금 [문제] 이런 게 수면 위로 안 떠올랐었잖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상황은 똑같은데. 그래서 일단 그런 것에서부터 문

제의식이 출발했던 것 같아요. 뭐, 힘드니까요.

이렇게 한지민은 2학년 즈음하여 사회적 사안들, 특히 오늘날 대학생들의 삶의 조건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한지민은 문과와 이과라는 '경계'를 넘어 인문사회계열의 수업들을 찾아 듣기도 하고, 신문을 열심히 찾아 읽으며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한지민은 사회문제에 대해 "알고 싶은데 현재 인맥으로는 그 통로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 "시험"이나 "이성 얘기" 같이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이 하는 얘기"를 나누는 지인들은 있었지만, 그것 이상의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은 가까운 주변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었다. 한지민은 그러한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일상적 분위기를 느끼곤 했다. 수업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학생들로부터 눈총을 받기 십상이란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일상적인 '동조' 압력 속에서, 홀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한지민은 사람들을 찾아 관심을 공유하고 싶었다. 그러다가 한지민은 <한울학보>(가칭)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

연구자: 처음 <한울학보>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한지민: 어, 되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글로 이렇게 잘 썼을까? 그게 되게 신기했고. 뭐랄까? 그냥 하는 소린데, 그래도 만약 사회대 신입생이면 정말 귀를 닫고 다니지 않는 이상, 눈을 닫고 다니지 않는 이상, 자보나 뭐 이런 것 많이 보게 되는데, 저는 전혀 그런 문화를 거의 못 본 상태에서 학보사를 딱 보니까 저는 그게 더 신기했죠.
연구자: 그런 문화라는 건 어떤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한지민: 그니까 '운동권' 문화? 자보가 막 붙어있고 사회비판적인 사람들이 산재해 있고. 그런 문화를 거의 찾기 힘드니까요.

한지민은 2학년 2학기에 들어서면서 <한울학보> 방을 찾게 된다. <한울학보>는 한울대 캠퍼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학생언론 중 하나로써, 다른 학생언론과 마찬가지로 캠퍼스 문제 뿐 아니라 "사회문제"도 비중 있게 다루는 곳이었다. 과거 한지민이 홀로 찾아 헤매던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모임이었다. 그래서인지 한지민은 <한울학보>에서 활동을 몇 학기에 걸쳐 지속하게 된다. 부모는 "네 친구들 이상한 애들 아니니"라고 조금 걱정하기도 했지만, 한지

민에게는 <한울학보> 활동은 대학생활에서 중요한 “전환기”이기도 했다. 하지만 한지민에게 이러한 “전환”이 유쾌하고 즐거운 체험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연구자: 회의 들고 했다는 것 있잖아요, 3학년 되니까. 그건 뭔 거 같아요?
한지민: 하아…(한숨) 음… 회의 같은 게…. 일단 저는 학보사에 들어온 게 좀 컸던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는 그냥 전공 듣고 대충 졸업하면 어떻게든 먹고 살겠지, 이런 식의 마인드로 살아왔는데, 학보사에서 더 나은 데로의 전환기 뭐 이런 거였어요. 갑자기 막 저 자신에 [대한] 고민에다가 뭐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까지 너무 겹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막 아무 생각 없다가, 뭐 예컨대 여성주의를 처음 배웠어요. 그래서 그 시각으로 세계를 보면 잘 된 게 한 개도 없잖아요. 다 틀렸잖아요, 완전. 그런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뭐 전공 그딴 게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되는 거?

한지민은 <한울학보>에서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이 하는 얘기”를 넘어, “사회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학보사 기자로서 한지민은 여러 사람들을 찾아 만날 수 있었고, 글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 물론 앞에서 살폈듯 이 과정은 ‘진통’을 동반하기도 했다. 예전 같으면 무심히 넘어 갔을 “사회문제”에 대한 고민은, “자신에 [대한] 고민”과 겹쳐지면서 몇 겹으로 이루어진 “회의”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렇게 한지민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활동을 계속했고, 3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는 편집장도 맡게 된다.

그렇게 [편집장] 할 시기까지만 해도 전 제 자신에 대한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때까지만 해도 ○○대(자연계의 한 단과대학) 콤플렉스가 있었고, 제가 아직 학보사에 적응을 했다는 느낌도 가지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제가 학보사를 끌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편집장을 결의했을 때만 해도 제가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한 학기 견딜 정도는 살아도 되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고, 그러면서 자존감이 좀 높아졌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웬만한 일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 거겠다, 해서 자존감이 좀 높아졌었어요.

이공계 학생들이 인문사회계 학생들에 비해 “비판적 사고”나 “문제제기”를 하는 일이 드물다는 말은 이한결에게서도 들을 수 있었다. 이공계 수업에서도 학생들의 독특한 생각이나 관점을 선호하기보다는, 특정한 이론이나 실험을 빠르게 이해하고 문제를 잘 푸는 학생들을 선호한다고 한다. 또한 인문사회계 수업에서는 흔히 요구되는 글쓰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었다. 그래서 한지민은 <한울학보> 활동을 하면서도 은근히 “콤플렉스”를 느끼기도 했다고 한다. 한지민은 그 외에도 “어쩔 줄 모르겠는” 어려움들을 거치게 되었지만, 결국 편집장 활동을 해내면서 어떤 성취감과 “자존감”을 체험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도 영원히 한 자리에 머무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시간은 흐르고 졸업도 점차 다가오기 때문이다. 또한 졸업을 앞두고는 대학에서 하는 “공부”에 회의감이 절정에 치닫고, 진로에 대한 고민까지 중첩되어 “대4병(大四病)”에 걸린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 주변 또래들이 모두 나름의 진로를 좇거나 찾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다. 그래도 한지민은 <한울학보>에서 “내가 할 건 다 했다”는 느낌을 받으며 “후회 없이”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한지민은 졸업 학점을 미리 들어두기도 했기 때문에, 남은 학기 동안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흥미로운 경험과 활동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외국어 공부도 할 예정이었고, 유기견 구호 활동에도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한지민은 한울대 울타리 너머에서 “범학교 활동”을 찾아서 하고 싶었다고 한다.

연구자: 범학교 활동은 왜 하고 싶었던 건가요?
한지민: 아~ 한울대에 갇히기 싫어서. 한울대라는 이미지에 갇히기 싫어서요.
연구자: 왜 그런지….
한지민: 음…. 솔직히 나는 한울대가 평균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인구의. 뭐랄까, 제가 저는 항상 제가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런 거를 맨날 경계하고 있거든요. 한울대 사람끼리만 만나면 이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굳어지는 것 같아서.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제 자신을 굽히거나 그런 방식도 배워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궁금한 게 커요. 한울대 애들은 대충 주변에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지방대 애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고 싶고. 그런 게 커요.

한지민은 지금까지 편히 지내온 한울대라는 ‘경계’를 넘어서, “이 사람 저 사

람" 만나서 "여러 사람들 이해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마침 한지민은 여러 가지 꿈 중의 하나로 "과학 전문기자"를 꿈꾸고 있던 차였기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찾던 중 <과학저널>(가칭)이라는 매체에서 자리를 잡고 20대 대학생 필진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한지민은 서론에서 언급했던 K대학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취재를 하기도 했고, 그 외에도 많은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대학생들의 삶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담은 글을 쓰고 있었다. 한지민이 <과학저널>에 기고한 글은 이공계 학생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나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과학저널>은 20대 필진들을 더 모집하여 모임을 꾸렸고, 한지민도 주기적으로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다.

연구자: 한지민 씨는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한지민: 이야기요? 일단은 [모임의] 초반이니까 서로의 관심사를 얘기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글을 쓰기로 한 이유로, 일단 대학원생들이 많다고 했으니까, 자기 전공분야를 대중적으로 알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저는, 그냥 이공계의 문제가 정말 차고 넘치는데 왜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에 대해 문제의식이 평소에 많았다, 이런 쪽으로 저는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한지민은 <과학저널>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자신이 대학생으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특히 한지민은 이공계 대학생으로서 체험했던 다양한 부조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왜 부조리가 문화적으로든 제도적으로든 해결되는 일이 드문지에 대해 의문을 갖기도 했다. 이를테면 한지민은 왜 강의실이나 실험실에서는 정해진 규칙이나 관습을 좇아야 한다는 압력이 높은지 문제 삼고 싶기도 했다. 비록 '똑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지는 않았지만, 한지민은 이곳에서 "말이 통하는" 흥미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기에 흥미를 느꼈던 것 같다. 모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물었다.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 만족감이 높아요. 왜냐면 이공계 문제가 상당히 많지만, 이공계 친구들끼리 만나도 그런 얘기를 거의 안하고, 하더라도 "너는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아?" 이런 식으로 치부당하거든요. 그런 데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공계 얘기'만'(강조) 하니까, 너무 좋아서 미쳐 날뛰는 거야, 사람들이. ...(중략)...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친구, 예컨대 P대학의

친구는 사회 문제에 너무 관심이 많은데 주변 애들은 사회의 '사'만 꺼내면 "너 빨갱이냐?" 이 정도 인식 수준 밖에 가지고 있지 않고. 그니까 얘기할 구멍이 없다, 너무 답답했는데, 너희들 만나니까 너무 좋아 미치겠다.

물론 이러한 모임과 활동이 언제나 매끄럽고 순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처음의 열기가 조금은 냉각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모임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이런 모임은 모임의 구성원들을 위해서도, 또 사람들의 삶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도 계속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한지민은 대학원 진학에 대해 찾아 본 뒤에 한 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입학 전에 실험실에서 일을 맡으면서 대학원의 분위기를 익히기도 했다. 대학원 졸업 후에는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는 공공정책 관련 직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한지민의 대학생활은 의전과 약전 진학이 지배적인 이공계 문화를 좇기보다는, 자신이 찾은 '의미 있는'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편이었다. 또한 한지민의 대학생활에서 상당 부분은 이공계열 대학생들을 포함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 속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한지민의 꿈 중 하나였던 "과학 전문기자"가 되기엔 "현실"의 문이 너무나 좁았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지민이 대학원 진학을 선택한 것은 "현실적인" 상황에 맞추어 어느 정도 조율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 정다인의 이야기

정다인은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정다인의 부모는 모두 현직 교사로, 정다인을 "특목고"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선호하지는 않으셨다고 한다. 대학입시 준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봐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는 정다인이 있는 자리에서도 "정치적인 의견을 말하는데 거리낌이 없"으셨다고 한다. 이러한 성장배경 속에서 정다인은 고등학교 때에도 "언론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그리고 이전에는 "한울대에 오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정다인은 한울대 사회과학계열에 입학하게

된다. 정다인은 대학 이후의 "꿈"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는 분명한 편이었다.

> 입학 전에 어떤 생각이었냐면, 대학생은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엄마 아빠 세대나 이런 세대에는 대학생들이 변화를 주도하는 세대였잖아요. 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동기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대학생이 되면 다 집회에 많이 나가고 마르크스 이런 것 공부하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정다인이 입학한 한울대학교 사회계열의 재학생들은 박태훈과 유민정을 제외한 연구 참여자들이 겪었던 것과는 달리, 대체로 "사회의식"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고 한다. 한지민의 표현에 따르면 "정말 귀를 닫고 다니지 않는 이상, 눈을 닫고 다니지 않는 이상" "사회비판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사회계열이었다. 정다인의 말에 따르면, 한울대 사회계열 학생들 사이에는 "사회와 연결되려는" "문화"가 있었다. 비판적으로 보자면 "진보적인 것"이 "액세서리처럼 활용되는 분위기"도 있었다. 이는 다른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 비교했을 때 매우 특이한 편이었다. 물론 사회계열의 모든 학생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정다인이 보기에도 "자기 미래만" 생각하고 개인적인 꿈을 좇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사회참여 의식이 높았던 신입생 정다인에게는, 이러한 학생들의 지향이 다소 '눈엣가시'였던 것 같다.

> 진짜 어떤 신념을 내가 세워야 하고, 그거에 맞게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거든요. 집회도 많이 맨날 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막 [집회에] 안 나가는 애들, 그런 애들 막 무시했어요. 아 쟤네는 지금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저렇게들 자기 미래만 [생각]하면 되겠어? 쟤네는 진짜 수준이 낮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전 그런 애들하고 막 잘 안 놀려고 그랬어요. 쟤네 진짜 별로다~ 그래서 저랑 비슷한 애들이랑 막 잘난 척하면서 놀고. 그런 정체성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다인은 자신이 '명문대생'으로서 사회적으로 "특혜"를 입었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이 "한울대 학생이라는 [점에 대한] 혐오감"까지 있기도 했다. 정다인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는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거나

2년제 대학에 간 친구들도 많고, “힘들게 알바하고 사는” 경우도 많았다. 그럼에도 자신은 단지 소위 “명문대”인 한울대 학생이라는 이유로 과외 아르바이트 등으로 쉽게 생활비를 버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지 않아서였다.

그래서인지 정다인은 대학생활의 초반부터 “사회적 문제”에 더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 정다인은 사회적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진보적인 비전에 대한 신념과 이념을 좇아서, 정다인은 학회의 세미나도 참석하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진보적인 인사들의 특강을 듣기도 했다. 이러한 이상을 좇으면서 정다인은 1학년 2학기부터는 <한울학보>(가명)를 찾아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정다인은 2학년이 되어 전공에 진입하면서부터 차차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 2학년 1학기 정도부터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약간 진짜 대학생이라는 느낌이 그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그런 사람. ...(중략)... 2학년 때 전공에 진입하고 교수님도 만나고 다른 수업도 들으면서,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니까, 교수님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아 나도 이제 공부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학년 때 여러 활동을 했던 것과 달리, 2학년이 되면서 정다인은 “안정적”으로 살게 되었다. 이는 전공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정다인이 좇던 삶의 지향과 크게 어긋나지 않아서였기도 하다. 전공은 정다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더 날카롭게” 해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다인은 학업이 사회적 부조리에 “타협을 안 해도 되는 길”, “깨끗한” 길이라 생각하고 한때 대학원 진학을 고려해보기도 했다. <한울학보>에서도 정다인은 동료들과 함께 계속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활동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정다인은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활동에 초점도 맞출 수 있었고, “기반이 탄탄”해진 느낌도 받았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2010년에 3학년 1학기가 되면서 정다인은 휴학을 하게 되었고, 활동하고 있던 <한울학보>에서 편집장을 맡게 된다.

> 편집장을 했을 때가 가장 정점이었던 것 같거든요, 저의 생각에 대한 믿음이. 의지도 되게 강했을 때인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한울학보>가 좀 확실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사람들이 물론 저한테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갈등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제가

다른 사람들 기획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많이 했어요. 이런 것을 <한울학보>에서 굳이 해야 하나요? 근데 그러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자기 생각에 대해서도 되게 자신감이 있고.

하지만 정다인의 이러한 "자신감"은 학보에서 나와 다른 일을 준비하면서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다. 한 교수(이하 B교수)로부터 2011년부터 시작하는 '조선장학재단'(가칭)의 장학생 선발 시험에 응시해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 중요한 계기였다. B교수는 정다인이 "[대학원에서]공부를 할 거라 생각하고 좋은 기회니까 해보라"고 제안했다. 정다인은 "내가 나를 잘 모르는데, B교수님은 나를 아니까 이렇게 [제안] 하시겠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여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던" 선발시험 준비를 시작하게 된다. 지금까지 좇았던 길과는 다른 새로운 낯선 길을 가게 된 것이다. 시험과목이 낯설었을 뿐 아니라 이런저런 사정까지 겹치게 되면서, 정다인은 계획했던 것보다 휴학을 1학기 연장하고 시험 준비에만 열심히 몰입하였다. 하지만 이 시간은 결코 녹록하지는 않았다.

'대체 나는 왜 갑자기 이렇게 되어 버렸나', 이런 생각을 막 하고. 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던 것들을 안 하게 되니까요. ...(중략)... 제가 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저한테서 멀어져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감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휴학했을 때, 그런 인식을 최대한 안하려고 하면서 그냥 그 시험 준비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 [장학생 선발] 시험을 [치르기로] 선택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상태를 잘 모르고 있다가…. 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이후에 다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때 저를 많이 놓았고, 되게 잃어버린 시기였다는 걸…. 그리고 제가 저에 대해 자신감이 있었던 것도 굉장히 많이 없어졌고. 지금도 좀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자의식도 되게 많이 없어진 것 같고요. 내가 특별하다는 의식 이런 것도 없어졌던 것 같고…. 음…, 그래서 이제 바람이 빠진 거죠. 바람이 빠진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다 알게 된" 것이라는 전제를 붙이고 있지만, 정다인에게 이 시기는 분명 쉽지 않은 시기였다. 정다인에게 2010년 후반기의 휴학은, 스스로 일종의 "공백기"로서 "대학생활의 상처"로 남아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깊은 상흔을 남겨버렸던 것 같다. 정다인은 갑작스럽게 "안정적"으로 이상적 가치를 좇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시험을 준비하며 "혼자 있게 됨으로써" 정다인

에게는 “되게 많이 놓았고 되게 많이 잃어버린 시기”가 되었다. 입학 이후 관심이 있던 것들로부터 멀어졌고, 친했던 이들과도 거리가 생겼다.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멀어져 가는 것을” 보았다. 더군다나 정다인은 장학생 시험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길이 좁혀진”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한다.

> 휴학했다고 하니까 애들이 저를 볼 때, “너 뭐하려고 휴학 했어?” 이러면, 그런 (장학생 시험 준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 “너 [대학원] 공부할거지” 이렇게 답이 돌아와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애들이 저를 보면 “너 공부할거지”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니까, 뭔가 그렇게 선택을 함으로써 제 길이 좁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반 애들이 저한테, “넌 걱정 없겠다 넌 공부하면 되잖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다인은 마침내 선발 경쟁이 치열한 장학재단 시험에 합격하여 장학생으로 활동하게 된다.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재단이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자격과 기회가 주어졌다. 하지만 정다인에게는 장학재단 활동이 썩 만족스럽지는 못했다. 물론 그곳에서 새롭고 소중한 인연을 만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나는 저 길로 가면 안 되겠다”, “나는 저런 환경에서 별로 안 행복할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웠다고 한다. “사회와 연결”되는 것을 중시하는 정다인은, 대학원생들의 삶을 보면서 특정 학문 영역에 대한 공부라는 길만을 좇으면 평생 “자기 문제에만 골몰”하면서 살 것 같았다. 그렇기에 정다인에게 2011년은 “후회의 나날”이었다. 그래서 정다인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않은 다른 방향으로 새롭게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 난 이제 공부를 하면 안 되겠고, 이제 어떻게 내가 다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좀 안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2011년 겨울에 계절 학기를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좀 그래도 좀 그나마… 생각이 정리되고 좀 화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까지는 ‘~을 해야 한다’는 ‘당위’가 지배적이었다면, 정다인은 점점 다른 가능성들을 찾기 시작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좇던 것들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니까 좀 자유로워진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렇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나이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

었다. 그러면서 정다인은 서서히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본디 부모는 정다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를 해주시는 편이었다. “네가 돈을 벌고 우리에게 폐만 안 끼치면” 대학원에 진학해도 좋다고 하셨다. 그러나 정다인이 취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자, “취업을 할 거면 놀지 말고 빨리하는 편이 낫다”고 독려를 하셨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정다인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소중하게 생각해오던 가치나 의미와 일정 부분 ‘타협’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더군다나 정다인에게 취업도 분명한 선택지는 아니었다.

> 아빠는 로스쿨 가는 것도 생각해보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법조계 쪽으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다, 뭔가 불확실하고, 언론사만 약간 튀어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랑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도 만약에 진짜 할 것 없으면, 저는 언론사에 취업을 하려고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해보고 나서, 뭔가 어느 정도 해볼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하니까. [취업] 해보고 나서—아니면 그냥 나오더라도—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언론사)에 취업을 하는 것도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진짜 걱정하고 [있어요].

정다인은 장학재단 시험 준비 때도 그랬지만, 취업 결심을 하고나서는 더욱 “외롭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아마 지금까지 정다인이 살아왔던 길, 또 “하고 싶어 하는 것들”과 거리가 먼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해온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가까운 진로로 “언론사 취업”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 길은 한지민과 이한결의 이야기에서도 엿볼 수 있듯 매우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 일이다. “좁은 문”을 지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만큼 집중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준비해서는 자리를 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기도 하다. 이렇듯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삶에서 점차 그렇지 않은 ‘닫힌’ 삶으로 이동하면서, 정다인은 우울감을 느끼기도 한다.

> 정다인: 제가 갈팡질팡 안하려고 겨울에 엄청 고민해서 일단은 그냥 그렇게 취업을 해보자 정한 거거든요. 되게 초점이 명확해지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건 적은데 되게 우울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는 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막 다 열려 있어,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불안했지만 그땐 되게, 뭐 새로운 이런 거 하고 싶어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연구자: 지금은 일단 정해진 것을?

정다인: 네 지금은 목표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을 하자. 그래서 학점도 잘 받고, 한국어 능력시험 이런 것도 보고.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중략)... 근데 진짜 그냥 좀 우울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뭔가 다른 애들이 뭐 할 거냐 그러면 그냥 말 안하고요. 친한 애들 아니면 말 안하고. 되게 자신이 없으니까.

정다인은 취업 준비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취업 준비는 "해야 하는 것"을 좇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텅 빈" 느낌을 지우기 어려운 일상을 보내면서, 정다인은 오히려 경제적, 사회적 보상으로 환산되지 않는 "쓸모없는 일", 혹은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직 남아 있는 소중한 대학생활 기간 동안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정말 이 시간을 잘 누리고, 진심으로 누리지 못하면 정말 죄악"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면서 정다인은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야학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정다인: 되게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중략)... 뭔가를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같이 그려볼 수 있는 사람들도 없고. 학교를 다니는 데 의미가 없는 거 있잖아요.

연구자: 진짜 외로웠겠다.

정다인: 네. 그냥 학점 들으면서, 학점만 잘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렇다고 <한울학보>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고. 그건 약간 회귀, 도피 이런 식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야학을 가게된 거예요. 뭔가 밖에 있는 공동체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뭐 정기적으로 만나고, 음, 뭔가… 오랫동안 얼굴 볼 수 있고 같이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성격의 집단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서 야학에 가게 된 거였어요.

정다인은 과거의 좋았던 시절로 "회귀"하기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로 결심한다. 지금까지 학교 내에서 "사회에 대한 관찰자"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다인은 2012년 1학기가

되면서 야학에 지원하게 되었고, 사회과목을 가르치는 “강학” 자격으로 강단에 서게 된다. 야학에 가서 만났던 다른 강학들은 아쉽게도 정다인이 기대했던 것처럼 “같이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야학에서 수업을 듣는 “학강”은 지금까지 정다인이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다. 정다인이 만났던 학강은 대체로 50대 이상이었으며, 대입 검정고시를 보려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정다인이 만난 학강들은 “배우고자 하는 의지”도 많았고, 정다인의 수업에 “정말 만족해 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정다인은 야학에서 지금껏 보고 들었던 “사회”의 모습과는 다른 편안함을 찾았다고 한다.

> [예전에는] 사회가 되게 무서운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야학은 그런 세상에서 되게 예외적인 곳이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왜냐면 거기는 뭔가를 뺏어가려는 곳이 전혀 아니고, 더 주고 싶어서 되게 서로 더 주고 싶어 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금전적인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그런 기존의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곳이라는 생각도 했어요, 학강들하고의 관계를 볼 때. 서로 되게 고마워하고 존중하고. 음, 진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그니까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거기에 갈 때. 제가 늘 가면을 쓰고 있었는데, 거기 가면 그런 것이 다 없어지고 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닌데도, 생각해보면.

1학기 동안 계속된 야학활동을 마칠 무렵, 정다인은 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었다. 이전에 정다인은 교환학생을 “일부 계층이 누리는 사치”라는 식으로 “나쁘게 생각”하기도 했었다. 충분한 경제적 지원 없이 몇 달 동안 해외에서 생활하는 일은 오늘날 많은 대학생들에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다인은 그 이전에는 생각한 적 없던 교환학생도 가능한 선택지라고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부분적으로 자신이 “너무 좁아가지고” 아예 가능성을 차단했던 것은 아닌지 “후회스럽”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교환학생을 가는 것은 아니었다. 뭔가 자신이 아직 모르는 것들을 “다른 환경”에서라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교환학생을 선택했다고 한다.

> 정다인: 교환학생 가는 것도 뭐 하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너무 안 보이니까 앞길이. 그냥 다른 환경에 가면 뭔가 보일까, 이

런 생각에. 다른 데 나를 놓으면 뭐가 보는 게 있을까 해서 가는 거지. 그냥 막연한 것 같아요. 그냥 잠깐 중지할 수 있다, 이런 생활을. 그런 거가 되게 크고, 다른 것은 전혀 계획도 없고.

연구자: 중지하고 싶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중지하고 싶다는 건가요?

정다인: 그러니까 졸업을 빨리 하게 되면 뭐 할 지에 대해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하니까, 그런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서. 교환학생을 갔다 오면 유예가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좀 이제 약간 도피 식으로 가는 게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앞길"을 정해야 한다는 압박이 심한 일상에서 교환학생을 감으로써 '거리'를 두는 일을, 단지 "도피"라고 폄훼하여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거리를 두지 않고서는 취업 시장의 거센 흐름을 맹목적으로 좇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거센 흐름을 좇으며 "초조해 하고"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서는, 정다인이 바라듯이 "더 좋은 사람",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현재 정다인은 유럽의 한 도시로 교환학생을 떠났다가 돌아왔고, 출국하기 전에 만나서 이야기했던 여러 우려에 비하면 꽤 만족스러운 경험이었던 것 같다. 다시 돌아와 졸업을 앞둔 대학생활의 일상 면면에서 정다인은 이전처럼 매우 바쁜 편이었다.

정다인은 졸업 이후의 꿈을 좇기보다는 특정한 지향성을 가진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를 키우면서 대학생활의 초기를 보냈다. 한울대학교 사회계열에는 정다인이 꿈꿨던 "사회참여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대학생 하위문화가 있었다. 정다인은 그러한 대학생 문화의 분위기를 좇으면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낸 편이었다. 하지만 정다인은 우연한 계기를 거치면서 자신이 속해 있던 사람들과 문화로부터 홀로 떨어지게 되었다. 정다인은 우울함을 느끼면서도 지금까지의 삶과 조금은 다른 가능성들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찾기의 노력을 하는 중에 정다인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기 자신부터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존재론적 지향이었다.

3. 이한결의 이야기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한결의 동생은 유전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결된 자

폐성 장애가 있다고 한다. 부친이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덕에 동생을 돌보는데 다행스럽게도 “경제적 형편으로서는 무리가 없었”지만, 부모가 “크게 마음고생”을 하여 동생은 일반 초중등학교에 진학을 할 수는 있었다. 이한결은 어렸을 때부터 동생의 유전적 장애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자신의 진로를 생각할 때도 일종의 “부채의식”을 느끼며 항상 동생의 장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물론 이한결이 성장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구체적인 분야는 계속 바뀌어 왔지만, 동생의 장애 문제는 마음바탕에 늘 깔려 있었다.

>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니까…, 참 자기가 날 때에 자기가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약간 딸린다는 이유로 사람을 되게 무시하는 사람이 많다, 혹은 공부를 [하면서] 막 고생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머리를 가리키며) 여기를 다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 그래서 되게 슬픈,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생물학을 공부하다보니까 점점 그런 분야에 초점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신경과학이나 뇌과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계속.

이한결은 본래 과학보다는 역사에 관심이 더 많았다고 한다. 어렸을 때는 역사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탓에 부모와 친지들이 뿌듯해 하면서도 걱정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공부를 하면서 이한결은 자연스럽게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관심도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이한결은 지방 소재 입시명문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인 ‘자성고등학교’(가칭)에 입학하게 된다. 학업 분위기가 지배적인 자성고등학교에서 이한결은 3년 동안 “대한민국의 누구보다 야자를 많이 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았다.

이한결이 본격적으로 생물학자라는 꿈을 좇게 된 계기는 자성고 1학년 때 매체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던 황우석 박사 사건이었다.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이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서, 이한결은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생물학에 몰두하게 되었다고 한다. 조금 늦게 공부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한결은 생물학에 강한 흥미를 느꼈고, 주변의 “공부면에서는 대단한 친구”들도 “생물은 네가 참 잘 한다”라는 독려를 했기에 자신감도 가질 수 있었다. 대학 진학 때도 물론 생물학이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 무슨 특성화 학교니 장학금을 많이 주니,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딱 순수학문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확고하게 생명과학이라는 전공을 선택하게 되어 대학에 진학했고, 그래서 1학년 때 대학을 다니면서도 의전(의학 전문대학원)이나 약학 전문대학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이한결은 본래 발해대학교(가칭) 생물학과에 가고 싶었지만, 예상보다 "수능을 좀 못 쳐"버리면서 "커트라인"이 조금 낮았던 가람대학교 생물학 전공에 진학하기로 했다. 부모는 재수를 권하기도 했지만, 이한결은 어느 대학에서든 "순수학문"으로서 생물학만 제대로 공부할 수 있으면 된다는 일념이 있었기에 가람대 진학을 선택했다. 친구들이나 선후배 대다수가 의사와 약사의 길을 좇는다는 점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한결은 생물학자가 되려는 꿈을 좇아서 오직 한 길만을 가기로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심지 굳게 가람대학교 신입생이 된 이한결에게는 가람대의 실제 풍경이 그리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다.

대학에 들어와서는, 솔직히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중략)... 가르치시는 것에 대한 실망도 있었던 것 같고. 대학의 학과 과정에 대한 실망이랑,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 잘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중략)... 제가 대학교 들어와서 처음 배운 생물학이랑, 고등학교 생물II랑 거의 비슷했거든요. 오만 방자했어요, 솔직히. 공부 하나~도 안하고도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남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다 아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좀 오만방자, 그래서 사람이 좀 오만해졌어요.

나중에는 생각이 좀 바뀌기도 하지만, 신입생 때의 이한결은 대학 수업에 대한 기대를 많이 접어버리게 되었다. 물론 최소한의 "학점관리"를 위해 전공 공부를 하긴 했지만, 고등학교 때 했던 것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공부량이 줄어" 들었다고 한다. 가람대에 다니면서 이한결은 이공계열 수업이 의전과 약전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변질된 모습을 보면서 "경악"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학의 분위기에서 "순수한 생물학"을 하려는 이한결이 설 자리는 그다지 없어보였다. 그러던 신입생 이한결의 눈에 가람대 도서관의 풍경이 들어왔다. 도서관 열람실을 보면서, 이한결은 "대학이면 좀 더 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피 튀기는구나"라는 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연구자: 놀 줄 알았는데?

이한결: 네. 그리고 경악을 한 게 전공서적이 아니라, TOEFL, TOEIC 책을 끼고 있다는 것을 보고 경악을 했죠. 열람실의 대부분이 전부 다 SSAT나 TOEFL, TOEIC을 했어요. 그걸 보고 경악을 했어요, 처음 1학년 때. 이게 뭐하는 짓인가. (웃음) 이게 내가 생각하는 대학이 맞냐. 그런 충격을 받았죠. 그 외에는 [고등학교와]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사실. 그 외엔 뭐 밥 먹고, 놀고. 좀 더 자유롭게 놀고. [수업 시간에] 질문 하라고 하면 질문 안 하는 건 여전하고.

그러한 풍경에서 압박을 느끼면서 이한결은 "토익을 빨리 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토익 공부를 했다. 물론 그러면서도 이한결은 "1학년 1학기 때는 정말 열심히 놀았"다. 여느 신입생들처럼 MT도 다니고 소개팅도 하면서 "정말 논 기억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던 이한결은 1학년 2학기가 되면서 동아리를 찾아보게 된다. 대학의 현실에 실망했으니만큼, 조금 다른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또한 이한결은 의전과 약전 진학만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적 분위기와 거리를 두고 다른 것을 경험해 보고도 싶었다. 처음에는 합창 동아리를 해보기도 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재밌어 할 만한 것들을 해보자"하는 생각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시 찾던 중 <가람대신문>(가칭)에 지원하게 되었다. 역사를 공부하던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던 "사회시사적"인 것도 고민해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처음에는 열심히 참여하는 편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되게 좀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만약 선배였다면 가만히 안 놔뒀을 후배였어요. 그니까, 학과 공부해야한다면서 기사를 쓰는 데 소홀한, 활동하는 데 소홀한, 한 번 경험만 해보자라고 그렇게 마음먹고 들어온 상태여서, 적응을 잘 안하는 상태였어요, 일부러(다소 강조). 신문을 쓰는 데 소홀히 하는 건 몰라도 사람만 만나고 가자.

왜냐하면 당시 이한결에게는 생물학자라는 꿈을 좇는 일이 신문사 활동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신문사 활동은 다만 다른 관심사를 찾는 일의 일부였다. 그래서 이한결은 동료들에게 신문사에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냥 있어주니 고맙다" 또는 "사고만 안치면 좋겠다"에 그치는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 이한결이 이렇게 보낸 시간을 후회하면서 <가람대신문>를

대학 언론 중에 “최고의 신문사”로 만들어보겠다고 결심하고 분주히 노력도 해보았지만, 동료들은 자신의 진심을 기대했던 것만큼은 믿어주지 않았던 것 같다고 이한결은 말했다. 그래서 이한결은 한때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

연구자: 대학생활 해오시면서 가장 어려우실 때가 있었어요?

이한결: 의외로 신문사. 음… 저에 대한 자신감이 제일 떨어졌을 때 하나예요, 태어나서. 그니까 고등학교 때랑 그땐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에게 큰 교훈을, 아주 비싼 돈을 내고, 비싼 값어치를 내고 얻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앞의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가다 보니까—목표는 과학자였죠—주변을 거쳐 가는 것은 하찮게 생각했어요. 그니까 약간 자기중심적이었던 거예요, 요약하자면. 신문사는 내가 거쳐 가는 거니까 대충해도 되겠지. 그 기저에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깔려 있었던 거죠. 참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것도 이제 끝날 때 되어서야 원인이 뭐였구나, 내가 욕을 먹는 원인이 이런 거였다는 것을 대충 알겠는데, 근데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 건, 지금.

이한결은 이를 “업보”라고 표현하면서 씁쓸해했다. 또한 단지 동료들과의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한결이 부장기자로서 신문사의 주역으로 활동할 때는, 신문사 활동에 “간섭”하는 가람대학교 측과 심각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 동료들의 질책과 여러 갈등, 그리고 “뒤늦게” 깨달아 가는 과정 속에서, 이한결은 “신문사가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줬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신문사 활동에서 이한결이 괴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가람대신문>을 “최고로 만들어” 널리 “인정받고 싶다”는 지향과 자신을 신뢰해준 여러 사람들 덕분에, 이한결은 당시에 “미친 듯이 일만 했다”고 말할 정도로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었다.

이한결은 4학년이 되면서 신문사를 그만두고, 대학원 실험실에 연구보조원 자리를 찾게 되었다. 이한결은 2학년 때도 실험실에 들어갔었지만, 신문사를 하느라 실험실 생활에 전념하지 못해 그만두었던 경력이 있었다. 하지만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이한결은 대학원에 진학하여 “최고의” 생물학자가 되는 길을 다시 좇아보자는 생각을 하였다. 지금까지 “아무도 못할 경험을 했다, 근데 이제는 잊고 공부나 해야지”하는 마음도 있었다. 마침 가람대에 이한결의 관심분야와 통하는 열정적이고 “아웃스탠딩”한, “젊은 나이에 이런 업적을 이룰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천재”인 교수가 부임했다. 이한결은 이 교수를 찾아가서 실험실에 들어

가겠다고 제안하고, 학부생 조교로서 실험실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마주한 현실은 이한결에게 새로운 좌절을 안겨 주기에 충분했던 것 같다. “나인 투 나인”(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으로 이어지는 빡빡한 실험실 문화와 생활을 좇아 적응하는 것도 어려웠고, 외국 학술저널에 출판된 최신 논문 한 편을 수월하게 읽는 것도 쉽지 않았다. 비록 교수와 대학원생 선배가 열정적이고 친절한 사람들이기는 했지만, 이한결이 학부에서 배웠던 것만으로는 실험실의 일상을 ‘따라가는 것’ 조차도 쉽지 않았다.

> 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실험실에 들어갔을 때, 실험에서 배우고 전공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 들어갔을 때, 연구실에 갔을 때 너무 큰 자괴감을 크게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는 학점이 4.5만점에 3.5고요. 전공은 3.3~3.4 정도. A에서 B+, B사이. C이하는 없고요. 근데도 이 모양이고…. 예전에도 관심이 있었던—물론 다른 것도 많이 하긴 했지만—관심이 있었던 사람도 이 모양인데, 저랑 비슷한 다른 또래 친구들은 어떨까? 암담하더라고요. 정말 (강조) 암담하더라고요. ...(중략)... 물론 제가 못했던 것도 있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로 심할 줄은 몰랐죠. 완전히 까막눈일 줄은. 네…, 씁….

결국 이한결은 실험실에서 어느 정도 버티다가 결국 “뼈아픈 실패의 경험”이라는 상심을 안고 실험실을 나오게 된다. 하지만 좌절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한결은 오래지 않아 신문사 경험을 다시 떠올리며 ‘기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찾기로 “과감하게 선택”하게 된다. 사실 이한결의 친인척들은 대개 이공계 관련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한다고 한다. “장남”임을 항상 의식하며 “모범적”으로 살아오려 했던 이한결에게는, 기자직을 선택하는 일은 한편 가족들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길을 가고자 하는 “과감”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한결은 기자직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대학뉴스>(가칭) 대학생 기자 자리를 알아보기도 했고, 한지민을 만났던 <과학저널>에서 동료들과 함께 필진으로 활동하기로 한다. 이곳에서 한결은 자신의 가능성을 더 실험할 수 있었고, 새롭고도 의미 있는 만남과 관계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이한결은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오랫동안 경험 했던 가람대신문사 활동이 적잖이 도움이 된다는 점을 깨닫기도 했다.

>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별의별 시도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경험들이 많이 쌓였어요. 당시에는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시행착오를 많이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대학뉴스>나 이런 곳에서 기사를 쓰고 해보니까, 내가 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귀중한 경험이었구나. 당시의 경험들이 굉장히 귀중했구나, 굉장히 주변의 또래들이 갖지 못한 능력을 제가 갖게 된 것 같았어요. 제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닌데, 남들에 비해서 좀 쉽게쉽게 느껴져요.

또한 이한결은 기자가 되면 자신이 속한 언론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한다. 또한 생물학 전공이라는 특기를 살려 "과학 전문 기자"가 되고도 싶다. 물론 기자가 되는 일도, 기자로 사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은 잘 알고 있다. 이한결도 그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한결은 불안하다. 가람대 선배들이 들려준 기자생활 이야기에는, 보람과 긍지도 물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도 가득했다. 기자가 되는 길을 막연하게 찾아보기에는 "현실"이 너무 단단하였다. 그렇다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엔 자신의 나이가 너무 많이 찬 것 같았고, 군 복무라는 현실도 남아 있었다. 이한결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기에 "한 번 더 자신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이한결은 방법을 찾다가 2012년 2학기에 유럽의 한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가기로 했다. 군복무도 머지않아 닥쳐올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이한결에게 중요한 것은, 기자가 되기로 한 이상 지금까지 겪은 경험을 살려 자신의 삶의 지향과 현실이 '통합적으로' 실현되는 길을 찾는 것이다.

> 지금까지 제가 배운 것을 헛되이 날리고 싶지 않거든요. 생명과학 자체는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굉장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잘 풀어서 사람들에게 설명해주는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응용해서 사회의 자폐증, 약자들, 이런 분들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발굴해가지고, 논문을 제가 못 읽긴 하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런 수준의 논문을 읽은 다음에 그런 것을 소개해주는 과학기사를 쓰고 싶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략)... 교환학생이 되면 교환학생을 가서 외국의 대학 문제를 써보고 싶고요. 외국에 살면서 보고 써보고 싶기도 하고.

현재 이한결은 유럽의 한 도시에서 교환학생으로서 대학 수업도 듣고 다른 외국인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한결은 그곳에서 살아가며 보고

듣고 배우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블로그에 계속해서 업로드 하고 있다. 나는 종종 그 블로그에 들어가서 이한결이 전해주는 대학생활과 각종 소식들을 접하곤 한다. 또한 이한결은 한 인터넷 언론매체에 교환학생 현지 생활을 담은 기고문을 게재하고 있다. 이한결이 블로그와 매체에 게재하고 있는 자신의 경험 이야기와 통찰은 연구 과정에도 큰 힘이 되기도 하였다.

이한결의 대학생활은 한지민과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의사와 약사의 길을 좇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한결은 한 가지 길을 가고자 하였다. 하지만 우연히 <가람대신문>을 만나고 실험실 생활에서 "뼈아픈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좇고 있던 생물학자로서의 꿈은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대신 이한결은 자신만이 될 수 있는 독특한 기자의 길을, 특히 자신의 경험을 통합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이한결은 "어딜 가더라도 최고로" 만들고 싶다는 지향을 감추지 않았다.

4. 민윤진의 이야기

민윤진은 수도권에 있는 서강시(가명)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위로는 오빠가 한 명 있었고,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부모는 민윤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대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신다고 한다. 민윤진은 서강시에 있는 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조금 늦게 대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민윤진은 특히 고3이 되면서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점심시간에도 공부를" 하는 등, "정말 인생을 통틀어서 제일 열심히 했던 때"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한 공부와 성취 경험은 "뭔가를 하든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나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경험이었다고 한다. 한편, 어렸을 때부터 민윤진은 좇고 싶은 미래의 모습이 분명한 편이었다.

> 원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성우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도 10년 동안 성우라는 꿈을 꿔왔는데. 고등학교 2학년 까지는, 3학년 되기 전까지는, 예대(예술대학)가 되게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연극영화과 이쪽, 방송연예과 이 쪽 가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되어서 실기 같은 것을 보잖아요, 예대는. 그걸 준비하려니까 너무 준비도 안 되었고,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힘들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딱 되어서 학기 초에 그것 말고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뭘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는 아니고 학원인데 4년제처럼 허가해준다는, 인정해준다는 그런 데(학력인정 사설교육기관) 가기에는, 제 캠퍼스? 제 청춘? 대학생의 청춘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 뭐가 관심 있을까 했는데, 고1 때부터 일본어를 해가지고….

다른 연구 참여자에 비해 이한결처럼 꿈이 비교적 오래 갔던 민윤진은, 꿈이 분명했던 것과 비례하여 반대로 자신이 "너무 한 길만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민윤진은 성우만을 준비하기보다는 대학생으로서 "청춘"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마침 고1 때부터 일본어와 일본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민윤진이 진학을 고민하며 대학에 대해 찾아봤을 때, 새롬대학교가 개설한 전공명은 '일본어 및 일본문화 전공'(가칭)이었다. 흔히 쓰이는 '일어일문학과'가 일본문학에 강세를 두는 것과는 달리, 민윤진이 평소 더 관심이 있었던 일본문화에 대한 강세가 찍혀 있었기에 매력적인 선택지였다고 한다. 민윤진은 수시모집을 통해 새롬대학교에 합격하였다. 하지만 꿈이 분명한 민윤진에게 대학 전공 그 자체는 그리 중요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근데 제가 대학교 들어와서도 많이 고민을 했던 게, 저는 성우를 꿈 꿨기 때문에 일본어 전공을 살릴 생각이 없었죠, 애초에. 물론 일본어를 배우는 게 도움이 안 되진 않겠지만, 이건 그냥 제가 배우고 싶은 욕심이라든가, 대학생활 라이프,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청춘을 위해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만족감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이었지. 처음 입학할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입학을 했었죠. 전공을 살려서 취직을 한다거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방송 공채를 통해서 성우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성우라는 꿈을 좇고 있는 상태에서 입학을 했기 때문에, 민윤진은 다른 걱정할 필요 없이 상상할 수 있는 "대학생활"과 "청춘"의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특별히 길을 찾아야 한다는 고민을 오랫동안 할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 "1학년 1학기 때, 평생 먹을 술 반을 다 먹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술자리"도 많이 가졌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열의에 넘쳐" 잘 놀면서 선배들이나 동기들과 활발하게 어울리며 보냈다고 한다. 신입생 시절인 "[1

학년] 1학기에만 엠티 한 다섯 번을 갔다"올 정도로, 처음 만난 대학생활은 민윤진에게 "정말 재미있게" 몰입할 수 있는 체험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민윤진은 성우라는 오랜 꿈을 좇기 위해 미리 대학생활의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이를테면 민윤진은 "전공 특성상" 흔히 교환학생을 가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환학생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 [신입생 때인] 3월에 계획을 했어요. [교환학생은] 이제 2학년 때부터 갈 수 있으니까 1년 다니고, [2학년] 1학기 때 봄에 [교환학생] 다녀와서, 한 학기를 [한국에서] 다니고, 1년 휴학을 하고 성우학원을 다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1학년 2학기 때 교환학생 갈 사람들을 뽑았죠. 근데 뭐 성적이랑 뭐 학과활동 이런 것을 같이 봤는데, 붙어서, [교환학생] 갔다 오게 되어서. 그러고 나서 [2학년] 1학기 때 [교환학생] 다녀와서 2학년 2학기 때 한 학기를 더 다니고, 휴학해서, 성우학원을 다녔어요. 1년 동안. 성우학원 1년을 다 마치기 전까지는 딱 계획한 대로였어요. 일본 다녀온 것도 그렇고, 성우학원 다닌 것도…. 이게 정말 '계획한대로 척척척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민윤진은 자신이 세운 계획을 좇아 "계획한대로 척척척" 1학년을 보냈고, 2학년이 되어서는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한 학기 동안 다녀왔으며, 2010년에 3학년이 되면서는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성우학원에 다니게 되었다. 휴학을 하면서 민윤진은 "흐지부지하게 보낸 시간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학교랑 떨어져 있으니까 급할 것도 없고, 시험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거라든가, 책도 여유 있게 보고 싶은 것을 읽고 하며 진짜 여유로운 삶"을 살았고, 이는 "20대 중에 가장 여유 있던 시간"이었다고 한다. 모든 일은 "계획한대로 척척척"이었다. 그런데 성우학원을 다니며 1년이 지날 때 즈음, 민윤진은 학교에 다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교를 빨리 졸업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 학원을 다니면서 학교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3학년 때가 전공을 가장 많이 듣는 시기기도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성우학원을] 병행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도 [복학한 뒤에] 학원에 1주일에 주말에만 간다고 해도, 주말에 학원에 있는 시간에 연습하는 것만 해서는 제 실력이 전혀 늘지 않으니까. [휴학 중에는] 평소에도 학원에서 사람들이랑 스터디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같은 돈을 들이되 제가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실력은 늘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되면

부모님 돈을 허비하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조기 졸업을 하고 빨리 [학원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학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빨리 조기졸업을 하고.

민윤진이 학원을 다니면서 "학교랑 떨어져" 있을 때는 학과공부나 취업준비를 하는 대학선배나 동기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자기 '리듬'에 맞게 꿈을 향해 노력할 수 있었다. 학원에서 만난 사람들도 성우라는 꿈을 좇아가는 일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나 복학을 하게 되면서, 민윤진은 "주위 다른 학생들을 보면서 자극 받고 하면서 급해지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자신이 너무 다른 길을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이 커진 셈이다. 그래서 민윤진은 "차라리 조기 졸업"을 한 다음, 성우 준비에 몰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더불어 민윤진은 높은 학비를 걱정하면서 부모에게 부채감을 갖고 있었기에, 차라리 성우보다는 학업에 집중하여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계획을 짰다. 하지만 일은 "계획한대로" 잘 풀리지는 않았던 것 같다.

[복학을 하고 나서] 처음엔 조기졸업을 하려고 했는데, 등록금 때문도 있었고. 1학기 등록금이 더 드는 거니까. 빨리 졸업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했는데…. [조기졸업이] 너무 힘든 것 같기도 하고. 부모님도 제가 [복학하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굳이 조기졸업을 해야겠느냐, 한 학기 편하게 다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조기졸업을 포기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했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조기졸업이 아니라 유예…. (웃음) 1학기를 더해서 5학년 1학기 까지 다니게 되었는데, 그냥 그 때는 원래대로 [8학기 만에] 졸업을 하자고 생각해서….

또한 성우학원에 다니면서 알게 되었던 성우계의 현실도 만만치는 않았다. 한국방송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민영 방송국에서는 성우 신규채용을 거의 하지 않는데다, 최근에는 성우 지망생들이 "프리랜서" 등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좁은 정규직 성우 자리를 향한 경쟁이 치열한 것은 물론이다. 또한 성우학원에 다니면서 주변에 "잘 하는 애들"도 많이 있었기에, "내가 적성이 맞는 건가" 하는 의문도 "어렴풋이" 느끼던 터였다. 그러면서 민윤진은 오랫동안 좇았던 성우라는 꿈에서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것 같아요. 입학 초부터 성우를 꿈꾸겠다면서, 성우가 되겠다면서, 전공을 살릴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작년 재작년까지 학교를 다녔죠. 근데 제일 후회되는 게, 제가 뭐 한 길을 가지 않겠다면서 이 대학을 들어와서는, 들어와서부터는 또 성우를 꿈꾸겠다면서 다른 가능성을 안 열어둔 채…. 예를 들어, 대학에 와서 제일 후회하는 게 복수전공 안 한 게 제일 후회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공 말고도 성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복수전공까지 하면 너무 분산이 되니까 시간도 빼앗기고, 이쪽으로 투자를 해야겠다 해서 전공심화를 했죠. 근데 한 길 가지 않겠다고 들어와 놓고는, 결국 그렇게 많은 가능성을 안 열어둔 것이 되긴 한 거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민윤진은 성우의 꿈을 서서히 접게 되었고, 차차 "다른 가능성"들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성우라는 너무 막막한 "한 길"만 좇는 것 보다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많은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새로운 길을 찾을 필요를 느끼기 시작했다. 마침 민윤진은 수능이 끝난 이후부터 오랫동안 요가를 하고 있었고, 몸이 유연했기 때문에 요가를 곧잘 하는 편이었다. 그래서 요가라는 특기를 살려서 요가 강사의 길을 가는 것은 어떨지 잠시 고민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민윤진은 요가 강사의 꿈도 다시 접게 된다.

민윤진: 요가 가르치는 분들이 몇 분 있으셨어요. 어떤 분은 국회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주위에 그 쪽으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략)... 근데 엄마 아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린데 왜 벌써부터 그렇게 꿈을 작게 가지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연구자: 요가 강사를 하는 게요?

민윤진: 네 그니까 자격증을 따서 가르치는 것은 서른이라든가, 서른이 넘어도 ...(중략)...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딸 수 있는 거니까. 정말 그 길 가고 싶으면 서른 넘어서도 딸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좀, 많은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게, 다른 꿈도 꿔보고 그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한창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했어요. ...(중략)...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뭔가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확

실히 뭔가 젊은데 그렇게 정말, 진짜 생각을 해보면 [요가 강사 자격증은] 나이 들어서도 딸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른 길을 생각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8월에 처음 취직 생각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꼭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윤진은 자신이 너무 좁은 길만을 좇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었다고 한다. 그래서 아예 "다른 길", 곧 일반계 기업에 "취직"하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하지만 대학에 입학한 내내 성우의 길만을 좇았던 민윤진에게 "취직"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주변 친구들이 "취업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민윤진은, 취업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정말 아무 것도 없었"다. 성우나 요가 강사의 길을 가는 것은 일반 기업이나 공직에서 자리를 알아보는 것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 민윤진은 점차 "정말 막막한" 시기를 보내게 되었고, 한 때는 "인생의 허무함"과 "무의미"를 느끼기도 했다.

민윤진: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 학기(4학년 2학기)가 어쨌든 ...(중략)... 정말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엄청 많이 고민을 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졸업이] 닥친 것도 있었고, 되게 뭔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다고 해야 하나. (살짝 웃음)

연구자: 허무함이요?

민윤진: 네. 뭔가, 전문직이 아니라, 그냥 웬만한 회사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되는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하고, 결혼 하고, 가정 꾸리고, 애를 낳고 자녀가 생기고, 자녀한테 바치는 내 인생이 그냥, 그냥 끝나겠구나 하는,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략)... 저는 물론 배우는 것도 좋아하지만, 제 전문적인 일을 갖는 게, 뭔가 자아에 대한 성취라든가, 성찰이라든가. 그게 나라고 해야 하나? 뭔가 그런 연결고리를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연구자: 직업에서 전문성을 찾는 것에서요?

민윤진: 네. 평생 제가 하는 일에서 오는 만족감? 그래서 저는 친구들 중에서 빨리 편하게 결혼 잘 해서 남편 내조하면서 살고 싶다는 친구들을 보면—물론 그런 것도 성격 차이고 가치관 차이겠지만—좀 저랑은 안 맞는 게, 저는 인생이 무의미할 것 같은 거예요. 제 인생이 아닐 것 같은 느낌. 제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라든가, 일을 중요시 하는 것

같은. 어머님이 좀 그런 성향이 있으세요. 어머니도 아직까지 계속 일을 하시고 본인 일 좋아하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맞벌이셨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부모님에게서도 있지 않았나.

최근 대학가에서는 이렇듯 대학생들의 취업을 돕는 특별 강좌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도와주는 경우가 많다. 새롬대학교도 마찬가지다. 취업 박람회나 채용 설명회, 각종 취업 준비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났다. 어떤 학생들은 대학이 과연 "취업 사관학교"냐며 비판적이기도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적지 않은 도움을 받기도 한다. 민윤진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민윤진은 4학년 2학기에 <취업과 사회>(가명)이라는 "취업 관련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강좌가 민윤진에게는 "엄청난 계기, [인생을] 바꿔줄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수강생들에게는 개별적으로 교수와 상담할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는데, 이 상담에서 민윤진은 "길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추천해주셨던 게 승무원이었어요. 그날 머리를 묶고 갔었는데, 교수님이,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 뭐 일본어 자격증도 그렇고. 왜 자소서(자기소개서) 쓸 때 막 승무원의 자세라든가 체력이라든가 이런 게 다 중요하잖아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요가 하는 게 [승무원 일에] 도움도 될 거고, 성우학원 다녔으니까 좋은 목소리로 좋은 기내방송 하겠다는 둥 이런 식으로 쓰면, 그니까 여태까지 해왔던 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쓸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그 얘기를 듣고, 뭔가 길이 뻥 뚫리는 듯한, 막혔던 것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여태까지 제가 꿈꿔오면서 배워왔던 것들이 정말 아무 것도 아닌 게, 쓸데없는 게 아니게 된다는, 그게 되게… 네, 승무원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데 큰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민윤진의 말을 뒤집어 반복한다면, 취업을 한다는 건 민윤진에게 "꿈꿔오면서 배워왔던 것들"이 "아무 것도 아닌 게, 쓸데없는 게" 된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러한 오늘날 고용시장의 냉엄한 현실을 구직자 입장에서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 고용시장이 요구하는 조건과 가치를 열심히 좇아도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선호 받는 전공인 "경영"이나 "경제"가 아니라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과에서 일반 기업 취업을 준비했던 선배들이 지나온

험난한 취업의 길을 보면서 민윤진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민윤진은 지금까지의 경험이 의미 있게 연결되는 길을 교수의 말을 통해 찾게 되면서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무조건 고용주의 요구사항을 좇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 직업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항공 승무원이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경쟁이 장난이 아니기도 하고”, 외모나 몸매 등 “외양적인 것이 많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성차별적인 외모 기준에 대해 “솔직히 안 좋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미 여기에 뛰어든다니까 어떻게 탓을 하겠냐”라는 체념을 하면서, 민윤진은 승무원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노력했다. 그러면서 민윤진은 “인생의 허무함”에서 벗어날 계기를 맞기도 한다.

민윤진: 그때는—안 좋다기보다는—마냥 긍정적인 생각만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허무한] 생각에 점점 더 빠져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또 다른 꿈이 생기고 하면서는, 아직은, 또, 아직은, 뭔가에 도전할 수 있는 나이고. 이런저런 책 많이 읽으면서도 느끼기도 하고 이런 저런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서도 느꼈는데, 아직 뭐 청춘이 끝났다고 말하기엔, 아직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나이이고, 공부 같은 것도 그렇고, 아직 젊다는 얘기, 그니까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죠. 아직 젊다고 우리, 아직 어리다고~ (웃음)

연구자: 아직이라는 말을 붙여야 하는 건가요. (웃음)

민윤진: 네. (웃음)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라고 하면서, 최대한 뭔가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려고 많이 하는 것…. 그니까 [열정이] 노력해야만 생기는 건가? (웃음) 슬프긴 한데,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저번 학기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민윤진은 더 나아가 승무원의 길을 좇는 것에 그치지 않고 “CS(customer satisfaction) 강사”라는 직책에 대해 알게 되면서, 승무원 경험을 살려서 자신이 더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 물론 정규학기보다 한 학기 더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지금, 대학생활을 돌이켜보면 “대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많이 못 누렸다는 느낌이 들어 후회스럽기도 하다. “외부활동”을 많이 찾아보지 못한 것도 후회스러운 일이었다. “단지 스펙”을 쌓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대학생활 때만 느낄 수 있는 많은 경험이나 많은 사람을 만날 기회”를 누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졸업을 앞둔 지금에

와서는 돌이킬 수 없는 대학생활 보다는 “일에서 오는 만족감”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민윤진은 기대한다.

민윤진의 대학생활은 이한결처럼 자신이 이루고 싶던 꿈을 좇아 대학에 온 경우였다. 이한결과는 달리 대학이 본인의 꿈과 직결되기보다는 “청춘”을 즐기기 위한 경우였지만, 대학생활의 상당시간 성우라는 한 가지 꿈을 좇았다는 점에서는 비슷했다. 그러나 꿈이 실현되기에는 현실이 너무 만만치가 않았고, 자신이 너무 한 길만 좇은 것 아닌가 하는 회의감이 민윤진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민윤진은 더 넓혀서 새로운 진로를 찾기로 하였다. 그 진로란 많은 대학생들이 가는 길을 좇는 것이었기에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 교수의 조언에 따라 자신의 경험이 통합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고, 앞으로도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민윤진은 자신이 “아직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었다.

5. 유민정의 이야기

유민정은 중학교 때부터 홀로 부모와 떨어져서 수도권의 서강시(가칭)에서 외가 쪽 친지와 함께 살았다. 부친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던 중이었고, 모친과 동생도 부친과 함께 중국에서 살았다고 한다. 가족들이 다 같이 중국으로 생활터를 옮길 때, 유민정은 한국에서 하는 학교공부에 흥미도 느꼈고 성적도 많이 오르고 있던 차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유민정은 중국 공항까지 갔다가 부모의 결정으로 갑자기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머물게 되었고, 서강시에 소재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계속 다녔다고 한다. 고등학교에서 유민정은 비교적 “수능공부는 잘 못했”지만, 내신 성적이 우수한 편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한울대학교에 진학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한다.

> 유민정: 수능 볼 때부터 [한울대에] 붙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수능도 잘 못 보긴 했는데, 어쨌든 여유롭게 (웃음) 예상한대로 붙고, 과는 원래 꿈은 법 쪽이었어요. 약간 국제변호사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리고 공부를 잘 하면 문과 애들은 한울대 가면 법대, 이과면 한울대 의대 이러잖아요. 그래서 법대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2008년에 로스쿨 도입된다고 정책이 발표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법대가 폐지가 되고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렇다면 법대에 가도 메리트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그 다음에 좋은 데가 어디지 (웃음) 생각해서 경영대랑 사회계열이었는데, 사회계열은 광역으로 뽑더라고요. 왠지 [국제변호사와] 연관이 있을 것 같은 게, 경제학부. 경제학부를 가서 로스쿨을 간 다음에 법조계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중략)...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열심히] 해가지고 2학년 때 경제학과를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연구자: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부터….

유민정: 네. 근데 들어오고 나니까, 애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웃음) 하고 있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사회계열 들어온 게, 뭐 [경제학과 외에 특정한] 다른 과 전공이나 하고 싶다, 이런 애들보다는.

'명문대'를 선호하는 문화가 뚜렷한 한국의 고등학교 현실에서 학교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한울대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일일 것이다. 또한 특정한 학과 선호가 뚜렷한 대학의 현실에서, 향후 진로 계획에서 더 유리한 "경제학과" 등 일부 학과에 진학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문제는 유민정이 말한 것처럼 대다수가 "다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꿈을 좇고 있는 것이다. 이럴 때 '나의 꿈'은 나만의 꿈이 아니라 '타인의 꿈'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좋은 자리를 둘러싼 경쟁은 가중되기 마련이며, 누군가는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유민정도 학생들 사이의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2학년 때 전공 진입 신청서에] 1지망에 경제학과를 쓰고, 2지망에 정치학과 쓰고, 3지망에 '설마 여기까지 내려가겠어?' 해서 심리학과 썼어요. (웃음) 근데 이렇게 쭉~ 밀려가지고 심리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은 진짜 한 번도 생각해본 적도 없고, '전탐'(전공탐색 과목) 듣긴 했는데, 이게 정말 뭔 소리야 이랬는데. 심리학이 돼서 '멘붕'이 와서(웃음), 아 어떻게 해야 하지 하다가,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전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과를 해야겠다, 경제학으로. 1학년 때 경제원론 들었을 때는 A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 난 경제학에 소질이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웃음) 근데 2학년 1학기 때 전과를 준비하면서 미시[경제학]을 듣고 이러니까,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중략)... 그래서 애초부터 [경제학에는] 소질이 없는 거였는데. 2학년 1

학기 때 전과를 준비한다고 [심리학] 전공을 들었어야 하는데 또 안 듣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래서 그때 인생의 오춘기 이런 느낌으로. (웃음)

대학생활의 현실은 유민정이 기대했던 것과는 거리가 다소 있었다. "국제 변호사"라는 꿈을 좇아가는 계획은, 3지망으로 진입한 주전공과 가깝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기대한 적 없었던 일이 자신에게 현실이 되자, 유민정은 "인생의 오춘기"를 보내게 되었다고 한다. 오랫동안 좇았던 꿈으로부터 갑자기 너무 멀어진 셈이었다. 새로운 대안적 전망을 찾을 여력도 없이 "마음이 좀 힘들었던" 시기에 부모님과 상담하게 되었고, "어학연수도 할 겸, 쉴 겸 해서, 가족이랑 같이 안 살았으니까 살 겸 해서 1년 휴학하고 중국에" 가기로 했다. 유민정은 부모님의 지원으로 친구들과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가면서 "엄청 재밌고" "치유도 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배낭여행 이후 "외국인 친구"를 많이 사귀는 어학연수 생활이 대체로 여유로웠던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와서 복학을 하게 되면서 유민정은 대학생활의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유민정: 복학해서는 2학년 2학기로 시작을 했는데, 10년 여름 이후니까, 10년 2학기인데, 그때도 상황이 뭐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연구자: 좋은 게 아니었다고요?

유민정: 그 전까지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1학년 때는 기숙사에 살고, 2학년 1학기 때는 자취 한 번 했다가, 또 와서 기숙사가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고 경제적이든 내가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단순히 애들이 다 과외 하고 맛있는 거 사먹고, 이쁜 거 입는 걸로 생각을 했지, 진짜 생활비를 벌어야겠다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근데 10년도부터 엄마가 이제 네가 이제 벌어서 다녀라—아, 등록금을 내라는 건 아니고—용돈을 네가 해라, 핸드폰 비 네가 내라 이런 식으로 되어서, 갑자기 안 하던 과외를 해야 하는데. (웃음) 근데 사실 별 것 아닌데, 그땐 그게 나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막 돈 걱정 안 하고 살다가, 정해진 예산에서 내가 다 써야하고 모자라도 누구한테 달라고 할 수 없는. 물론 이게 '당연한 건데'(강조), 당시에는 되게 대단한 것처럼 느껴져서. 과외를 세 개 하게 됐어요. ...(중략)... 학교 끝나자마자 [과외] 갔다가 오면 12시 넘고 이래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웃음) 그게 막, 지하철 타고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외

롭더라고요. 뭔가 서럽고 외롭고 그래가지고. 와서 친구들, 그 다음부터 막 같이 술 먹고 노는 패밀리를 만들었어요. (웃음)

복학을 한 직후부터, 유민정의 생활은 휴학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한다.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생계 부분도 커진데다가, 지금까지 듣지 않았던 필수 전공과목들이 유민정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홀로 바빠지게 되면서 "서럽고 외롭고" 했지만, 유민정은 "패밀리"와의 만남과 모임 속에서 위안을 찾기도 했다. 또 별로 기대하지 않던 몇몇 과목에서 흥미를 느끼기도 했다. 유민정은 자신의 성장과정에 대해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한때 전공이 재미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민정은 점점 "진로고민"도 겹쳐서 하게 되었다. 당시 남자친구의 권유와 "열이면 여덟은" 고시 준비를 하는 학과 분위기에 따라, 유민정은 한때 고시를 준비하기도 했으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일찍 그만 두었다. 이러한 시간들은 유민정에게는 "쌓아가는 느낌 없고" 대신 "모래성 쌓는 느낌"을 주기도 했다.

한편 한울대는 학생들에게 복수전공 혹은 부전공을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에, 유민정은 1년간 중국에 다녀왔던 경험과 관련해 자신이 "문화적 차이"와 "문화상대주의"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2012년 초부터 문화학 관련 전공을 부전공 (나중에 다소 후회하기도 했지만) 하기 시작하기도 했다. 이러한 관심을 살리기 위해, 유민정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나이가 많아 잘 활동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음에도 '용기'를 내어서 한울대에 있는 "문화" 관련 동아리인 'CIS' (가칭)을 찾아서 활동하기로 했다.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취업하는 과정에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였다. 유민정은 이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빡세고" 어렵기는 했지만, 과정적으로나 결과적으로 "굉장히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한다.

소속된 단체가 없고 그래서 되게 외롭고 뭔가 그런 게 좀 필요했는데, 선배의 조언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원래 스타일이 막 혼자서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뭔가 친구들이 한대 그럼 나도 하는 그런 느낌. (웃음) 그래서 딱 일정 정해져 있고, 타이트하고, 그런 빡센 집단은 아무래도 유대감이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뭔가 제2의 고향을 찾은 느낌으로. 그렇다고 잘 한 건 아니었어요. 성실해야 하는데, 무조건 늦거나 안 나오면 말이 많아져요, 그 안에서. 그래서 몇 번 자느

라 못 갔더니 평판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웃음) 그래도 끝까지 사람은 좋은 이미지로 남아야지 그랬더니, 어쨌든, 얻은 게 일단 팀으로 같이 조직생활? 일종의, 사회에 나와 있는, 준사회, 준회사. 헤헤.

학과 사람들이 별 달리 묶어주는 힘이 없는 "무리"에 가까웠던 것과는 달리, 동아리 CIS는 동아리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멤버십을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었다. 그래서 유민정은 친구들 사이에 있을 때는 느끼기 어려웠던 공동체적, 사회적인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1주일에도 며칠씩은 동아리 활동에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유민정은 1년의 활동기간 중에 한 학기를 휴학하기도 했다. 물론 늘 활동이 흥미롭고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유민정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던 것 같다. 관련 기업 종사자들을 만날 기회도 있었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기업과 관련한 여러 경험을 할 수도 있었다. 또한 동아리에서 쌓은 인맥 덕분에 유민정은 방학 동안 IT 관련 기업에서 인턴을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취업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유민정은 우울한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

유민정: 나는 너무 머리가 나쁘다 자괴감도 들고.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뭘까 계속 그런 생각이 들고. 친구가 막 엄청 우울하고, 죽고 싶다 이렇게 Facebook에 써가지고 놀라가지고 뭔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 원래 학점이 3.6대였는데 취업이 안 되어서 졸업을 한 학기 늦추었는데, 뭐 학점이 3.48이 되었다. 자기가 마지노선이 3.5라고 생각했는데, 이 학점으로 어떻게 취업 시장에 도전하겠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보다 한참 낮은데. (웃음) 나는 진짜 아무 생각도 없고 있었는데, 스펙도 하나도 없고 학점도 낮고, 뭔가 특별히 뛰어난 것도 없는데, 내가 진짜 그 상황에 가면,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두 학기 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연구자: 그런 생각이 들고….

유민정: 그걸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죠. 평생 좌우하는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처음 직장을 잘 잡아라, 졸업생 게시판 가니까 엄청 많던데. 차라리 대학 입시는 점수가 딱 정해져 있고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하고 그게 확실하잖아요. 근데 취업은 그것도 아니고, 되게 모호한데, 마치 나를 경매로 내어 놓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수많은 기업에게 어필을 해서 나를 뽑아주세요 [했는데] 다 너 안

돼 안 돼 이러면, 사실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고, 걔네가 성장률 낮고 이래서 안 뽑는 것일 수도 있고, 걔네가 생각하는 더 말 잘 듣는 애 뽑는 걸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자괴감 같은 걸 엄청 많이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도 그럴 것 같고. ...(중략)... 사람들이 꿈이 없다고 문제라 하는데, 꿈이 있는데 좌절되는 게 더 비참하다고 해야 하나, 그럴 것 같은데.

졸업까지는 두 학기 정도 대학생활이 남은 시점에서, 유민정은 본격적으로 취업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취업 압력은 더욱 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불안정하고 "좁은" 고용시장 현실에 뛰어들기 위해, 유민정 주변의 대학생들은 개별적으로 노력하면서 해결하곤 한다. 유민정의 말을 빌면, 때로는 마치 "경매로 내어놓는" 경매품 같다는 느낌을 받더라도 다른 선택은 하기 어려웠다. 유민정의 친구가 경험했던 것처럼, "무급"인데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야근을 매일 시키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세상이 진짜 더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참고 좇아야만 한다.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 하는 것, 혹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 감사함을 느끼기도 한다. 지금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을 좇아야 취업할 확률이 높다는 인식 때문이다.

최근 들어 구체적인 진로를 찾아보고는 있었지만, 유민정은 "진로고민"은 마치 "전공학점을 많이 들어놔야 돼서, 고민 없이 전공학점 채우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진로에 대해 너무 많이 "고민"하게 되면, "생각할 거리"도 많아지고 자신의 "처지"도 되돌아보게 되면서 우울해지기 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치 정신없이 "전공학점 채우는 것"처럼, "진로고민"에서도 지금 당장 해야 하는 단기간의 목표를 좇아가면서 하나하나 잘 해나가기에도 바쁘다. 다른 선택지나 가능성을 찾을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고민은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유민정은 취업을 생각하면서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는 생활이 그리 나쁘지는 않다고 말한다.

연구자: 대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시기는 언제세요?
유민정: 음… 지금인 것 같아요. 음… 제일 좀, 안정된 것 같아요, 뭔가.
연구자: 마음이나 생활이….
유민정: 마음도 그렇고 생활도.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어야 하는 시기인데. 1, 2, 3학년 때 막 뭔가 방황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이

차라리 제일 좋고, 뭔가 도전하고 그런 걸 하니까. 대학생활 거의 안 남았으니까 지금을 즐겨야겠다는 느낌이.

이 말에 대해 어떤 의미였느냐고 나중에 한 번 더 물었다.

유민정: 제 생각에는, 뭔가 너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도 않고, 내가 과거에 못해왔던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 안 하고, 하나하나 닥친 것을 해나가면서 현실에 충실하겠다? 현재에 충실하면서 즐긴다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 아, 지금 내 앞에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유민정: 네. 그게 주는 작은 성취들을 느끼면서, 지금이 행복하다고 했던 게, 여태까지 대학 들어와서 제일 성취들을 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되게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너무 우울해지거나, 너무 우울해지다보면 자포자기 하고 되어서 더 안하게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경험을 조금 더 해보니까, 아 이게 그렇게 자포자기할 일도 아니구나. 지금 얘기하면서(살짝 웃음) 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면 불안해지고 걱정되고 하는데, 그걸 생각 안 하면 현재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유민정은 취업 준비와 관련한 스트레스에서 조금씩 벗어나,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약간의 “안정감”을 찾고 있었다. 취업과 관련이 있거나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해나가면서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다. 유민정은 “과거”에 대해 집착하거나 너무 많이 돌이켜보지 않고, “먼 미래”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되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갈 예정이다. 부모님으로부터 풍족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유민정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남은 학기 동안 자신과 맞는 직업 분야를 찾아보고 그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볼 예정이라고 한다.

유민정은 “국제변호사”라는 꿈을 좇아 한울대 사회과학계열에 입학하였지만, 경쟁 끝에 원하던 전공에 가지 못하였다. 중국에서 머물면서 마음을 달래고 다시 한울대 캠퍼스로 돌아왔지만, 다른 꿈을 찾기도 전에 가족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유민정은 생계를 위해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진로를 고민하면서 “열 명 있으면 여덟 명”은 고시를 하는 주변 분위기를

좇아 고시를 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일반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범하게 사는 것도 어려운” 현실에서 꿈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까지 “모래성” 쌓듯 방황하며 대학생활을 하였던 유민정에게는 “자포자기할 일도 아니구나”라는 느낌은 소중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소결: 대학생활 이야기의 비교

지금까지 우리는 한지민과 이한결, 민윤진, 정다인, 유민정 다섯 사람의 대학생활 이야기를 만났다. 우리는 다섯 사람의 일상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생애사적 과정’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는 이들이 부모님의 기대, 대학 문화나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압력, 또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품었던 꿈 등을 ‘좇으며’ 살기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별히 삶에서 갈등으로 발현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것들을 좇으며 사는 삶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주변의 변화나 우연한 사건, 경험의 누적, 타인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다른 “가능성”을 ‘찾으며’ 살아가기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요컨대, 이들은 좇기와 찾기 사이에서, 또한 “실망과 깨달음의 운동(Deleuze, 1964/1997, p.23)”을 반복하면서 ‘리드미컬’하게 살아왔다. 그렇기에 이들의 대학생활은 각기 다른 ‘드라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인공, 플롯, 모티프, 줄거리가 다른 삶의 과정이며, 그 이야기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결코 고립되어 있는 ‘낱알’이 아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2008~9년에 대학에 입학한 뒤 2013년이라는 현재를 살아가는 동시대인들이며, 그렇기에 사회문화적 맥락이나 제도적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간다. 이 점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것도 물론 많지만, Ⅱ장에서 주목할 점은 대학생활 과정이 일정한 패턴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Ⅲ장, <그림 2> 참조). 조용환(1995)의 발견처럼, 나의 연구에서도 대학생활 과정은 전공이나 하위문화 등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즉, 새내기 시절을 지나 졸업에 이르기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내용이나 방식은 모두 달랐지만 일정한 변화 패턴을 거치곤 했다. 이를테면 연구 참여자들은 대체로 신입생 때 대학에서의 “자유”를 맛 본 뒤, “대학의 현실”을 깨닫게 되고 각자의 방식대로 살다가, 졸업을 앞두고는 “진로고

민”을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적 특성은 연구 참여자들이 ‘고립된’ 단독자로서의 존재자가 아니라, 우리와 동시대인으로서 어디까지나 사회문화적인 ‘세계-내-존재’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Heidegger, 1932).

우리는 이러한 유사성을 감안하면서, 여기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비교할 수 있을 듯하다. 물론 엄밀한 구분은 하기 어렵겠지만, 아홉 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각기 다른 삶의 지향 속에서 살아왔음에도 기준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비교될 수 있는 방식으로 좇기와 찾기를 하면서 살아 왔다. 연구 참여자들이 좇기와 찾기를 하는 방식에 대한 비교 분석은 연구 참여자들의 다양한 삶을 조금 더 가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여기에서 나는 특히 대학생활의 ‘전환점’에서 좇기와 찾기의 문제가 첨예하게 문제가 될 때, 연구 참여자들이 과연 어떤 지향 속에 대응하느냐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잠정적으로 유형화해서 구분해 보았다. 이를 보고 다시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읽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 결과를 아래의 표처럼 각각 다섯 유형으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정리해 보았다.

<표 4> 대학생활 이야기의 유형화[15)]

좇 기		찾 기	
유 형	연구 참여자	유 형	연구 참여자
문제제기형	한지민, 이한결	의미탐색형	한지민, 정다인
거리두기형	정다인, (송현진)	성취지향형	이한결
낙관전환형	민윤진	목표추구형	민윤진, (송현진)
체념납득형	유민정, (서주희)	동조제한형	유민정, (서주희)
자유지향형	(박태훈), (김우진)	재미지향형	(박태훈), (김우진)

먼저 ‘좇기’의 유형부터 정리하고 비교해보자.

첫째, ‘문제제기형’이 있다. 이 유형은 좇기에 대한 압력(예컨대 순응을 강제하는 수업 및 학습 문화, 특정한 직업군만을 좇는 진로문화 등)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경향을 가리킨다. 좇기를 강제하는 사회적인 맥락에 대해 비판적 분석을 하기도 하며, 자신은 물론 다른 학생들도 다양한 좇기 압력에 순응하는 것을

15) Ⅱ장에서 이야기가 소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을 괄호에 넣었다.

경계하거나 비판할 수도 있다. 연구 참여자로는 이공계를 비롯한 대학의 전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언론사 활동을 했던 한지민과 이한결이 가까웠다. 둘째, '거리두기형'이 있다. 이 유형은 좇기에 대한 다양한 압력을 느낄 때 문제제기형과는 달리 대결하기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하는 지향을 뜻한다. 이를테면 지배적인 집단과 거리를 두고 마음이 맞는 집단을 찾아서 좇기 압력을 조율할 수도 있다. 연구 참여자로는 정다인과 송현진이 가까웠다. 이 두 사람에게는 "진로고민"이 거세질 때 교환학생을 선택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셋째, '낙관전환형'이 있다. 이는 좇기에 대한 압력에 대응하되 아예 새로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여, 주어진 상황을 나름의 방식으로 따르는 지향이다. 비록 비판의식이나 거부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때 최대한 낙관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이 유형에는 민윤진이 근접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넷째, '체념납득형'이 있다. 이는 좇기에 대한 압력에 다소 우울함을 느끼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어느 정도 체념하는 경향을 가리킨다. 유민정과 서주희가 여기에 가까울 것 같다. 다섯째, '자유지향형'이 있다. 이는 좇기에 대한 압력을 크게 느끼지 않거나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대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스스로 자유롭게 해 나가는 유형을 가리킨다.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박태훈과 김우진이 여기에 가깝다.[16]

다음으로 '찾기'의 유형들을 정리하고 비교해보자.

첫째, '의미탐색형'이 있다. 이 유형은 새로운 꿈이나 가능성을 찾을 때 자신의 실존적인 의미와 사회적인 의미를 연결시키며 찾는 경향을 가리킨다. 좇기에 대한 압력 속에서도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활동이나 진로 등을 찾아가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한지민과 정다인이 가까운 편이었다. 둘째, '성취지향형'이 있다. 이 유형은 의미탐색형과 외연이 겹치기는 하지만, 새로운 활동이나 가능성을 찾을 때에도 사회문화적으로 높은 성취를 추구하는 지향을 가리킨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높은 금전적 수입이라는 경제적 성취를 지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늘 "최고"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이한결이 근

16) 박태훈과 김우진이 '자유지향형'과 '재미지향형'으로 따로 유형화 되었음에도 여기에서 다루지 않은 이유는, 이들이 좇기와 찾기와 관련한 큰 갈등이나 고민을 이야기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비슷하게 모두 자신의 삶의 지향에 대한 확신이 강하거나, 타인의 시선과 좇기에 대한 압력을 덜 신경 쓰(려고 하)는 편이었다.

사한 편이다. 셋째, ‘목표추구형’이 있다. 이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때에도, 특정한 목표를 미리 정해서 그것에 맞게 나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유형을 가리킨다. 이 유형은 오랫동안 품어왔던 꿈을 다시 발견하려고 할 수도 있고, 새로운 도전 앞에서 자기만의 목표를 세워서 실현하려고 하는 노력할 수도 있다. 민윤진과 송현진은 각기 달랐지만 느슨하게 이 유형에 가까운 편이었다. 넷째, ‘동조제한형’이 있다. 이 유형은 찾기를 할 때도 다소 제한된 범위와 수준에서 시도하는 지향을 가리킨다. 즉, 좇기의 압력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하고 넓은 범위보다는 제한된 작은 범위 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려는 지향이다. 이 유형에는 유민정과 서주희가 가까운 편이었다. 다섯째, ‘재미지향형’이 있다. 이 유형은 자신만의 재미를 추구하는 중에 다른 가능성과 경험을 결합시키는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경험에서 만약 재미를 느끼기 어렵다면 우선순위에서 쉽게 밀려나는 경향이 있었다. 여기에는 박태훈과 김우진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화를 통해 우리는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 속에 있는 차이를 정리해서 검토할 수 있었다. 특히 이를 통해 좇기와 찾기와 관련하여 대학생활 내에 어떠한 다양한 지향들이 있는지도 간단히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유형화는 어디까지나 유형화일 뿐, 연구 참여자들이 반드시 한 지향만을 가지고 산다고 말할 수는 없다. 즉, 여기서 유형화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라는 뜻이다. 시간의 흐름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여러 지향이 섞여 나타날 수도 있고, 또한 상황 때문에 원치 않았어도 어쩔 수 없이 특정한 지향성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체념납득형과 동조제한형으로 유형화한 유민정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가족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경제적인 몫이 커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러한 지향을 갖게 되었을 수 있다.

다음 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좇기’와 ‘찾기’와 관련한 대학생활의 다양한 주제들을 검토해볼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 참여자들의 차이와 유형에 더 관심을 기울여 기술했다면, 이제부터는 연구 참여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아우르는 ‘종합’ 속에서 수행하는 분석과 해석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노력과 지향을 하면서 살아 왔는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역동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Ⅲ. ‘좇기’와 ‘찾기’: 대학생활의 이중적 지향성

앞에서 우리는 연구 참여자들의 대학생활 이야기와, 그 맥락 및 상황에 대해 대략적으로 다루었다. 이제부터는 앞에서 살펴본 대학생활 이야기에 발을 딛되,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한다. ‘좇기’와 ‘찾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종합해 새롭게 배치해보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자신이 처한 관계의 망과 맥락,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특정한 목적이나 목표, 이상들을 ‘좇기’도 했다. ‘사회문화적 존재’이자 ‘세계-내-존재’로서, 이러한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Heidegger, 1932). 아렌트의 표현을 빌자면, 우리는 ‘조건 지어진 존재(conditioned being)’이다(Arendt, 1958). 물론 이러한 삶의 양상은 실존의 중요한 한 측면을 이룬다.

그러나 좇기에만 매몰된 삶이란 과연 가능할까?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생활을 하는 중에 경험이 쌓이고 지금까지 몰랐던 무엇인가를 우연히 배우기 마련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이 처해 있는 조건을 적극적으로 전유하거나 때론 비판하면서 실존적인 의미와 가치를 ‘찾기’도 한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 실존의 ‘조건을 짓는 존재(conditioning being)’이기도 하다(ibid.). 즉, 이들은 때로는 세계 내에 단지 머물러 있지 않고, 세계를 향해 참여하고 탈주하며 다른 세계-내-가능성을 꿈꾸는 ‘세계-로의-존재’이기도 하다(Merleau-Ponty, 1945). 하지만 이들은 영원히 찾기만 할 수는 없으며, 자신의 자리에 터를 두고 타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동시에 ‘세계-내-존재’이기도 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독특한 실천과 지향 속에서 살아간다. 이들은 좇기와 찾기 어느 한 가지 지향성만을 취하지 않은 채, 두 지향성 사이에서 부단히 흔들리며 살아간다. 삶의 운동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어느 시점에 고정되거나 특정 목적과 이념에 복무하지 않은 채, 언제나 ‘사이에서(in the middle, in-between)’ 저마다 독특한 삶을 생성해 가기 마련이다(Deleuze, 1980; Semetsky, 2006). 이중적 지향성은 이러한 역동적인 ‘삶의 운동’을 표현하며, 이를 통해 대학생활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조금 더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삶의 복잡한 양상과 과정이지, 좇기와 찾기라는 표현 자체는 아닐 것이다. 좇기와 찾기는 이야기에 나름대로의 형식을 부여하여 의미를 가시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인 렌즈일 뿐이다.

나는 여기에서 좇기와 찾기를 중심으로 대학생활 이야기를 계열화 하여 제시

함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이 '세계-내-존재'이자 동시에 '세계-로의-존재'로서 살아가는 방식들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나는 연구 참여자들과 나눈 이야기 속에서 드러났던 대학생활에서의 다양한 노력과 지향의 면면을 '주제화'[17]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나는 어떠한 대학생활 이야기의 주제들이 각각 좇기와 찾기와 의미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나는 연구 참여자들이 무엇을 좇거나 찾느냐 하는 지향성의 '대상'을 다루기보다는, 연구 참여자들이 어떤 맥락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좇거나 찾는지를 폭 넓게 다루면서 보다 포괄적인 관점 속에서 조망해볼 것이다. 그 이후에는 좇기와 찾기가 어떻게 대학생활 이야기 속에서 융합되고 전개되는지에 대해서도 정리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점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좇기와 찾기란 엄밀한 개념 규정이나 범주가 아니라는 점이다. 개념과 범주는 할당과 분유(分有)를 통해서 현상의 질적 차원을 특정한 닫힌 '구조' 속으로 배치한다(Deleuze, 1968). 구조화된 엄밀한 개념과 범주는, 마치 대학생들의 삶이라면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띤다는 식의 효과를 낸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하지만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좇기와 찾기는 수목(樹木)형 배치와는 거리를 두려고 한다. 다만 두 지향성은 연구 참여자들의 대학생활 이야기에서 표현된 다양한 지향들을 주제화하고, 그것들을 더 큰 지향성 안에 잠정적으로 배치한 형태로서 '연접(連接)'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좇기와 찾기라는 지향성은 얼마든지 다른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이야기 속에서는 다른 주제를 통해 쓰일 수 있고 또 다르게 배치될 수 있으며, 얼마든지 그럴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

17) 여기서 '주제화(Thematisierung)'란 하이데거(Heidegger, 1932)를 참조한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어떤 존재자(Seinede)에 대한 학문적인 '이해'는 곧 '기획투사'이며, 그 방법의 하나로 주제화를 꼽을 수 있다. 주제화란 "존재자의 존재양식을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해주며", "존재이해의 분류파악, 존재이해에 의해서 이끌려진 사태분야의 제한 규정, 그리고 존재자에게 적합한 개념성의 앞선 윤곽"등을 포함한다(Heidegger, 1932/1998, p.476). 덧붙여 하이데거는 "학문적 기획투사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현존재는 주제화된 존재자를 초월해야 한다(p.477; 강조는 원문)"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특정 현상의 학문적 이해와 해석을 위해서는 현상의 제한성을 초월해 '다른 눈(客觀)'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주제화는 이러한 정의를 따른다. 한편 조용환(2009)은 '문화주제(cultural theme)'를 "한 문화의 특성을 일반적, 압축적, 반복적으로 구성하고 표현하는 서술적 명제(p.187)"라고 요약한다. 그의 '문화주제'가 문화의 구조를 엄밀히 드러내는 분석인 것과는 달리,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주제화'는 이야기의 연접을 이룬다는 점에서 잠정적인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좇 기

지금부터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대학생활의 한 가지 지향으로서 크게 '좇기'라는 이름 아래 연접될 수 있는 대학생활 이야기의 주제들이다. 물론 대학생활 이야기의 주제는 너무나 다양하였기 때문에, 연구자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자의적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 좇기와 관련하여 (1) 비교적 두드러지게 언급된 이야기 주제, (2) 개인적인 특이성을 표현하기보다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이 특정 목표를 좇도록 촉진하는 대학생활의 맥락과 조건을 더 강하게 표현하는 주제, 특히 (3) 대학생활의 사회문화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지향과 노력이 만나는 이야기 주제를 감안하여 선택하였다. 주제들은 대략 대학생활의 문화적 양상과 관련한 지향에서부터 시작해서 연구 참여자들의 존재적, 실존적 지향에 관련된 지향에 이르는 순서로 배열해보았다.

(1) "그냥 대학생": 대학생 문화의 '범상성'을 따르기

연구 참여자들은 고등학교 때도 서로 다른 다양한 꿈을 꾸면서 살았다. 하지만 이들은 대다수 고등학생이 그렇듯 '대학 입시'라는 경쟁적인 "관문"을 지나지 않을 수 없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고등학교의 현실에 대해 대체로 비판적이었으면서도, 대체로 이 관문이 미래에 열어줄 것이라고 여겼던 진로나 직업, 대학생활 등 삶의 궤적을 좇아 대학에 진학했다. 하지만 이 관문을 지나기 위해서 이들은 많은 현재적 욕구와 꿈을 대학 진학 이후라는 '미래의 가능성'으로 유예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조용환, 2009). 그러나 대학에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학의 현실은 과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을까?

대학에 입학한 직후, 대학생들은 새내기 환영을 명목으로 하는 많은 자리에 초대 받기 마련이다. 이러한 자리는 대체로 잦은 술자리를 동반하며, 물론 음주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새내기들이라면 처음으로 맛보는 "자유"를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원한다면 수업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도 주어진다. 즉,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간도, 관계도, 의무도 스스로 '책임'만 질 수 있다면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기에 새내기 시절을 "황금기"라고 언급하는 연구 참여자들도 적지 않았다. 물론 한지민이나 송현진처럼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 하지

만 어떤 경우라도, 이러한 시기는 그리 길게 지속되지는 않는 경향이 있다.

민윤진: 대학교만의 문화는 있는데, 그게 저희 요즘에 '문선' 추는 거 배우는 애들이 하는 말이, 이미 선배 된 애들이 하는 말이, 대학 들어와서 한 달 추고 끝나는 거라고 문선은. 그 다음부터는 안 추니까요. 그런 [대학생] 문화도, 술 마시고 이런 것도 신입생 때만 즐길 수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연구자: 반짝하는 그런 느낌인가요?

민윤진: 네 반짝하는? 그게 개인에 따라서, 학교에서 계속 생활하고 학교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4년 동안 이어지는 사람도 있긴 해요, 제 생각에는. ...(중략)... 대부분의 학생들, 정말 많은 몇 천 명이 되는 학생들 대부분은 신입생 때 반짝하고, 어쨌든 자기 미래가 중요하니까, 자기가 해야 할 것이 중요하다보니까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왁자지껄하게 '새로움'과 "자유"에 취했던 3월의 "반짝하는" 분위기가 물러간 일상에 찾아드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오늘날 대학생 문화의 '범상성(凡常性)'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식사를 하고, 친구와 선후배들을 만나 술자리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아르바이트나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는 등, 이른바 대학생활의 반복적인 "일상"이 찾아온다. 새내기를 겨냥하여 이들의 오감을 사로잡는 행사는 점차 드물어지고, 새내기들은 서서히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주로 만나기 시작한다. 아래 소개된 유민정의 말을 곱씹어보면, 어떻게 보면 이는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과정에 가깝다.

[1학년 때 만났던 사람들은] 어떤 일을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같은 반이 되어서 그냥 같은 과도 아니고 같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친해지는 친구들?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와해되기도 되게 쉽고. 그냥 대학생활, 처음 들어왔을 때 처음에 수업은 같이 들으니까, 같이 수업 듣고 같이 밥 먹고, 그런 무리들 이런 느낌이고.

유민정의 표현처럼, "무리들"은 특정한 목적이나 지향, 이념, 관심, 특성을 공유하지 않은 '무작위'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에 지원할 때 대체로 "커트라인"에 맞춰서 지원하다보니,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이기보다는 '점수'에 맞춰서 들어온 사람들이 모이기 쉽기 때문이다. 물론 이렇게 모인 "무리들"은 "와해되기도 쉽고" 민윤진이 했던 말처럼 "[1학년] 2학기가 되면" "어디론가 조용히" 사라지는 경향이 있지만, 중요한 점은 "무리들"이 '대학생활 내내' 대학생활의 배경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무리들"의 분위기를 피하지 못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문화의 특징을 꼽자면 아마도 '평균성'과 '일반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지민: (왜 <한울학보>에 들어갔냐는 질문에 대해) 대화를, 그니까 그쪽(사회문제)으로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를 [전공에서] 만나기가 일단 힘들고 하니까요.
연구자: 그럼 [전공] 친구들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해요?
한지민: 그냥, "야 시험 쉬웠냐?" 이런. (웃음) 이런 거나, 이성(異性) 얘기하거나.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이 하는 얘기 하거나.
연구자: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얘기요?
한지민: 그냥 뭐랄까, 그냥 할 수 있는 얘기들. 전공 얘기 하고, 진로 얘기하거나 그런 류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비슷하게 정다인은 "그냥 대학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은 "그냥 대학생들, 많은 학부생들이 하는" '평균적인' 경험이 있다는 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를테면 강의에 참석하여 "열심히 수업" 들으면서 "교수님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받는 일, "시험"이나 "이성 교제" 같은 일이 정다인이 말하는 "그냥 대학생"들이 하는 종류의 일이었다. 새내기 시절 이후로, 송현진은 학과 사람들과는 "오늘은 뭐 입었네" 정도의 "겉도는 대화" 밖에 나누지 못하는 편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한결도 "그냥 대학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아무 것도 없이 그냥 가람대 다니는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대학생"이라는 사회문화적 신분이자 정체성은 다만 모두에게 평균적으로 주어진 것(所與)에 불과한 셈이며, 그렇다면 '대학생 문화'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문화를 구성원들에게 풍부한 삶의 의미와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과거와 미래 사이'라는 시간적 지평 위에 "묶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오늘날 대학생활에서 지배적인 문화는 과장해서 말하자면 '문화 없는 문화', 또는 '범상성'이 만연한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송현진이 했던

말처럼, “대학생이라고 해서 대학 안에서 어떤 공동체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거의 없다”는 점은 다른 연구 참여자들도 언급하는 주제였다. 대학생들을 의미 있게 묶어주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어려운 문화적 조건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범상성이 단지 평균이나 평범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일정한 ‘규범(規範)’이 되면서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점일 것이다. 다시 말해, 범상성은 ‘범상(凡常)’함에 그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범상(範常)’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일종의 ‘또래 압력’ 내지는 ‘좇기에 대한 압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러한 영향력은, 한지민의 말처럼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이 하는 얘기”의 수준과 범위를 제한하고 한정짓는 것 같았다. 이를테면 “시험”과 “이성”, “진로”, “전공” 등에 한정된 몇 가지 일상적인 화제 외에, 각자의 독특한 관심과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상성은 한지민의 이야기처럼 대학 수업에서도 관철되기도 한다.

> 이공계 가장 큰 특징 하나를 꼽으라면 빡세다는 거잖아요. 시험 많고 과제 많고 실험 많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면 뭐라도 하나 빠졌을 것 같아요. 로드(load)가 그대로였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숙제 여기서 여기까지 해와’ 그러면 ‘교수님이 시켰으니까 해야지’ 애들이 다 이런 분위기고. 그리고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부적절한 발언을 해도 웃어요. 어떤 이상한 교수님이 계신데, 그 분이 한 학생한테 발표시켰거든요. 애가 대답을 했어요. 근데 걔가 이국적으로 얼굴이 좀 까만 친구였는데, “어, 너는 팔레스타인 애들처럼 생겼는데 불구하고 똑똑하구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웃어요,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요. 아, 이런 거보고 정말, 아 정말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니까. (웃음)

하지만 한지민이 의문을 품었듯, 수업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비판을 하면 친구들로부터도 “너는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아?” 같은 반응을 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 일쑤라고 한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사회의 ‘사’자만 꺼내면 ‘너 빨갱이냐?’”는 반응을 얻기도 한다. 수업에서 많은 질문을 하거나 교수와 너무 친하게 지내도, 너무 교실을 활기차게 만들어도 또래들로부터 문제가 되기도 한다. 즉, 주어진 조건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좇지 않으면 ‘배척’당할 수 있는 일상 속의 규범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

들은 이러한 범상성에 대해 불만을 갖거나 비판을 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지배적인 분위기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다.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이들은 이러한 문화의 범상성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대학생 문화의 범상성은 일상적인 대화와 수업의 범위를 넘어서기도 한다. 예컨대 범상성은 진로 문제에서도 특정한 길을 좇기를 종용하는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를테면 유민정은 "친한 여자 애들 10명 있으면 8명은 고시"를 보는 관계망 속에서 살고 있었던데다가 "인생이 딱딱딱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예전 남자친구의 부추김까지 더해서, 한때 원치 않던 고시를 준비하기도 했다. 한울대 인문사회계 학생들에게는 "고시, 언론, 대기업, 대학원"이라고 하는 "사지선다형"이 이미 주어져 있다(장덕진, 2010, p.70). 반대로 자연계열 학생들은 "의전"과 "약전"을 가는 것이 지배적이다.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의 진로를 '배려'하여, 심지어 전공수업을 아예 '의전/약전 준비반'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길을 "문제의식" 없이 맹목적으로 따를 때, 연구 참여자들은 "영혼"과 "내면" 없이 좇을 위험이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몇 가지 주어진 일반적인 길 외에 '다른 길'을 좇거나 탐색을 하려는 대학생들에게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일종의 '구별 짓기(distinction)'가 가해지기 마련이었다. 이를 하이데거 식으로 말하자면, '그들(세인; das Man)'의 지배가 대학생들의 생활세계에 '범상한 문화'의 얼굴을 하고 편재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Heidegger, 1932). 대학생 문화의 지배적인 한 양상으로서 범상성은 "그냥 대학생"으로서 살지는 않으려고 노력하는 대학생들을 '피곤하게' 만들며, 연구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가능성의 지평을 좁아지게도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때론 세인의 대열을 따르면서 범상성 속에 숨기도 한다. 그러나 범상성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지만) 범상성의 한계를 뚫고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절박한 삶의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한다.

(2) "학점관리": 대학 수업을 경영하기

한국에서 학생의 '본분'이 "공부"라는 점에 대해 전적으로 부정하는 경우가 있을까? 대체로 '학생'은 학교제도의 산물로서, 일정 기간 동안 형식화된 교육과정 속에서, 대체로 교수자로부터 때로는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배우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범상한 이해 위에서 학생들은

많은 사회경제적 책임과 의무를 '면제' 받는다. 프레이리(P. Freire)가 비판한 '은행예금식 교육(banking education)'관처럼, 공교육과 학교의 존재가치 중의 하나도 '인생의 특정한 시간대는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통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조용환, 2009). 그리고 대학에서의 "공부"가 집약되어 있는 것은 물론 대체로 '학점'과 직결되어 있는 '수업'이다.

연구 참여자들도 대학생의 '본분'이 "공부"라는 점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전공공부"를 하고 "학점"을 이수하는 것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기만족을 위해서도, 졸업 이후의 삶을 위해서도, "전공공부"를 잘 하고 "높은 학점"을 받는 것은 대학생이라면 좇아야 하는 '의무'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생의 본분을 조금은 다른 식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들에게 대학생이란, 물론 "공부"하는 '학생'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능성"이나 "적성"을 탐색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탐험가'이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의식과 책임감을 갖춘 '지식인'이기도 했다.

> 대학생의 본분이요? 물론 학생이니까, 학생이니까, 어… 학점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의 어느 정도는 갖춰 놓아야 하지만, 자기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미래. 내 대학교 후에, 5년, 그 이후, 자기 삶, 미래에 대해서. 정말 생각할 시간도 많고 접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니까 이제 그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건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잖아요. (민윤진)

> [1학년 때] 나는 재네들(새내기 동기들) 처럼 술 마시고 막 학점 챙기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잘 하고 있다. 그렇게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약간 자의식이라고 해야 할까?—그런 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뭔가 [사회에] 참여한다는 의식이 들게 하는 활동을 하면서요. 그래서 되게 저를,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의식 있는 대학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정다인)

이렇듯 연구 참여자들 사이에서 대학생의 본분은 수업이라는 한계 범위를 넘어서 다양하게 이해되고 선언되며 실천되고 있었다. 즉, 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대학생활이라는 범주가 포함하는 여러 활동 중 하나다. 그런데 내가 주목

하게 된 점은, 대학에서 참여하는 수업이 이들에게 '실존적 의미'로 다가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수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이들에게 대학에서의 수업이란 앞에서 이미 살펴본 "일반적인 대학생"이나 "그냥 대학생"이라면 '해야 하는 것'의 하나로서, 연구 참여자 개개인에게 소중한 실존적 의미가 되는 경우는 몹시 드물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연구 참여자들에게 기억나는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기억이 잘 안 나요"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더 지배적이었다. 다만 최근에 수강하여 기억에 남아 있는 수업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만 종종 있었다. 인상적인 교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수업 자체에 대한 만족과는 거리가 있었다. 네이선(Nathan, 2005)은 미국 대학생들에게서도 마찬가지 경향을 발견한다. "거의 모든 4학년 학생들이 강의에서 배운 것, 심지어 지난 학기의 강의에서 배운 것조차 대부분 잊어버렸다는 데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 대학시절을 회고해보면서, 그들은 강의의 주제보다 그들 자신, 그들의 능력, 그리고 그들의 관계에 대해 더욱 많이 배웠다고 주장할지 모른다(p.217)."[18]

이는 부분적으로 대학수업이 이들에게 "실망"스러웠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를테면 외국어를 전공하는 몇몇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수업이 "학원보다 못하다"는 인상을 받기도 한다. 고등학교에서 과학을 열심히 "공부"한 한지민과 이한결은 학부 저학년 때 이루어지는 전공 수업이 지나치게 쉽게 느껴지기도 했다. 더 나아가 연구 참여자들은 학년이 높아지면서 차차 '학점을 잘 따는 법'만을 깨닫기도 하며, "겨우 이걸 배웠어?" 하고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연구자: 한지민 씨 같은 경우 대학교육을 잘 받아온 편인 것 같나요?
한지민: 대학교육이요? 음… 글쎄요, 받았다기 보다는… 맞췄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대학교육에 맞춰주었다. (웃음)
연구자: 어떤 의미에요?

---

18) 네이선의 지적은 모팻(Moffatt, 2010)의 발견과도 상통한다. 모팻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회고하면서 최고로 치는 가치는 '자기발견'과 '경험의 확장(broadening experience)' 등이었다. 반면 수업이나 "공부", 교수진은 가장 적게 언급되는 주제 중 하나였다. 이는 조용환(1995)의 한국 여자 대학생 문화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등장하는데, 그에 따르면 "대학교육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지식이나 기술"을 언급한 학생은 없었으며, 대신 "자신감, 주체성, 관용성, 현실적 자기 이해 같은 인간적 자질의 성장"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pp.184-186).

한지민: 그냥…, 교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요구에 맞게끔 노력하고, 그랬다는 느낌? 제가 변화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순간순간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막 "겨우 이걸 배웠어?"[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맞추는 능력이 늘었다고 하나?

"실망"은 수업 내용에 대한 불만족에 그치지 않는다. 이를테면 수업의 선택은 여러 제약 속에서도 부분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각 수업에서는 교수자의 권위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불만족스럽게 깨닫기도 한다. 그렇기에 수업에 '참여'하기보다는, 교수자로부터 쏟아지는 지식-정보와 평가체계에 소극적으로 '순응'하기 쉽다. 이는 부분적으로 교수자와 대학생 사이의 권력 격차 문제이기도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대로 대학생들 사이에 범상성, 즉 "문제제기를 하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 위에서, 한지민의 말처럼 "교수님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상책'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즉, 대학에 대한 담론에서 흔히 학술적인 미덕으로 요구하는 자유로운 탐구나 질문 능력보다는, 수업 분위기나 평가 항목이 요구하는 바를 '좇는' 능력의 가치가 커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종종 "공부"와 '학점'을 동일시하는 현상이 발견되기도 한다. 즉, "학문연구는 교수님들이 훨씬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교수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는 것이 "공부"를 잘 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시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경향은 연구 참여자들이 '매우 바쁘다'는 점에서 비롯하기도 한다. 이한결의 말처럼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껴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바쁘게 살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 연구 참여자들에게 대학생의 '본분'이란 "공부"하는 사람이면서 '탐험가'이기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식인'이기도 했다. 본분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그 밖에도 생활비를 버는 '생계인'이기도 하며 관계를 넓히고 유지하는 '사교인'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이들의 "시간표"는 수업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과 일정으로 꽉 차 있는 편이었다. 이렇듯 바쁜 대학생활에서 점차 중요해지는 것은 "자기관리", "시간관리", "학점관리"다. 즉, 자신의 삶을 '최적화'하여 '경영'하는 것이다. 맥락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블럼(Blum, 2009)의 발견은 대학생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특성을 잘 요약해준다.

학생들이 대학에 올만큼 충분히 운이 좋다면, 그들은 [고등학교부터 시작한] 분주함(busy-ness)을 그대로 가지고 대학에 입학한다. 이러한 경향은 교

육의 목적을 평가에 집중하게 한다. 이는 단순히 그들이 매일매일의 다양한 종류의 활동, 이를테면 수업이나 클럽활동, 스포츠, 사교모임, 일을 하느라 하루를 꽉 채워 보낸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 시간이 자신들의 삶에서 얼마나 짧고 귀중하며 비싼 기간인지를 잘 알고 있다. (p.4)

블럼의 기술은 연구 참여자들의 "학점관리" 문화에 대해 조망할 수 있는 한 가지 관점을 제공한다. 앞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늘 '분주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학점'과 동일시되는 "공부"는 실존적인 의미는 찾기 어려운 대학생활의 한 가지 구성요소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수업에서 쏟아지는 지식들을 재빨리 암기하거나 재가공하여, 주어진 문제에 답하여 시험답안지에 '재현'한다. 앎의 본질과 의미를 찾기보다는 평가 기준을 좇아서 높은 점수를 받아내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지만 "공부"를 안 할 수도, "좋은 학점"을 애써 받지 않을 이유도 없는 것도 대학생활의 "현실"이기도 하다. 블럼의 지적처럼, 대학생활이 "얼마나 짧고 귀중하며 비싼"지를 연구 참여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 위에서 이른바 "학점관리"를 하는 경향은 대단히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학점을 잘 따기 위해서는, 비록 수업이 특별한 재미도 없고 기억에 남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일정과의 조율 속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필수 수업, 듣고 싶은 수업, "의미 있는" 수업, "널널한"[19] 수업 사이에서 수강과목을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수업 내용도 너무 "빡세서" 하고 싶은 활동이나 경험을 지나치게 방해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서도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어서 향후 취업이나 진로 등에서 굳이 불리해져서도 안 된다. 점차 "관리"하고 "경영"할 필요성이 절실해진다.

여기서 "학점관리"는 일견 연구 참여자들이 "공부"에 관한 능동적 행위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크다. "학점관리"는 대학 수업에 대한 "실망"이나 소외를 발생시키는 구조의 영향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대평가제'라는 제도적 한계 내에서, 우리는 "학점관리"를 "좋은 학점"이라는 한정된 재화를 향한 경쟁에 나름대로 대응하는 '관리 및 경영 전략'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학점관리"는 기본적으로 더 넓고 깊은 배움이나 성장, 교육적 경험을 찾기 위한 전략이라기보다는, 바쁜 대학생활의 일상과 주어진 한계 속에서 "높은 학점"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내는

19) 표준어로 '널찍한'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부담감("로드")이 적은 상태를 가리킨다.

방식으로 좇기 위한 '경영'의 최적화 전략에 가깝다는 것이다.

물론 "학점관리"를 둘러싼 연구 참여자들의 실천은 그리 간단치는 않다. 김우진에 따르면, "학점관리"는 대학생활의 기본 중 하나인 "자유"에 따르는 "책임" 때문이기도 하다. 즉 모든 선택의 "결과나 책임은 다 자기한테 돌아"오기 마련이므로, "학점관리"란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춤을 사랑하는 대학생 춤꾼으로서, 김우진은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성적이 나와야 해서 성적관리를 많이 신경 썼었어요"라고 말한다. 즉, 김우진이 "학점관리"를 하는 것은 대학생 춤꾼들이 "공부"라는 '본분'을 소홀히 한다는 사회적인 편견과 선입견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유의할 것은, 대학 수업이 대체로 "학점관리"와 경영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수업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 수업이 고등학교의 수업이나 학원 강의와 비교했을 때 분명한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또 실제로도 그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연구 참여자들은 오늘날 대학에서 수업이 분명한 장점이 있다고 '현실태'로서 느끼고 있기 보다는, 한지민과 김우진의 이야기처럼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가능태' 또는 '잠재력'을 높이 사고 있었다.

연구자: 이점은 뭔가 대학교육에서 할 수 있는 거다, 싶은 게 혹시 있어요? 고등학교 교육과는 다른 점.

한지민: 생각하는 거. 고등학교는 교과서만 가르치잖아요. 대학교는 교과서 이상의 것을 가르치는,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자: 김우진 씨에게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수업이라기보단 춤이었잖아요. 그럼 수업에서 김우진 씨는 무엇을 얻으셨는지….

김우진: ...(중략)... 나름대로 여러 수업을 들으면서 글쎄요, 학식이나 지식이라기보다는 어떤 수업의 분위기나, 그런 것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일본어로 배운 것은 다 일본어고, 문법적인 것은 솔직히 하나도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해요. 금방 외운 건 까먹어버리니까. 회화 같은 것은 남지만, 그런 거지만, 수업하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던 수업은 문법 중에서도 깊은 문법 있잖아요. 일본인들만 알 수 있고 일본인들도 왜 그렇게 되나 모르는, 대학에서만 배울 수 있는, 학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그런 지식을 대학에

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좋았어요. 대학에서는 대학에서만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대학에서만" 느낄 수 있는 수업의 가능성은, 연구 참여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생각하는 거", "대학에서만 배울 수 있는 지식", "수업의 분위기", "지적 능력"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밖에도 대학 수업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대체로 '가능성'에 머무는 경우가 많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희망이나 기대 내지는 이상에 멈추고 마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일부 연구 참여자는 우연히 들었던 수업에서 의미나 재미를 '의외로' 발견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서주희는 4학년이 되면서 의무로 들어야 했던 논문 수업이, 재미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배반'하고 입학 이후 처음으로 "집중하게" 되었던 수업이라고 이야기 했다. 그렇지만 이는 상당히 드문 '우연한 사건'이었다. 게다가 교수진과 의미 있게 만난 연구 참여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들에게 교수진은 차라리 '환경'에 가까웠다. 대학교육의 의의에 대해 다시 질문할 시점이 아닐 수 없을 것 같다.

(3) "나이가 많아지니까": 나이주의에 대한 순응

연구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점 하나는,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대학생활에서 '나이'가 중요한 규범이라는 점이었다. 나이는 연구 참여자들의 삶의 지향과 포부,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물론 타인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도 언제나 중요한 고려 대상이었다. 실제로는 나이에 대해 민감하게 의식하지 않는 연구 참여자라고 할지라도,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만날 때는 나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동아리 활동이나 조모임을 하면서 다른 학생들을 만날 때도 나이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이 아직 "청춘"인지 혹은 "성인"인지를 결정하는 것에도 나이가 영향을 미친다. 또래끼리는 비슷한 생애 고민과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기에 편하다는 연구 참여자들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20]

---

20) 하지만 이러한 '나이주의'는 대학생들 사이에 비교적 연령 차이가 크지 않을 때 더욱 민감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를테면 만학도 대학생의 대학생활 연구(이정희·안영진, 2007)를 보면, 만학도들에게는 20대 대학생들의 나이주의가 강하게 통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만학도들은 20대 대학생들이 느끼는 일상적인 나이주의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대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잘 알려져 있듯, 공교육 제도는 동일세대인구집단(cohort)을 학교 제도에 편입시킴으로써 현대인의 생애를 일정하게 '구조화'한다(오성철, 2000; Ecclestone, Biesta & Hughes, 2010). 대다수 어린이와 청소년을 "학생"으로 만드는 오늘날 '학교화 사회(Illich, 1970)'는, 소위 '학령주의'를 문화적 규범으로 만들기도 한다. 대학생들의 일상도 마찬가지다. 대학생들의 일상에 편재한 '나이주의'에는 뿌리 깊은 사회문화적 연원이 있는 셈이다. 대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온 직후 만나는 사람들은, 보통은 자신들보다 "한 살 차이만 나도"—관계가 가까워졌을 때는 "누나, 언니, 형, 오빠" 같이 가족주의적 호칭으로 불리기도 하는—"선배"가 되는 대학생들이다. 더 많은 나이와 "선배"라는 위치가 동반하는 일종의 '문화적 권위'는 뒤따르는 대학생들에게 때로는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21]

언뜻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나이'에 대한 언급이 왜 중요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 나이가 주제화 되는 경우가 많았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대학생활 과정에서의 '전환'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가 대학생활의 모든 과정에 거쳐서 동일하게 문제시 되지는 않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고학년이 되면서 나이에 대해 더욱 민감해지고 '순응'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대로 새내기 시절은 학창시절이라는 '과거'와 단절하되 '미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는 않는, '현재-순간'의 충만함 속에서 "해방감"과 "자유"를 만끽하는 시기다. 새내기 시절은 무릇 '그래도 되는' 시기로 이해된다. 이런 맥락에서, 서주희는 현재 졸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음에도, 친척 남동생들에게는 1학년 때는 새내기처럼 살도록 권유하기도 한다.

> 제 바로 밑 친척 동생들이 제 동생까지 해서 3명이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남자애 셋이라서 다들. 이제 내년에 군대가 남았잖아요. 사실 군대 가기 전까지는 솔직히 놀라고 하고 싶어요. 공부를 하면, 군대를 다녀와서 하라고 [말]하고 싶고. 1학년 때 안 놀면 군대 다녀와서는 거의 못 노니까. 지금 학교에서 하는 행사에 많이 가라고 했어요. 셋 다 기숙사에 자취거든

---

21) 대조적으로 미국 대학생 문화연구(Blum, 2009; Moffatt, 2010; Nathan, 2005)에서는 나이에 대한 문화적 표현이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 예외가 있다면 블럼(Blum, 2009)이 사용한 표현인 "나이 많은 학생(older student)" 정도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국 대학생들의 문화적 표현보다는 결이 그리 풍부하지 못하다. 미국 대학생들 보다는 한국 대학생의 이야기에서 나이에 대한 표현이 '자주' 쓰인다는 점으로부터, 우리는 한국의 대학생 문화에서 나이주의가 중요한 문화 요소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나와 사는 거, 밤늦게까지 친구들이랑 술도 먹고, 1학년 때는 해볼 것 다 해보라고. 그랬더니 한 명이 학고 받을 것 같다고. 아~ (웃음) 한 학기 더 다닌다고. 학고라니~ (웃음)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새내기 생활을 회상하면서 "철없는", "사리분별을 못하는" 등의 거리 두는 표현을 쓰면서 '희화화'하기도 한다. 새내기 시절을 애틋하고 그리워 하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는 양가적 태도를 표현한다. 또한 나이는 점차 "사회인"으로의 이행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기 시작한다. 이제 서서히 나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열린 '기회'를 뜻하는 표현에서, 닫힌 문을 향한 '압력'을 뜻하는 표현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빠른"[22] 생년인 한지민이 휴학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그래 넌 어리니까 가능하지"였다. 당시 스물 셋이었던 한지민은, "나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죠, 아직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졸업이 가까워지면서 대체로 "나이 때문에 걱정"이 되고 "조바심"이 나기도 한다.

연구자: 그럼 송현진 씨는 혹시 성인이 빨리 되고 싶은 적은 있었어요?
송현진: 아뇨! 저는 없었어요. 어릴 땐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정말 별 생각이 없었고. 지금은 그냥 되게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없다? 그런 생각은 한 적 있는 것 같아요.
연구자: 시간이 없다고요? 어떤 점에서요?
송현진: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는 것. 시간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 전에 빨리 뭔가를 해놔야 하는데 하는 조바심이 드는 것 같고요. 제가 언제까지 뭘 하고 싶다 그런 것이 좀 있었어요.

우리는 앞서 Ⅱ장에서 살핀 연구 참여자들의 변화가 '나이주의', 즉 나이에 대한 관습적 이해와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대학생활의 초반을 지나면서 "가능성"을 탐색하고 "다양한 경험"을 시도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자신이 "나이가 어린" 덕분이며, "사회인"이 될 준비를 하는 일은

22) 연구 참여자들이 나이를 언급하며 종종 쓰곤 했던 "빠른 00년생"이라는 표현은 2010년 이전에는 초등학교 취학 연령 산정 기준이 '3월~익년 2월'이었다는 제도사(制度史)적 배경이 있다. "빠른" 출생들은 또래 학번 대학생들과 일상적으로 동등한 관계를 맺지만, 졸업을 앞두고는 한 살 어린 나이가 일종의 '자산'이 되기도 한다.

“나이가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에 가까워진다. 점점 “시간이 없어”지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남은 한 학기 한 학기,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자원’인지를 절감하기도 한다. 곧, 시간은 ‘한정된 자원’이다. 점차 “철없이” 살기보다는, 사회문화적으로 장려되는 진로나 확정된 꿈을 좇아야 한다는 압력이 커진다. 이러한 좇기 압력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이른바 “대4병(大四病)”에 걸리기도 한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은 더 커지기 쉽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나이주의의 압력에 ‘순응’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나이 압력이 모든 연구 참여자들에게 동일하게 체감되지는 않았다.[23] 때로는 경제력 수준이나 부모의 지원 여부 및 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지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대학생활을 더 하면서 이것저것 해보고 싶다는 연구 참여자들이 많았다. 다만 여기서 살펴볼 것은 연구 참여자들이 종종 언급하던 나이주의 내의 ‘성별 차이’였다. 이는 부분적으로 유민정의 표현을 빌자면 “성차별적인” 문화가 일상에 공존하기 때문이다.

연구자: [주변에서] 나이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들리나 봐요?

유민정: 아무래도 이제 스물다섯이면 진짜 적은 나이가 아니라는 얘기를 엄마도 하고. 더 이상 [애가 아니라], 이제 넌 어른이다. 넌 이제 너 인생에 책임져야 하고, 더 이상 어리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남자애들이 특히 여자애들 막 놀릴 때, “여자애들은 크리스마스 케이크”라는 얘기를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웃음)

연구자: 크리스마스 케이크요? (웃음)

유민정: 그게 무슨 얘기냐면, 25일까지만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팔 수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성차별적인 게 있어요. (웃음)

연구자: 아~ 스물다섯….

---

23) 한편 대학에는 대학생 문화에서 지배적인 나이주의와 거리를 두는 하위문화가 존재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한울학보>는 서로 별명을 부르면서 “말을 놓는” 문화가 있는데, 덕분에 한지민은 다른 집단에서와는 달리 학보사에서는 “나이를 까먹게” 된다고 한다. 또한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오프라인”과는 달리, 나이와 관계없는 ‘평등성’이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이를테면 송현진은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은 나이를 좀 덜 따지게 되는 것 같아요. 서로의 나이에 대해 영향을 덜 받는. 왜냐면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면 거의 다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데, 학교에서는 한 살 차이만 나도 선배 후배 이러는데, 온라인에서는 그런 경계가 없기 때문에”라고 말한다.

유민정: 꺾인다고, 그 다음부터, 여자는. 기분이 굉장히 나쁘지만,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웃음) 그리고 나는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쁘죠. 약간 남자애들이 성차별적인 게 있으니까. 여자애들의 외모나 이런 것 때문에.

다분히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라는 표현이 "반박을 할 수" 없이 '자연스럽게' 쓰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대학생들의 나이 문화에 "성차별적"인 문화가 얽혀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비단 대학생 문화 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나이주의와 "성차별적"인 문화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한지민은 "여자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아서 [취업할 때] 좋은 게 별로 없잖아요"라고 말하기도 한다. 서주희의 아버지는 "여자는 나이 들수록 취업하기 어렵다"고 강조하시기도 한다. 성차별주의가 나이주의와 결합되면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 '차등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물론 연구 참여자들은 나이주의와 성차별주의가 가하는 압력에 순응하며 좇지만은 않았다. 박태훈처럼 "사회인이 되면 다른 쪽 일을 하며 살 수 있고 [그렇게] 살면 재밌겠다"고 생각하면서 크게 압박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많은 연구 참여자들은 정다인의 표현처럼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졸업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남은 대학생활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고 마음을 먹기도 한다. 즉, "시간이 없으니까" 자신이 "더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사회인"으로의 이행에 대한 압력이 편재해 있고, 이 압력은 갈수록 커져간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4) "성인"의 시간: 사회생활에로의 조율

"성인"의 말뜻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생애사에서 "성인"이 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일 것이다. 우리의 연구 참여자들도 스무 살이 되면서 법적인 "성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정의로 충분할까? 비록 불만족스러운 정의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대학생들의 심리적, 사회문화적 특징을 총칭해 '후기 청소년기' 또는 '새로운 성인기(emerging adulthood)'라고 구분하는 학자들이 있다(전상진·정주훈, 2006; Arnett, 1998; 2000; Klein, 1990). 이들에 따르면, 오늘날 20대 대학생들은 기성세대에 대한 의존과 개인적 독립 사

이에서 완전한 “성인”으로 살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나도 연구 참여자들과 “성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 대부분도 스스로 “성인” 또는 “어른”이라고 느끼지 않았다.[24)]

연구자: 송현진 씨는 개인적으로 성인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 같나요?
송현진: 음…. 저는, 뭔가 재정적인 것도 되게 큰데, 집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멀어지면, 재정적으로 플러스 감정적으로 둘 다 멀어지면 그때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집에 살기도 하고, 아직 가족들에게, 하다못해 “밥을 차려주세요”라든지 의존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성인이라고 하기엔 아직 먼 것 같아요.
연구자: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가요?
송현진: 네. 그런 거 같아요.
연구자: 법적으로는 성인이잖아요.
송현진: 네 그렇긴 한데 (웃음) 그니까 문화적인 사회적인….

“성인”은 이렇듯 경제적 독립 뿐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측면에서 두루 요건을 채웠을 때 연구 참여자들은 비로소 “성인”이 되었다고 느낀다. 물론 “성인”이 되는 핵심은 정다인의 말을 빌자면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 즉 ‘홀로서기(조용환, 1995)’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과 “자기 가치관이나 신념”이 있는 사람을 “성인”이라 생각하기도 했고, 때로는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성인”으로 꼽기도 했으며, “성숙함”, 특히 “연애” 같은 이성 관계에서 잘 드러나는 정서적 측면을 “성인”의 기준으로 꼽기도 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이토록 다양했지만, 이와 관련해 대학생인 연구 참여자들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무엇보다 ‘졸업’이다. 졸업 이전에도

24)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 “성인”과 “어른”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종종 구별되고 있었다. “성인”이 다소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삶의 양식을 가리킨다면, “어른”은 조금 더 질적인 자질이나 품성에 맞추어져 있었다. 이를테면 “어른”은 자신의 삶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고, 자기만의 의견을 분명히 내놓을 수 있거나 타인보다 탁월한 전문적 취미나 관심을 가진 사람이다. 즉, 단순히 생존적 삶이 아니라 실존적인 삶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성인”이 아닌 “어른”이라 칭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나이주의에 대한 순응 압력을 강하게 느끼기 마련이지만, 이들은 졸업 직후에는 대체로 '홀로서기'의 과제가 어느 정도 완수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학원을 가거나 다른 진로를 택할 것이 아니라면, 연구 참여자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물론 "어른"답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다고 지적하지만)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 "성인"의 시간은, 졸업과 동시에 대학생활에서 "노닥거릴" 시간이나 "풀어진" 시간이 '종결'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더불어 "성인"의 시간은 "자기생계"를 책임지는 "압박이나 부담"을 느끼는 시간, 일터의 규율에 따라야 하는 시간, 또한 경제적 독립에서 시작해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선형적인' 생애로 이행하는 시간으로 간주되는 편이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사회생활에 대한 상상은 대체로 어떤 편이었을까?

> 민윤진: [졸업과 취업을 생각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엄청 많이 고민을 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졸업이] 닥친 것도 있었고, 되게 뭔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다고 해야 하나. (웃음)
> 연구자: 허무함이요?
> 민윤진: 네. 뭔가, 전문직이 아니라, 그냥, 그냥 웬만한 회사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되는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하고, 결혼 하고, 가정 꾸리고, 애를 낳고 자녀가 생기고, 자녀한테 바치는 내 인생이 그냥,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냥 끝나겠구나 하는.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인생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는데, [사회생활을 하면] 이것을 좀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나 여유 같은 게 전혀 없겠다고 느꼈거든요. 일을 계속 하게 되면, 그니까 매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7시, 8시고, 나름대로 쉬고.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랑 이야기하고, 그러다 자고. 그런 일상이 매일 반복될 것 같아요. 그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건 되게 원론적인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되게 적다는 생각을 했어요. (송현진)

수용태도나 발화방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전반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민윤진과 송현진의 이야기처럼 사회생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사회문화적 규범을 좇기에 급급할 뿐, 삶의 "다른 가능성"은 생각하지 못하는

생활양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다른 예로, 한지민은 “사회”를 “평균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으로서, “상하위계”라는 “질서” 속에서 ‘아랫사람’을 무시하는 체계로 느끼고 있었다. 다른 연구 참여자들도 표현 방식만 달랐을 뿐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사회생활은 대학생활의 “자유”와는 대조되는 원리가 작동하는 환경이라고 지각되는 경향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생활 중에서도 사회생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그러한 법칙과 원리에 스스로의 일상을 차차 ‘조율’해 나간다. 그리고 이를 깨단하고 변화하는 과정은 정다인의 말처럼 “세상이 달리 보이”는 ‘변곡점’이 되기도 한다.

> 정다인: 이제 졸업에 대해서, 그리고 그 후에 대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때부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되더라고요. ...(중략)... [지금까지] 저도 사회에 [대한] 관찰자로 있었다면, 이제 저도 들어가야 하는 입장이 되니까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절망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 연구자: 절망이요?
> 정다인: 그니까, 특히 들었던 생각이 다 이렇게 힘든데, 왜 다 같이 그만두지 않을까. 다 힘들면 같이 그만두면 되는데 왜 같이 경쟁을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또 그냥 그때 많이 생각했던 게, 그냥 서로에게서 자꾸 벗겨먹는 관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니까 서로에게 뺏으려고 하는 관계. ...(중략)... 그리고 아는 사람 취직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도 많이, 암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회가 되게 무서운 곳이구나.

이렇듯 “학생” 신분을 벗어나 “성인”이 된다는 것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성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을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언젠간 “성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또한 때로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다만 ‘특정한’ 방식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낄 뿐이다. 즉, “다양한 경험”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종결’됨과 동시에, 틀에 박힌 반복적인 생활을 좇아야 하는 시간이 ‘도래’하는 특

정한 비가역적 변화에 대한 거부감일 뿐이다. “자유”가 중심이 되고 ‘존재물음’을 던질 수 있는 열린 시간에서, “위계”가 중심이 되어 ‘평균성’ 속에 살아야하는 닫힌 시간으로 이행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일 뿐이다.

더군다나 연구 참여자들이 “사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은 “사회”를 전혀 겪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겁”을 먹었기 때문에 생겨나지 않는다. 대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사회생활과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아르바이트를 포함하는 여러 활동을 통해 “사회”와 직접 만나고 있었다. 또는 선배들의 경험담이나 인터넷 대학생 커뮤니티의 게시물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사회”를 만나기도 했다. 이를테면, 한지민은 한울대 부속 유아원에서 근로 장학생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부분적으로 겪으며 배웠다.

> (근로 장학생 일을 하면서 사회생활에 대해 어떻게 느꼈느냐는 질문에) 안 가봤지만 군대랑 비슷할 것이라 생각해요. 그니까 음… 군대처럼 ‘야 이거 해, 내가 윗사람이야 넌 아랫사람’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진 않은데요. 이런 거예요. [유아원 선생님이 원아들에게] “지민아 물 줄까~?” 이러면 내가 물을 떠와야 하는 거예요. (웃음) 이런 식으로 눈치를 잘 봐야 하고요.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도 있고. 선생님들이 시키는 것은 해야 하고, 시키기 전에 해야 하고.

“눈치”[25]를 대표로 하는 사회생활에 대한 체험과 “배움”은, 각 연구 참여자마다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이를테면 송현진은 공공기관과 IT 기업에서 인턴을 하면서, 서주희는 면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한결은 편의점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회생활”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런데 졸업을 눈앞에 두고 취업활동에 들어간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사회”가 이들에게 부과하는 순응과 좇기의 과제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기 마련이다.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사회”로 나아갈 수 없거나 충분히 나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끼기도 했다. 이를테면 서주희는 4학년이 되어 취업 압박을 강하게 느끼기 시작하면서, 원래 많던 “아침잠”을 크게 줄이고 시간표를 꽉 채우는 방식으

---

25) “눈치”는 모든 일상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 필요하지만,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회생활을 체험해본 연구 참여자들이 특히 종종 언급하는 주제였다. “눈치”란 특정 맥락에서 ‘적당한(legitimate)’ 언행의 규칙을 찾아내어 그것을 실제 언행으로도 유연하게 옮길 수 있는 기민한 좇기 능력이라고 정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로 삶을 조율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인턴 등을 체험하면서 미리 사회생활에 참여했던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지만, 이들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느끼지는 않았다.

연구자: 그럼 [인턴을 해보니] 회사 생활 같은 건 할 만할 것 같으세요?
유민정: 제가 취직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어느 회사냐 어떤 부서냐에 따라 달렸겠지만 훨씬 더 힘들 것 같아요. 야근도 맨날 해야 하고, 그런 생활을 이제—학교를 다니면 방학을 다니고 수료가 되는 과정이 있는데—회사는 그런 게 없고. 뭔가 내가 배우러 가는 데가 아니고, 내가 돈을 받고 내 노동을 제공하는 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삶을 변함없이 몇 년을 하면, 얼마나 사람이 (웃음) 완전 등골이 다 빠져서 (웃음) 그렇게 될까.
연구자: 골수를 빨리고…. (웃음)
유민정: 네. 골수를 빨려서 껍데기만 남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대기업 들어가서 한 3~4년 일하고 그만두고, 이직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회생활에로의 이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듯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적일 때도, 사실 연구 참여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아예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처럼 사회생활을 포기하겠노라 선언하거나, 동년배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스펙'을 갖추기 위해 고투하는 선택지도 있을 것이다(장성연, 2013). 하지만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특별히 의식적으로 '스펙 경쟁'에 참여한다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에 조율해 나가면서 조금이나마 더 나은 선택지를 찾고자 노력하는 경향이 더 큰 편이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삶의 가능성을 '닫힌' 것으로 전환하곤 했다. 달리 말해, 연구 참여자들 사이에서 "안전한 길"을 좇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점차 크게 나타난다.

민윤진: 어쨌든 사람은 다른 길을 가는 것에 대한, 자신과 다른 길을 사람에 대한, 자기가 가보지 못한 길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로망이나 환상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뭔가 부럽거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그렇다고 쉽게 내가 그런 길로 뛰어들기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 힘들다고 생각….

연구자: 왜 그렇게 힘들 것 같으세요?
민윤진: 현실적인 게 많아서. 현실적인 제약이, 현실적인 것에 대한 생각이 더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연구자: 그럴 때 현실적인 거라고 하시면….
민윤진: 예를 들어, 언제 [합격] 될지 모른다든가 아니면 그 방면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라든가.
연구자: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 커서?
민윤진: 네, 그렇죠. 좀 더 그냥, 말 그대로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거죠, 아무래도. 좀 더 미래[가] 보장되는 거.

앞에서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사회생활은 부정할 수 없이 냉엄한 "현실"로 지각되고 있으며, 그렇기에 연구 참여자들은 졸업이 다가오면서 서서히 스스로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야 함을 느낀다. 설령 "현실"이 '청춘 착취(Perlin, 2011)'에 지나지 않더라도 버텨야 한다고 느낀다. 그렇기에 민윤진의 이야기처럼 정작 마음이 끌리지는 않더라도, "좀 더 미래[가] 보장되는", "말 그대로 안전한 길"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조율하기로 선택하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일 수 있다. 더군다나 선배들이 겪는 어려움을 일찍부터 보고 들은 대학생들은, 훨씬 더 이른 시기부터 자신의 삶을 사회생활에 맞는 규율에 맞추어 조율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고용시장"과 사회생활의 차가운 현실이 지속되면서 대학생 사이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는 것 같다.

(5) "부채감": '홀로서기'를 향한 고투

우리가 좇기라는 지향성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부모님"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연구 참여자들의 '홀로서기'의 노력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또래 집단'과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삶의 지지기반도 형성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며 함께 "의미 있는" 대학생활을 모색하는 경향이 가장 뚜렷하다는 말이다. 민윤진의 말처럼 부모에 비해서 또래들이 서로의 처지에 대해 "더 이해를 많이 하고 공감대도 많으니까" 또래들과 더 어울리는 건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대학생활의 일상에서도 부모와의 관계성이 중요해지는 순간이 종종 있기 마련이다.

부모들은 때때로 연구 참여자들의 대학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실 전반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부모는 이들의 대학생활에 '무관심'한 편이었다. 즉, 부모들은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연구 참여자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편이었다. 이를테면 한지민의 부모는 "최소한의 협의"만 하면 "도둑질만 아니면 뭐든 해라"고 내버려 두는 편이셨고, 정다인의 부모는 대학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폐만 안 끼치면 된다"고 내버려두시는 편이었다. 박태훈의 부모도 "방기와 신뢰"라는 태도를 보내주셨다고 한다.

하지만 '무관심'이 관계성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학생들이 스스로 삶과 배움, 성장의 길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는, 직접적 개입이나 간섭보다는 차라리 무관심이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관심은 '심려(Heidegger, 1932)'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결정한 선택을 지지하면서, 이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관심이 없는 척 관심 있는' 무관심에 가까울 것이다. 이때 무관심은 때로는 연구 참여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가능성"을 찾는 대학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 중에는 없었지만, 반대로 부모가 깊이 개입하여 특정한 삶의 모습을 좇도록 강요하는 등 대학생들의 '홀로서기'(조용환, 1995)를 방해하는 경우도 드물지는 않은 것 같다.[26]

송현진: 대학교 때 (송현진이 다닌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엄청 많이 왔었는데, 걔네들은 다 예를 들면 2학년 때부터 경영학회에 들어가서 엄청 뭔가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테크'를 타고 있거나 아니면 행시 준비하는 애들 되게 많고. 행시 준비하는 어머니들끼리는 아직도 동문회 이런 것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자: 아 그래요?

송현진: 애들 정보 교환하고. 그리고 애들 막 방 잡아서 공부시켜주고 이런

---

26) 이러한 사례는 블럼(Blum, 2009)의 연구에서도 엿볼 수 있다. 미국의 명문대에 재학 중인 대학생의 부모들은,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이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는 편이다. 대학에서 입학지원자에게 요구하는 복잡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관리'가 필수적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는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계속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하이데거의 언어를 빌자면, "대신 뛰어들어 타인을 지배하는 심려"라고 할 수 있다(이기상·구연상, 1998, p.169). 이럴 때 대학생들은 "자신의 일에 방관자가 됨으로써 결국 다른 사람에 의존적이 되며, 그런 의미에서 그는 타인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ibid.).

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자: 진짜 관리 하시는 어머님들이 있나 봐요? 매니저 맘 같은?
송현진: 네네 진짜 매니저….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중략)... 아예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기도 있고 자기 언니도 있는데, 자기 언니와 자기의 대학원 진로나 결혼 이런 것까지 계획 다 [세우셨대요]. 부모님이 그런 집도 있고. (한지민)

연구 참여자들도 이러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성인" 답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간섭"하는 부모와는 대조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부모들은 이들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대체로 크게 "간섭"하지는 않는 편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님의 의지를 직접 따르고 순응하지는 않는 편이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부모들은 등록금을 비롯해 대학생활의 여러 활동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다시 말해 민윤진의 말을 빌면 "돈 드는 것"에 대해서는 여건이 되는 한 전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지원'을 해주시는 편이었다. 김우진의 부모처럼 대학생활의 가치와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 같았다.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 있냐는 질문에) 부모님도 알바를 하는 걸 별로 원치 않으셨고. 그 시간이 아깝다고 하셨거든요. 편의점 알바나 단순한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게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면, 네가 지금 당장에 경제적인 게 어려운 게 아니라면, 그럼 부모님이 어느 정도 용돈 같은 건 커버를 해줄 테니까, 네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 제가 하고 싶은 걸 많이 했고.

하지만 문제는 대학생활에 필요한 상당한 등록금과 생활비, 기타 각종 교육비의 부담이 거의 전적으로 대학생 개인과 가정 경제의 '사적 지출'에 의존한다는 점이다(만약 유럽의 일부 국가처럼 대학교육의 '공적 지출' 의존 비율이 높다면 어떨까?). 또한 지난 10여 년간 대학 등록금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높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장학금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기도 하지만, 장학금은 대체로 "학점경쟁"에 기반하고 있으며 수혜율도 높지 않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닌 경우가 많다. 물론 "부모님께 의존" 하지 않고

스스로 모을 수도 있겠지만, 과외 등 일부 고액 아르바이트가 아닌 이상 등록금은커녕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다.[27]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에게 "부채감"을 갖게 되기 쉽다. 부분적으로 이는 법적 "성인"이 되었음에도, 부모님께 다방면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대학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단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부채감"을 갖지는 않는 것 같았다. "대학까지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부모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당연시'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자신이 스스로 설 수 있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부모에 대한 "부채감"이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다. 송현진처럼 복잡한 "감정적인 부채감"을 갖기도 한다. 부모에 대한 "부채감"은 연구 참여자들의 '홀로서기' 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다. "성인"으로서 홀로서고자 하지만 진정으로 홀로서기는 어려운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현실에서, 경제적 독립 여부가 중요하게 인식되는 사회생활이 서서히 다가옴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이 부모에게 느끼는 "부채감"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기 마련일 것이다. 이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다, 사회생활에 자신의 일상을 맞춰야 한다는 강력한 '압력'도 동시에 느끼기 마련이다. 그러나 사태는 그리 간단치는 않다. 정다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촉박하잖아요, 졸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졸업] 이전에 내가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졸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 또 있거든요? 이제 제가 더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 기생해서 사는 이 시간이 이제 끝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폐 끼치며 살면서, 더 좋은 사람이라고 나를 생각하지 않게 되면, 그건 완전히 기회를 날려버리는 건데, 내가 좋은 엄마 아빠하고 살고 [있는데], 막막…. 난 그렇게 생각해요. 맨날 학교

---

27) 연구 참여자들이 속한 대학 중 등록금이 비교적 저렴한 한울대의 경우에 1년 등록금이 약 594만원(2012년 공시 기준)에 달한다. 이를 최저시급 4860원(2013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보더라도, 1년 중 153일(1일 8시간 근무 시)을 노동해야 등록금이 마련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한결이 다니는 가람대의 경우에는 1년 등록금이 약 815만원(2012년 공시 기준)으로, 1년 중 209일(1일 8시간 근무 시)을 노동해야 등록금이 마련된다. 대학생 1달 평균 생활비 38만 6천원(한국대학신문, 2013.3.8.)을 계산에 넣으면 '경제적 독립'을 위한 노동시간 및 강도는 더욱 올라가기 마련이다.

청소해주시는 분들 계시고 이러잖아요. 밥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다 막 이렇게 다 해주시는데,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리고 좋은 수업을 싼 가격에 듣는데,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그러는데, 정말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정말 이 시간을 잘 누리고, 진심으로 누리지 못하면 정말 죄악이다,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정다인은 부모가 "넉넉한 편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함 안 느끼게 잘 해주셨"다는 점, 또한 주변 몇몇 친구들의 사례와는 달리 자신의 부모가 노후를 "책임지라"고 정다인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주변에 "집안을 책임지려고" "취직하려는 애들"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정다인은 자신이 "특별한 케이스"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정다인은 이러한 "특권"을 조금은 더 누리고 싶은 마음도 지우기 어렵기도 했다. 하지만 부모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대학생활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받게 된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부모님에 대한 "부채감"이 더욱 가중되리라는 점도 잘 안다. 결국 이렇게 누적된 "부채감"은 연구 참여자들이 진로를 설정할 때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정다인: [언론사 이외에] 출판사나 이런 데도 관심이 있었는데, 너무 박봉이니까. 설명회 하는 데 간적 있었거든요. 인문대에 출판하거나 그런 데 일 하시는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저번 2학기에 갔었는데, 저는 일단 돈을 안 벌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돈을 어느 정도는 버는 직업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생계를 제가 다 책임을 질 수 있고, 잘 버는 직업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직업], 너무 박봉은 안 될 것 같아요.

연구자: 본인의 생계?

정다인: 네.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가 일을 하시고, 또 연금이 나오니까 그냥 부유하게는 아니더라도 먹고 사실 수 있는데, 엄마 아빠에게 제가 의지하는 건 좀…. 엄마 아빠는 저보고 졸업하면 나가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제가 돈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정다인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로 출판사를 꼽기도 했지만, 대체로 "박봉"이라는 점을 알고 선택지에서 지우게 된다(만약 부모에게 "부채감"이 없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정다인 외에도 연구 참여자들은 졸업이 가까워 오면서 자신

의 “생계”를 ‘독립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직업이나 진로를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 이를테면 “부모님께 누를 안 끼쳐드리는 아들”이 되고 싶음과 “빨리 부모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싶음이라는 양면적 가치를 고민하던 이한결은, 최소 생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직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채감”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로 경제적 독립이 가능한 특정 직업군이나 직장을 향해 나름대로 ‘협상’을 하는 일이 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된다. 블럼(Blum, 2009)의 논의는 (약간 맥락은 다르지만) 대학생활의 이러한 경향을 잘 요약해준다.

> 빚은 학생들의 은행 계좌보다 더 많은 데에 영향을 미친다. 빚은 직업 전망이 보증된 전문 대학원 외에 다른 대학원에 진학하는 일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또한 졸업 후에 [보수가 낮은] 서비스 직업을 회피하게 한다. 또한 빚은 대학생들이 싫어하는 직업을 갖도록 강제하며, 또한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하게 하고, 차를 사거나 집을 사는 일을 미루며, 의학 진료를 연기하기도 한다. ...(중략)... 이러한 재정 요인들은 대학을 그 이전 어느 때보다 성인기 생활에 대한 경제적 준비에 가깝도록 만든다. (pp.139-140)

물론 실제로 “학자금 대출” 등으로 금융권에 금전적 빚을 지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거의 없었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부모에게 일종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부채감”이나 “빚”은 상환할 수 있는 것일까? 또한 “부채감”은 늘 부정적이기만 할까? 그레이버(Graeber, 2011)는 ‘부채’를 단순히 특정한 거래양식에 기반을 둔 채무자-채권자 사이의 권력관계로만 보는 지배적 관점을 유보한다. 단순화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자면, 대신 그레이버는 인간관계와 공동체를 형성하는 한 계기로서 ‘도덕성’의 관점에서도 부채를 재조명하기도 한다. 즉,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현실 인식과 도덕 감정이 특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요컨대, 연구 참여자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부채감”은 연구 참여자들과 부모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든다.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에 대한 “부채감”을 지고 부모와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성이 늘 긍정적이지는 않다.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와의 이러한 관계에서 오는 “부채감”을 이중적으로, 즉 ‘감사함’과 동시에 일종의 ‘굴레’나 ‘구속’으로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한 이중적인 감정 속에서 어떤 대학생들은 스스로의 꿈이나 적성 찾기를 미뤄두거나 “현실적으로” ‘협상’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아예 시도하지 않기도 한다.[28] 대신

“집안을 책임”지기 위해, ‘고소득’을 약속하는 고용시장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좇는 방향으로 타협점을 찾기도 한다. 이는 부모에 대한 “부채감”이라는 경제적이기도 하면서 도덕적이기도 한 부담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그리고 더 이상 “빚”을 지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찾 기

앞에서 우리는 연구 참여자들의 삶의 한 지향성으로서 ‘좇기’와 연관된 다섯 가지 대학생활의 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는 ‘찾기’라는 다른 지향성에 대해서 좇기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살펴볼 것이다. 각각의 주제들은 앞에서 이미 말했듯 특정한 내적 원리에 의해 배치된 구조와 체계를 이루고 있다기보다는, 찾기 지향과의 의미 연관을 이루는 연접에 가깝다. 다만 이제부터 언급할 찾기의 주제들은 앞에서 언급한 좇기의 주제들과 분리되지는 않는다. 비록 엄밀하게 일대 일로 조응하지는 않지만, 아래에서 살펴볼 주제들은 앞에서 이미 살핀 주제들과 나름대로 관계를 맺고 있다. 나는 이러한 관계성을 틈틈이 고려하면서 찾기 지향성과 관련된 이야기 주제들에 대해 정리해볼 것이다.

(1) ‘따로 또 같이’: 관계 네트워크의 해체와 구성

우리는 앞에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일상적인 대학생 문화가 어떻게 체험되고 있었는지를 살핀 바 있다. 대학생 문화의 특성을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면 ‘범상성(範常性)’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범상성’이란 “그냥 대학생”이라는 표현이

---

28) 라짜라토(Lazzarato, 2011/2012)의 논의는 ‘부채’라는 인류학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오늘날의 지배적 정치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에 한정지어 해석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논의와 관련해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던져준다. 라짜라토는 “실존(Existence)”을 “자기긍정의 역능, 자기 지위설정의 힘, 삶의 스타일과 양식 기초를 만들고 유지하는 선택(p.93)”이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그에 따르면 부채는 이러한 우리들의 “실존”을 무력화시키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라짜라토는 부채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만들어지고 있는 열린 시간, 다시 말해 선택의 가능성, 실존의 위험 및 가능한 분기점”을 포함하는 시간을 ‘질식시킨다’고 주장한다(pp.106-107).

함축하고 있듯, 별 달리 공유하는 특색 없이 특정한 생활영역 안에서 주어진 과업들을 좇는 '평범'하면서 동시에 '규범적'이기도 한 대학생 문화의 한 특성을 일컫는 말이었다. 각자의 실존적 문제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각자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대의나 가치,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어려운 '문화적 소외'가 있다고 언급한 적 있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이대로 만족할까?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대학생 문화에서 '무미건조한' 반복을 보았다. 본인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무의미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끊거나 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삶이 대학생활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기도 한다. 한지민의 표현처럼, 필요하다면 "대학교는 [어떤 사람이] 맘에 안 들면 쌩까면[29]" 되는 것이다. 이렇듯 대학생들은 얼마든지 '따로 떨어져' 살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경우 그렇게 살고 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무미건조한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대학생활 자체에 대한 회의나 부담을 느끼기도 하며, "소속감" 없이 홀로 부유하기도 하고, "피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실존적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외로움"을 느끼기 마련이다. 유민정에게는 태어나서 처음 느낀 '사회적 감정'으로서 "외로움"이기도 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모르고 살았던 '홀로 있다'는 느낌이 일상에 엄습하기도 했다.

> 유민정: [대학 와서 겪은 가장 큰 문제는] 가이드라인이 없을뿐더러 각 과목마다 뭐 내가 뭐 할 것마다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고, 혼자 막 친구나 사람 관계도 내가 다 노력해야 하는 거고, 그게 정해져 있는 것에서 안 정해져 있는 거니까 예상하기가 힘들잖아요.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컸던 게 감정적인 거, 외로움이나 이런 게 커졌어요. 그 전에는 외로움을 느껴도 느낀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막 깨닫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대학 와서는 뭔가 붙어 있는 느낌이 없고, 부유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웃음) 내가 정착하고 있는 게 없구나, 그니까 소속이 없는 게 제일 컸고, 그래서 외롭고, 그게 방황하게 만들고, 공부라든가 이런 걸 안정적으로 잘 못하고, 그런 걸 제시해주는 사람도 없고….

---

29) "쌩까다"라는 말은 일종의 속어로써, 마음에 들지 않거나 사이가 어긋난 사람들과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모르는 사람인 양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등, "쌩까는" 방식은 다양하다.

연구자: 1학년 때 반에서 이것저것 해주고 그렇진 않았나요? 엠티나 새터 같은 행사도 많았을 것 같은데….

유민정: 그런 건 다 했죠. 그래서 반 친구들하고는 다 친해졌죠. 그런데 2학년 때부터 멀어지고, 다른 과가 되고. 그니까, 1학년 때는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뭐든지 다 재밌고. 그런데 전공 다 정해지고 2학년 1학기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모임이 번잡할 정도로 많았던 새내기 시절을 벗어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지기도 한다. 하지만 단순히 "혼자" 있어서 외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의미 있는" 관계나 "말이 통하는" 관계, 정다인의 말을 빌자면 "뭔가를 바꾸어야겠다는 생각 하는데 그런 것을 같이 그려볼 수 있는 사람들"을 찾을 필요를 느끼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다. 즉, 단순히 생활과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과 취향을 공유하거나 "깊은 대화"를 나누고, "의미 있는" 활동을 같이 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다. 한지민의 표현처럼 어떤 "통로"를 '찾아야'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서서히 이러한 "통로"를 찾으려는 지향을 갖게 되었다. 이를테면 정다인은 과/반에 있던 '학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다.

[학회에서 하는] 세미나보다는, 같이 집회를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경험을 같이 하고, 그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뒤풀이 하면서 술 마시면서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더 좋았죠.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 외롭지 않구나, 1학년 때 그런 게 더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기능이 컸던 것 같아요, 학회는. 감수성…, 애들이 말하는 '감수성'을 채워주는 면이죠.

"공동체"를 찾아보기 어려운 캠퍼스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외로움"과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 단단한 "공동체"라기보다는 유연한 "네트워크"에 가깝다. 왜냐하면 이러한 만남과 관계는 선택적으로 '접속'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계 네트워크 안에서는 정다인의 말을 빌자면 각자가 "의미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며,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들도 더불어 "의미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계 네트워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낼 수 있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을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체험되기도 한다. 관계 네트워

크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정다인의 말처럼 대학생활의 전반을 좌우하는 “감수성”을 형성하게 되기도 한다.

그런데 송현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의미 있는” 관계는 또한 ‘오프라인’이라는 물리적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기도 한다.[30] 이를테면 송현진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인” 문제가 해소되었던 계기를 다음과 같이 꼽았다.

> <한울학보>를 했던 것도 큰 계기였던 것 같아요. 나랑 생각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고 했던 것도 계기였던 것 같고. 트위터를 한 것도 하나의 계기였던 것 같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특히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를 들면,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랜덤으로 만났을 때 그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날 기회는 희박하니까, <한울학보>에서 만나는 것 말고. 그런 것이 사회 속에서 저를 찾은 것이 하나의 계기인 것 같고.

사실 다원적인 현대 사회에서 “관심”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민윤진은 마찬가지로 다원적인 캠퍼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성”에 가치를 부여하기도 했다.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엿보고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캠퍼스에서 마주치는 대학생들의 “다양성”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다양성”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랜덤”, 즉 ‘의미 없는 무작위성’에 가까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 대신 송현진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일종인 ‘트위터’에서 관심사가 맞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사회 속에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동시에, 여러 사람 속에 있는 “나”를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즉, 관계 네트워크는 특정한 오프라인 캠퍼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른 예시로, 춤꾼 김우진의 경우에는 춤추는 사람들은 나이나 지역, 국경을 넘어 “댄스”를 한다는 것 하나만으로 “친밀감”이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성우 공

---

30) 연구 참여자들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인터넷을 하면서 보내고 있었다. 온라인에서는 때로 평등한 인간관계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나이, 성별, 지역 등에 덜 관심을 갖기에 관심이나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끼리 평등하게 연결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오프라인의 관계가 온라인으로 확장되어 온라인 커뮤니티나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관계 네트워크가 더 탄탄해지기도 한다.

채를 준비하던 민윤진은 학원에서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 이한결의 경우에는 <가람대신문>과 다른 대학생 언론에서 “의미 있는” 관계 네트워크를 찾을 수 있었다. 물론 전공 과/반 내에서도 이러한 만남은 불가능하지 않다. 이를테면 서주희의 경우에는 학생회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관계를 찾을 수 있었으며, 유민정은 과/반 사람들 중에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수의 친구들을 찾기도 했다.[31]

그런데 이는 어느 정도는 특정한 관심이나 이해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연결망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똑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하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형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이러한 관계는 송현진의 말처럼 대체로 “선입견 없이, 그냥 편하게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공감대는 있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기도 했다. 한지민의 말처럼,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는 개인마다 다른데, 문제의식은 가진 사람들”로서, “내 문제의식을 말하는 게 편한” 사람들이다. 이런 관계에서는 “좀 더 숨기는 것이 적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서로에게 “귀 기울이는” 사람들인 셈이다. ‘내용의 공유’보다는 ‘소통가능성의 소통’이 더욱 중요한 셈이다.

물론 소통의 커뮤니티로서 관계 네트워크는 때로 ‘폐쇄성’과 ‘정체성(停滯性)’을 수반하기도 한다. 이는 부분적으로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과 ‘커뮤니티(*commun*-ity)’는 서로를 전제하기 때문이다(조용환, 2007). 그래서 연구 참여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 네트워크의 ‘위안지대(comfort zone)’에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했다(Abelmann, 2009). 즉, 관계 네트워크 속에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언제까지나 특정한 관계망에만 머물 수는 없으며 정체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는 것이다. “경험이 쌓이고” 상황이 변함에 따라, 자신이 속한 관계 네트워크의 ‘한계’에 대해서 깨달아 가기도 한다.

<한울학보>에 오래 있다 보니까, 약간 인간관계가 이 안으로 좁혀진 것

---

31) 비슷한 맥락에서, 레빈과 큐어턴(Levine & Cureton, 1998)은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일종의 ‘유사분열(mitosis)’이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 대학생 사이의 차이는 더 과장되고, 자신과 닮은 특정한 관계 네트워크에 집중하는 문화적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다소 피상적이고 표층적인 관찰 결과일 수 있다. ‘유사분열’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현상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현상이 어떤 맥락에서 나타나며 어떻게 변화해 나아가는지 등 문화적 역동과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있다가 밖에 사람을 만나면 괴리감이 좀 있었어요, 저는. 네. 밖 사람이랑 너무 분리하는 것 같은데, ...(중략)... <한울학보>에 있으니까, 학보사 외의 사람들 하고는 관계를 잘 안 맺었던 것 같고. (송현진)

나는 더 이상 나한테 내가 원하는 이상에 가까운 곳에 돌아가 활동하는 것 보다는, 내가 좀, 갖춰지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좀 다른 데에 가고 싶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발전이 안 되지 않을까, 생각 같은 게. 또 비슷한 사람들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울학보>에서] 잡기장 같은 데에 보면 약간 다 비슷한 고민을 해요, 제가 예전에 했던 거랑. 아, 나랑 '똑같은'(강조) 고민을 여기에 적어 놓았네? 아, 다 하는 얘기가 똑같구나. 되게 좋으면서도, 아, 또 나는 저기에 있음으로써 내가 똑같은 고민에 머무르게 되지 않을까…. (정다인)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듯 연구 참여자들은 익숙해진 관계 네트워크의 범위를 넘어 다른 관계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송현진의 경우에는 뮤지션과 관련 업무 종사자들을, 정다인은 야학에서 "의미 있는" 사람들을 만나며 스스로 "발전"하고자 노력하기도 했다. 서주희도 과/반 학생회 사람들을 기반으로 하되, 총학생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한지민과 이한결은 한 모임에서 과학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알게 된 사이였다. "공동체"가 어느 정도 '폐쇄된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관계 네트워크는 때론 자기복제의 위험성이 있지만 계속적인 '확장과 연접'에 비교적 유연하게 열려 있다.

요컨대, 연구 참여자들은 '범상성'을 특징으로 하는 대학생 문화 속에서 깊은 "외로움"을 느낀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들은 "의미 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만난 사람들의 관계망은 매우 소중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면서, 이렇게 형성된 편안한 관계망에 언제까지고 머물 수 없다는 점을 연구 참여자들은 잘 알게 된다. 즉, '따로'는 '같이'를 추구하며, '같이'는 또 다시 '따로'를 요청한다. 이는 관계의 '차이'를 산출하고 생성하는 '반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Deleuze, 1968).

(2) "청춘"의 시간: 가능성을 발견하기

앞에서 살펴본바 "성인"의 시간이 부정적으로 지각되는 것과는 반대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청춘”의 시간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체험되고 있었다. “청춘”의 시간은 “성인”의 시간과 여러 측면에서 대조를 이루면서 의미화되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들이 이야기했던 “청춘”의 시간이 내포하는 특징을 간략히 요약해보자면, 삶 전체에서 가장 덜 구조화되고 “느슨한” 시기, 자신의 꿈과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탐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기, ‘나다움’을 찾을 수 있는 “일생에서 유일”한 시기, “활기 넘치고” “열정이 불타오르는” 시기로 간주된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송현진과 민윤진의 이야기를 예시로 들어보자.

> [대학생 각자가] 필요를 느끼는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지 방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과는 다르게, 이런 시간이 분명히 지금 20대 초반이나 이럴 때에는 필요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나 중학교 이럴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너무 빡빡했기 때문에라도 대학교 때는 좀 느슨할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보호막’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중고등학교 때도 그런 시기가 아니었고, 직업을 얻어도 보통 그렇게 자기 인생을 결정할 결정권이 없는데, 자기 앞에. 그나마 대학교 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송현진)

> 학교 가면 뭔가 청춘? 그 활기 넘치는 분위기? 저만 느끼는 건지 느끼는 사람이 [더]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휴학했다가 학교로 돌아갔을 때 더 확실히 느끼게 되더라고요, 진짜. 대학교만이 갖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젊은, 20대의 뭔가 청춘스럽다고 해야 하나? ...(중략)... 다 학생들이니까, 되게 막 활기 넘치고, 생기 넘치고 막 그런 분위기? 활력? 그런 느낌들. 되게 젊어지는. (웃음) 아 젊어지는 느낌까진 아닌데. 신입생들 사이에 있으면 그런 것도 있고, 마치 내가 신입생이 된 것 같다든가. 삶에서 열정이 불타오르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민윤진)

연구 참여자들은 모든 대학생이 “청춘”을 보내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생각과 체험일 뿐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면서도, “청춘”의 시간이 갖는 특징을 잘 표현하곤 했다. 민윤진의 이야기에 따르면, “청춘”은 대학 캠퍼스와 대학인근 지역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즉, 20대인 “또래들”끼리 모여서 “청춘”의 시간을 함께 “불태울 수 있는” 물적인 토대와 조건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청춘”이어야 하는 것—적어도 “청춘”이면 ‘좋은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기반 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

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들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만 깨닫는 것 같지는 않았다. 이들은 동시에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즉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도 깨닫기도 했다.[32] 즉, “가능성”은 ‘불가능성’과 늘 함께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한결은 <가람대신문> 활동을 하면서 “내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깨닫게 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러 편의점과 레스토랑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이렇듯 이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의 순환’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연구 참여자들은 민윤진처럼 “가능성”의 탐색 속에서 “적성”을 찾게 될 것을 희망하기도 한다.

> 다른 것을 경험해보면 또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아 난 이게 하고 싶은 거니까 이것만 할 거야’가 아니라, 말 그대로 더 많은 경험을 해보는 거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경험도 해보고 저 경험도 해보면 또 하고 싶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이게 더 내 적성에 맞을지도 모른다는. 제가 요가 [강사를 진로로] 생각했던 것은 무엇보다 제 적성에 맞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것을 경험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취업이랑 다른 길이니까, 회사 들어가서 입사하는 거랑은 또 다른 경험이니까. 그런 것도 내가 경험을 해보면 뭔가 흥미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심적인 가능성….

민윤진은 이처럼 자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노력했던 이야기들을 다른 연구 참여자들에 비해서 많이 들려주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민윤진에게만 해당하지는 않았다. 표현하는 방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자신의 현재 모습보다는 자신의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저마다 다른 방식의 실천으로 옮기고 있었다. “가능성”이란 실제로 경험했지만 그 의미나 가치를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나 ‘현재’에도 있으며, 노력하면 발현시킬 수도 있는 ‘미래’

---

32) 아감벤은 “살아가는 모든 방식, 모든 행위, 모든 과정은 결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항상 무엇보다 삶의 **가능성**이며, 항상 무엇보다 역량(potenza)”이라고 본다(Agamben, 1996/2009, p.14; 강조는 원문). 아감벤에게 “가능성” 혹은 ‘잠재성(potentiality)’이란 ‘현실성(actuality)’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그는 “가능성”을 곧 자신이 “살아가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아감벤은 우리의 논의처럼 잠재성을 ‘할 수 있음’과 ‘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할 수 없음’과 ‘될 수 없음’에 대한 감각까지 포함한다고 본다(Murray & Whyte, 2011, pp.159-162).

에 있을 수도 있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흔히 썼던 표현인 “적성”을 찾기 위해서, 즉 “내가 잘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일 것이다. 이는 당연히 졸업 이후에 대한 “진로고민”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노력 과정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또한 가능성만 발견하다가는 이도저도 아닌 채 “모래성” 같은 대학생활을 보내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도 이들은 잘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자기이해’와 ‘자기발견’이라는 기나긴 여정의 한 과정이며, 다시 말해 타인이 대리해 줄 수 없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점이다.

> 다른 사람이 아무리 제게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었던 것을 제가 직접 해보니까 아는 거잖아요. 정말 자기가 진짜 자기가 방황을 해봐야 뭐가 잘못된지를 아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동생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지만, “그냥 네가 느껴봐야 알지,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랑 마찬가진 거 같아요. 제가 해봤으니까 이제 아는 거죠. (정다인)

물론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늘 “새로운 경험”만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어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의 지속과 연장이기도 했다. 이를테면 김우진은 고등학교 때부터 관심이 있던 춤을 추고 있었고, 여러 대학에 걸쳐서 몇몇 춤 동아리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김우진은 춤으로 여러 대회에서 입상도 했을 뿐 아니라 공연도 많이 하였고, 춤꾼 사이에서 명성을 얻기도 했다. 김우진은 춤을 더 좋아하게 되었으며, ‘평생 동안 하고 싶은 것’으로 의미화하곤 했다. 김우진의 “가능성”은 이렇듯 차차 더 현실화되면서 밀도와 깊이를 더 해가는 것처럼 보였다. 대학 언론 경험을 살려서 과학 전문기자가 되고자 하는 이한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렇지만 어떤 연구 참여자들은 특정한 활동이나 경험을 심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자신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찾는 노력과 그 과정을 더 중시하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어떤 연구 참여자는 몇 주 사이에도 “꿈”이 바뀌곤 했다. 아직 더 많은 “가능성”에 대해 열어 두는 것이다. 더 나은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미래를 열어 두는 삶의 지향을 갖기도 한다. 물론 이렇게 삶의 목표가 자주 바뀌는 이유가 부분적으로는 아직 “꿈”의 실체가 “막연”하거나 스스로 “확신”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긴 어려울 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연구 참여자들의 탐색이 단지 “막연”하기 때문만은 아니

라는 점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생활 중에 많은 “경험”을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 게 많고 “좁았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가능성”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자신의 일부 경험에 대해 “후회”하는 정다인의 이야기처럼 부분적으로는 익숙한 경험지평을 해체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험지평을 찾기 위한 노력을 동반하기도 한다.

> 지금도 되게 좁긴 한데 그때는 너무 좁아가지고. 아예 선택을 할 때도, 나 이런 거 안 할 건데?[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교환학생 가는 것도 되게 나쁘게 생각했어요. 너네 막 돈도 되고 학점도 되니까, 그냥 놀러 다니는 그런. 막 일부 계층의 그런…, 그런 것 있잖아요. 일부 계층들이 누리는 사치 같은 거, 그런 거라 생각하고. 교환학생 가려는 애들 진짜 싫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회가 있어도 저의 도덕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쳐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그렇게 [내쳐버리도록] 한 게 후회가 되는 것도 있고.

앞에서도 소개했듯이, 정다인은 높은 ‘사회의식’과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정다인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주어진 “기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맞춰 재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정다인은 이렇게 보낸 시절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정다인은 한 때 높은 “도덕적 기준”이라는 한 “극단”을 맛보았으니, 오히려 나중에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지 않겠냐고 반문하였다. 정다인은 점차 “나다움”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반복해서 던지면서,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한 자신의 “가능성”을 찾아보게 되는 계기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물론 이러한 노력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고학번”이 되면서 “새로운 도전은 망설여지”기도 한다. 정다인처럼 “뭘 하려고 해도 난 이제 학번이 높고, 길을 잡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방황하겠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기도 한다. 이렇듯 앞에서 살펴본 ‘나이주의’는 미래 기획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다른 “가능성”을 생각만하고 “갈팡질팡”하는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열려 있는 것”이 좋게 느껴지기도 한다. 변화하는 상황과 시간 속에서도 타인의 삶을 ‘좇지 않고’ “나만의” 삶의 형태를 찾아가는 것, 자신의 “가능성의 공간을 확장하는 것”은 언제든 소중한 실존적인 삶의 과정이기 때문일 것이다(Clark/Keefe, 2012; Osberg, 2009).

요컨대, 연구 참여자들은 주어진 환경의 틀에 익숙한 것을 단순히 좇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사람들이나 활동, 체험의 “가능성”을 발견하기도 한다. 즉,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기도 한다는 말이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말하는 “청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일컬어, 지금까지 익숙한 것 사이에서 규정된 채 살아온 ‘사실적 얼굴’이 아닌, 아직 드러나지 않았거나 앞으로 드러내고 싶은 ‘가능한 얼굴’을 보려는 노력이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연구 참여자들은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잠재성의 지평, 또는 “가능세계”를 열어 나가고 발견하는 ‘노력’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Deleuze, 1964).

(3) “더 많은 경험”: 경험의 계속적 확장

경험의 변증법은 최종적인 앎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 자체를 통해 새롭게 다가오는 경험을 향해
열려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 한스-게오르크 가다머(Gadamer, 1969/2012, p.264)

연구 참여자들이 “청춘”의 시간과 더불어 강조했던 주제 중 하나는, “더 많은 경험”의 중요성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경험”이 다양하고 넓을수록 좋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마치 지금까지는 한 번도 맛보지 못했다는 듯, 연구 참여자들은 “더 많은 경험”을 해야 한다는 갈증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특히 대학생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많은 경험”의 중요성은 높아지곤 했다. “더 많은 경험”의 목적은 “필요”와 “재미”, “의미” 등으로 다양한 편이었다. 그러나 “더 많은 경험”은 단순히 양적으로 많아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이 다른 삶을 상상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도 했다.

한지민: 사실 한울대 들어온 대부분의 애들은 그냥 공부만 잘해서 들어온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나 공부만 잘하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왔는데, 이것저것 전공을 들어보면서 데어도 보고 해보니까, 너무 재미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막 다른 길도 찾고 싶은데 공부 말고는 모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애들 방황 많이 하는 것 봤어요.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막.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부를 하다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아예 외식 산업, 경영학 이쪽으로 가고 싶어서 이번에 일본에 교환학생을 갔다가 이번에 휴학을 또 하는데, 한국 와서. 스타벅스 이런 데서 일하면서 경험도 쌓고 싶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찾으려고 막 안간힘을 다 쓰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고. 아는 건 공부뿐.

연구자: 아는 건 공부뿐…. 그래서 다들 고시를 많이 하나 봐요.

한지민: 네 그런 것 같아요, 딱. 그렇지 않을까요.

한지민과 나누었던 이 대화 조각은, 우리의 이야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던져준다. 우리의 연구 참여자들이 대체로 고등학교 성적이 높은 편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지민이 말한 것처럼 실제로 "아는 건 공부뿐"인 경우가 적지 않으리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최선주·한숭희 외, 2012). 물론 여기서 "공부"란 "학점관리"나 고시 등의 "시험"을 위한 것이라는 외재적 가치지향에 가깝다. 이는 10대-청소년으로서 할 수 있었던 경험이 주로 입시를 목표로 하는 고등학생이라는 틀에 제한된 경우가 많기 때문일 수도 있고(조용환, 2009), 대학생활을 하면서도 대안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 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더 많은 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는 부분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일생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을 자신이 대학생이자 "청춘"일 때뿐이라고 여기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회생활을 할 때는 "더 많은 경험"을 하기 어렵다고, 혹은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고 여기는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다. "더 많은 경험"은 연구 참여자들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꼽는, 때론 못해봤기 때문에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였다.[33]

연구 참여자들은 "더 많은 경험"이라고 불릴 수 있는 활동들을 각자 찾아 나서곤 했다. 이는 의도적으로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찾으려고 안간힘을 다 쓰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는 현실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강의실과 친구들이라는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연구 참여자 중에서 한 공간이나 관계망에만 머무는 사람은 없었다. 이들에게 경험은 계속해서 발견되고 연속되면서 때론 깊어지

33) "더 많은 경험"의 종류는 연구 참여자들의 배경이나 실존적 지향, 우연한 만남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그렇기에 연구 참여자들이 했던 "더 많은 경험"의 다양한 사례를 목록화 해서 늘어놓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는 것이지, 결코 어느 순간 완성되어 머무는 것이 아니다. 경험은 자신에게 익숙한 '세계'의 외연을 더 너르게 확장해가는 찾기의 부단한 과정과도 연결되어 있는 듯하였다.

그런데 경험은 의도되거나 계획될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경험은 삶의 전개 속에서 다양한 사건과 접합되며 '우연성'에 열려 있기도 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경험은 다른 관계나 활동과 만나며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경험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경험은 계속될 수 있으며, 또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다(Dewey, 1934). 이러한 경험의 양상에 대해 이한결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가람대신문>에서 오랫동안 헌신하며 활동했던 이한결은 처음에는 "신문사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지만, 대학에서 "내가 재밌어 할 만한 것들을 찾다보니까 신문사가 보이"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학보사가 소중했던 것은 아니다. <가람대신문>은 이한결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는 "한 번 경험만 해보자"는 수준에서 시작했던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한결이 말한 것처럼, "더 많은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한 번 경험만 해보자"로 특정한 활동을 '우연히' 시작한 경우가 다른 연구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았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전공 공부 외에도, 사교활동, 아르바이트, 동아리 등 여러 가지 '선택 가능성'과 다원적 현실, 다양한 활동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청춘"의 대학생활 중에 오직 "한 가지"에만 헌신하는 지향은 자신의 다양한 "가능성"의 발견을 제한하는 오류로 여겨지기도 했다. 이는 특정 활동에서는 자칫 소홀해지거나 산만해질 수도 있는 이면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한결의 사례처럼 집중하고 몰입하게 될 수도 있다.

> 근데 글을 쓰다보니까, 사실 재미있는 거예요. 뭐 내가 신문의 모든 것을 다 만드는 거니까. 제목도 뽑고, 취재도 하고, 여러 사람도 만나보고, 그렇게 간접경험을 하게 되면서 차츰 생각이 바뀌게 된 거죠. [<가람대신문>에서]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얻어가자. 많은 경험을 해보자. 앞으로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이 실(失)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안 좋은 점이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생물학] 공부만 하게 될 거니까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이] 실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많은 경험을 쌓자.

이한결은 자신이 앞으로 생물학이라고 하는 '한 길'만 갈 것이기에, "많은 경

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한결의 이야기처럼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이 삶에서 "실(失)"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은 다른 연구 참여자들에게서도 많이 발견되는 주제였다.[34] 그렇게 2~3학년을 거치는 동안 <가람대신문> 활동에 점차 깊숙이 관여하게 되면서, 이한결은 신문사에서도 "최고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이한결은 단순히 "더 많은 경험"만으로는 스스로에게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경험의 '양적 차원' 뿐만 아니라 '질적 차원'에서도 점차 넓어지게 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연구 참여자들에게 "경험을 쌓"는다는 것은 양적 차원 뿐 아니라 질적 차원에서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래야 '하나의 경험'은 더 깊어지거나 넓어질 수 있고, 다른 경험으로도 의미 있게 계속될 수 있다(Dewey, 1934; 1938). 경험이 연속되면서 "나만의" 삶과 이야기를 생성할 수 있고, 다른 경험들로도 연결되고 확장될 수도 있다. 이렇게 몇 년을 보냈던 <가람대신문> 경험에 대해 이한결은 무엇보다 "재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한결이 말한 "재미"의 의미는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았다.

연구자: 그럼 이한결 씨는 신문사를 하시면서 재미나 즐거움 같은 것을 찾으셨던 건가요?
이한결: 그러니까 지금 이러고 있죠.
연구자: 네네. (웃음)
이한결: 취재원을 만나면서도 제가 재미를 느끼고. 제가 인정받는 것에 즐거움을 알았기 때문에….
연구자: 거기서의 재미는 그냥 'fun'한 것과는 좀 다른….
이한결: 자아실현에 가까운 것 같아요. 자아실현에 가까운 거 같은데, 'fun'이라기보다는. 약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fun'한 것과는 달라요. 내 자신이 좀 의미 있는 것 같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좋아, 좋다는 느낌. 아, 이건 좋다. 이런 경험 좋다. 아니면 신기하

34) 이와 관련해 김우진의 이야기는 함의하는 바가 큰 것 같다. 졸업을 한 이후에는 "더 많은 경험"을 하기 힘들다는 인식 때문에, 김우진은 4년 만에 졸업하는 자신의 대학생활이 너무 직선적이었다고 조금 후회하기도 한다. "저는 느낌이 초, 중, 고, 대학교, 군대, 대학원 이런 식으로 가니까. 너무 '탁탁탁'해서 바로바로, 진짜 책장 넘기듯이 하는 그런 느낌인거예요. 그게 저한테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그냥 주위에 비교를 해보면 뭔가 다른 느낌인거죠. 저 혼자만 그래서 아, 좀, 내가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다, 흥미롭고.

이한결은 두 차례의 실험실 생활에서 “뼈아픈 실패”를 하기도 했지만, <가람대신문>에서의 “좋다는 느낌”을 주었던 긍정적인 “경험”에 힘입어, 언론 관련 활동을 계속하게 된다. 이한결은 기자가 되기를 희망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만의 독특한 기자 정체성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이한결은 다양한 학생 언론에서 학생기자로 활동하면서 <가람대신문> 활동 “당시의 경험들이 굉장히 귀중했구나” 하는 점을 깨닫기도 했다. 이러한 깨달음은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일에 추진력이 되는 한편, 경험에 일종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부여하는 것 같았다. 관련하여 이한결은 실험실에서 느꼈던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기도 했다.

> 실험실에 들어가서 내가 그런 것[“기자 경험”]을 아깝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험실에서 공부를 하면서 공부가 안 되는 것에 자괴감을 느끼면서도, 기자로서 지금까지 해온 경험들이 아깝게 느껴지는 거죠. 아무 소용도 없다. 그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경험들을 연구와 접목시켜보려고 해도 자연과학의 연구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사회과학적 경험은. 그래서 아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을 살릴 방법이 없겠구나, 그게 기분이 굉장히 그랬어요.

이한결이 실험실 생활을 그만두고 언론 계열에 진출하기로 결심한 것은 실험실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렇듯 자신이 쌓아온 경험의 연속성이 퇴색되는 것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한결은 “지금까지 했던 경험을 살릴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만 했던 것 같다. 다시 말해, 자신이 소중하게 여긴 대학생활 경험들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융합시키고 조화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나서야 했다는 뜻이다. 이한결은 이를 위해 “과학 전문기자”라는 나름의 가능성을 찾아 나서는 중이기도 했다.

이런 노력은 이한결에게만 해당하지는 않았다. 한지민도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학생기자로서 이공계 대학생들의 삶에 대해 기사를 쓰기도 했다. 정다인과 송현진도 <한울학보>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삶의 가능성을 찾기도 했다. 송현진과 이한결, 정다인, 김우진, 민윤진, 서주희처럼 ‘교환학생’을 다녀오는 것도 중요한 선택지였다. 비록 이한결의 경우처럼 일관되게 융합되거나 조화를 이루지는 않더라도, 원래 관심 있던 활동이나 지금까지의 경험을 심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 이야기를 듣는 것도 결코 드문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의 연속과 확장의 과정을 무력화시키고 좇도록 길들이는 것도 주변에 많다. 이를테면 “취업스펙 5종 세트”[35]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장성연, 2013). 이러한 사회문화적 규정성을 좇지 않는 경험들은 ‘잉여스러운’ 것으로 내쳐질 수 있다(백소영·엄기호 외, 2011). 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헛되이” 날려버리는 일은 비단 연구 참여자들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일 지도 모른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들였던 소중한 노력과 시간, 쌓아온 관계와 경험들이 “모래성”이 되면서 삶의 지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정다인의 말처럼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그리고 “전망 없이” 살아가는 과정은 거의 고통에 가까울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경험”으로의 대학생활의 지향을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많은 측면을 놓치게 될 수도 있따. 오히려 이는 경험에 대한 ‘무의미화’에 저항하고, 자신의 대학생활을 지속적으로 의미 있게 창조하고 생성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4)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자리의 탐색

“나는 누구, 여긴 어디?”라는 질문은 연구 참여자들 뿐 아니라 20대 사이에서 널리 쓰이는 유행어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엉뚱한 상황이나 자리에 놓이게 되어, 어색함이나 긴장을 느낄 때 종종 쓰이곤 한다. 또한 이 표현은 대학생들 사이에서 일종의 ‘자기 희화화’를 동반하는 ‘유머코드’[36]로 쓰이는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 강의계획서와는 다르게 진행되는 강의실에 앉아 있다든지, 모르거나 어색한 사람들 사이에 휘말려 있다든지, 기대치 않던 우연한 사건의 압력에 시달리든지 하는 상황에서 때론 자조를, 때론 유머를 담아 쓰인다.

그런데 “나는 누구, 여긴 어디”라는 표현은 단지 유머코드일 뿐 아니라 흥미

---

35) “취업스펙 5종 세트”의 구성요소는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대체로 공모전이나 각종 대회의 ‘입상경력’,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또는 공인 영어능력시험 점수 등의 ‘어학능력’, 취업 관련한 각종 ‘자격증’, 시민사회 단체나 학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봉사활동 경험’,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의 ‘인턴경험’ 등이 꼽힌다.

36) 렌과 아놀드(Renn & Arnold, 2003)의 연구는 대학 또래문화에서 ‘집단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유머’를 들기도 한다. 어떤 대학생이 특정 문화적 코드를 완전히 이해하고 웃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발화시점에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경우, 그는 그 코드가 통용되는 문화집단이나 네트워크 내에 소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로운 존재론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하면 과장된 분석일까? 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맥락에 있지 않을 때 이 질문을 던진다는 점을 고려해볼 필요도 있다. 즉, 이 표현은 자신의 '있음'과 '자리'에 대한 되돌아보기이자 동시에 문제 삼기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이데거 식의 '존재물음'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Heidegger, 1932)? 이러한 논의를 연장하여, 여기서 나는 "나는 누구, 여긴 어디"가 우리말 '자리'[37]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싶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살아가면서 자리의 의미를 찾고 자신만의 자리를 탐색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찾기라는 삶의 지향성에서 한 측면이 잘 드러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보고 싶다. 이에 대해서 차근차근 검토해 보자.

먼저, '자리'는 연구 참여자들이 체험하며 살아온 친숙한 '장소(place)'[38]를 가리키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에 입학했을 당시에는 캠퍼스를 다소 낯설게 느끼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친숙한 느낌을 받게 된다. 예컨대 송현진의 말에 따르면, 대학 캠퍼스를 생각하면 "이 자리가 항상 있었던 자리 같은 느낌"이었다. 캠퍼스가 자신에게 중요한 삶과 배움의 '터(*Da*)'이며, 이러한 터전을 안정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연구 참여자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렇듯 각자의 시공간적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사실 대학 캠퍼스는 그 자체로는 단지 물리적이고 비인격적인 '공간'일 뿐이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마다 "장소애(topophilia)"(Tuan, 1999)를 느끼면서 실존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구체적인 자리는 각자 달랐다. 이를테면 서주희에게는 늘 친숙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과방"이었고, 송현진에게는 마음 편한 "학관(학생회관) 6층"과 "학보사 편집실"이었다. 그런데 연구 참여자들에게 이러한 "장소애"는 혼자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람들과의 '관계'

---

37)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자리"는 (1) '사람이나 물체가 차지한 공간'이나 '지정된 좌석', 또는 그 '흔적'과 같은 물리적 의미, (2) '일정한 조직체나 체계에서의 직위나 지위'나 '사람을 필요로 하는 곳' 같은 구조적이고 상징체계적인 의미 (3) '일정한 사람들이 모인 곳과 그 모임에서의 기회'와 같은 역할적 의미와 같은 다층적이고 풍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38) 여기서 쓰인 '장소'란 이-푸 투안(Tuan, 1977/1995)의 논의에 의해 잘 알려진 개념이다. 투안은 '공간(space)'과 '장소(place)'를 구별하는데, 공간이 추상적이고 객관적이며 무차별적이라는 속성을 갖는다면, 장소는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가치나 문화적 의미가 부여된다는 차이가 있다. 특히 장소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관련이 되거나 일정한 아우라가 부여되기에, 다른 것으로 쉽게 환원되거나 대체될 수 없는 독특성을 갖는다.

와 경험, 기억, 서사 속에서 함께 형성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리는 자신과 “의미 있게”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모임, 즉 앞에서 살핀 바 있는 관계 네트워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 특정한 사람들의 관계는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모임(“무리”)에 비해 특별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살펴본 바 있다. 즉, 연구 참여자들이 찾아 나서는 자리는 여러 활동이나 경험을 함께하면서 자신의 의견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일상의 ‘지지기반’이자 “정체성”의 바탕이며, 더 나아가 자신의 “성장”을 도모할 수도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모임을 가리키는 것 같았다. 정다인의 이야기는 이를 잘 드러내어 준다.

> 학회에 들어간 게 첫 번째로 제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본 건데, [학회는] 그냥 반에 들어갔을 때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반에는 그냥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그냥 그런 걸 못 드러내겠더라고요. 반 사람들 만날 때는 그냥 술 마시고, 무슨 수업 듣고, 너 짝 선배 누구냐, 누구랑 친해?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학회 들어가서 세미나를 많이 하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 생각도 듣고 이러면서. 근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공적인 정체성이 생겼다고 해야 하나? 어떤, 사회적인 그런… 보여지는 내가 생겼다고 해야 하나? 그게 되게 저한테 큰 거였어요. 저를 밖에서 바라봐주면서, 제 생각에 귀 기울여주고, 저를 믿어주고. 저한테 어떤 그런 특정한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셋째, 자리는 상징적인 체계 내에서의 위치나 지위 등을 뜻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자리는 “사회” 또는 이들이 살아가는 “세계” 내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관계의 배치에 놓여 있으며, 더불어 이러한 배치 위에서 자신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는 말이기도 했다. 현상학자들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자리란 ‘세계-내에-있음’(Heidegger, 1932)과 ‘세계-로의-있음’(Merleau-Ponty, 1945)에 대한 이해를 가리키기도 했다. 예컨대 정다인은 <한울학보> 활동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 [<한울학보> 활동을 하면서]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사람들을 인터뷰 하게 되었어요. 그런 것도 저한텐 되게, 제가 막연하게 생각하던 사회와의 관계, 그런 것에서 제 스스로가 좀 나타났다고 해야 하나? 명확하게? 그런 제 자

리가 생겼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것이 있었어요. 학보사에서 학교 말고 다른, [학교] 밖에 있는 내가 생각하던 사회를 만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정다인은 “사회와의 관계”에서 “스스로가 나타났다”고 표현한다. 그리고 ‘자신의 나타남’은, 타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내 자리”는 어디인지에 대한 이해로 이어진다. 정다인은 자신의 ‘내면’에만 몰두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점차 “사회”가 자신과 관계하는 방식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는 곧 자신에 대한 존재이해와도 관련이 깊을 것이다. 이한결의 이야기에서는 이와 밀접하면서도 조금 다른 자리의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었다.

나의 능력에 맞는 자리가 아닌 경우에는 정말 나에게 큰 화가 될 수도 있겠구나. 특히 [가람대신문] 기자를 하면서 총학생회장의 모습을 볼 때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총학이면 멋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이 총학에 앉게 되니까 정말 개판이더라고요. 모든 사람, 정말 만인이 고통을 받더라고요. 자기도 힘들어 하고. 근데 그건 정말 아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자리가 있고, 나에게는 분명히, 나는 자리를 원하고 자리에 앉고 싶기를 원하고, 언젠간 나에게 자리가 오겠지만, 내가 그 자리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저는 항상 질문하게 되는 거죠.

정다인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이한결에게도 자리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로서 이해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한결이 이야기한 사회적 관계 내에서는 “자기에게 맞는 자리”가 있다. 그런데 “자기에게 맞는 자리”는, 단지 어떤 활동을 하거나 집단에 ‘참여(participation)’한다는 객관적 사실 덕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자리에 앉고 싶기를 원하”거나 혼자 애정을 쏟으면서 ‘관여(engagement)’한다고 해서, 그 자리가 “자기에게 맞는 자리”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한결의 말처럼 “개판”이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주변에 있는 “만인이 고통”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리가 (1) 자리에 앉기를 ‘원함’과 (2) 자리가 ‘부름’ 사이에서 구성된다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현존재가 그렇듯(Heidegger, 1932),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인 관계망 속으로 태어나며 그 영향권 안팎에서 자신의 이름과 자리를 찾아 나가곤 했다. 그렇기에

연구 참여자들이 찾아 나서는 자리는 '사회적 인정'이라는 관계성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자리는 사회적으로 체계화되고 특권이 보장된 '닫힌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로 아직 발견되거나 나타난 적 없는 새로운 '열린 자리'일 수도 있다. 또한 비록 사회적 인정을 받는 특권적인 자리라고 하더라도, 정작 그 자리에 앉은 개인들이 "내 자리"라고 느끼거나 원하지 않으면 '실존적' 의미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는 자리란 어디까지나 '상호주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기에 자리는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한결의 말처럼 "항상 질문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탐색하고 구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자리는 서로 다른 의미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는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어느 하나를 경시하거나 빼놓기는 곤란하다는 의미다. 특히 이 모든 자리들은 대학생활에서 중요한 삶의 터전이자 바탕이 된다는 점은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새로운 경험이나 활동을 찾아 시작하더라도, 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없다면 연구 참여자들은 경험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나는 누구, 여긴 어디"라는 의문이 이들을 사로잡기 때문일 것이다. "내 자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많은 관계를 끊거나 맺고, 또한 경험을 쌓고 허물고 하는 '차이의 반복'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같았다(Deleuze, 1968).

그런데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자리를 탐색해 가는 과정이 결코 낙관적이거나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았다.[39] 자신의 자리에 대한 탐색은, 결국 각 연구 참여자들이 앞으로 살아갈 "사회"에서 각자의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한 일정한 '기대'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회"에서 과연 자신의 '몫'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이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생활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기에 자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어떤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에

39) 이는 '학벌'이나 전공 등에 따라 사회에서의 "자리"를 서로 다르게 상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송현진, 유민정, 박태훈, 정다인이 다닌 한울대학교 인문사회계 학생들은 "자리"를 "4지선다형" 즉, 국가고시, 언론, 대기업, 대학원을 중심으로 형성한다고 한다(장덕진, 2011). 반면 서주희, 민윤진, 김우진의 말에 따르면, 새롬대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중견기업 정도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한울대와 가람대 이학계열에 다닌 한지민과 이한결의 말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생이 동일계열 대학원에 가서 취업을 준비하거나 의학·약학전문대학원을 지망한다고 한다.

서 자신이 차지할 자리가 얼마나 좁은지를 깨닫기도 한다. 이를테면, 유민정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분수”를 깨닫게 되었다고도 말한다.

유민정: 부모님들이 이제 [살아오면서] 배운 게 있잖아요. “하면 돼!” 이런 걸 가르쳐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자라면서 ‘아 나는 하면 된다’, 이런 게 되니까. 사실 아무나 다 그렇게 고소득의 안정적인 직장이나 꿈을 이루는 기회를 잡을 수는 없는 건데, 부모님 세대는 그거를 체득을 했으니까, “너네도 대학을 좋은 데 가면 직장 좋은 데도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사회가 달라지니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자: 독이 될 수 있다고요?

유민정: 나는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사회의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고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고, 그런 믿음이 현실하고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데, 사실. 누구나 열심히 일 해서 자기 집 마련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 건데. 약간 “너가 이렇게 못 하고 있는 것은 네가 게을러서다” [라고 말]하면 괴롭잖아요. 사실 게을러서 뿐만 아니고, 확실히 좀 더 다른 게 있는데. [이를테면 부모님의] 지원이 있는 거랑 없는 게. 그런 게 애들을 괴롭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자: 그런 믿음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유민정: 네. 근데 아예 내가 이쪽을 할 수 없어, 이러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요즘] 참 마음이 편해진 게 그래서인 것 같기도 하고.

연구자: 나의 한계나 주어진 조건들에 대한….

유민정: 네. 분수를 깨닫는. (웃음) 네, 분수를 깨닫게 되는. (웃음)

이렇듯 연구 참여자들이 자리를 찾는 과정은 결코 무한대의 “가능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시간이 흐르고 “더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전에는 잘 몰랐던 자신의 “처지”와 “분수”를 깨닫게 되기도 하고, 이를 받아들이면서 삶의 기대 지평을 조율하기도 했다. 졸업이 다가오면서 당연히 이러한 경향은 강화되곤 한다. 하지만 이를 단지 연구 참여자들이 원래는 “비현실적”이었다가 졸업이 다가오면서 “현실”을 깨닫게 되어간다는 식으로 읽어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 이러한 독해는 연구 참여자들의 실존적인 노력을 단순히 좇기의 한 과정으로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가 관계하는 자리의 조건과 한계를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자신이 어떻게 하기 어려운 “사회”의 ‘현실성’을 이해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연구 참여자들이 했던 노력에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이 자기 자리를 탐색하는 일이 적극적인 찾기 과정에 가까울 수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리를 찾는 노력을 일컬어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조건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들이 세계에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요컨대,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조건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되 적극적으로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실존적인 과정을 산다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Arendt, 1958; Heidegger, 1932; Merleau-Ponty, 1945)?

(5) “세계”와 만나기: 캠퍼스 경계를 넘어서기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 또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이들에게 대학생활의 기반과 생활반경이 고정된 장소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물론 강의를 듣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전공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 관계하는 등 대학생활의 많은 일은 특정한 캠퍼스에서 일어나기 마련이다. 캠퍼스는 여전히 중요한 삶터이자 배움터이다. 하지만 캠퍼스는 연구 참여자들을 비롯한 대학생들을 “묶어 주는” ‘유일한’ 장소이거나, 찾기라는 삶의 지향과 노력이 일어나는 지배적인 삶-터가 아닌 경우도 많았다.

송현진: 대학생이라는 것이 아무 것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니까, 그게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 받는, 그 안에 있으면 고민도 없는 그런 집단도 아니고. 예를 들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대학을 다니고 이런 자체가—편입 이런 것도 크잖아요—그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대학을 공동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활 중의 큰 비중이긴 하지만 하나의 관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큰 것 같고.

연구자: 하나의 관문?

송현진: 네, 꼭 대학에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음… 그리고 점점 뭐 대학생이라는 사람들의 삶도 점차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대학생이라고 하지만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시간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 뒤에 수업을 듣지 않는 일들은 진짜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옛날엔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옛날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와는 지금은 되게 많은 것이 다른 것 같아요. 알바나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대학 뿐 아니라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중략)... 주변에 엄청 뭔가 많잖아요. 대학생활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연구자: 대학생활도 주변에 뭔가 엄청 많은?

송현진: 네. 되게 다양한 변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대학생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학교 외에도 엄청 다양해지는 것 같고. 학교에 부여하는 중요성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공동체로서—학벌 이런 것 말고—그런 중요성이 좀 적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송현진의 말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을 듣는 일 외에 많은 "천차만별"의 활동을 특정 캠퍼스뿐만 아니라 여러 장소와 관계망 속에서 하곤 한다. 또한 송현진이 지적하듯 대학을 "하나의 관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대학생활을 대학에서만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었던 고유의 활동과 연결시키기보다는, 대학 외부의 다양한 활동이나 '대학 이후의' 삶과 연결시키려는 경향도 점차 강해지고 있는 것 같다. 송현진 외 다른 연구 참여자들도 특정 캠퍼스에서 할 수 있는 활동에 자신의 대학생활 전부를 제한하지는 않는 편이었다. 즉, 연구 참여자 대다수는 모두 "학교 밖"에서도 할 수 있는 경험을 하는 편이었다.

이러한 특성은 좇기에서 살펴본 대학생 문화의 '범상성'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캠퍼스에서 독특한 활동이나 이념을 정교하게 다듬어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문화적 실천은 점차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 된다. 게다가 연구 참여자들이 서울 및 수도권에 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 사람으로서는 대학생활 동안 다 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활동을 찾아 할 기회가 많다고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40] 연구 참여자들의 "더 많은 경험"과 "가능성"을 탐색하는 일은

40) 이러한 경향은 "지방대" 학생의 이야기에서 대조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주형일(2010)이 만난 "지방대" 학생 민주는 "지리적인 것이 멀어서 모든 강연이나 지식이나 인프라가 다 서울 쪽에 있어서 그런 것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아쉽다. 서울은 애들이 서로 모여서 하는 것도 많고 기업에 직접 가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힘들다(p.100)"고 이야기한다. 서론에서 언급한 K대학도 "지방"에서도 외지에 위치해 있는 편이다. 어떤 인터뷰 기사에서, 한 K대학 학생은 K대학 학생들은 학교의 소재 탓에 "거의 기숙사 생활을 한다. 제도적으로 압박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말한다. 연구 참여자 한지민은 K대학에 취재를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지민은 K대학 학생들은 대다수가 대학원에 진학하지만, 이는 K대학의 교육제도가 특별

“대학 외”의 다양한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편이다. 요컨대, 캠퍼스는 대학생활이 전개되는 유일한 캔버스가 아닌 셈이며 점차 대학생활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중요성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학년이 올라가면서 특정 캠퍼스에서 할 수 있는 경험보다는 “대외활동” 또는 “범학교 활동”에 참여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욱 높아지는 편이었다. 다시 말해, 찾기 지향의 경계는 캠퍼스의 경계를 어렵지 않게 넘어선다. 우리는 앞에서 한지민과 정다인, 이한결의 이야기에서 이들이 졸업을 앞두고 “범학교 활동”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들은 바 있다. 한지민은 이공계 사람들이 모이는 언론사 모임에서, 정다인은 야학에서, 이한결도 여러 대학생 언론에서 활동을 했다. 김우진은 새롬대학교에서는 춤을 추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기에, 타 대학에 있는 춤 동아리나 연합 춤 동아리를 찾아서 활동하였다. 유민정이 활동했던 동아리는 외부 기업에 직접 찾아가서 활동을 하곤 했다. 민윤진은 이렇듯 다양한 “대외활동”에 대해서 특별히 긍정적이었다.

연구자: 그럼 대외활동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윤진: 어쨌든 [대외활동에 대해] 좋다고는, 긍정적으로는 생각을 하죠. 그냥 우리 학교에서,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 많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학교 자체에서도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대외활동을 함으로써 정말 전국의 다른 학교에 있는 친구들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능력 있는 학생들이 많은지도 알 수 있고, 자신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대외활동 중에서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도 작성해야 하고 거기에서 시키는 활동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맨날 뭐 발표준비하고 그러다보면서 공모전 준비하는 것도 대외활동 중의 하나고. 확실히 뭔가 자신의 여러 가지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연구자: 어떻게 생각하면 대외활동의 폭이 넓어지면서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옅어질 수도 있지 않아요?

민윤진: 네. 확실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1~2학년 때부터 대외활동을 하는 건 추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학년

히 좋아서라기보다는 “외진 곳”에 있는데다 “외부활동”을 할 기회가 없어 학생들이 “그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기 쉬운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때는, 좀 더 ...(중략)... 어쨌든 가서 기여할 수 있는 본인 능력이 있어야지 지원할 때 뭔가 [장점이 있잖아요.] 쌓아온 것에 대한, 쌓아온 것이 있어야 [실력] 발휘도 하는 거잖아요. 1~2학년 때는 아무래도 학교에서 쌓는 시기인 것 같아서.

오늘날 캠퍼스 밖 "사회"에서도 대학생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 많은 프로그램과 활동이 있고, 대학생들은 이러한 것들에 얼마든지 지원하여 참여할 수 있다. 물론 민윤진의 말처럼 기업이 개최하는 "공모전"이나 인턴은 "스펙 쌓기"의 일종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 중 일부는 대학생들의 "스펙 쌓기"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렇듯 연구 참여자들은 "스펙"이 되는 경험("쓸모 있는")과 그렇지 않은 경험("쓸모 없는")을 종종 구분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러한 경험의 경계가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았다. 이를테면 민윤진은 이를 "단지 스펙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대학생활 때 느낄 수 있는 경험이라든가 많은 사람을 만날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경험의 '배치'와 '계열화'에 따라서, 같은 경험이라도 다른 식으로 의미화 될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캠퍼스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가능성을 발견하는 영역은 바다를 건너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해외경험"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다. 아홉 명의 연구 참여자 중에서 대학생활을 하면서 "해외경험"을 하지 않은 경우는 한지민과 박태훈 두 사람뿐이었다. 현재 송현진은 동아시아에서, 이한결은 서유럽에서 교환학생을 하는 중이다. 정다인도 얼마 전에 서유럽의 한 국가에서 교환학생을 끝마치고 돌아왔다. 유민정은 1년 동안 중국에서 어학연수를 하기도 했다. 서주희와 민윤진, 김우진은 외국어 전공이라는 특성과 과 분위기 때문에 모두 2학년이 되었을 때 교환학생을 다녀온 경험이 있었다. 더군다나 서주희는 해외에 더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물론 이렇게 "해외경험"을 하게 되는 연유를 살피는 일도 중요할 것이다. 해외에 나가는 이유는 외국어 전공이라는 특성 때문이기도 했고, "너무 답답하니까 나가면 뭔가 보일까 해서" 막연하게 출국하는 경우도 있었고, "스펙 쌓기"의 일종으로 나가는 경우도 적지는 않다.[41] 또한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해줄 여력

41) 이규호(2006)는 이른바 '학벌'이 좋지 않은 대학생들이, "취업 불안" 해소 목적으로 해외경험과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해외 영어연수에 참여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박소진(2010)은 대학생들의 해외 경험이 대학생들의 '글로벌 정체성'을 형성하는 계기

이 된다는 점도 이러한 “해외경험” 경향에 한 몫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유와 동기, 맥락이야 어떠했든, 이렇게 해외에 다녀온 연구 참여자들이 거의 예외 없이 “해외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곤 했다는 점은 나로서는 흥미롭게 들렸다. 대표적인 예로 유민정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연구자: 아까 어학연수는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중국 가서 느끼신 게 많다고….
>
> 유민정: 느낀 거는, 제가 약간 지적인, 그런 깨달음? 지적이라기보다는 그런 건데, 뭔가 [중국에서의 경험이] 저의 세계관이나 그런 것에 영향을 많이 주어가지고. 문화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고. 언어 차이, 문화 차이, 그런 것에서 오는 차이? 저는 되게 재밌어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문화에서 오는, 역사적인 배경이나 어떤 것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저런 행동을 하고.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표면에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그 밑에 이면에 뭔가 있다, 그런 아이디어가 되게 좋더라고요.

유민정은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같은 “해외경험”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낯선 걸 힘들어 하는 사람”이나 “보수적인”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인생의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민정은 “외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장점은 관용, 상대주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편견이 잘 없는” 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이러한 ‘문화적 감수성’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량으로 꼽히기도 한다(Grant & Portera, 2011). 외국어 전공을 하는 서주희와 민윤진, 김우진도 다양한 해외교류 프로그램 덕분에 새롬대학교 캠퍼스 내에서도 적지 않은 외국인 학생들을 만나 교류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만남이 늘 유쾌하거나 긍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대학생활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경험과 관계를 찾는 터의 외연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였다. 이러한 경험에서 어떠한 ‘교육적 가능성’이 발현될 수 있는지는 더 정교한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가 된다고 본다. 그런데 연구 참여자들에게 “해외경험”의 동기 및 의미는 ‘글로벌 정체성’이나 ‘영어 능력’과 무관하다 할 순 없겠지만 그것으로 환원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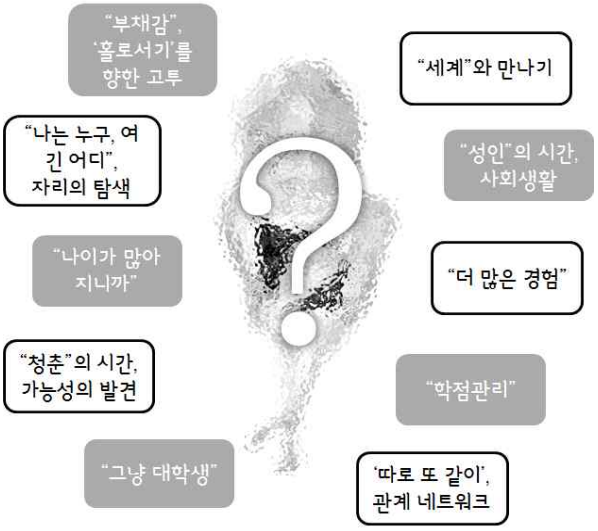
3. 소결: ‘좇기’와 ‘찾기’의 융합과 전개

앞에서 우리는 대학생활의 이중적 지향성으로서 ‘좇기’와 ‘찾기’를 각각 다섯 가지 대학생활 이야기의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주제들은 모두 연구 참여자들의 대학생활 이야기가 포함하는 지향을 표현하고 있었다. 우리는 좇기와 찾기를 특정한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이를 포함할 수 있는 지향성으로 봄으로써, 현상학자들이 보듯 대학생활이 기본적으로 시간의 흐름 위에 있는 과정임을 염두에 둘 수 있었다(Heidegger, 1932). 나는 이를 통해 대학생활은 객관적 대상이나 투명한 실체가 아니라, 존재자들이 살아가는 복잡한 삶의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 또한 나는 연구 참여자들이 ‘세계-내-존재(Heidegger, 1932)’이자 ‘세계-로의-존재(Merleau-Ponty, 1945)’로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타인과 관계를 맺고, 한편으로는 세계를 향해 개입해가면서 우리와 동시대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실존적 양상을 드러내고자 했다. 대학생활에 대한 막연한 이해의 순환을 벗어나, 대학생활의 복잡성을 조금 더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대학생들의 실존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심화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좇기와 찾기는 논문의 구성과 의도 상 ‘나눔(分析)’의 언어 속에서만 구분되는 것이었을 뿐, 각 연구 참여자의 삶 속에서는 복잡하게 융합되어 ‘주름’ 잡혀 있다는 점은 앞에서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다시 말해, 각 지향성이 내포하는 주제들은 물론 일정한 틀 속에 구분되어 있지만, 각 연구 참여자의 대학생활 이야기에서는 복잡하게 교차하고 의미 연관을 맺으면서 흐르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 주제가 대학생활의 모든 양상을 포괄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대학생활의 주제들이 이 논문에 언급되지 않은 채 연구 자료로만 존재하고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삶에는 나와의 대화를 통해 이야기되지 않았던 더 많은 주제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Ⅱ장에서 다섯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와 Ⅲ장에서의 다양한 주제들을 검토하면서 짐작할 수 있었듯, 대학생활 내내 좇기만 하는 연구 참여자는 없으며, 반대로 찾기만 하는 연구 참여자도 없다. 좇기와 찾기는 구분될 수 있으나 떨어질 수는 없는 이중적인 지향성으로서,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존재론의 관점에서 삶의 역동적인 운동을 ‘입체적으로’ 드러내 준다. 다만 각 연구 참여자의 삶에서는 어떠한 지향성이 더 중심에 있느냐, 또는 어떤 지향성이 더 우세하느냐 하는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또한 각 지향성은

특정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기보다는 동사형으로 기술된 바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일정한 형식을 가리키므로, 연구 참여자마다 고유한 내용이 있었다. 이러한 운동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삶은 역동적으로 생성되어 간다. 좇기와 찾기가 교차하고 융합하는 가운데, 연구 참여자들은 각자의 존재지평 위에서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방향(즉, '?')으로 자신의 삶을 생성해 간다. 나는 이렇듯 좇기와 찾기가 교차하고 융합하는 양상을 다음 그림으로 시각화해 보았다.



<그림 1> '좇기'와 '찾기' 주제들의 교차와 융합

물론 이 그림은 연구 참여자 개개인의 차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묘사해주지 못한다. Ⅲ장의 목적은 개인적 차이보다는 이야기들을 두루 조망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각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삶의 지향에 따라, 특정한 이야기 주제는 강하게 나타나기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하게 나타나기도 했다(<표 4> 참조). 이를테면 민윤진과 김우진에게서는 "학점관리"가 중요한 주제였다. 두 사람에게는 장학금을 받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김우진은 춤꾼이기 때문에 공부를 못할 것이라는 편견을 받는 것이 싫었고, 민윤진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부모에게 지는 "부채감"을 경감하고 싶었다. 반면 유민정과 박태훈에게는 "학점관리"가 그리 중요한 주제가 아니었다. "사회적 참여"를 중시했던 정다인은 "학점관리"라는 지향 자체를 한때 다소 낮춰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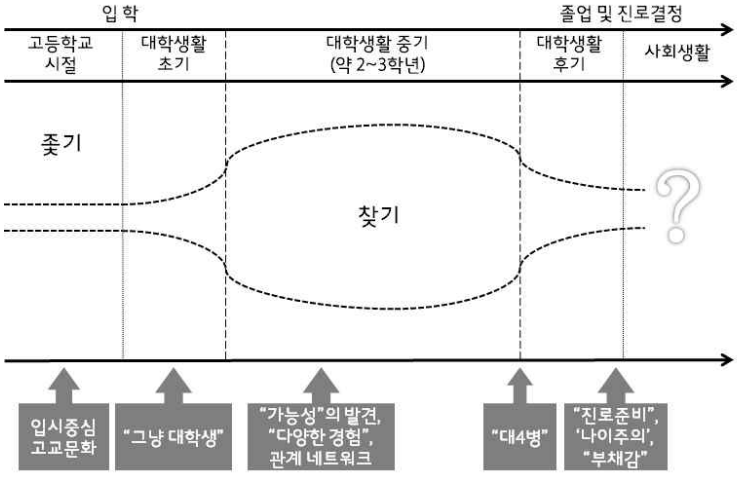
우리는 다른 대학생활의 주제들도 다양한 각도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들의 여러 문화적 유형이나 지향에 따라서 각 주제들은 일부 강화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기도 한다. 이를테면 일반 취업 지향을 갖게 된 유민정과 김우진, 민윤진, 서주희의 이야기에서는 졸업이 다가오면서 좇기와 관련한 주제들이 조금 더 부각되었다. 한편 사회경제적 보상이 적음에도 본인이 재미를 느끼거나 의미 있다고 여기는 일을 찾아 하고 싶다는 지향을 가진 송현진이나 이한결, 박태훈에게는 졸업이 다가오더라도 찾기와 관련한 주제가 비교적 더 부각되었다. 이외에도 우리는 각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 참여자 사이의 차이를 나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Ⅲ장의 관심사는 아니다. 마치 악기의 소리가 악기 자체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Ⅲ장에서 주목한 것은 대학생들의 삶 자체라기보다는 좇기와 찾기를 중심으로 연접시킨 대학생활의 다양한 움직임과 지향이었음을 강조하고 싶다.

그런데 좇기와 찾기의 교차와 융합이라는 화제와 관련해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살펴본 주제들이 때로는 대학생들의 삶에서 '현실화'되지 않기도 한다는 점일 것이다. 이를테면 "더 많은 경험"의 중요성과 "가능성"의 탐색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민윤진은, 이러한 주제들을 자신의 대학생활에서 해보지 못해 가장 후회하는 것으로 꼽기도 했다. 민윤진은 장학금을 받기 위해 "학점관리"를 하고 휴학하고 1년 동안 성우학원을 다니느라 매우 바빴다. 그래서 민윤진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실제로는 많이 하지 못했던 "더 많은 경험"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보였다. 즉, 민윤진에게 이러한 주제는 현실태보다는 가능태/잠재태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는 편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펴본 주제들은 '실재성'의 측면도 물론 있었지만, 필요성과 중요성의 측면에서 부각되어 이야기된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좇기보다는 찾기의 주제에서 그러한 경향이 커보였다. 우리의 연구 참여자들이 졸업반으로서 대학생활을 회고적으로 돌이켜 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경향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야기의 주제들이 현실태가 아닌 가능태/잠재태로 이야기된다고 하여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존재론의 관점에서 보면, "현실적인 모든 것은 잠재적인 이미지들로 이루어진 안개로 둘러싸여 있다(Deleuze, 1996/2007, p.518)." 하이데거(Heidegger, 1932)도, 존재물음을 던지는 현존재를 '여기에 있음(being-here)'이라는 현사실적 측면 뿐 아니라 '존재가능(being-possible)'의 측면에서도 함께 다룬

다. 즉,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실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은 동등하게 우리의 삶에 공존하면서, 우리를 특이한 다양체(multiplicité)로 만든다(Deleuze, 1996). 연구 참여자들의 실존은 현실태와 가능태/잠재태가 교차되고 융합되는 과정 속에서 생성되어 간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좇기의 의미가 '있는 것'을 따르는 것이라면, 반면 찾기란 '아직 있지 않은 것' 혹은 '여기에 없는 것'을 추구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나는 앞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되기(becoming)'에 주목하면서 좇기와 찾기를 살펴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되기란 언제나 시간의 문제이기도 했다. 되기란 대학생활의 흐름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즉 시간적 전개의 문제다. 조용환(1995)의 발견에 따르면, 하위문화적인 분류보다는 시간에 따른 구분이 더 유용한 경우도 있다. 우리의 연구 참여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연구 참여자들 각자의 개별성과 독특성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일정한 시간적 전개의 경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다시 말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좇기와 찾기라는 이중적 지향성이 일정한 패턴 속에서 변화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무엇보다 '학년'(또는 등록학기)과 연관이 높았다. 연구 참여자들이 과거 경험을 회상할 때 주로 "X학년 Y학기 때"라는 표현을 쓰는 것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각자의 구체적인 삶의 리듬은 달랐음에도 대략적인 대학생활의 시기 구분은 가능했다. 이를 간략히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좇기'와 '찾기'의 시간적 전개

위 그림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회생활에 이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대학생활에서 좇기와 찾기가 얼마나 큰 비중과 강도를 차지하는지를 시각화 해준다. 그림이 단순하고 '도식적'이라는 한계를 감안하고 본다면, 좇기와 찾기와 관련한 대학생활의 시간적인 전개 양상을 거칠게나마 정리하여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생활의 각 시기(phase)에는 좇기와 찾기의 흐름에서 일정한 변곡점들이 있음을 보여주며, 이와 관련하여 그림의 하단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좇기와 찾기에 연관된 이야기 주제들을 간략히 표시해 보았다. Ⅲ장에서 다룬 것도 있고, Ⅱ장에서 다루었던 주제도 포함한다. Ⅰ장의 이론적 배경에서 살폈던 용어를 빌자면, 대학생활의 흐름 속에서 유목적으로 가능성/잠재력에 대해 찾아 나서는 시기와 정주적으로 평균성과 현실성에 더 초점을 맞추는 시기는 각자의 삶의 리듬 속에 있으나 일정한 패턴을 그리며 변주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치 기승전결의 플롯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처럼 말이다.

Ⅲ장에서 우리는 '좇기'와 '찾기'라는 대학생활의 이중적 지향성을 각각 다섯 가지 주제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두 지향성이 어떻게 대학생활 안에 교차되고 융합되어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았다. 혹자에게는 이러한 구성이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복잡한 대학생활 이야기를 보다 선명하게 정리하여 전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변명을 해두고자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의 작업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려고 한다. '좇기'와 '찾기'에 대해서 정리작업한 것을 딛고, 이러한 삶의 과정(becoming)에 과연 어떠한 교육적 가능성이 있으며, 또 어떠한 교육학적 의미가 있는지 교육인류학의 관점에서 해석해 볼 것이다.

Ⅳ. 대학생활의 교육적 가능성: 해석 및 논의

이 장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나는 왜 '대학교육'이 아니라 '대학생활'을 통해 연구 내러티브를 이끌려고 했을까? 이러한 이끎 형식은 연구자로서 나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삶을 특정한 정체성('대학생')으로 환원하여 대상화하지 않고, 이들이 살아가는 존재 지평에서 두루 살필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서다(조용환, 2009). 둘째, 대학이라는 학교태를 '교육'과 동일시하는 관성으로부터 거리 두기 위해서다(장상호, 2005; 2009a). 셋째, 오늘날에 '대학생'이라는 사회문화적 정체성이 '교육적인 삶'을 담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때로는 연구 참여자들과 공유하기도 했던)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지금까지 나는 이들의 삶, 즉 대학생활에 더욱 주목해 왔다. 그렇지만 나는 여기에서 대학생활에 대한 '교육인류학적 해석'[42]을 통해 대학교육에 대한 진일보한 논의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먼저 교육인류학이란 무엇일까? 이 연구에서 교육인류학의 정의는 조용환(1997; 2001b; 2011a; 2012a; 2012b; 조용환·윤여각·이혁규, 2009)의 논의에 크게 빚을 지고 있다. 우선 교육인류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삶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방식", 즉 '삶의 형식'으로 이해하며, 특히 문화와 교육이 갈등-상생하는 상호관계에 주목한다. 문화와 교육의 상호관계에 주목하는 방식에 따라 교육인류학의 정체성은 다르게 정의될 수 있지만(서근원, 2007; 서덕희, 2009; 정향진, 2008), 조용환은 메타적인 삶의 형식으로서 교육에 강조점을 찍은 교육학적인 교육인류학의 정체성을 강조한다. 즉, 삶의 질적 측면을 이해하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서 다양한 삶의 형식들을 긍정하되, 이들의 관계를 교육의 메타적인

---

42) 여기서의 '해석' 개념은 성서와 문학 등 텍스트에 대한 해석을 주 과제로 삼았던 전통적인 해석학의 해석과는 달리, '존재(있음)'와 '생성(되기)'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현상학적 존재론의 지향과 맞물려 있다(Palmer, 1969).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한다. "이해의 기획투사는 스스로를 형성할 수 있는 고유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해의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해석이라고 이름한다. 해석에서 이해는 자신이 이해한 것을 이해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 ...(중략)... 해석은 이해된 것을 알게 됨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에서 기획투사된 가능성들을 정리작업함이다(Heidegger, 1932/1998, p.206)." 요컨대, 여기에서의 해석이란 지금까지의 존재론적 이해 작업을 다시 한 번 이해하되 이를 통해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을 드러내어 정리하는 것이다.

관점으로 두루 성찰하는 학문적인 정체성을 내세우는 것이다.

인간은 늘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세계에 매몰되지 않고 특정한 방식으로 길들이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양한 삶의 양식을 발달시켜왔다. 이것이 '문화'다. 하지만 '교육'[43]은 문화를 곧이곧대로 재현하지 않는다. 교육인류학의 관점에서 교육이란, 현실태보다 더 나은 문화적 가능성은 없는지, 또는 현실의 '문화(文化)'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文和)이 아니라 옭죄고 있는 것(文禍)은 아닌지 반성하면서, 문화에 대해 개선, 때로는 개혁을 추구하는 메타적인 삶의 형식이라 할 수 있다. 문화와 교육은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능성의 지평을 펼친다. 다시 말해, 문화와 교육은 존재론적으로 "두 겹의 주름", 즉 "분화시키고 또한 스스로 분화되는" 주름, "차이의 차이 산출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Deleuze, 1988/2010). 이렇게 본다면, 문화와 교육의 교차적 관점을 통해 다시 본 대학생활 이야기도, 연구 참여자들이 저마다 차이 속에서 실존적인 삶의 지향과 가능성,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학생활 이야기와(Ⅱ장) 이를 '좇기'와 '찾기'를 중심으로 정리한 대학생활의 주제들은(Ⅲ장), 아직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은 문화와 교육의 잠재된 이미지와 풍부한 가능성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나는 특히 좇기와 찾기의 교육적 가능성과 교육인류학적 의미를 드러내 보고자 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육적 가능성이란 존재자 그 자체가 아니라, 해석을 통해 드러나고 발생하는 일종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나는 교육인류학의 메타적 삶의 형식으로서 교육의 눈으로 지금까지의 이야기와 이야기 주제들을 해석하고 성찰해 볼 것이다. Ⅳ장에서 나는 대학생활에 대한 교육인류학적 해석에서 시작하여, 대학교육에 대한 논의로 초점을 서서히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해석 및 논의의 과정에서, 나는 '좇기'와 '찾기'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참고하되 연구 참여자들과 나눈 대화에서 솟아오른 통찰들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대학생활에 근거를 두고 대학교육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와 생각, 희망을 표현하였으며,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대학교육의 가능

---

43) 조용환은 교육의 요소로서 '가르침과 배움의 상징적 상호작용', '더 나은 인간 형성의 존재론적 지향', '변증법적 대화의 과정'이라는 세 가지 필요조건과, 상호보완성, 의도성, 개별성, 사회성, 과정성, 내면성, 변증성, 개방성, 총체성이라는 아홉 가지 개념적 속성의 충분조건이 있다고 본다. 나는 이러한 교육의 정의를 참조하면서 논의를 진행시켜나갈 것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조용환(1997; 2012a) 참조.

성과 한계를 읽어내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열어 밝혀준 통찰은 연구자의 이해를 확장시켜주는 강력한 바탕이었다. 물론 이를 정리하고 다른 이야기와 접붙이면서 의미를 찾는 해석의 노동은 연구자인 나의 몫이며 책임일 것이다.

1. '좇기'와 '찾기': 교육인류학적 해석

지금부터는 '좇기'와 '찾기'를 중심으로 대학생활의 다양한 양상들을 교육인류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해보려고 한다. 논의의 진전을 위해,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좇기'를 우리가 '문화'라고 부르는 것과 연관시켜본다면 어떨까? 즉, 연구 참여자들의 대학생활은 하나의 문화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문화들과 뒤얽혀 있으며, 이 문화들의 얽힘은 이들의 생활세계와 세계지평을 구성한다고 말이다(Gadamer, 1960). 이때 연구 참여자들은 문화에로 던져진 존재자이자, 문화의 규정성을 좇으며 살아가는 존재자이기도 하다(Desjarlais & Throop, 2011). 연구 참여자들은 한정된 의미의 지평 속에서, 가능성/잠재력보다는 현실성에 주목하면서 살아가기도 한다. 이들은 정해진 목표와 이상을 좇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실존에 대해 질문하기보다는 전형성과 타인들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기도 한다. 이때 이들에게 대학과 사회는 '홈패인 공간'으로서, 적응하고 순응하며 조율해야만 하는 것으로 지각될 수 있다(Deleuze, 1980). 즉,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문화화 되기도 한다(조용환, 1997).

한편 '찾기'는 연구 참여자들이 이러한 문화에 대응하는 현존재의 실존적인 존재물음 및 기획투사와 관련이 더 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Heidegger, 1932). 연구 참여자들은 문화를 향해 나아가며, 문화를 바꾸어 나가기도 한다. 주어진 것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다른 가능성은 없는지 부단히 질문하며 살아가기도 한다. 자신에게 잠재해 있던 가능성/잠재력의 주름을 펴면서 타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도 한다.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삶의 지평을 더 넓혀 나가고, 이렇게 넓어져 가는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 세계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해 나갈 수도 있다. 한정된 의미의 지평은 새로운 의미의 지평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단단한 배치로 보였던 것이 '미끈한 공간' 위에서 새로운 배치로 열릴 수도 있다(Deleuze, 1980). 연구 참여자들은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기도 하며, 이러한 배움을 통해 이들은 스스로 성장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삶의 과정이자 한편으로는 교육의 과정일 수 있다(조용환, 2012a).

하지만 앞에서도 이미 지적했듯, 연구 참여자들의 삶에서 좇기와 찾기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다. 이제부터는 교육인류학적 관점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다시 검토하되, 앞의 구성에 지나치게 구애 받지 않고 나름의 흐름이 있는 연구 내러티브로 '재서술'[44]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해석 및 재서술 작업의 목적은 간단하다. 특정한 유토피아적 비전과 선험적 명제에서 길어낸 교육적 가능성이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이 겪어온 대학생활과 '좇기'와 '찾기'에 기반을 두고 '교육적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드러내보기 위해서다.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 여기에서 비판이란 가능성에서 불가능성을 드러낼 뿐 아니라 불가능성에서 가능성을 길어내는 이중의 작업이다. 나는 이러한 비판 작업 위에서 더 나은 삶과 문화와 교육의 길을 찾아가는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 믿는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른 고등학생들과 마찬가지로(조용환, 2009), '모두가 같이 꾸는 꿈'을 좇아서 대학에 진학한 경향이 있었다. 각자가 개인적으로 좇는 꿈의 종류는 물론 모두 달랐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더 나은' 대학 진학이라고 하는 지배적 목표를 좇았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 진학은 개인이 꾸는 꿈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모와 친구들, 더 나아가 사회가 이들이 꾸기를 바랐던 '우선-대개(Heidegge, 1932)'의 꿈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모두가 같이 꾸는 꿈'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 진학 목표를 좇으면서도 나름의 의미를 찾기도 했다. 어떤 연구 참여자들은 좇기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실존은 대학진학이라는 사회적 언어로 번역될 수 있을 때만 '인정' 받을 수 있었다. 현상학적 존재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대학 진학이라는 '현실성'을 따르는 것 외에는 스스로 존재가능을 결단하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즉, 고등학교 때까지의 생활에는 대체로 '존재망각'과 소외가 만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Heidegger, 1932).

이렇게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좇았던 꿈은, 한편 대학생활에 대한 연구 참여

---

44) 네오-프래그머티스트(Neo-pragmatist)로 알려진 로티는 '재서술(redescription)'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Rorty, 1960). 재서술은 어휘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변양을 통해 우리의 언어를 우연성에 개방시킨다. 로티는 재서술을 통해 평균적인 존재이해로서의 '상식'은 물론 고정불변의 '진리'가 규정하는 한계를 뛰어 넘어, 삶의 모든 장면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인간 실존의 의미와 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자들의 낙관적인 기대와 문화적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일조한다. 또한 교사와 부모를 비롯한 성인들의 경험-이야기와 대중문화, 고등학생 문화도 이러한 이미지 형성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표현을 빌자면, “잔디밭에서 뒹굴고 술 먹고” “쉬는 시간에 풀밭에서 책 읽고” 하는 자유의 이미지, “뭔가 심오한 것을 가르쳐 줄 것 같은” 교육의 이미지,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의 이미지 등, 대학의 여러 장면을 담은 이미지가 이들의 기대지평을 구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대학생이 되어 마주한 대학의 문화적 ‘현실’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해온 이상화된 ‘기대’와 어느 정도는 충돌하기 마련이다.

사실 교육인류학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문화는 ‘횡적 상대성’을 속성으로 하고 있기에 그 자체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문화를 초월할 수 없으며, 문화 없는 인간 개념은 추상물에 불과하다(Thompson, 1974). 문화는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의 창고이기도 하며, 더 나아가 복잡한 세계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삶의 좌표’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한국의 대학에는 단일한 대학생 문화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들이 교차해 왔으며, 시대의 변화와 상황에 따라서 특정한 문화가 우위에 서서 다수의 대학생들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의 좌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조한혜정, 1997). 대학생들은 특정한 대학생 문화를 체험하고 따르면서 비로소 자신이 ‘한 사람’이자 동시에 ‘대학생’이기도 함을 깨단하기 마련이다(Horowitz, 1987). 즉, ‘대학생의 본분’ 또는 ‘대학생-임’은 대학생 문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문화를 이러한 이념형적 관점에서 조망한다면, 우리는 대학생 문화가 교육과 충분히 ‘상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조용환, 2001b).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연구 참여자들이 실제로 체험했던 오늘날 대학생 문화의 ‘현실’은 우리가 앞에서 주제화 했던바 대학생 문화의 ‘범상성’에 가까운 편이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3월의 들뜬 분위기가 지나가고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는 시간을 보내고 나면, 연구 참여자들은 대개 “와해되기 쉬운” 대학생 문화에서 안정감이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곤 했다. 이는 민윤진의 말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신입생 때 반짝하고 어쨌든 자기 미래가 중요하니까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지배적이기 때문일 수 있다. 이처럼 지금-여기에서 의미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의미 있는 대학생 문화가 생성되기도 만무할 것이다. 이럴 때 대학생 문화는 대학생들의 삶에 뿌리를 둔 자생성에서 기인하기보다는 외재적인 규정성들과

밀접하게 접속하는 방향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범상한 대학생 문화는 대학생들에게 삶의 '가능성'을 제시해주기도 한다. 이를테면 '국가고시, 언론, 대기업, 대학원'과 같은 "4지선다형"을 제시해줌으로써(장덕진, 2011), 존재부담을 경감해주고 이런저런 일반적 기준들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들 중에서도 일부는 이렇듯 미리 규정되어 있는 가능성들을 좇으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나가기도 했다. 설령 "4지선다형" 외의 다른 진로를 찾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연구 참여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좇기 압력에서 완전히 무관하기란 어려웠다. 부모에 대한 "부채감", 자유로운 대학생활에서 벗어나 책임을 온전히 짊어져야 하는 사회생활로 조율해야 한다는 압박감, 나이주의에 따라 빨리 "성인"이 되어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이들의 삶에 똬리를 튼다. 대학생 문화의 범상성은 이러한 좇기 지향의 기반이 되고 동시에 표현태가 되고 있었다.

하지만 범상한 대학생 문화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의미 있는 '삶의 좌표'를 제시해주지 못한다는 심각한 불가능성과 한계가 있다. 즉, 실존적인 의미를 찾기 어려운 일상의 '헐벗은 반복(Deleuze, 1980)' 외에, 특별히 새로운 삶의 가능성과 의미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범상한 대학생 문화는 연구 참여자들이 표현했듯이 "같이 수업 듣고 같이 밥 먹고" 하는 일상적 소비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활 밀착형 문화'에 가까울 뿐, 다른 가능성과 의미는 제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45] 송현진과 정다인이 지적했던 바에 따르면, 생활 밀착형 문화는 대학에서 특수하게 발달한 문화라기보다는 더 큰 맥락에 놓여 있는 우리 사회의 소비문화와 더 밀접한 관련을 맺기 쉬운 것 같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날 대학에서 의미 있는 "대학[생] 공동체라는 것은 실현되기도 힘들고 신뢰하기

---

45) 이러한 문화적 경향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른바 "변혁적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했던 1970~80년대 한국의 대학생 문화와 비교되기도 한다(김원, 2011; 김영철, 1986; 조한혜정, 1997; 2011a). 이 시기의 대학생들은 (개인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개개인의 삶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사회변혁을 위한 조직체" 안의 개인으로 살아가는 문화적 경향이 강했다고 전해진다. 당시의 학생운동 전통은 이한결이 활동했던 <가람대신문>와 송현진과 박태훈이 활동했던 학생회 등에 일종의 '하위문화'로 아직 존속하고 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자들의 분석은 연구 참여자들에 의해 때로 도전받기도 했다. 예컨대 한지민은 당시의 대학생들이 과연 자신들이 정말로 원해서 그랬는지, 혹은 대학의 "분위기가 그래서" 그랬을 뿐인지를 반문하기도 했다.

도 힘들다(Nathan, 2005/2006, p.60)"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를 인정한다면, 연구 참여자들이 겪은 일상적인 대학생 문화는 '평균적인 존재이해'라는 세인들의 기준에 따르고 재생산하기를 종용하는 '문화(文禍)'에 가깝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모든 사회와 문화가 구성원들이 한정되어 있는 특정 목표만 좇도록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즉, "어떤 사회는 직접적인 재생산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다른 사회는 다양한 가능성의 범위를 지향(Williams, 1961/2007, p.163)"하기도 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대학생 사회와 문화는 후자의 지향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학생 사회와 문화, 교육은 얼마든지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조용환, 2001b). 다시 말해, 대학생 문화라는 범주 자체가 곧 '대학교육의 불가능'이라는 비관적 진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 오늘날의 범상한 대학생 문화는 "사회의 사자만 꺼내도, 너 빨갱이냐"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겉도는 대화" 외에 다른 화제를 공개적으로 꺼내기에는 다소 부담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렇기에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대학생 문화의 범상성을 마주하면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좇기'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제화 했던 "학점관리"나 '나이주의에 대한 순응'도, 이러한 대학생 문화의 범상성과 관련이 깊은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적인 만남이나 대화보다는 특정한 삶의 방식과 '현실성'을 좇도록 요구하고, 존재물음을 던지는 것을 막아 구성원들이 '존재망각'에 이르게 하는 '세인'들의 평균적인 문화가 엄연히 살아 있다(Heidegger, 1932). 이러한 문화적 지향이 과연 교육적인 지향이나 가능성과 연접할 수 있을까(조용환, 2001b)?

이어서 우리는 대학의 수업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물론 대학의 강의실에서 '가르침'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대개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가르침의 상당 부분을 잊어버리곤 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물론 종종 예외가 있기도 했지만, 대체로 교수자의 입장에서 '지식의 전달'은 일어난 반면 연구 참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앎의 생성'은 드물게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가르침과 배움이 상응했는가를 자문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친밀한 교수자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하면 말하지 않거나 피상적으로 대답하는 연구 참여자들이 대다수였다. 그렇다면 교수자와 연구 참여자들의 '인격적 만남(Bollnow, 1983)'과 대화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비교육적'인 경향이 만연해 있다고 정리해도 무리는 아니지 않을까?

이를 감안하면, 대학생활에서 더 나은 교육을 향한 존재론적 지향을 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더욱 희소한 가능성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을 '교육'의 한 구성요소로서 '가르침과 배움의 상징적 상호작용(조용환, 2012a)'이라는 측면에서 조망해보아도 다소 회의적인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듯하다.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1986)은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논점을 제공한다. 그는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을 원용하면서, 가르침과 배움은 언제나 '타자'를 전제한다고 이야기한다. 내가 말하는 내용은 같은 '언어게임'을 공유하지 않는 타자에게는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가르침과 배움은 이러한 타자성에 말을 거는 것이며, 타자와의 대화에 실패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관계성의 심원한 간극을 '도약'하려는 실존적 몸짓으로 이해된다. 반면 언제나 의미가 명증하게 통한다고 생각하는 관계, 특정한 말을 곧이곧대로 '재현'하는 관계를 일컬어 가라타니 고진은 "말하고 듣는 관계"라고 규정한다. 교수자와 학생은 서로-타자로서 가르치고 배우지 못한 채, 동일성을 반복 재생산하면서 학생이 얼마나 잘 '재현'했는지로 수업을 평가하기 마련이다. 가라타니 고진은 이를 "말하다=듣다"라고 표현한다. 가르침과 배움, 말함과 들음은 차이가 크다. 연구 참여자들이 체험한 대학수업에서는 어떠한 양상이 지배적이었을까?

수업의 과정을 차치해 두더라도, 수업의 결과는 결국 '학점'이라는 기록으로 남기 마련이다. 이런 저런 일로 늘 바쁜 연구 참여자들은 "비싼 돈 내고" 학교를 다니는 상황에서 "학점관리"를 하는 것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일임을 깨닫게 되기도 했다. 게다가 '지식전달' 중심의 강의에 대한 낮은 기대와 많은 수업시수에 대한 부담감 등이 섞여서 "학점관리"를 실천하기도 한다. 게다가 상대평가제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 경쟁이 유도되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나름대로 '최적화 전술'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렇듯 "학점관리"를 하려고 하는 대학생과 이러한 경향을 문제 삼거나 다른 대안을 찾아보지 않는 교수자가 만나면, 그런 만남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런 탈 없이 끝나는 '행복한' 만남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만남은 "높은 학점"이라는 일종의 '자본'을 쌓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차라리 '경제적 만남'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또한 교수자와 대학생의 '교육적 만남'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교육인류학의 관점에서 보면 대학에서 중요한 풍경 중 하나인 수업에서 교수자도 대학생도 '교육소외' 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물론 이러한 문화적 경향에 대해 교수자나 대학생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오늘날 대학생활의 현실적 조건에 대해 구성원들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문화적 흐름일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에 이한결의 말처럼 "대학이 지식을 얻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 만나는 곳의 의미만" 남아 있는 편이라고 비판하더라도 과장은 아닐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이러한 대학의 문화적 풍경을 살아가는 연구 참여자들도 '만족감'을 느끼지는 않는다. Ⅲ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에서만 할 수 있는 수업의 양상과 의미,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아쉬워하는 경향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느낀 아쉬움은 반대로 대학 수업의 교육적 잠재력와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응답책임'을 질 수 있을까?

이제부터는 '찾기'를 중심으로 해석의 관심을 돌려보자. 그리고 이야기의 실마리를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주변에 엄청 많은" "다양한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언급한 점에서부터 풀어보자. "다양한 문화"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말한 "다양한 문화"의 목록은 우리 시대의 문화적 지평이 허용하는 한 잠재적으로 무한히 늘어날 수 있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대중문화의 일부이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의 문화일 수도 있고, 한지민과 송현진, 정다인 등이 겪은 <한울학보>의 문화일 수도 있고, 유민정이 겪은 경영동아리 문화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일부 연구 참여자들이 겪었던 고시생 문화일 수도 있다. 물론 정다인이 겪었던 야학의 문화일 수도 있다. 박태훈과 송현진이 한 때 겪은 "운동권" 문화일 수도 있고, 김우진이 겪은 대학생 춤꾼 문화일 수도 있다. 또한 일곱 명이나 되는 연구 참여자들이 교환학생과 어학연수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체험하기도 했던 국경 너머의 무수히 다양한 '타문화'일 수도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많은 문화들을 넘나들면서 살 수 있다.

이렇듯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문화적 삶을 자신이 처한 상황과 실존적인 결단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 송현진을 비롯해 여러 연구 참여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화의 다양성과 선택 가능성은 오늘날 대학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문화적인 지평을 이미-항상 구성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또한 '미성인'과 '성인' 사이에서 결정되지 않은 상태를 살아간다. 어떻게 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이미-항상 다문화적/간문화적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셈이며, 이렇듯 다

원적인 문화적 상황은 얼마든지 새로운 교육(학)의 가능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조용환, 2011a; Grant & Portera, 2011). "다양한 문화"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말하고 듣는' 재현적인 관계를 넘어서, '가르치고 배우는' 대화적이고 유목적인 차이와 생성의 관계로 나아갈 가능성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柄谷行人, 1986). 우리의 교육학이 교육을 보는 눈이 유연하거나 넓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일상과 문화에 존재하는 무수한 교육적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제도적으로 의미 있게 조직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적 가능성은 이미 몇몇 대학에서는 실험적으로 제도화되고 있기도 하다.[46]

대학생들에게 찾기라는 삶의 지향은 공시적으로는 생활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통시적으로는 미성인과 성인이라는 생애 단계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이성(in-betweenness)'은 대학생들이 일종의 '경계적 존재(the liminal being)'임을 보여준다(Turner, 1969).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생'이라는 단일한 정체성이나 단일한 대학생 문화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들 사이에서 경계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며 살아가는 유목적인 주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다양한 삶의 경험과 이야기 사이에서 살아가는 현존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이성' 또는 '경계성(liminality)'에서 인간의 창조성과 실존을 발견하고 긍정해 왔다(Crapanzano, 2004; Stroller, 2009; Turner, 1969). "경계적인 것(the liminal)은 일상의 사회문화적 삶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눈멀어 있을 수밖에 없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준다(Crapanzano, 2004, p.64)."

이렇듯 대학생들의 삶을 둘러싼 다원적인 문화적 지평과 사이성은 '찾기'라는 연구 참여자들의 실존적인 노력이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의 기반을 마련해 주기도 한다. 우리는 이러한 기반이 '교육적'인 체험의 조건이 아니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 특히 Ⅲ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여기의 범상한 대학생 문화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실

---

46) 이를테면 미국의 일리노이 주립대학 어바나-샴페인 캠퍼스(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에서는 'eUI(Ethnography of University Initiative)'라는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부생들이 스스로 대학생활의 맥락에서 화두를 찾아 문화기술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통해 도움으로써, 학생들의 존재론적 교육학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 연구와 질적 교육이 만날 수 있는 흥미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조용환, 2004).

존적인 지향과 ‘공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관계 네트워크’를 꾸리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왔다. 더군다나 관계 네트워크의 경계는 캠퍼스 내에 한정되지 않고 “세계”를 향해 뻗어 있다. 이러한 찾기의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얼마든지 자신이 지금까지 몰랐던 것들을 관계 속에서 배우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송현진은 이러한 배움과 성장의 계속적인 경험도 일종의 “교육”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송현진: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 뭔가 사람을 만나고 그런 것도 제가 교육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요.
연구자: 어떤 점에서요?
송현진: 예를 들어서, 특히 제가 학교 밖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다 나이가 나보다 훨씬 많은 사람부터, 조금 많은 사람들까지. 다 저보다 나이가 연상인 분들을 만나다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보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이한결도 이와 관련하여 대학에서 “제가 얻은 것은 사람이랑 여러 가지 사람 관계에서 오는 깨달음 같은 것을 얻었는데, 제일 큰 걸 그렇게 얻었고 [그 밖에는] 알량한 전공 지식”일 뿐이라고 언급한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소중한 경험은 대체로 대학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연히 얻은 깨달음’과 연결되어 있는 편이었다. 가르칠 의도가 없거나 혹은 다른 의도가 있었더라도, 송현진의 말처럼 “배우려고 하는” ‘배움의 주체’에게 있어 가르침은 관계 속에 잠재태로 살아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은 타인들에게 특정한 기호를 방출하기 마련이고, 이 기호에 응답하는 방식에 따라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기도 한다(Deleuze, 1964). 지금까지 교육학에서는 이러한 배움의 양상을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과 비교하여 ‘무형식 학습’이라고 개념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은 주로 ‘지식’의 습득이라는 인식론적 차원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현상학적 존재론을 주요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연구에서는 그리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는 강대중(Kang, 2007)이 들뢰즈의 존재론을 전유하여 ‘배움(learning)’을 ‘리좀활동(Rhizoactivity)’로 개념화 했던 것을 참조하면 더 적절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강대중은 특정한 속성만을 부각시켜 학습의

양상을 규정하고 의미화 하는 학문관행을 벗어나,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학습의 '다양체(multiplicity)'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배움은 시간과 장소, 관계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존재론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연구 참여자들이 체험한 존재론적인 삶과 배움, 성장의 과정도 '리좀활동'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하나의 경험은 미리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경험으로 연속되고 확장될 수 있으며(Dewey, 1938; Gadamer, 1960), 이를 시간의 지평 위에서 총체적으로 조망해 본다면 연구 참여자들의 삶과 배움, 성장의 과정도 충분히 교육적 과정이 될 수 있는 잠재력으로 충만한 '리좀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른다(Deleuze, 1964).

특히 연구 참여자들이 대학생활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었다고 소개하는 사건이 (결과적으로 긍정적이었건 부정적이었건) 대개 강의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편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해석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삶의 과정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실제로 자신들이 배웠고 성장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교육적이지 않다고 말할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을 '대학생'이라는 특정한 제도적 개념 속에 가두지 않고 유연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를테면 우리는 연구 참여자들을 대학에 다니면서 자신의 존재가능과 실존적인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배움꾼'이라는 식으로 조금 다르게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더 많은 재개념화도 얼마든 가능할 것이다. 더 나아가 연구 참여자들이 사회 안팎에서 자신의 '자리'를 적절히 찾아갈 수 있다면, 대학생활에서 체험한 배움과 성장의 과정은 단지 잠재태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해석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이중적 지향성에서 교육적 가능성과 교육학적 의미를 나름대로 끌어낸 것으로 과연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제부터 나는 좇기와 찾기가 이루어지는 대학생활의 현실에 대해 조금 더 너른 시야를 가지고 조망해 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망 작업 없이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교육적 가능성과 의미는 국소적인 진술에 머물 수 있고, 따라서 우리의 해석이 충분치 않은 결과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는 우리의 해석을 통해 드러난 대학생활의 교육적 가능성과 의미가 일정한 한계를 내재하고 있음을 함축한다. 나는 이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 싶다.

첫째, 좇기와 찾기와 관련한 일련의 존재론적 과정은 '우연적'이며 '비의도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좇기와 찾기에 일정한 한계범위를 지우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지적은 반드시 누군가의 의도적인 개입이 있어야만 더 교육적이라는 뜻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의도가 어떤 의도냐에 따라, 과정이나 효과상으로 전혀 다른 양상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의도는 결코 교육적 과정과 결과를 완전히 보장하지는 못한다. 나는 우연성과 비의도성이 열어줄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의 교육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낙관하는 편이다. 그럼에도 교육인류학이 교육 현상을 단지 이해하는 학문에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삶과 문화와 교육을 지향한다면(조용환, 2012a) 어느 정도의 '의도성'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개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존재론적인 배움과 성장을 제도적 수준에서 교육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둘째, '인식론 지향적인 교육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대학생들의 좇기와 찾기 과정이 다소 불만족스럽게 읽힐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예, 장상호, 2005; 2009a; 2009b). 이 연구가 기본적으로 현상학적 존재론의 관점을 취하고 있고 교육인류학이 질적 연구와 동근원적으로 만나면서 존재론을 지향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조용환, 2011a; 2012b), 이는 인식론을 부정하거나 배타적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존재론적 과정에 상대적 가중치를 둔 것에 가깝다. 교육에서는 인식론적 측면도 존재론적 측면과 동등하게 소중하다는 뜻이다. 안타깝게도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이 "진리의 상아탑"이나 "지성의 전당"이라는 수사보다는 차라리 "취업사관학교"나 "취업학원"이라는 수사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에게 교육의 인식론적인 측면, 즉 "지성"과 "지식"의 측면이 아무런 교육적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를테면 "생각하는 법"이나 "한 분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도움을 받는 것"과 같은 인식론적 측면은, 연구 참여자들도 긍정하는 대학교육의 가치였다.

세 번째는 다소 길게 살펴보려 한다. 오늘날 대학생활이 위치해 있는 세계지평에 대해 교육인류학의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를 제기하고 싶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연구 참여자들의 대학생활이 언제나 더 넓은 역사적 맥락과 조건, 즉 '대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조용환·윤여각·이혁규, 2009; Markus & Fischer, 1986). 이를테면, 연구 참여자들은 오늘날의 경제 상황에 대한 지각에서 기인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한지민은 "불안"의 문제에

대해, “그냥 먹고 살아야겠다는 불안. 그냥, 친구고 대학생활이고 뭐고, 공부. 진짜 공부고 뭐고, 필요한 걸 찾아야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을 찾아야 하는 거고. 먹고 살려면”이라고 이야기한다. 생존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분위기에서, 실존의 문제보다 생존의 문제가 양 어깨에 무겁게 얹히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 일일 것이다. 어떤 연구 참여자들은 나와 만날 때도 “스펙 쌓기”용 교재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이다.

16~18년 동안 학교라는 사회문화적 울타리 안에서 지내왔던 연구 참여자들은, ‘경제적 생존’과 연관된 “불안”을 막연하게 느끼기 쉽다. 이렇게 “불안”을 유발하는 대상의 실체가 느껴지지 않을 때, “불안”은 스스로 무한히 증식하기도 한다(Bauman, 2000; 2007). 평소 학업이나 아르바이트, 동아리 등 여러 활동으로 분주하게 살 때는 괜찮다가도, 가끔씩 “여유”가 생기면 갑자기 내면으로 몰아치는 “불안”이 있다. 이한결의 말처럼, 자신이 “게으른 것” 같거나 “너무 많이 쉬는 것 같으면” “불안”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다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당위’에 “이중적”으로 사로잡히기도 했다. 즉, 바쁘게 살고 싶지 않다가도 바쁘게 살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특히 졸업을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뭔가에 쫓기듯” 몇 겹으로 가중된 “불안”에 대해서 느끼곤 했다(남미자, 2013).

본디 하이데거에게 ‘불안’은 현존재가 ‘비본래적인 실존’, 즉 평균적인 존재이해에 발을 딛고서 자신의 존재가능으로 기획투사할 때 느낄 수 있는 실존적인 감정으로 이해되었다(Heidegger, 1932).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이 이야기하는 “불안”은 하이데거가 밝혀낸 현존재의 ‘불안’과는 다르다. 무엇보다 “불안”은 연구 참여자 각자의 존재가능에 대한 직면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외부의 힘’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힘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 대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존재가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 또한 그들의 실존이 얼굴 없는 타인의 평가에 의해 좌지우지 될 때, 대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불안”은 상승효과를 일으키며 급속도로 치솟을 수 있다(Barnett, 2007).

한 걸음 더 나아가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의 문화를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망한다면 어떨까? 특히, 흔히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시장중심주의적 정치경제 체제가 조형하고 있는 세계의 풍경을 고려한다면 또 어떠할까(지주형, 2011; Bauman, 2000; 2007; Lazzarato,

2004)? 많은 비판적 연구자들은 “신자유주의” 정치경제 체제가 대학생들의 삶과 대학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조한혜정, 2011a; 2011b; Abelmann, Park & Kim, 2009; Apple, 2001; Bauman, 2009; Callinicos, 2006; Giroux, 2013; Willis, 2010). 개인적으로 이러한 연구에 (때로는 거리를 두고) 공감할 수밖에 없지만, 그 구체적 내용을 이곳에서 반복할 여유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연구들이 지적하는 바는, 오늘날이 거시적인 상황이 적극적으로 ‘불확실한’ 삶의 조건들을 조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불안”도 이러한 삶의 조건 위에서 몸집을 키운다. 이때 연구 참여자들은 오늘날의 세계에서 ‘삶의 좌표’를 잃기 십상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활의 이중적 지향성은 더욱 더 ‘좇기’에 가중치가 실릴 여지가 크다. “불안”의 시대에는 세계로 나아가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려는 노력보다는, 더 “안정적인” 선택지를 좇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되기도 한다. 즉,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믿기보다는 “만들어진 범주 안에 가능성을 가두어” 버리는 것이 더 지배적인 삶의 양식이 될 수 있다(Lazzarato, 2011/2012, pp.105-107).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했듯, 대학생들은 ‘다른 그 무엇’을 찾기보다는 현재 ‘있는 무엇’을 좇기가 더 적절하고 “합리적인” 선택지가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Ⅲ장에서 고백한 바 있는 사회생활과 홀로서기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 이러한 거대한 “불안”의 조건과 박자를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오늘날 어떠한 세계지평 위에서 살고 있는지 너무나 잘 ‘간파(Willis, 1997)’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때로 자신이 “명문대”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자부심”이 아닌 “안도감”을 느끼기도 하지만[47], 시대적인 “불안”으로부터 홀로 자유롭기는 어렵다. 이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세계에 의해 대학생들의 찾기 경험이 지양될 것으로 여겨진다면, 이들의 찾기 경험은 소위 말하는 “잉여”의 경험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백소영·엄기호 외, 2010). 경제적 생존을 위해서는 “잉여”의 경험이 아니라 “쓸모 있는” 경험, 이를테면 “스

47)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보편화 하지 않고, 스스로 맥락화 하기도 하였다. 특히 한울대학생 중에서도 한지민, 송현진, 정다인 등이 그러한 인식이 강하게 있었다. 이들은 주변에 있는 한울대학생들보다 다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더 해야 하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며, 그렇기에 자신보다 “좀 더 조급해 보여서” 안타깝다고 느낀다고 한다.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보통 그 안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주형일(2010)이 만난 지방대학생 민주는 이렇게 말한다. “항상 지방대생이라는 게 있다. 높은 대학교가 아니라 지방대에 있는 학생이니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p.102).”

펙 쌓기"를 할 필요가 더 높아지기 마련이다(장성연, 2013). 이런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겪은 실존적인 찾기 체험은, 유민정의 표현처럼 "그냥 그건 제가 재밌어 하는 거"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 즉, 찾기 체험에 내재되어 있는 교육적 가능성은 배제되거나 억압되어 삶의 배경이나 각자의 골방에만 머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오늘날의 정치경제 체제는 '불확실성'과 "불안"을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기를 강요하지만, 사람들을 일종의 '기업가적 주체'로 만들어 자기계발을 통해 생존할 방식을 '스스로' 찾도록 조장하기도 한다(서동진, 2009). 하지만 과연 이렇게 '강요된 찾기'가 엄밀한 의미에서 '실존적'인 경험일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날의 세계가 조성하는 "불안"과, 자기 자신의 존재가능과 열린 시간을 직면하고 있는 현존재들의 실존적 '불안(Heidegger, 1932)'을 구별해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후자의 '불안'은 주어진 것이나 특정한 기성의 목표를 좇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삶과 존재이해를 향한 교육적 지향을 찾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서일 수 있다.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확장되는 대학생활 경험이 대학 외부의 세계에서도 긍정되고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때, 대학에서의 경험은 얼마든지 교육적 가능성과 연접하고 또 이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찾기 지향의 삶이 긍정될 수 있을 때 대학생들은 범상한 기성의 가치를 좇는데 머물지 않고 '세계-로의-존재(Merleau-Ponty, 1945)'이자 '조건을 짓는 존재(Arendt, 1945)'로서 실존적인 삶의 지향을 각자의 일상에 통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교육'의 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오늘날 대학은 이러한 삶의 지향을 촉진하고 있는가, 방조하고 있는가, 혹은 막아서고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대학생활의 이중적 지향성으로서 '좇기'와 '찾기'의 교육적 가능성과 의미에 대해 교육인류학의 관점을 통해 해석해 보았다. 나는 지금까지의 해석을 대학생활의 교육적 가능성과 의미가 더욱 잘 발현되고 생성될 수 있기를 바라는 교육인류학적 비평이자 개입이라고 부르고 싶은 욕심을 지우기 어렵다(Markus & Fischer, 1986). 하지만 우리는 삶과 문화와 교육이란 결코 지금까지 해석만으로 간단히 규정할 수 없는 '두꺼운' 개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시도하였던 대학생활에 대한 해석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기란 어렵기 마련이며, 앞으로도 거듭 다른 언어를 통해 '재서술' 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아쉬운대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부터는 이러한 해석에 근거를 두고 '대학교육'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보자.

2. ‘좇기’와 ‘찾기’ 사이에서: 존재론적 대학교육의 지향

> 가능성에 빠져 있는 사람의 눈은 현기증을 느끼고 혼란에 빠진다. 가능성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위험에 노출된다. ...(중략)... [하지만] 교육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불안을 오해하게 되면, 불안은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길을 영영 잃게 만들 수 있다. 반면, [가능성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불안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 사람은 불안이 만들어낸 무수한 질곡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Kierkegaard, 1981)

> 적절히 뿌리를 내릴 수만 있다면, 대학은 존재물음(Seinfrage)과 가치물음(Wertfrage)이 다시 한 지붕 아래에 모여 그 나누어 살필 수 없는 탐구를 수행할 수 있는 발상지가 될 수 있다. (Heidegger, 1945)

대학이란 무엇인가? ‘대학교육’[48]의 의미는 무엇인가? 대학교육은 계속 변화해야 하는가? 또한 대학생활과 대학교육은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한 교육학자로 바넷(Barnett, 2011)을 꼽을 수 있다. 바넷은 현상학적 존재론을 전유하여 대학의 ‘있음’과 ‘되기’의 문제를 다룬다. 바넷은 대학도 하이데거의 ‘현존재(Heidegger, 1932)’와 마찬가지로 존재물음을 던질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에 바넷은 대학이란 시간의 흐름에도 변치 않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각 대학의 ‘존재의 역사’ 위에서 생성되어온 것으로 이해한다. 바넷은 대학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다양한 대학의 형상들이 등장하였고,

---

48) 나는 여기에서 흔히 쓰이는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대신 ‘대학교육’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 왜냐하면 ‘고등’이라는 표현에는 고도로 가치가 집약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고등’의 수준이나 영역은 한 시대에서도 다르게 정의될 수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 이를테면 식민지 시절 도입된 공교육의 초기 단계에는 중학교 교육이 일종의 ‘고등교육’을 의미하기도 했다(김현경, 2008). 또한 서구식 대학이 도입되기 전에는 성균관 등의 기관이 ‘고등교육’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되었다(馬越徹, 1997). 최근에는 대학의 외부에 다양한 인문/사회과학적 교육공간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공간에서 ‘고등교육’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대학교육’이 과연 ‘고등교육’인가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반면 ‘대학교육’은 제도적인 측면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가치에 대한 해명 부담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여기에서 ‘대학교육’을 대학이라는 제도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세미나, 또는 기타 제도화된 학습 등을 포괄하는 느슨한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들이 복잡하게 얽혀 오늘날 대학을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대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감안하면서, 바넷은 대학이 지금-여기의 특정한 형상으로 있음을 넘어서 자신의 존재가능으로 기획투사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학은 늘 변화해 왔고, 오늘날의 시대에 맞게 또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면서 변화할 수 있다. 바넷은 이러한 존재론적 탐구에 기반하여, 새로운 대학의 이념과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존재론적 관심에 조금 더 충실한 대학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는 국가체제나 정당, 대기업 등 대학 외부의 영향력을 좇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대학의 정체성과 본래적(authentic) 이념을 찾는 과정으로 이해되기도 한다(Barnett, 2011). 오늘날 대학은 '좇기' 지향으로 기투할 수도 있고, '찾기' 지향으로 기투할 수도 있다. 선택과 결단에 따라, 대학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갈(becoming)' 수 있다. 다시 말해, 대학은 '세계-내-대학'이며 동시에 '세계-로의-대학'이다.

나는 바넷의 관점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되,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대학생활에 대한 해석의 잠정적 결과를 '대학교육'에 대한 논의와 연접시켜 보려고 한다. 나는 여기서 대학교육이 특정한 형상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를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나는 다만 오늘날 대학교육이 품을 수 있고 촉진할 수도 있는 어떤 '지향'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할 따름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앞으로의 논의가 선험적인 명제에서 연역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에 기반을 둔 해석 작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학문적 기획투사'에 가깝다(Heidegger, 1932). 교육인류학의 학문적 장점 중 하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과 문화와 교육에 대한 탐구를 통해 존재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드러내고 긍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대학생들의 삶 뿐 아니라 대학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러한 탐구 위에서 우리는 더 나은 대학교육의 지향이 어떠하면 좋을지 탐색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대학은 역사의 지평에 처음 등장한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Mcneely & Wolverton, 2008; Tight, 2003). 오늘날 대학은 교육의 역할, 즉 "가르치고 배우는 일 외에도 학술, 연구, 자문, 지식 이전, 공적 참여 및 다른 많은 기능(Barnett, 2011/2011, p.25)"을 수행하고 있다. 대학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대학교육은 대학이 떠맡은 수많은 역할 중 하나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대학에 대한 연구도 하위 연구 영역으로 다양한 대학의 역할들을 체

계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Tight, 2003).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인 대학생의 삶과 문화와 교육도, 대학 연구라는 제도화된 연구 실천에서 보자면 하나의 분과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대학이 계속하여 전문화되고 체계화되고 있으며, 강력한 사회적 제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발달한 제도에 의한, 이른바 '생활세계의 식민화'라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학이 떠맡고 있는 다양한 역할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 자체의 이념이나 목적에 봉사할 수도 있다. 또한 더 나은 대학교육을 위해서는 필요한 '교육의 환경(장상호, 2009a)'을 조성하는 방법이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점차 증가하는 대학의 역할은, 한편으로 대학이 복잡한 사회적 관계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방증하기도 한다. 거대해져가는 대학은 정부나 정당 같은 정치영역, 기업 등의 경제영역, 시민단체나 언론 등의 사회영역, 세계화의 압력 등 다양한 관계로부터 결코 자유롭기 어렵다. 대학의 구성원들은 현대 사회의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바쁘게 지내기 마련이다. 이제 대학은 더 이상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공동체'만도, 연구자들의 '학술공동체'만도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육'의 의미가 점차 잊혀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새롭게 등장하기도 한다(Barnett, 2011; Batchelor, 2006; Dall'Alba & Barnacle, 2007; Thomson, 2001).

우리는 연구 참여자들이 수업 중심의 대학교육에서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지를 이미 살핀 바 있다. 이들은 대학에서 만난 수업에 실망감을 금치 못하였으며, 교수자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도 못하였다.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고 평가하는 수업에 실망하고, 학생들의 관심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진도"만 나가는 교수자에게 실망한다. 연구 참여자들이 보기에, 대학교육은 다양한 길에 열려 있기보다는 체계화되고 정해진 길을('홈패인 공간') 좇도록 종용하는 편이다. 그래서 어떤 연구 참여자들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수업을 통해 지식이 늘었거나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기 보다는, "점수 잘 따는 법", "교수에게 잘 보이는 법"만을 배웠다고 자조하기도 한다. 이렇듯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 특히 수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서 대체로 소외되어 주어진 조건을 좇기에도 바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에 대해 "학점관리"라는 문화적 지향과 '전술(de Certeau, 1984)'로 대처하곤 했다. 수업의 결과로 남는 학점은, 그 자체로는 아무 사용가치가 없을 수 있지만 더 나은 직장이나 진로로 전환될 수 있는 일종의 '교환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간단하게 비판해서는 곤란할 수 있다.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대로, 오늘날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다양한 사회사적 변화도 고려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무용하겠지만, 이를 하이데거의 용어를 통해 다시 한 번 해석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technology)'이 현대에는 인간의 삶을 '닦달(몰아세움, das Gestell)'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Heidegger, 1977). 흥미로운 점은, 하이데거는 닦달을 단순히 현대 사회의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서만 사유하지 않고, 인간의 실존의 양상을 이해하는 작업의 중심에 세우기도 한다(Thomson, 2001). 닦달은 영어권 학계에서는 'enframing'으로 번역되며, 존재자의 존재와 존재가능을 일정한 틀(frame)안에 가둬두고 한계 짓는 모든 행위와 담론, 구조, 체계를 가리키는 의미로도 확장된다. 존재질문을 던지는 본래적인 현존재로 살아가는 일은 오늘날의 닦달 속에서 어려워진다. 대학도 대학 고유의 '본래성'으로 기투하는 일로부터 멀어지고 수단화되며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기 마련이다(Barnett, 2011).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대학교육은 이를 둘러싼 다양한 영역의 요구에 '닦달'을 당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하이데거도 일찍이 현대 대학의 이러한 경향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Heidegger, 1945). 덧붙여 대학생들도 대학생 문화의 범상성, "학점관리", 나이주의와 사회생활에 대한 압박감, 홀로서기를 방해하는 현실 등으로부터 닦달을 당하고 있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Barnett, 2007). 이러한 경향을 이 연구의 키워드를 통해 다시 서술하자면, 대학교육과 대학생들의 삶은 다양한 '좇기' 압력으로부터 닦달을 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교육의 다양한 가능성 또는 대학생들의 무수한 삶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마치 가두리 양식장의 물고기들처럼 특정한 틀 속에 갇힌 채 겨우 숨만 쉬고 있는지도 모른다. 좇기와 찾기 사이에서 가능성의 존재로서 살아가기보다는, 획일적인 가치나 의미를 좇기에도 바쁜지도 모른다.

물론 닦달은 세계-내-존재로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조건이다(Heidegger, 1974). 그러나 닦달만이 지배적인 삶에서는 결코 실존적인 '시간의 향기(Han, 2009)'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세인들의 평균적인 존재이해에 머물면서 삶의 '공허한 지속'만을 보게 될 수도 있다(Heidegger, 1932; Han, 2009). 대학은 삶의 총체적인 교육적 변화가 일어나는 배움-터가 아니라, 학위수여 기관이나 직업훈련 학원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또한 대학은 삶의 질적 측면과 존재가능은 보지 못하고 문적인 것을 좇기에만 급급하여 마음 졸이며 분투하는 사람들의 집합, 즉

‘피로사회(Han, 2010)’의 진지(陣地)로 전락할 수도 있다. 늘 “바쁘고 피곤하다”고 말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삶과 문화와 교육은 과연 안녕할까? “삶의 감압(減壓)이 사회적 공간의 새로운 구조를 가능하게(Merleau-Ponty, 1945/2002, p.665)” 한다는 지적을 상기한다면, 과연 우리의 대학은 이러한 “새로운 구조”의 가능성과 여지를 대학생들에게 열어주고 있을까?

물론 대학도 ‘닦달’하는 주변 상황을 단순히 좇기만 하지는 않는다. 연구 참여자들이 각자의 삶의 맥락에서 다양한 찾기의 노력을 해왔듯, 대학도 나름대로 더 나은 대학생들의 삶과 대학 교육을 위해 찾기 노력을 많이 해왔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대학교육에 대한 많은 염려와 연구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학은 대학생들을 위해 일상 및 취업, 진로 상담 또는 자조(自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도 한다. 해외연수 기회도 많이 늘었고, 각종 인턴십 및 체험연수 프로그램의 자리 숫자도 늘어간다. 연구 참여자들도 이렇게 대학에서 늘어나는 기회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몇몇 연구 참여자들은 이 기회들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또한 고무적이게도 몇몇 대학에서는 취업지향 문화가 거세질 때 오히려 기초교양 수업을 강화하기도 했다. 교육적 신념이 있는 교수자들도 대학에서 점차 실종되어 가는 교육적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면서, 어떻게 대학이 다시 ‘교육다운 교육’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기도 했다(송호근 외, 2010; 조한혜정, 2011a). 연구 참여자들의 대학생활이 그랬듯, 대학교육도 ‘좇기와 찾기 사이’에서 부단히 움직이면서 자신의 존재가능으로 기획투사할 수 있다. 물론 그 노력이 얼마나 ‘교육적’이냐 하는 질문을 거듭 던질 필요가 있다는 점은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그런데 대학생활과 대학교육이 만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의미 있게 검토해 보지 못했다. 과연 오늘날 대학생활과 대학교육은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또는,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Ⅳ장을 시작하면서 나는 대학생활(대학생의 삶)과 대학교육을 애써 구분하였고, 이러한 구분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존재는 교육의 과제이고 교육은 존재의 과제(조용환, 2001a, p.2)”라는 존재론적 교육학의 지향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대학생활과 대학교육이 만나는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이를 각각 좇기 지향과 찾기 지향으로 나누되,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유형화 하였고 그 잠정적 결과를 아래의 <표 5>로 정리해 보았다. 유형들이 ‘이념형(ideal type)’

적인 구분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현실성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가능성과 잠재성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소 단순한 도식화이지만,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는 여러 대학교육의 지향을 상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5> 대학생활과 대학교육의 만남 유형

구 분		대학교육	
		좇기 지향	찾기 지향
대학 생활	좇기 지향	A유형 (좇기-좇기)	B유형 (좇기-찾기)
	찾기 지향	C유형 (찾기-좇기)	D유형 (찾기-찾기)

먼저 A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는 대학생들의 삶의 지향과 대학교육의 지향이 모두 좇기를 선택하는 경우다. A유형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대학도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원리와 가치들을 따르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닦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보다는, 오늘날의 지배적 체제에 적절히 순응하면서 대학생활과 대학교육의 존재 의의를 찾을 수도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권 교체, 시장 트렌드의 변화, 세계화 물결 사이에서, 대학은 적극적으로 시세에 발을 맞추어 교육제도를 개편할 수 있다. 대학생들도 저마다 구체적인 꿈과 목표는 다를지라도, 이러한 흐름을 변화할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이에 맞추어 좇기 지향으로 변양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A유형은 대학생활과 대학교육에 살아 있는 다양한 존재가능을 침묵시고 가둬둔다는(enframing) 점에서 가장 '비교육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B유형이다. 대학생들은 보다 좇기 지향적이지만 대학은 찾기 지향을 갖는 경우다. 이는 오늘날 대학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감안하자면 다소 희박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한 번 상상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만남이 일어날 때 대학생과 대학은 '충돌'하게 될 수도 있다. 대학생들은 새로움에 열려 있지 않고 정주적 주체로서 주어진 트랙과 '홈패인 공간'에서 살아가고자 하는데(Deleuze, 1980), 대학교육은 대학생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 것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이 대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는 이상(예,

학점을 통한 평가 및 학위 수여 기능), 대학생들은 마지못해 대학의 방침들을 따를 수도 있다. 이때 대학교육의 찾기 지향은 대학생들에게는 새롭고 더 골치 아픈 좇기 압력으로 여겨질 가능성도 높다. 그렇다면 여전히 이러한 만남은 '교육적'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C유형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C유형은 대학생들은 찾기 지향적인데 대학은 좇기 지향적인 경우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 중 다수가 실제로 많이 체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들은 주어진 조건을 좇지만은 않고, 대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관계를 구성해 나가고, 가능성을 발견하며, 다양한 경험을 해나가고, 자신의 자리를 찾으며, 캠퍼스를 넘나들면서 잠재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이럴 때 대학교육에 대해서 실망을 할 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대학교육은 오늘날의 세태가 초래하는 '닦달'에 더 충실하게 스스로를 변양해 가면서, 이에 맞추어 찾기 지향의 대학생들을 더 옭죌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른바 '학사관리 엄정화', '복수전공/부전공 의무화' 등으로 제도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대학생활이 "퍽퍽"해졌다는 이야기를 적잖이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만남은 대학이 오히려 대학생의 교육적 노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D유형이다. D유형은 대학생과 대학 모두가 찾기 지향인 경우다. 물론 이는 A유형과 마찬가지로 다소 극단적인 만남일 수는 있다. 그러나 나는 D유형이 가장 '교육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생과 대학 모두 주어진 조건만을 좇지 않으며, 있음과 되기에 대한 부단한 질문을 통해 새로운 만남과 경험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학생들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총체적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고, 대학교육도 매년 새로 들어오는 대학생들을 맞이하고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본래적(authentic)'인 방식으로 스스로를 재구성 할 수도 있다(Heidegger, 1945). 여기서 '본래적'이라 함은 대학교육을 특정한 가치에서만 재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잠재해 있는 무수한 존재가능에 주목하여 대학교육의 새로운 이념과 가능성을 탐색하는 부단한 존재론적 운동의 양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때 대학생의 삶과 대학교육의 있음과 되기는 언제나 상호간에 관계를 맺게 되며, 따라서 이는 존재론적인 만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찾기의 과정이 비의도적이고 우연성에 개방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부단한 과정 자체가 이미 한편으로는 교육의 과정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D유형의 만남은 존

재의 현실성보다는 가능성과 잠재력에 더욱 초점을 맞춘 만남이라는 점에서, '존재론적 교육학'을 지향하는 이 논문에는 가장 적절해 보인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이러한 유형화는 사태를 상당히 단순화 시킨다. 좇기와 찾기는 대학생활과 대학교육에서 그렇게 단순하게 구별되기는 어려웠다는 점은 앞에서도 계속 살펴본 바이다. 대학생활이든 대학교육이든, 언제나 '좇기와 찾기 사이'에 있다. 이러한 '사이'는 오늘날의 대학생활과 대학교육을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더욱 복잡하면서도 풍성한 의미의 지평 속에 던져준다. 우리는 이러한 복잡한 관계와 운동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다소 단순하게 유형화하여 살펴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대학생활과 대학교육의 만남의 양상 속에서 어떤 새로운 지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D유형에서 살펴본 대로, 찾기와 찾기의 만남으로서 '본래적'인 존재론적 대학교육이라는 지향성이었다(Barnett, 2011). 이는 인식론 지향의 대학교육, 또는 세태의 닦달을 좇아가는 기능주의적/도구주의적인 대학교육과 구별될 수 있다.

기능주의적/도구주의적인 대학교육과의 구별은 앞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한 듯하다. 그렇다면 인식론적 대학교육과 존재론적 대학교육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나는 이를 '지식'과 '앎'을 대비시킴으로서 논의해 보려고 한다. 사실 연구 참여자들 사이에서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 지식' 자체를 높이 평가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이들이 생각하는 '좋은 대학교육'에 있어서 전공 지식은 '기본'에 그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 수업이 끝나거나 시험이 끝나면 한 학기가 지나기 바쁘게 들은 바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워낙 많은 수업을 들어야 하는 대학의 현실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지배적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교육과 자신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는 대학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대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깨달아가는 특정한 '앎'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미셸 푸코는 '지식'과 '앎'을 구별하여 사용한다(Foucault, 1999; 2001). 푸코에게 "지식(connaissance)"이란 "확고한 주체와 확고한 대상 영역 간의 관계의 구성"에 대한 것으로, 지식의 증가와 명증성, 합리성에 관심을 갖는 탐구의 결과이다(Foucault, 1999/2004, p.72). 특히 푸코는 근대에 들어서면서, 주체가 진실을 파악하려면 정밀한 '인식론'에만 의존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사유방식의 대전환'이 일어났다고 본다. 이때 지식의 주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전환'

의 핵심이다. 이러한 사유방식에서, 진실은 주체의 실존과 무관한 인식론적 접근을 통해 획득된 객관적, 과학적 지식의 형상을 한다. 인식론적 대학교육은 이러한 관점에 가까운 지식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한 내용을 전달해주든(지식 전달), 아니면 학문사적으로 형성된 엄밀한 방법론을 전달해주든, 이는 진실에 대한 배타적이고 항구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인식론 지향이 강한 '좇기' 교육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푸코에게 '앎(savoir)'이란 인식론적이면서 동시에 존재론적인 과정으로 이해된다. 푸코는 흥미롭게도 특히 '앎'이 늘 '주체의 변형'과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Foucault, 2001). 다시 말해, 푸코에게 '앎'이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로 인해, 아니 차라리 알기 위해 행한 노동에 의해 변경되고 있는 과정"으로 정의된다(Foucault, 1999/2004, p.72).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푸코가 개념화하는 '앎'은 인식론적인 지식의 단순한 증가나 축적이 아니라, 곧 존재론적인 변화와 배움, 성장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들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배웠다고 말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이러한 종류의 '앎'일 것이다. 이들은 '앎'의 지속적 확장 속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을 얻을 수 있다. '앎'은 언제나 스스로 구성되어 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존재가능에 열려 있으며, 따라서 현존재의 존재물음을 통해 개시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앎'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Heidegger, 1932).

앞에서 언급했듯,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좇기도 하고 찾기도 하면서 살아왔다. '좇기와 찾기 사이'에서, 이들은 저마다의 삶을 꽃피우고 많은 것들을 배우며 '앎'을 형성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배첼러(Batchelor, 2006)의 지적처럼, 오늘날 대학생들이 부모나 고용주의 요구, 또래 집단 분위기와 같은 주변 압력 때문에 존재물음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존재물음이 제거될 경우, 대학생들의 '실존적 목소리'는 약화되거나 평가가 절하되기 마련이다. 나는 오늘날 대학생들의 존재와 실존에 대해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연구 참여자들이 '지식'이 아닌 '앎'을 더욱 중시하게 된 것도, 어쩌면 '앎'을 경시하는 주변의 압력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앎'을 형성하며 살 수 있을까?

한편, 찾기를 지향하면서 사는 대학생활은 아무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Heidegger, 1932). 어느 누구도 온전히 도와주거나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자

신의 존재가능으로 기획투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평균적인 존재이해에 머물면 존재부담을 덜 수는 있겠지만, 존재가능으로 자신의 삶을 개방해 가려는 노력을 하는 한 특정한 부담감과 '불안'은 이들의 어깨를 짓누를 수 있다. 그렇기에 '불안'은 어느 순간 존재물음을 던지는 실존적 과업을 포기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찾기보다는 좇기를 지향하는 삶을 살도록 종용될 수도 있다. 앞에서 인용한 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이렇듯 우리는 '불안'속에서 "현기증을 느끼고 혼란에 빠진" 대학생들을 목격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학교육은 '불안'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점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교육은 실존론적 '불안'과 시대적 "불안"을 구별하고, 대학생들이 '불안'과 "불안"의 만남으로 인한 상승효과에서 길을 잃지 않고 "무수한 질곡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Kierkegaard, 1981). 나는 이러한 노력이 존재론적 대학교육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생활이 아닌 대학교육 자체에 대해서는 어떨까? 대학은 스스로 '불안'을 느끼면서 대학교육의 존재가능을 발견하려고 하는가? 대학생들의 삶과 배움, 성장에 대해 조력하는 것으로 대학교육의 역할은 완수 되는가?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대학은 오늘날 많은 '닦달'의 관계 속에서 어렵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Barnett, 2011). 만약 이러한 닦달의 관계를 존재론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다시 성찰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낼 수 없다면, 앞에서 살펴본 대학생활과 대학교육의 몇 가지 가능성은 부분적이고 국지적인 '발버둥'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Heidegger, 1945).

이제는 대학생들의 삶과 배움, 성장에 대해 더욱 깊고도 너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학교육을 지향할 때가 아닌가 한다. 또한 대학생들의 앎의 생성이 지금까지 쌓아온 인류의 지혜와 만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 더 나아가 세계에 머물 뿐 아니라(세계-내-대학), '더 나은' 공동의 삶과 문화와 교육을 모색하며 나아가는(세계-로의-대학) 존재론적 대학교육에 대한 담론이 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다. 하이데거의 말처럼, 본디 "나누어 살필 수 없는" "존재물음과 가치물음"을 동시에 던질 수 있는 대학을 상상하고 싶다는 뜻이다(Heidegger, 1945). 그리하여 구성원들의 교육적 가능성과 존재가능을 더욱 심려하는 대학의 가능성을 만나고 싶다. 즉, 나는 오늘날의 가능성의 대학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싶고, 동시에 새로운 대학교육의 가능성도 보고 싶다. 어느 것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우리의 대학은 결코 온전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Ⅴ.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논의를 거쳐 마침내 끝에 서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려고 한다. 최대한 압축적으로 서술하고자 하였으나, 그러지 못했던 경우도 많아서 요약하는 작업은 그리 쉽지 않았다. 연구 내러티브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요약할 수 있겠지만, 연구 내러티브의 바탕이 된 연구 참여자들의 삶은 결코 요약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해 두고 싶다. 연구 내용에 대해 간략히 요약을 하고 난 다음, 나는 연구의 잠정적인 '끝'에 선 지금 이 연구가 가진 한계에 대해 논의하되 어떻게 다음의 작업으로 이어지는 '시작'을 상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이는 일종의 해석학적 순환을 기록하는 것이며, 동시에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배움과 성장의 경험을 한 연구자의 교육적 체험을 기록하는 것이기도 하다(조용환, 2004).

1. 요 약

이 연구는 소위 '신자유주의' 혹은 '경제위기'의 시대로 인식되는 오늘날, 흔히 새로운 '곤경'과 '위기'에 처해 있다고 언급되는 대학생들의 삶과 문화와 교육을 질적 연구와 현상학적 존재론의 관점을 통해 이해해 보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나는 아홉 명의 연구 참여자들을 만나 이들의 대학생활 이야기에 주목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대학생들이 처해 있는 각종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먼저 현상학적 존재론의 관점에서 이들의 '존재'와 '존재가능'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이는 곧 대학생들의 '있음(being)'과 '되기(becoming)'의 존재론적인 역동과 생성을 이해하고자 한다는 뜻이다. 연구의 초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 논문은 '좇기'와 '찾기'라고 하는 이중적인 삶의 지향성을 현상학적 존재론의 관점에서 이론화 하였고, 이를 연구 내러티브의 분석과 해석 과정에서 주요한 키워드로 삼고자 하였다.

이 논문에서 내가 제기한 연구 문제, 즉 이끎-길은 다음 세 가지였다. 첫째, 대학생들은 어떤 '좇기'와 '찾기' 과정을 거치며 대학생활을 해왔는가? 둘째, '좇기'와 '찾기'는 어떠한 대학생활의 이야기 주제를 통해 표현되는가? 셋째, '좇기'

와 ‘찾기’의 교육적 가능성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본 대학생활의 교육인류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이러한 세 가지 질문이 이루고 있는 이끎-틀을 통해서 연구 참여자들의 대학생활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더 나아가 오늘날 대학교육에 던질 수 있는 함의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연구 문제에 따라 연구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Ⅱ장에서 나는 첫 번째 연구 문제에 답하여 한지민, 정다인, 이한결, 민윤진, 유민정 다섯 연구 참여자의 대학생활 이야기를 소개하였다. 나머지 네 연구 참여자, 즉 송현진, 서주희, 박태훈, 김우진의 이야기에 비해서 ‘좇기’와 ‘찾기’로 의미화될 수 있는 삶의 과정이 대학생활 이야기 속에 비교적 잘 드러났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은 각기 다른 리듬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왔다. 저마다 꾸면서 좇아온 꿈이나 목표도 달랐고, 저마다 중요시한 가치도 달랐으며, 찾아 나섰던 대상이나 삶의 지향도 모두 달랐다. 나는 이들의 생애사적 과정에서 중요했던 전환점을 중심으로 대학생활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나는 이들의 대학생활 과정에서 드러난 좇기와 찾기의 유형을 드러내어 간략하게 비교할 수 있었다. 먼저 좇기와 관련해서는 ‘문제제기형’, ‘거리두기형’, ‘낙관전환형’, ‘체념납득형’, ‘자유지향형’이라는 다섯 유형이 발견되었고, 찾기와 관련해서는 ‘의미탐색형’, ‘성취지향형’, ‘목표추구형’, ‘동조제한형’, ‘재미지향형’이라는 다섯 가지 유형이 발견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대학생활이 꼭 이러한 유형에 엄밀하게 들어맞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인 비교를 통해 대학생활 이야기의 다양성을 조금 더 선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었다.

둘째, Ⅲ장에서 나는 두 번째 연구 문제에 답하여 대학생활의 이야기의 다양한 측면들을 ‘주제화’한 다음, ‘좇기’와 ‘찾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주제들을 연접시켜 연구 참여자들의 복잡한 되기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먼저 좇기와 관련해서는 총 다섯 가지 주제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주제는 “그냥 대학생”으로서, 연구 참여자들이 마주하게 된 대학생 문화의 ‘범상성’이 얼마나 대학생들에게 특정한 모습을 좇기를 강요하는지에 대해 드러내었다. 두 번째 주제는 “학점관리”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활동을 하는 탓에 시간적 압력에 시달리고 강의실의 권력 관계에서 소외되면서, ‘효율성’의 관점에서 “학점관리”라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이는 “공부”와 “학점관리”를 동일시하는 경향 뿐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수업의 평가기준을 적극적으로 좇게 하는 기제였다. 세 번째 주제는 “나이가 많아지니까”로서, 연구 참여자들이 지각하고 체험하는 ‘나이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점점 다른 가능성을 찾기보다는 '안정적'이라고 지각되는 목표와 꿈을 좇는 경향이 있었으며, 때로 이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이중적 기준이기도 했다. 네 번째 주제는 "성인"의 시간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우울함 속에서도 사회생활이 얼마나 엄격한 위계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깨달아 갔으며, 점차 자신의 존재가능을 찾기보다는 주어진 사회적 조건과 압력을 좇아 스스로를 변양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다섯 번째 주제는 "부채감"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점차 높아지는 고비용의 대학교육 때문에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 졸업이 다가오고 '홀로서기'를 시도함에 따라, 이들은 부모에 대한 "부채감"을 강하게 느끼며 사회경제적 보상이 많은 진로를 좇아가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다음으로 찾기와 관련해서도 다섯 가지 주제를 살펴볼 수 있었다. 첫 번째는 '따로 또 같이'라는 주제로서, 연구 참여자들이 대학생활의 범상성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다가 자기 자신에게 의미 있는 관계들을 찾아 나서는 과정의 역동을 드러내었다. 두 번째는 "청춘"의 시간이었다. 대학생 문화에서 "청춘"은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실험하는 시기로 인식되며, 연구 참여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한 길"만 가는 것을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여기기도 하였다. 세 번째는 "더 많은 경험"이라는 주제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청춘"의 시간에 발맞추어 주어진 시간 하에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사회생활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학부 시절에 최대한 "더 많은 경험"을 찾아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네 번째는 "나는 누구, 여긴 어디"라는 주제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생활을 하는 내내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찾고 있었다. 이는 물리적이고 관찰 가능한 공간을 뜻하기도 했지만,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나 모임을 뜻하기도 했고, 더 추상적으로는 "사회"와 "세계"가 자신과 맺고 있는 관계성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들에게 자리는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각자의 '존재이해'와 깊숙이 연관되어 있었다. 다섯 번째는 "세계"와 만나기라는 주제다. 연구 참여자들은 결코 한 대학 캠퍼스에만 머물지 않으며, 특히 고학년이 되어서는 "범학교 활동"이라고 분류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등 다양한 외국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도 하였다.

한편 이러한 주제들의 구분은 물론 분석적인 편의와 명료화를 위한 것이었다. 나는 실제로 좇기와 찾기가 대학생활의 이중적 지향성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의 삶에 복합적으로 ‘주름’잡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어느 누구도 좇기만 하는 사람은 없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좇기와 찾기를 통해 살펴본 대학생활의 주제는 각자의 삶에서 복잡하게 교차되고 융합되어 있었다. 각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 특정한 주제가 부각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더불어 좇기와 찾기는 시간적 전개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즉, 고등학교부터 대학생활 초기까지는 정해진 꿈이나 사회문화적인 압력을 좇다가, 대학생활에 적응되고 난 뒤에는 저마다 다르게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등 찾기를 삶의 중심에 두고 노력해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졸업이 눈앞에 두면서 이들은 “대4병”을 앓게 되기도 하고, 저마다 방법이나 정도는 달랐지만 점차 안전하거나 금전적 보상이 많은 직업 경로를 좇게 되는 경향이 컸다. 이는 이들의 삶이 결코 오늘날의 경제적인 분위기 및 사회문화적인 과정과 분리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Ⅳ장에서 나는 앞에서 다룬 대학생활 이야기와 여러 이야기의 주제들이 내포하는 교육적 의미와 가능성을 교육인류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해보고자 하였다. 교육인류학이란 삶의 형식으로서 문화와 교육을 중심으로, 특히 메타적인 삶의 형식으로서 교육의 관점에 주목하여 더 나은 삶과 문화와 교육을 모색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특히 좇기와 찾기라는 이중적 지향성이 교육인류학적으로 어떠한 교육적 의미와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좇기 압력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일종의 ‘경계적 존재’로서 다양한 문화 사이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대학생활이 처해 있는 오늘날 한국의 거시적인 상황에 대한 해석을 통해, 오늘날 대학생들이 “불안” 속에서 ‘좇기’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학도 마찬가지로 ‘닦달(Gestell)’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나는 이러한 해석에서 더 나아가, 오늘날 대학교육이 어떠한 지향을 가지면 바람직할지 살펴보았다. 나의 잠정적 결론은 오늘날 대학은 더욱 더 ‘존재론적 대학교육’의 가능성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었다. ‘세계-내-존재’이자 ‘세계-로의-존재’로서 대학생들의 삶과 실존, 목소리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뿐 아니라, 대학 스스로도 더욱 존재론적인 관점 속에서 재구성 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대학생과 대학의 존재와 존재가능이 교육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의 대학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를 위해 새로운 ‘대학교육의 가능성’의 지평을 드러낼 수 있는 교육학적 상상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였다.

2. 시작에서 끝으로, 끝에서 시작으로

지금 중요한 것은 감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더 잘 보고, 더 잘 듣고,
더 잘 느끼는 법을 배워야 한다
— 수전 손택(Sontag, 1966/2002, p.35)

이 연구가 많은 면에서 부족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일은 연구 참여자들을 만나기 시작하여 마침내 글을 쓰고 수정하게 되는 연구의 모든 과정 내내 반복되는 일이었다. 연구자로서 학술적 역량이 얼마나 부족한지, 연구 주제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지, 또 나 스스로부터 연구 참여자들의 삶에 대해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는지를 질문하면서 회의감에 시달릴 때가 많았다. 무엇보다 연구 참여자들이 나에게 나누어준 시간에 비해 좋은 성과를 내놓지 못하는 것 같다는 자괴감이 가장 컸다. 이는 더 나은 삶과 문화와 교육을 꿈꾸면서 연구하는 작업이 얼마나 지난하고 어려운 작업인지 새삼스레 깨달아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는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 실천과 경험의 문제라는 점을 깨단할 수 있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연구 참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예상치 못한 깨달음에 희열을 느끼던 순간을 떠올리며 지금까지 비틀비틀 올 수 있었다. 질적 연구가 곧 질적 교육일 수 있다면(조용환, 2004), 비록 부족하지만 나의 연구 과정은 '교육'의 과정이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배움과 성장 과정은 앞으로의 학업에서 더 정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연구자의 오래된 상심에서 출발했다. 학부를 다니던 시절, 나는 자유로웠던 대학생활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감을 느꼈지만 강의를 중심으로 한 대학교육에 대해서는 회의감을 느끼다 못해 때로는 절망감을 느끼기도 했다. 나는 이러한 존재적 부조화에 대해서 오랫동안 상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최근 들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온 대학생들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비평과 담론들의 무게에 서서히 질려가기도 했다. 대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의 순환 속에서, 대학생활과 교육과 관련한 '나의 경험'이 설 수 있는 자리는 찾기 어려웠다. 이처럼 자신의 경험과 사회적 언어가 매끈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이음매에서부터 어긋나 있을 때, 우리는 적절한 언어를 찾아 나서거나 아예 사회적 언어의 지평에 개입하면서 그 흐름을 바꾸고자 노력하게 될 것이다(Butler, 2005).

이미 학부를 졸업한 나조차도 이렇게 어긋남을 느꼈을진대, 나는 과연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은 어떠할까 하는 질문을 피할 수 없었다. 오늘날의 담론 속에서 대학생은 '문제적 존재자'였을 뿐,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동시대인이라는 점에서 '있는 그대로' 경험을 존중 받는 '사람의 얼굴'로 나타나지 않았다. 마침, 연구를 시작할 즈음에 있었던 K대학 사건 때문에 대학교육에 대한 나의 상심은 몇 단계 더 깊어져 갔다. 이 소식은 과거의 상심과 결합하여 '도대체 대학에서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그 이후에 어떻게 연구를 진행했는지는 이미 다루었으므로(Ⅰ장), 이에 대해 반복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다만 나는 이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의 "경험"이 살아갈 수 있는 담론의 '자리'를 만들어내고 싶었다(Butler, 2005). 이에 나는 적절한 이론들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가장 와 닿았던 이론은 하이데거(Heidegger), 메를로-퐁티(Merleau-Ponty), 들뢰즈(Deleuze)에게 영향을 받은 현상학적 존재론이었다.

이 연구를 시작한 중요한 계기 중의 하나는 학술적인 논문의 장에도 대학생들의 '얼굴'이 떠오를 수 있기를 바랐다는 점이었다. 비록 연구 참여자들과 대면 상황 속에서 나누었던 생생한 대화들을 기술하면서 역동적이고 생생한 요소들이 많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각 대학생들의 삶과 되기의 과정이 이해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사회적으로 더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섣부르게 주장하기보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맥락과 이에 대처하는 경험들을 이야기 하고 싶었다. 이를 위한 나름의 방편으로 나는 현상학적 존재론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되기'하는 복잡한 존재론적 양상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특히, 나는 좇기와 찾기라고 하는 지향적인 삶의 운동을 검토함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의 대학생활을 '역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이는 곧 내가 이 연구 내러티브에서 '좇기'와 '찾기'를 중심으로 대학생활 이야기를 주제화해서 다룬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나는 우리가 살핀 주제들이 연구 참여자들이 겪은 대학생활의 존재론적 바탕과 되기의 과정을 어느 정도 표현해 줄 수 있다고 믿었다. 또한 좇기와 찾기는 연구 참여자들이 겪은 고뇌와 어려움, 즐거움과 활력을 함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연구 참여자들이 일상적으로 받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압력'과 이들의 '실존적인 기획투사'를 한 연구 내러티브 안에서

드러낼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다. 요컨대, 좇기와 찾기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복잡한 삶을 일정한 틀을 통해 부족하나마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리고 대학생활의 교육적 가능성은 유토피아처럼 피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여기의 삶에 이미-항상 잠재되어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은 나는 내가 얼마나 '나 중심적인' 연구자인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을 만날 때뿐만 아니라, 연구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 글을 쓰는 과정에서 나는 연구 참여자들의 삶의 반영이 아닌 나의 그림자를 보기 일쑤였다. 연구자의 상심이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와 문제의식과 어우러지는 것이 아니라 덮어버리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함을 천천히, 그러나 뒤늦게 깨달아 갔다. 내가 얼마나 연구 참여자들의 삶을 "더 잘 보고, 더 잘 듣고, 더 잘 느끼는" 연구자였는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연구 과정 속에서, 이 연구는 결국 많은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부터 나는 이 연구의 한계를 나름대로 정리하여 밝히되, 한계를 지적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 연구 이후에 이어지는 새로운 연구의 시작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리 작업해 보려고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도 소위 "상위권" 또는 "명문대"에 재학 중인 연구 참여자들 사이에서 수행되었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오늘날 '일반적인' 한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얼마나 '학벌 상으로 특별한' 위치에 있는가를 이야기하곤 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대개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따라서 학자금 조달 및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만약 비슷한 관점에서 "중위권" 내지는 "하위권" 대학의 재학생들을 연구하거나 "지방대" 학생들을 연구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하다. 또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대학생들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연구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김효진, 2011). 물론 섣불리 대학생들을 범주화 하는 것은 경계해야겠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차이가 쉽게 간과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어 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존재론적 대학교육을 지향하는 연구자라면 연구의 마침표를 찍지 않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연구 관심과 문제가 이동하면서 연구 방법이 거의 전적으로 인터뷰에 의존했다는 한계가 있다. 오늘날 많은 연구에서 인터뷰 방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연구가 더 '질적'이기 위해서는 인터뷰 방법은 물론 현장 자료 수집

과 참여 관찰을 함께 요구한다는 것은 거의 '상식'에 가깝다(조용환, 2004; 2012b). 질적 연구의 상식에 가깝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인터뷰 중심의 방법에 주로 고착되었다는 사실은 연구에 일정한 한계를 더해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할 겸 연구 관계도 유지할 겸 몇 차례 개인적인 자리를 마련해 만난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지만 결코 보완책은 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가 얼마나 과연 '문질빈빈(文質彬彬)'이 잘 되어 있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질적(존재론적) 지평에 얼마나 더 다가섰는지도 확신이 없다(조용환, 2011a). 또한 교육인류학의 한 가지 특성인 '비교문화적 접근'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라는 점도 지적해 두고 싶다. 향후 참여 관찰과 비교문화적 접근이 동반된 대학생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될 수 있다면, 대학생활과 대학생 문화, 대학교육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한층 밝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셋째, 이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대학생활 이야기를 종합하여 해석적으로 다루려는 목적 때문에, 대학생활의 일상적 체험과 연구 참여자 개개인의 실존에는 깊이 있게 천착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두 번째 한계로 언급한 인터뷰 중심의 연구라는 점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나는 현상학적 존재론에 토대를 두고 대학생활 생애사에 주목하되, '좇기'와 '찾기'를 중심으로 이들의 '되기'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냈다. 해석의 과정에서 우리는 특히 '찾기' 지향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교육적인 의미와 가능성을 발견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에 근거를 둔 해석이었다. 이러한 접근은 현존재의 실존에 다가가서 그 양상과 가능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려는 현상학적 존재론의 지향에서 본다면 다소 부족해 보일 수 있다.

손택(Sontag, 1966/2002)은 "진짜 예술에는 우리를 안절부절 못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다. 해석자는 예술작품을 그 내용으로 환원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해석함으로써 길들인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술"을 '실존'이라고 바꾸어서 다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실존은 결코 이야기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는다. 연구 내러티브도 해석 과정에서 '선택된' 이야기일 뿐이다. 그렇기에 손택은 "해석학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술의 성애학(erotics)"이라고 주장한다(Sontag p.35). 우리는 손택의 조언을 받아들여 연구 참여자와의 실존적인 연구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형성하면서 보다 '예술적'인 접근을 통해 표현적이고 실험적인 연구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Denzin, 2001; Denzin & Lincoln, 2011). 예술적 접근은 이야기가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연구 참여자

들의 실존이자 삶의 바탕인 '침묵의 목소리'를 표현한다(Merleau-Ponty, 1960).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 연구 내러티브처럼 '해석적인 재현-텍스트'보다는, '예술적인 표현-텍스트'를 생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연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입을 모아 '대학교육의 불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전히) 남아 있는 '대학교육의 가능성'을 찾아보고 싶었다. 사회적으로 충분히 있는 그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삶과 경험, 그리고 그 다양성을 드러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대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학생들이 세상을 어떻게 느끼고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심을 가져보고자 하였다. 그들의 삶과 문화와 교육, 더 구체적으로는 그들의 배움과 성장의 궤적과 과정을 기록하고 싶었다. 또한 오늘날 대학생활의 교육적 가능성에 대해,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학교육의 가능성에 대해 이해하고 또 의미화 하고 싶었다. 앞에서 나는 '비판'이라는 용어를 가능성 속에서 불가능성을 드러내고, 불가능성 속에서 가능성을 길어내는 작업이라고 언급한 바 있었다. 여기서 나는 후자에 초점을 두었다. 사람들의 삶으로부터 가능성을 길어내고, 여기에 '응답책임'을 지는 방식을 고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문화적 존재로서 대학생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특정한 문화적 양상에 대해 비평할 수도 있다(Marcus & Fischer, 1986).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찾아 대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와 문화적 지향을 비교문화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과 더불어 우리는 새로운 '교육적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으며, '가능성의 교육'을 위한 실천을 할 수도 있다. 나는 이 연구가 이러한 실천의 하나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나는 대학생에 대해 섣불리 비평하기 이전에, '이미-항상' 그리고 '지금-이곳'에 이들의 삶과 경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며 이를 늘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싶다. 그 어떠한 논의를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구성원의 경험이 현실적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경험의 중요성을 빼놓는 것은 이 뒤에 이어지는 모든 주장을 어긋나게 만드는 것이다(Williams, 1961/2007, p.146)." 이를 위해서는 이야기를 통해 표현된 특정한 현실성은 물론, 드러나지 않고 함축되거나 침묵하고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더불어 얽혀 있는 실존적인 삶의 주름에 예민하게 주목하고 느끼는 '감각'을 열어 둘 필요가 있다(Merleau-Ponty, 1960).

대학생이 아닌 사람들이라도, 누구나 '좇기'와 '찾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고,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나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이 대학생들의 경험에도 살아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즉, '그들'의 삶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기도 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우리가 겪는 경험의 다양성, 그리고 그 다양성이 발생하는 존재론적 기반에 대해 사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사람들의 경험을 그 자체로 존중하되, 교육학을 비롯한 여러 이론의 눈과 비교의 관점을 통해 그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새로운 의미와 가능성을 두루 발견하려는 노력은 계속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위기'라는 단어가 일상화된 시대에, 함께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존재론적 지향은 연구자들에게도 긴요한 작업일 것이다.

앞으로도 대학생활은 결코 정돈된 과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대학도, 대학생도, 모두 존재자이자 동시에 존재가능으로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가능성에 열려 있기 때문이다(Barnett, 2007; 2011; Heidegger, 1932). 그렇기에 비록 지금-여기에서 '좇기'가 전경에 나타난 대학생활의 양상이 지배적일지라도, '찾기'는 사라지지 않고 잠재되어 있거나 때로는 억압된 가능성으로 배경에 남아 있을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좇기와 찾기 사이에서, 미리 결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현존재들이다. 단순히 '대학생'이 아니라 삶의 여러 지향과 영역 사이에서 복잡하게, 때론 모순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이를 간과하는 것은, 대학생들을 구조나 담론의 '마리오네트'로 그려내어 대상화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들의 삶을 가능성과 잠재력의 너른 지평 위에서 이해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 결국 서론에서 인용한 것처럼 대학에 "꿈을 찾아 들어온 사람도 있다는 걸 기억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실존적인 목소리를 배제하게 될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존적인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대학생들의 삶에 대해 "더 잘 보고, 더 잘 듣고, 더 잘 느끼는" 방법을 깨달아 가야 하지 않을까? 또한 대학생들과 교육적 '대화'를 시도하면서 이에 '응답책임(respons-ibility)'을 질 의무가 있지 않을까?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학생들의 삶과 대학교육의 전통이 만나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좇기와 찾기 사이에서' 교육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세계-로의-존재로서 '가르치고 배우는(柄谷行人, 1986)' 삶들이 한 데 모여 새로운 교육의 주름을 생성하면서, 메를로-퐁티의 말을 바꾸자면 '세계-로의-대학'의 지평을 열어가는 배움-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이 존재론적 대학교육의 지평을 조금이나마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

참고문헌

구연상 (2011). 하이데거의 존재물음에 대한 강의. 서울: 채륜.

김기석 (2012). 한국 고등교육의 교육사회학적 이해: 연구 성과 검토와 미래 전망. 교육사회학연구, 22(4), 25-49.

김안나 (2005). 세계화에 따른 고등교육정책의 변화와 대학의 갈등.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p.91-109). 서울: 한국교육정치학회.

_____ (2011). 고등교육사회학. 서울: 학지사.

김 원 (2011). 잊혀진 것들에 대한 기억: 1980년대 대학의 하위문화와 대중정치. 서울: 이매진.

김영철 (1986). 한국 대학생의 문화화 과정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김예슬 (2010). 김예슬 선언: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 서울: 느린걸음.

김은아 (2009). 대학생들의 수업 참여와 교육적 관계에 대한 질적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김현경 (2008). 민중에 대한 빚: 브나로드 운동의 재조명. 언론과 사회, 16(3), 50-91.

김효진 (2011). 신자유주의적 상황 아래 대학생의 연애와 생애기획: 저소득층 '명문대생' 사례를 중심으로. 미출간 석사학위 청구논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_____ (2012). 서울 대학가 저소득층 대학생의 연애. 도시인문학연구, 4(1), 175-216.

나윤경·권인숙 (2010). 신자유주의적 주체, 한국 대학생들의 선후배 관계에 대한 비판과 성찰. 평생교육학연구, 16(2), 117-144.

남미자 (2013). 초원을 달릴 수 없는 경주마: 대학생들의 취업에 관한 내러티브. 교육인류학연구, 16(2), 155-192.

문수현·박은하·원소정·최은정·홍지선 (2010). 이십대 전반전: 불안을 강요하는 세상에 던지는 옐로카드. 서울: 골든에이지.

박소진 (2010). 한국 사회 문화 재인식과 세계 속 자기 정체성 찾기: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 동기와 경험. 비교한국학, 18(1), 217-262.

박종흡 (1999). 신입생의 대학문화 형성 과정에 대한 분석 연구. 학생연구, 27, 167-192.

백소영·엄기호 외 (2011). 잉여의 시선으로 본 공공성의 인문학: 위기의 지구화 시대 청(소)년이 사는 법. 서울: 이파르.

변기용·이석열·김수홍 (2010). 한국 고등교육 정책연구의 동향 분석: 연구주제 및 연

구자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1(1), 121-145.
서근원 (2007). 교육학으로서의 교육인류학 탐색. 교육인류학연구, 10(2), 1-40.
서덕희 (2009). 문화와 교육 개념의 실존성: '살아있는' 교육인류학을 위한 소고. 교육인류학연구, 12(2), p.1-44.
서덕희·민혜리 (2009). 고등교육에서 질적 수월성이란 무엇인가?: 한 명문대학교 학부생들의 "공부"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0(2), 51-101.
서동진 (2009).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서울: 돌베개.
서보명 (2011). 대학의 몰락: 자본에 함몰된 대학에 대한 성찰. 서울: 동연.
송호근 외 (2010). 위기의 청년 세대: 출구를 찾다. 서울: 나남.
신정철·정지선·김양선·박은경 (2008). 고등교육의 학문적 연구 동향 분석: 연구주제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35(3), 167-193.
신현정 (2012). 전문대학생의 삶과 앎, 그 체험적 구성: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15(1), 187-227.
엄기호 (2010).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서울: 푸른숲.
_____ (2011). 우리가 잘못 산 게 아니었어.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오성철 (2000). 식민지 초등 교육의 형성. 서울: 교육과학사.
우석훈·박권일 (2007). 88만원 세대: 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 서울: 레디앙.
이규일 (2010). 호랑이 대학 신입생들의 대학 문화 경험 과정. 한국교육인류학회·한국다문화교육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pp.241-258). 서울: 한국교육인류학회.
이규호 (2006). 청년실업시대, 대학생들의 불안과 인적자본의 기획 그리고 글로벌 교육산업에 대한 연구: 말레이시아 유학 사례를 중심으로. 미출간 석사학위 청구논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이기상 (2003). 이 땅에서 우리말로 철학하기. 서울: 살림.
이기상·구연상 (1998). <존재와 시간> 용어해설. 서울: 까치.
이남인 (2004). 현상학과 해석학: 후썰의 초월론적 현상학과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_____ (2008). 후설의 현상학과 현대철학. 서울: 풀빛미디어.
이민경 (2008). 대학생들의 교육경험 담론 분석: 입시교육과 진로경험의 의미화를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31, 79-102.
이새암 (2010). 사범대학 학생들의 삶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3(1), 95-129.
이정희·안영진 (2007). 만학도의 대학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3(3), 89-116.
장덕진 (2010). 행복해도 괜찮아: 학생들에게 주는 교육사회학. 송호근 외 (2010). 위기의 청년 세대: 출구를 찾다 (pp.43-108). 서울: 나남.

장상호 (2005). 학문과 교육 (중-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_____ (2009a). 학문과 교육 (중-Ⅱ).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_____ (2009b). 학문과 교육 (중-Ⅲ).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장성연 (2013).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출신 대기업 입사자들의 스펙쌓기 경험에 관한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청구논문,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전상진·정주훈 (2006). 한국 후기 청소년 세대의 발달경로와 성장유형. 한국사회학, 40(6), 261-285.
정향진 (2008). 문화적 과정으로서의 교육: 교육인류학을 위한 비판적 고찰. 교육인류학연구, 11(1), 73-105.
조문영 (2012). 중첩된 시간성과 벌이는 협상: 중국 동북지역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속물성에 대한 인류학적 변명. 한국문화인류학, 45(2), 37-76.
조용환 (1995). 대학교육의 의미와 기능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여대생들의 '홀로서기'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3(5), 163-191.
_____ (1997). 사회화와 교육: 부족사회 문화전승 과정의 교육학적 재검토. 서울: 교육과학사.
_____ (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_____ (2001a) 교육적 존재론. 교육인류학소식, 7(1), 1-2.
_____ (2001b). 문화와 교육의 갈등-상생관계. 교육인류학연구, 4(2), 1-27.
_____ (2004). 질적 연구와 질적 교육. 교육인류학연구, 7(2), 55-75.
_____ (2007). 다문화교육의 의미와 과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편). 다문화 사회의 이해 (pp.226-261). 서울: 동녘.
_____ (2009). 고등학생의 학업생활과 문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RR 2009-08-2).
_____ (2011a). 다문화교육의 교육인류학적 검토와 존재론적 모색. 교육인류학연구, 14(3), 1-29.
_____ (2011b). 질적 연구 논문의 작성과 평가.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_____ (2012a). 교육의 본질에서 본 공교육 개혁의 의미: 본질적인 개선을 위한 고투. 새로운 공교육의 이해와 실천 연수 자료집 (pp.18-34).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_____ (2012b). 교육인류학과 질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5(2), 1-22.
조용환·윤여각·이혁규 (2009). 문화와 교육.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조한혜정 (1997). 대학과 학생문화. 연세대학교 제33회 교직원 수양회 발제 원고. 미출간 자료. (http://chohanlab.net/?document_srl=1488)
_____ (2000). 학교를 찾는 아이, 아이를 찾는 사회. 서울: 또하나의문화.
_____ (2011a). 글로벌 초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한국 대학생의 딜레마와 대학. 미

간행 원고.
_____ (2011b). 후기 근대의 청년, 비물질노동, 그리고 사회적 경제. 2010서울청소년창의서밋 자료집 (pp.228-242).
주형일 (2010). 지방대에 대한 타자화 담론의 주관적 수용의 문제: 자기 민속지학 방법의 적용. 미디어, 젠더 & 문화, 13, 75-113.
지주형 (2011).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서울: 책세상.
천혜정 (2005). 여대생의 체험을 통해 본 이성교제의 의미. 가족과 문화, 17(3), 19-48.
최선주·한승희·이병훈·이정희·장성연 (2012). 시험형 인간으로 살아가기: 입시경쟁체제에서 형성된 아비투스가 추동하는 삶. 아시아교육연구, 13(1), 73-103.
한윤형 (2013).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 청년논객 한윤형의 잉여탐구생활. 서울: 어크로스.
한윤형·최태섭·김정근 (2011).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새로운 명령.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柄谷行人 (1986). 探究 I. 송태욱 옮김 (1998). 탐구 I. 서울: 새물결.
馬越徹 (1997). 韓国近代大学の成立と展開. 한용진 (2002). 한국 근대대학의 성립과 전개. 서울: 교육과학사.
Abelmann, Nancy (2009). *The Intimate University: Korean American Students and Problems of Segregatio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Abelmann, Nancy, Park, So Jin & Kim, Hyunmee (2009). College rank and neo-liberal subjectivity in Seoul Korea: the burden of self-development. *Inter-Asia Cultural Studies*, *10*(2), 229-247.
Apple, Michael W. (2001). Comparing Neo-liberal Projects and Inequality in Education. *Comparative Education*, *37*(4), 409-423.
Arendt, Hannah (1958). *The Human Condition*. 이진우·태정호 옮김 (1996). 인간의 조건. 서울: 한길사.
Arnett, Jefferey J. (1998). Learning to Stand Alone: The Contemporary American Transition to Adulthood in Cultural and Historical Context. *Human Development*, *41*, 295-315.
_____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Atkinson, Robert (2006). The Life Story Interview as a Bridge in Narrative Inquiry. In Clandinin, D. Jean (ed.). *The Handbook of Narrative Inquiry: Mapping a Methodology* (pp.224-245).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Atkinson, Robert & Silverman, David (2006). Kundera's Immortality: The Interview Society and the Invention of the Self. Atkinson, R. & Delamont, S. (eds).

Narrative Methods: Narrative Applications (Vol II, pp.1-25). NY: Sage Publications.

Barnett, Ronald (2007). *A Will to Learn: Being a Student in an Age of Uncertainty*. Berkshire: Open University Press.

_____ (2011). *Being a University*. 이지헌 옮김 (2011). 대학은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서울: 학이당.

Batchelor, Denise C. (2006). Vulnerable Voice: An examination of the concept of vulnerability in relations to student voice.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38*(6), 787-800.

Bauman, Zygmunt (2000). *Liquid Modernity*. 이일수 옮김 (2005). 액체근대. 서울: 강.

_____ (2007). *Modus Vivendi: Inferno e Utopia del Mondo Liquido*. 한상석 옮김 (2010). 모두스 비벤디: 유동하는 세계의 지옥과 유토피아. 서울: 후마니타스.

_____ (2009). Education in the Liquid-Modern Setting. Keynote Address Manuscript of 'Discourse, Power Resistance: Power and the Academy'.

Blum, Susan (2009). *My word!: Plagiarism and college cultur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Bollnow, Otto F. (1983). *Anthropologische Pädagogik*. 한상진 옮김 (2006). 인간학적 교육학. 파주: 양서원.

Bourdieu, Pierre (1995). 정일준 (편역).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서울: 새물결.

Braidotti, Rosi (1994). *Nomadic Subjects: Embodiment and Sexual Difference in Contemporary Feminist Theory*. 박미선 옮김 (2004). 유목적 주체: 우리시대 페미니즘 이론에서 체현과 성차의 문제. 서울: 여이연.

Butler, Judith (2005). *Giving an Account of Oneself*.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Callinicos, Alex (2006). *Universities in a Neoliberal World*. London: Bookmarks Publication.

Cannella, Gaile S. & Lincoln, Yvonna S. (2011). Ethics, Research Regulations, and Critical Social Science. In Denzin, Norman K. & Lincoln, Yvonna S. (e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4th ed.) (pp.81-90).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Inc.

Christians, Clifford G. (2011). Ethics and Politics in Qualitative Research. In Denzin, Norman K. & Lincoln, Yvonna S. (e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4th ed.) (pp.61-80).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Inc.

Clark/Keefe, Kelly (2012). Becoming artist, becoming educated, becoming undone: toward a nomadic perspective of college student identity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Studies in Education*, ahead-of-print, 1-25.

Clifford, James (1986). Introduction: Partial Truths. In Clifford, James & Marcus, George (eds.). *Writing Culture: The Poetics and Politics of Ethnography* (pp.1-26).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ole, Jennifer (2005). The Jaombilo of Tamatave(Madagascar), 1992-2004: Reflections on youth and globalization. *Journal of Social History*, *38*(4), 891-914.

Crapanzano, Vincent (2004). *Imaginative Horizons: An Essay in Literary-Philosophical Anthropolog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Dall'Alba, Gloria & Barnacle, Robyn (2007). An ontological turn for higher education. *Studies in Higher Education*, *32*(6), 679-691.

de Certeau, Michel (1984).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eleuze, Gilles (1964). *Proust et les signes*. 서동욱·이충민 옮김 (1997). 프루스트와 기호들. 서울: 민음사.

_____ (1968). *Différence et répétition*. 김상환 옮김 (2004). 차이와 반복. 서울: 민음사.

_____ (1980).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Vol. 2). 김재인 옮김 (2001). 천개의 고원. 서울: 새물결.

_____ (1988). *Le Pli. Leibniz et le Baroque*. 이찬웅 옮김 (2010). 주름, 라이프니츠와 바로크. 서울: 문학과지성사.

_____ (1996). L'actuel et le virtuel. 박정태 편역 (2007). 현실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생성과 창조의 철학사 (pp. 518-525). 서울: 이학사.

Denzin, Norman (2001). The reflexive interview and a performative social science. *Qualitative Research*, *1*(1), 23-46.

Denzin, Norman & Lincoln, Yvonna (2011). Introduction: The Discipline and Practice of Qualitative Research. Denzin, Norman & Lincoln, Yvonna (eds.) (2011).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4th ed.) (pp.1-20).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Desjarlais, Robert & Throop, C. Jason (2011). Phenomenological Approaches in Anthropolog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40*, 87-102.

Dewey, John (1934). *Art as Experience*. 이재언 옮김 (2013). 경험으로서의 예술. 서울: 책세상.

_____ (1938). *Experience and Education*. 강윤중 옮김 (1995). 경험과 교육. 서울: 배영사.

Ecclestone, K., Biesta, G. & Hughes, Martin (eds.) (2010). *Transitions and Learning through the Lifecourse*. London: Routledge.

Eisenhart, M. (1990). Learning to Romance: Cultural Acquisition in College. *Anthropology of Education Quarterly*, *21*(1), 19-40.

Fromm, Erich (1976). *To Have or To Be*. 차경아 옮김 (1996). 소유냐 존재냐. 서울: 까치글방.

Foucault, Michel (1999). *Remarks on Marx*. 이승철 옮김 (2004). 푸코의 맑스. 서울: 갈무리.

_____ (2001). *L'Herméneutique du Sujet: Cours au Collège de France 1981~1982*. 심세광 옮김 (2009). 주체의 해석학: 1981-1982,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의 강의. 서울: 동문선.

Gadamer, Hans-Georg (1960). *Wahrheit and Methode*. 임홍배 옮김 (2012). 진리와 방법: 철학적 해석학의 기본 특징들 (Vol. 2). 서울: 문학동네.

Giroux, Henry (2013). 이승렬 옮김. 사라지는 지식인: 공적 가치의 쇠퇴와 대학의 위기. 녹색평론, 130호, 120-137.

Graber, David (2011). *Debt: The First 5000 Years*. 정명진 옮김 (2011). 부채, 그 첫 5000년. 서울: 부글북스.

Grant, Carl. A. & Portera, Agostino (eds) (2011). *Intercultural and Multicultural Education: Enhancing Global Interconnectedness*. New York: Routledge.

Han, Byung-Chul (2009). *Duft der Zeit*. 김태환 옮김 (2013). 시간의 향기. 서울: 문학과지성사.

_____ (2010). *Müdigkeitsgesellschaft*. 김태환 옮김 (2012). 피로사회. 서울: 문학과지성사.

Heidegger, Martin (1932). *Sein und Zeit*. 이기상 옮김 (1998). 존재와 시간. 서울: 까치.

_____ (1945). Heidegger on the Art of Teaching (excerpt from the transcript of the deposition of professor Dr. Martin Heidegger, submitted before the committee on de-nazification of the Albert Ludwig University, Freiburg Im Breisgau, July 23, 1945). Allen, Valerie & Axiotis, Ares D. (eds. & trans.) (2002). *Heidegger, Education, and Modernity* (pp.27-46).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ing Group.

_____ (1977). *The Question Concerning Technology and Other Essays*. Lovitt, W. (trans.). New York: Harper & Row.

Holland, Dorothy & Eisenhart, Margaret (1990). *Educated in romance : women, achievement, and college cul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orowitz, Helen L. (1987). *Campus Life: Undergraduate Cultures from the End of the Eighteenth Century to the Pres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Illich, Ivan, (1970). *Deschooling society*. 박홍규 옮김 (2009). 학교 없는 사회. 서울: 생

각의 나무.

Jeffrey, Craig (2010). Timepass: Youth, class, and time among unemployed young men in India. *American Ethnologist*, *37*(3), 465-481.

Kaneko, Sachiko (2006). Japan's 'socially withdrawn youths' and time constraints in Japanese society: Management and conceptualization of time in a support group for 'hikikomori'. *Time & Society*, *15*(2/3), 233-249.

Kang, Dae Joong (2007). Rhizoactivity: Toward a Postmodern Theory of Lifelong Learning. *Adult Education Quarterly*, *57*(3), 205-220.

Kierkegaard, Søren (1981). *The Concept of Anxiety: A Simple Psychologically Orienting Deliberation on the Dogmatic Issue of Hereditary Sin*. Thomte, Reider (Ed.). Princeton University.

Klein, Hugh (1990). Adolescence, Youth, and Young Adulthood: Rethinking Current Conceptualization of Life Stage. *Youth & Society*, *21*(4), 446-471.

Lazzarato, Maurizio (2004). From Capital-Labour to Capital-Life. *Ephemera*, *4*(3), 187-208.

_____ (2011). *La Fabrique de L'Homme Endetté, Essai sur La Condition Néolibérale*. 허경·양진성 옮김 (2012). 부채인간: 채무자를 만들어내는 사회. 서울: 메디치.

Levine, A. & Cureton, J. (1998). *When Hope and Fear Collide: A Portrait of Today's College Student*. San Francisco: Jossey-Bass.

Mains, Daniel (2007). Neoliberal times: Progress, boredom, and shame among the young men in urban Ethiopia. *American Ethnologist*, *34*(4), 659-673.

Manning, Kathleen. (2000). *Ritual, ceremonies, and cultural meaning in higher education*. London: Bergin & Garvey.

Markus, G. & Fischer, M. (1986). *Anthropology as Cultural Critique: An Experimental Moment of Human Science*. 유철인 옮김 (2005). 인류학과 문화비평. 서울: 아카넷.

McNeely, Ian F. & Wolverton, Lisa (2008). *Reinventing Knowledge*. 채세진 옮김 (2009). 지식의 재탄생: 공간으로 보는 지식의 역사. 서울: 살림.

Merleau-Ponty, Maurice (1945).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류의근 옮김 (2002). 지각의 현상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_____ (1960). *Les language indirects of the title, signes*. 김화자 옮김 (2005). 간접적인 언어와 침묵의 목소리. 서울: 책세상.

Moffatt, M. (2001). College Life: Undergraduate Culture and Higher Educatio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2*(1), 44-61.

_____ (2010). *Coming of Age in New Jersey: College and American Culture*.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Nathan, R. (2005). *My Freshman Year: What a Professor Learned by Becoming a Student*. 심계순 옮김 (2006). 미국의 대학생은 지금. 서울: 다산 미디어.

Ochs, Elinor & Capps, Lisa (1996). Narrating the Self.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5*, 19-43.

Osberg, Deborah (2009). "Enlarging the space of the possible" around what it means to educate and be educated. *Complicit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lexity and Education*, *6*(1), iii-x.

Palmer, Richard E. (1969). *Hermeneutics: Interpretation Theory in Schleiermacher, Dilthey, Heidegger, Gadamer*. 이한우 옮김 (2011).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문예출판사.

Perlin, Ross (2011). *Intern Nation*. 안진환 옮김 (2012). 청춘 착취자들: 너의 노동력을 공짜로 팔지 마라!. 서울: 사월의 책.

Ralph, Machael (2008). Killing time. *Social Text*, *26*(4), 1-30.

Renn, Kristen A. & Arnold, Karen D. (2003). Reconceptualizing Research on College Student Peer Culture.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4*(3), 261-291.

Ricoeur, Paul (1959). *Le conflit des interprétations: essais d'herméneutique*. 양명수 옮김 (2012). 해석의 갈등. 서울: 한길사.

Rossman, Gretchen B. & Rallis, Sharon F. (2010). Everyday ethics: reflections on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Studies in Education*, *23*(4), 379-391.

Rorty, Richard M. (1989). *Contingency, Irony, and Solidarity*. 김동식·이유선 옮김 (1996). 우연성, 아이러니, 연대성. 서울: 문예출판사.

Saldanã, Johnny (2009). *The Coding Manual for Qualitative Researchers*. London: Sage Publications.

Schostak, John (2006). *Interview and Representation in Qualitative Research*. Berkshire: Open University Press.

Schutz, Alfred (1989). *Die Strukturen der Lebenswelt* (vol. 2). Richard M. Zaner & David J. Parant (trans.). *The Structures of the Life-world* (vol. 2).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Schwandt, Thomas A. (2007). *The SAGE Dictionary of Qualitative Inquiry* (3rd edition). LA: SAGE Publications.

Seaman, Barrett (2005). *Binge: Campus Life in an Age of Disconnection and Excess*.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Semetsky, Inna (2006). *Deleuze, Education and Becoming*. Rotterdam: Sense Publisher.

Sontag, Susan (1966). *Against Interpretation: and other essays*. 이민아 옮김 (2002). 해석

에 반대한다. 서울: 이후.

Stroller, Paul (2009). *The Power of the Between: An Anthropological Odysse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hevenaz, Pierre (1966). *De Husserl à Merleau-ponty: Qu'est-ce que la phénoménologie?*. 이동규 옮김 (2011).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후설에서 메를로-퐁티까지. 서울: 그린비.

Thomson, Iain (2001) Heidegger on Ontological Education, or: How We Become What We Are. *Inquiry: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Philosophy*, *44*(3), 243-268.

Thompson, E. P. (1974). An Open Letter to Leszek Kolakowski. *Socialist Register*, *10*, 1-100.

Tight, Malcolm (2003). *Researching Higher Education*. London: Open University Press.

Turner, Victor (1969) (republished in 2011). *The ritual process: Structure and anti-structure*. New Jersey: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Press.

van Manen, Max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신경림 옮김 (1994). 체험연구. 서울: 동녘.

_____ (2006). Writing Qualitatively, or the Demands of Writing.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6*(5), 713-722.

Varrenn, Hervé (2008). Culture, Education, Anthropology. *Anthropology & Education Quarterly*, *39*(4), 356-368.

Williams, Raymond (1961). *The Long Revolution*. 성은애 옮김 (2007). 기나긴 혁명. 서울: 문학동네.

Willis, Paul (1997). *Learning to Labour*. 김찬호·김영훈 옮김 (2004). 학교와 계급재생산: 반학교문화, 일상, 저항. 서울: 이매진.

_____ (2010). Sym-bolon: Symbol—Action—Context. *Ethnography*, *11*(3), 3-23.

Zhen, Zhang (2000). Mediating time: The "Rice Bowl of Youth" in Fin de Siecle China. *Public Culture*, *12*(1), 93-113.

경향신문 (2011. 5. 11.). 복지국가를 말한다(1부): ② 과부하 걸린 한국의 가족.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5112139085&code=940702.

주간경향 (2013, 제1015호). [표지이야기] '대학교 4년 만에 졸업'이 희귀한 세상.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302251623331&pt=nv.

한국대학신문 (2013. 3. 8.). 대학생 한 달 생활비 38만6000원.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1418.

Abstract

Between 'Following' and 'Seeking':

A Qualitative Research on Educational Possibilities of College Life

Myung, Su-mi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se days, South Korean undergraduates' have been said to be "at risk" or "in trouble" in the era of so-called "neo-liberal" and "descending" society, so their life potentials have largely been ignored. The major aim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contemporary South Korean undergraduates' life, culture, and education through the perspective of phenomenological ontology elaborated by Heidegger, Merleau-Ponty, Deleuze, and so on. For this purpose, I conducted interviews about college life with nine participants several times for each. During the interviews, I tried to pay attention to undergraduates' 'being(*Sein*)' and 'being-possible(*Seinkönnen*)', namely, 'existence', not just their 'problems' they have been struggling to. In other words, I tried to focus on undergraduates' 'being' and 'becoming(*devenir*)' to understand their ontological dynamics. To remain focused, I theorized a dual intentionality—named 'following(*jotkki*)' and 'seeking(*chatkki*)'—influenced from the perspective of phenomenological ontology, and used this theoretical framework to analyze and interpret participants' multiple college life stories.

This paper has three questions: (1) How have undergraduates lived in their respective colleges? (2) How are 'following' and 'seeking' expressed in the themes of college life stories? (3) What are educational meanings of 'following' and 'seeking', and how can we make sense of educational possibilities of college life? With these questions, I have tried to understand the diversity and dynamics of college life, and, in the end, suggest some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contemporary college education.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introduces college life stories of five undergraduate participants—Ji-min, Da-in, Han-gyeol, Yoon-jin, and Min-jeong. These five participants expressed their own college life stories which could be signified in the framework of 'following' and 'seeking' much more multifarious and relevant than other four participants. It is their differences and multiplicities that matter in the first part. They have, naturally, lived their lives in different rhythms and ways. They sometimes have followed diverse life goals, and sought multiple life dreams or values from time to time. They have learnt many things from various relationships and fields. They also have experienced significant transformations over time. I organized and reconstructed their college life stories based on turning points or significant events of their college lives.

The second part of this paper thematizes(*Thematisierung*) and examines college life stories based on the framework of dual intentionality—'following' and 'seeking.' To begin with, I figure out five themes of college life stories about 'following.' The first theme is "mere undergraduate", which expresses the normativity of undergraduates' culture that forces participants to remain 'ordinary' and follow specific, sometimes tacit, cultural rules or norms. The second one is "managing the grades." In general, participants have been pressed for the compressed time doing many activities and alienated in the classroom because of some cultural norms and power relations. For many undergraduates, classes in university are generally considered 'useless' or 'meaningless' in these days. Considering these, participants tend to adopt an efficient tactic, so-called "managing the grades." It has made them

not only follow criteria of evaluation in classes and become passive, but also identify their own "learning" with calculable "grades." The third one is "getting old", related with a culture of 'ageism.' As they get old, they prefer to follow "stable" jobs or life goals rather than to seek their own possibilities or the not-yet-actualized. But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getting old" is fairly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gender. Fourthly, participants tend to worry about the time of "adult." They have embraced the harsh "reality" of "social life" and "work life", recognized as a stern hierarchic system compared to college life. The job market in South Korea has experienced so-called "neo-liberal" adjustments recently, the job stability and the employment rate have been decreased simultaneously. So they have sometimes felt urgent necessities to modify their life attitudes in relatively obedient and submissive ways. The last one is the feeling of "indebtedness." Participants usually have no option but to depend on their parents—either entirely or partly—in regards of tuition fee and living expenses, because the cost of college education has been increased by and large in recent decades. As they try to 'stand-alone' and the graduation becomes imminent, some of them cannot but choose to follow limited careers which guarantee higher and/or more "stable" financial rewards so as to get rid of the feeling of "indebtedness" in part, not to actualize or seek their own possibilities or potentials.

There are five themes of college life stories about 'seeking' as well. The first theme is 'between being separately and together.' The culture of "mere undergraduate" affects participants' sociocultural emotion "loneliness", because it is not meaningful to them on the whole. Thus, they seek incessantly to find new and meaningful relationship network in and out of familiar and established relationships, and try not to settle into a certain comfort relationship network. The second one is the time of "youth(or being young, *Cheong-choon*)." They consider their stage of life course (in their early- and mid-twenties) is the crucial period for exploring and experimenting their life possibilities and potentials. Many of them tend not to pursue a single life path or one-way life, because it is sometimes considered as a fore-

closure of their life potentials. The third theme is "more experiences" or "diverse experiences." They consider an "experience" as a great opportunity to broaden their life horizon and potentials. Intertwined with the time of "youth", many of them think that the period of college life might be the only and significant time for "diverse experiences", in contrast to so-called "social life" or "work life." The fourth theme is "who am I, where am I(*naneun-nu-gu, yeogin-eodi*)." The expression is used as a black humor in participants' everyday life, but it sometimes reveal their ardent wishes for finding their own "place(*ja-ri*)" in the world. The meaning of "place" is plural and multiple. It refers to not only physical and observable places which they consider as valuable or precious, but also human relationship or social positions that they have been in or intend to be in. Their "places" are constructed inter-subjectively, and intertwined deeply and complicatedly with their own 'understand-of-being(*Seinsverständnis*).' The fifth and last theme is 'encountering the "world(*Se-gye*)".' The participants tend never to stay in the boundary of single college campus. They have taken part in "pan-college activities(*Beom-hakkyo-hwaldong*)" or many student exchange programs in their respective college. For many of them, if they are supported emotionally, financially, and institutionally enough, the "world" is acknowledged as a fountainhead of life possibilities or potentials.

The third part of this paper, by interpreting college life stories and their major themes related to 'following' and 'seeking', I manage to illuminate educational possibilities and meanings of contemporary college life in South Korea. In general, participants have lived under pressure of 'following.' They have lived in the shade of "anxiety", which is partly influenced from macro-level situations. As a 'being-in-the-world'(Heidegger) and 'conditioned being'(Arendt), they cannot help living in the influence of contemporary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conditions and contexts. However, they have lived between 'following' and 'seeking', which are inseparable and entangled from each other. As a 'being-toward-the-world'(Merleau-Ponty) and 'conditioning being'(Arendt), they have strived not to be caught entirely by their life

conditions and contexts. Instead, they have tried to broaden and explore their life possibilities or potentials in college life. They have lived not in a single culture but between diverse cultures, so they are in part 'in-between' and 'liminal' beings. In this part, these life possibilities and potentials are re-interpreted as 'educational', because they could be the fountainheads of each participant's experience, learning, growth, and transformation. Based on these interpretations and taking one step forward, I try to examine the educational possibilities of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life and college education. Recently, some scholars and researchers have problematized the identity and purpose of college education, which has undergone serious change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neo-liberalization. They point out that the major features of contemporary college education have become, roughly speaking, more and more 'instrumentalized, vocationalized, and corporatized', or, to put Heidegger's term, 'enframed' in recent decades. In this trend, the 'ontological voices'—which express their being, becoming, and being-possible—of contemporary undergraduates and/or their colleges would be at risk for being silenced and foreclosed easily. I suggest that college education needs to be re-considered and re-constructed in the perspective of 'ontological education.' Research on ontological education is still in its exploratory and emergent stage, but it would be necessary to re-consider and re-examine foundations of college education in the world of change. 'The ontological turn' of college education would request challenging and demanding educational imaginations, but make it possible to discover new and critical educational horizons.

Key Words: college life, college education, phenomenological ontology, ontological education, educational possibility
Student Number: 2010-23542